

2018년도 전공멘토단의 전공 STORY



목 차

□ 전공멘토단은 누구?

□ 인문사회계열

언어·문학	언어학	07
	독일어·문학과	10
	영어·영문학	13
	중국어·문학	24
	기타 아시아어·문학	31
인문학	철학·윤리학	35
	종교학	42
	문화·민속·미술사학	49
법 학	법 학	57
사회과학	심리학	65
	사회학	73
	정치외교학	76
	국제학	79
	아동·가족학	85
	사회복지학	88
	언론·방송·매체학	97
	행정학	116
	인류학	126
경영·경제	경영학	133
	경제학	150
	금융·회계·세무학	154
	무역·유통학	160
	광고홍보학	163
	관광학	167

□ 자연과학계열

화학·생명과학·환경	화학	187
	생명과학	189
	환경학	194
농림·수산	식품가공학	201
생활과학	조리과학	207
	의류·의상학	209
간 호	간호학	215
보 건	보건학	239
	재활치료	248
	보건관리학	251

□ 공학계열

건 설	건축학	261
	건축공학	263
	토목공학	267
	도시공학	270
	환경공학	272
기 계	기계공학	281
	조선·해양공학	301
	항공·우주공학	303
	자동차공학	316
전기·전자·컴퓨터	전자공학	325
	제어계측공학	336
	응용소프트웨어공학	339
	전산학·컴퓨터공학	347
	정보·통신공학	359
재 료	신소재공학	375
	재료공학	380
화공·고분자·에너지	화학공학	385
산업·안전	산업공학	403

CONTENTS

□ 의학계열

의 료	한의학	415
-----	-----	-----

□ 교육계열

유아교육	419
초등교육	427
특수교육	456
교육학	463
중등언어교육	472
중등사회과교육	477
중등자연과학교육	486
중등공학교육	495

□ 예체능계열

무용·체육	체육	503
연극·영화	연극	519
	영화	521
미 술	디자인	527

[부 록]

2019학년도 학과(부) 신설 현황	535
---------------------	-----

※ 2018년도 전공멘토단 중 65개 전공, 217명 학생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전공멘토단의 소속학과와 전공명칭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일부 전공의 경우 모집단위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공멘토단은 누구?

전공멘토단은 학과 및 전공정보 제공, 대학 홍보 등을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담당 부서에서 추천받은 대학생으로, 학과 및 전공을 안내하고 상담할 수 있는 44개 대학, 387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 대교협 등 관련기관에서 진행되는 대입 및 전공 관련 박람회의 전공상담관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홈페이지의 '온라인 전공상담' 게시판에서도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상담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로와 전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사회적인 전공 및 진로체험 지원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정보 습득 및 활용에 대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문사회계열

인문사회계열은 학문의 근간으로 전문 지식을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삶'과 '앎' 그리고 '함'에 대한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함양하고 전수한다. 사회의 여러 현상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모든 경험과학에 그 바탕을 두며, 인간생활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기초학문을 교육 및 연구함으로써 인간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소양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언어·문학
- 인문학
- 법학
- 사회과학
- 경영·경제





언어·문학

언어·문학 영역은 인간의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과 언어를 매체로 하는 예술 활동 및 그 작품을 연구하는 문학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관련 분야로는 언어학,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독일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스페인어·문학, 영어·영문학,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프랑스어·문학, 기타아시아어·문학, 기타유럽어·문학, 교양어·문학 등이 있다.

언어학

독일어·문학

영어·영문학

중국어·문학

기타 아시아어·문학

언어학

언어학 분야는 특정 언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인간의 언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언어의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국어학 같이 특정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언어학과 구별된다. 복잡한 언어의 제반 현상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회관습적 특징을 분석적으로 연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언어현상 그 자체의 해명을 목표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음성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등이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언어학 등이 포함된다.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서민주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장래 희망 중 하나가 카피라이터라서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한 카피를 찾아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꽤 많은 카피를 분석해 본 후 저는 ‘모든 콘텐츠는 텍스트로부터 비롯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좋은 카피를 쓰려면 언어에 관한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문학이 그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학문이라고 판단하여 그것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인상 깊었던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은 시에 대한 애정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그 전까지 시는 해석적 모호함이 주는 난해함으로 어려운 과목일 뿐이었지만 이 작품을 접한 뒤 궁금한 점이 생겼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에 관한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시마다 화자, 상황, 정서 및 태도부터 다양한 관점까지 정리해가며 저만의 시 분석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이 생길 때는 선생님께 여쭙어보기도 하고 참고도서를 찾아보



기도 하며 시에 대한 안목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자 국어 과목에 대해서도 애착이 생겨 문학작품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효율적이었던 공부 방법을 친구들에게 직접 알려주면서 복습하는 효과를 가져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며 교육 봉사 등에서도 자신감을 느끼고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1학년 때 ‘토토즐(토의, 토론은 즐거워) 인성 함양 프로그램 대회’에 팀으로 참가했습니다. 팀 내에서 친구들의 추천과 중학교 시절 반장 경험으로 제가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팀원들과 대회 진행에 필요한 UCC 제작과 발표를 도울 PPT 제작을 위해 역할 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UCC 제작이 어렵다며 타인에게 미웠습니다. 그때, 제가 UCC를 책임지겠다고 하며 “잘할 수 있으면서 해보기도 전에 겁먹지 말자”라는 격려의 말로 팀원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도전해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팀원들도 그런 저를 믿고 하나둘 함께 해주어 UCC와 PPT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저는 한국어문학과 이기에 한국 고전과 그리고 한국의 문화 전반에 대한 독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천도서로는 이번 고전문학새로읽기라는 강의에서도 다루었던 책인데 “심생전”이라는 고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한국어문학과 학회는 2014학년도까지의 국어국문학과 학회와 문예창작학과 학회가 통합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각각 4개, 4개의 총 8개의 학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타 학과 보다 학회가 많기 때문에 배우의 기회는 많으나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거나 더 깊게 배우고 싶은 하는 학회에 가입하여 심도 있는 공부를 하면 학회의 선배들이나 문화원 선생님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 1) 교육계: 교수, 국어 교사, 한국어 교사, 독서논술 교사, 문예 교육 지도사 등. 학과 전체 인원 중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학생들도 교육 대학원 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육계로 갈 수 있습니다.
- 2) 문예 창작계: 시인, 소설과, 극작가, 평론가, 다큐 작가 등

3) 미디어계: 드라마 및 시나리오 작가, 편집자, 마케터, 게임 시나리오 창작 및 제작 등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 국어교사 2급 자격증: 학과 전체 인원 중에 성적으로 상위 10%에 해당 하는 학생들이 교직이수과정을 마쳤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기존의 국어 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체적인 언어 능력의 평가를 통해 국어 능력을 신장시켜 평생 학습의 단계로 인식시키고자 개발된 시험입니다.
- 문예 교육 지도사
- 독서·논술 지도사
- 문화 예술 기획사
- KBS 한국어 능력시험: 국어를 정확하고 교양 있게 말하며 듣고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여 언어 교양, 곧 국어 교양을 높여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시험입니다.
-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 동포들이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열심히 노력한 자에게는 그 만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시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열심히 도전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독일어·문학과

독일어·문학 분야는 독일어 습득과 아울러 독일어권인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지의 문학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독일어권 국가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 이 나라들과의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독일어 어학과 문학 분야로 나뉜다. 어학분야에서는 독어학의 이해, 독일어의 구조, 독일어발달사 등을 통해 언어적 체계를 익히며, 문학 분야에서는 독문학개론, 독일문예사조, 독문학작품강독 등을 통해 독문학 전반에 대해 연구한다.

송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박민애



□ 독어독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중학생 시절부터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축구를 가장 좋아합니다. 국내 축구뿐만 아니라 해외축구도 즐겨보는데 가장 좋아하는 축구리그는 독일 축구리그인 분데스리(Bundesliga)가 입니다. 두 가지의 꿈을 가지고 “독어독문학과에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첫 번째 꿈은 자막 없이 독일어로 된 중계를 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독일어를 열심히 배워서 독일에서 축구관련 직업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굉장히 재미있게 배웠는데 그때의 경험이 제가 독어독문학과에 지원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 독어독문학과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저는 다양한 입시전형을 준비했었습니다. 수시로는 논술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정시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노력했던 점은 내가 정말 독어독문학과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관련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독어독문학과에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이후로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과 독일어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으로 소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 소모임에서는 독일어 관련 스터디, 독일 문화, 정치 상황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독일의 재통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던 활동입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에는 입시 자료를 모아둔 특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곳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제가 필요한 모든 자료는 찾을 수 없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직접 해당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모집요강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직접 보내주기도 해서 그 방법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한 담임선생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큰 어려움 없이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었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고등학교 시절 써왔던 일기장입니다. 저는 매일 한 줄이라도 일기를 쓰기위해 노력했습니다. 3년 동안 썼던 일기장은 내가 이때 이런 활동을 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 것 같나요?

제가 합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꼭 맞는 전형을 찾았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조금은 독특한 독어독문학과를 지원한 이유와 학교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인 것을 면접관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 독어독문학과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고교 교과목에 제 2외국어 중 독일어가 있다면 독일어를 배워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물론 대학교에 독일어의 기초도 모르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더 많지만 공부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독일어를 경험해 볼 수 있다면 독일어가 정말 나에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 없이 대학에 와서도 본인의 전공에 매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천도서로는 '먼나라 이웃나라-독일편'을 추천합니다. 아마 많은 학생이 읽어봤을 수 있는데 독일 전반적인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독어독문학과 교양 수업을 들었을 때 이 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고,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요?

독어독문학과라고 해서 독일어만 배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독일어도 물론 배우기도 하지만 독일 문학, 독일어권 나라의 문화, 정치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수업은 문학 수업인데 현재 유행하고 있는 마블의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아스가르드, 토르



같은 세계관이 북구 신화의 모티브로 탄생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더 흥미를 가지고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는 글로벌한 시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독어독문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소개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독일어 굉장히 발음 무섭지 않아요?”입니다. sns에 나라별 발음 비교라는 영상에서 독일어가 다른 언어와 달리 강하고 싸우는 듯한 발음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일어도 굉장히 부드러울 수 있고 매력적인 언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 학교, 학과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과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은 편입니다. 내가 다녀온 Sommer Schule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름방학 때 독일로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게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2학년 여름방학에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 독일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자극을 많이 받아서 온 것 같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과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많은 고등학생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힘든 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가기 마련인데 미래에 내가 그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후회로 남겨질지 좋았던 추억으로 남겨질지는 본인의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미래에 내가 후회하지 않는 고등학교 시절을 위해서 조금만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영문학

영어·영문학 분야는 영어권문학과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영어권의 문화와 정신을 탐구하고 세계화 시대의 대표적인 의사소통 수단인 영어에 대한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영어권문학 분야, 영어를 대상으로 한 언어학 분야, 전문영어 분야로 나뉜다. 문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소설과 희곡, 시, 비평이론을 연구하고, 어학 분야에서는 영어를 대상으로 한 음성 음운론, 구문론, 의미론 등의 언어적 체계를 익히며, 전문영어 분야에서는 영어회화와 작문, 영어토론을 통해 보다 실용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영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가톨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이지원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영어를 능숙하게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는 것에 누구보다 흥미를 느꼈고, 이는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영어 교과목에서 더 나아가 팝송, 영화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어를 더 즐겁게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영시를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영어 교과서로는 배울 수 없었던 영문학만의 표현을 접하면서 다양한 영문학 작품을 통해 영어라는 언어에 지금보다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영어라는 언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워나가고 싶다는 학문적 욕구로 이어졌고, 지금 현재 영어영문학부에서 영문학을 배워나가는 저의 모습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학과입학을 위해 준비한 전형을 무엇인가요? 고교 재학시절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하며 정시보다는 수시에 집중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영어와 관련된 활동들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영어독서동아리에 가입하여 영어 원서 책을 읽고 간단한 에세이를 쓰는 활동을 하였고, 교내에서 매년 개최되는 영어 골든벨 대회에도 꾸준히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 남들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 시작했던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바로 편지번역봉사였습니다. 단순한 편지 번역 봉사가 아닌 NGO단체를 통해 후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과 후원자 사이의 편지를 번역하는 활동이었습니다. 편지를 번역하면서 영어를 보다 매끄럽게 해석하는 법을 익힘과 동시에 편지에서 느껴지는 아이들의 행복함과 고마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보람 또한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기에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봉사활동이기도 합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저의 별명은 '걸어 다니는 수시책자'였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및 교과전형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다보니 정말 많은 학교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요소 및 반영비율 등의 정보들을 로봇처럼 외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 각 대학별로 모집요강을 살펴보다가 이러한 평가요소는 친구에게 더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친구에게 가서 이 대학을 추천해주는 등 저 뿐만이 아닌, 다른 친구들의 대학 입시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모으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은 남이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가야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공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로 학생부를 만들어나갔다면, 고등학교 3학년은 지금껏 준비해온 학생부를 가지고 어떤 대학들을 지원해 나갈지를 파악해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누구보다 최대한 많은 대학의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여 저에게 딱 맞는 학교를 찾아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 무엇을 배우나요?

가톨릭대학교 영어영문학부는 다른 많은 학교들과는 달리 학과제가 아닌 트랙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미권 국가의 소설, 시, 희곡 등의 문학 작품을 중점으로 배우는 영어영문학전공 트랙과 영미권 국가의 문화 이해를 중점으로 하는 영어영미문화전공 트랙입니다. 두 전공 트랙 모두 영문법, 회화, 에세이 등의 영어 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 과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택은 배우고 싶은 학문이 문학인지, 문화인지에 따라 학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 가지 트랙을 선택한다고 해서 나머지 트랙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영어영문학전공 트랙이더라도 문학을 중점으로 배우되, 문화 수업도 함께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우선 영어영문학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영어 교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배우는 기초과목들을 수강할 때는 이전에 공부해왔던 영문법, 단어 등의 영어 관련 지식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어 교과목은 꾸준히 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바로 문학입니다. 특히 영시를 배우면서 작가의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 각종 문학적 표현 및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우리가 국문학 작품의 시들을 배울 때에 이루어지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때문에 영문학 수업을 보다 수월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 교과목에서 배운 지식들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서는 꼭 영어 원서로 된 책이 아니어도 번역판 영문학 소설들을 많이 읽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는 폭풍의 언덕, 오만과 편견, 위대한 개츠비 등의 영문학 소설들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작가들의 시대배경과 그것이 작품에 미치게 된 영향 등 작품을 넓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까지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했을 시 전공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전 지식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하려면 무조건 영어를 잘해야겠죠?’ 제가 대학을 지원할 때도, 그리고 현재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남들보다 영어 실력이 월등히 뛰어난 학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높은 열정을 가지고 전공 공부에 임하였고, 그 결과 2학년 때 학과 1등이라는 성적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태도’ 라고 생각합니다. 영문학이라는 학문을 중심으로 영어를 배우고 싶었던 저에게 전공과목은 굉장히 즐겁게 다가왔습니다. 이 때문에 더 열심히 전공 공부에 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하기 이전에 영문학 및 영미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주저 말고 영어영문학과에서 그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 수험생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고등학교 3학년, 이 시기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때만큼 걱정이 많고 불안한 때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준비해온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나가는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3년 동안 자기 자신이 준비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길을 잘 개척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혀서 좌절을 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꼭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광운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재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 인종의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세계공용어인 영어가 필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승무원의 꿈은 서서히 사라졌지만 그 동안 영어공부를 한 덕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준비할 때 영어를 학문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를 학문으로 체계적으로 배운다면 저의 영어실력은 완벽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만큼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영어라는 무기를 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영문학과에서 영어 자체뿐만 아니라 영미문화를 배운다는 것을 듣고 영어와 문화를 배우게 되면 저의 어렸을 적 꿈인 승무원이 되는 길에도 가까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먼저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영어특기자 전형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수시를 준비한 방법이 남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 토익고득점을 달성하기 위해 토익문제를 주구장창 풀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목표점수를 달성하고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 준비를 시작을 하였는데 자기소개서 쓰는데 많이 애를 먹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성실하고 바른 학생처럼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하며 썼는데 다 쓰고 읽어보니 자기소개서의 비취진 저는 진짜 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담당선생님께 첨삭을 요청했더니 선생님께서도 너무 꾸민 티가 많이 난다고 다시 처음부터 쓰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쓸 때에는 정말 솔직하게 저의 경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두번째 자소서도 훨씬 좋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너무 저의 경험을 줄줄이 나열만 해놨다고 경험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지 또 지금의 모습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토대로 경험보다 느낀 점, 발전한 점을 구체적으로 썼더니 그제서야 저만의 자소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시1차에 합격을 하였고 그 다음은 면접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1차합격하고 바로 일주일 뒤가 면접이어서 준비기간이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마다 자소서 문제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저의 답변도 다르기 때문에 광운대학교에 넣은 자소서를 완벽히 숙지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소서를 읽으면서 면접관님이 무엇을 궁금해 하실지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보았습니

다. 다행히도 실제 면접에서 제가 미리 준비한 질문이 나와서 연습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저를 그대로 표현했던 솔직한 자소서와 면접 때 수많은 연습을 통해 준비된 답변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광운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광운대학교 영어영문학과는 교과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와 관련된 창작Lab이 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영어를 더욱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창작랩에는 영어문화 콘텐츠, 영어번역, 영어교육, 빅데이터를 이용한 코퍼스 분석 등이 있습니다. 광운대 영어영문학과는 문과에만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추어 그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모임도 체계적으로 되어있어서 졸업생들과의 네트워크 또한 탄탄하게 형성되어있습니다.

입학 전에는 사실 광운대가 공대 즉 이과로 유명한 학교라고 들어서 문과 메리트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IT와 합쳐져서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SCSC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문과학생들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c프로그래밍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또한 나중에 취업할 때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입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진로는 타 학과에 비해 다양한 것이 특징입니다. 영어의 능숙한 구사가 필수적인 무역회사, 외국인기업, 영어교육산업 등에 종사할 수 있고 문화계, 언론계, 출판업계 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구문화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능숙한 영어구사력을 바탕으로 번역, 통역, 관광, 항공 분야나 외교직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관련학과 출신의 인사들이 학술계, 문화계, 기업체, 교육계, 금융계, 외교직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볼 때, 영어영문학과 졸업생의 진로와 전망은 무척 밝다고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최윤화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슬럼프에 빠져있었던 저는 노경원 작가님의 '늦지 않았어 지금 시작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작가님의 학창시절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조했던 성적을 올려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갈 수 있었던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매우 감명을 받았던 저는 작가님의 근황을 찾게 되었고 외국항공사에서 승무원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문화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그 직업이 어떤 것인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항공사 승무원이 하는 일과 똑같지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게 여겨져 저는 '외국 항공사 승무원'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이라 하면 관광 계열 학과를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과목 중에서도 영어가 좋았고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더 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꿈 또한 외국기업에서 일하는 것이기에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고 영어권 나라의 문화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영어선생님과 멘토링을 하면서도 영어에 대해 관심이 깊어진 것이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들로 영어영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주로 동아리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내 봉사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으로 진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고 현재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동아리에서는 복지관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독거노인 분들의 말벗을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이 민망했고 어색했지만 저의 친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먼저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살갑게 대해주셔서 나중에는 저도 어르신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저는 봉사라는 것이 내가 타인에게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 또한 그들에게서 교훈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저로 인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동아리입니다. '자율동아리'라고 하여 학생들이 자율로 만들 수 있는 동아리 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에 관심이 있고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과 함께 영어자율동아리를 만들게 되었고 부장을 맡아 매달 영어에 관련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영어로 된 강연을 보고 감상문을 쓰거나, 영시, 시사영어 등을 보고 부원들끼리 토론도 해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보다 더 깊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기도 했지만 모르는 단어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고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해서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동아리 활동이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꿈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으로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며 타인과 사회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영어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과 문학을 배웁니다. 그 예시로는 기초영문법, 어휘와속어,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등이 있습니다. 저는 영문학개론과 관련된 도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과목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영어문학과 그 작가들을 배우는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자주 등장합니다. 영어영문학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중 유명한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한여름 밤의 꿈’ 등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그 작품들의 줄거리 또한 배우기 때문에 미리 읽어보신 학생들이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대학교 입학 후 강의 시간에 저자인 셰익스피어의 생애를 듣게 되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영어영문학과 졸업한 선배들의 진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크게 사무/언론직, 서비스직, 교육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언론직 분야로 진출한 선배들은 공무원과 같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원으로서 기업체에 취직할 수도 있고 PD로 방송계에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직에는 항공사, 호텔, 관광공사, 여행사로 나아갈 수 있으며 실제로도 항공사에 취직하여 승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졸업생의 강의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교육직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대학교수, 학원강사, 또는 교직이수를 한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안지수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창시절 저의 장래희망은 소설 번역가였습니다. 책을 볼 때도 다른 나라보다 영미권의 작품들을 즐겨보곤 했습니다. 가독성 좋게 읽히는 책을 발견하면 그 책의 번역가가 작업한 다른 작품들도 찾아봤습니다.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통번역학과와 영어영문학과 중에 진학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소설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문학이라는 장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영어와 좀 더 친해지고 영미문학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영어영문학과로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저는 수시 종합전형을 통해서 입학했습니다. 수시와 정시 간에 점수 차이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수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시간에 좀 더 집중했습니다.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동시에 준비했기 때문에, 성적과 여러 활동들을 같이 챙겨야 했습니다. 어떤 지문과 문제가 나올지 예상이 안 되는 모의고사와 다르게 학교 시험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든 부분에서 꼭 출제가 되어서 최대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필기에 받아적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핵심 단어만 적을 때 보다 어떤 상황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하셨는지가 생각나고 그때 선생님의 설명이 음성 지원되는 듯 했습니다. 교과목 외의 활동은 선택과 집중을 했습니다. 무조건 많은 활동을 하기 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영어영문학과 진학을 목표로 해서 영어에 관련된 활동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CA활동에도 '영어로 영화보기' 같은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실 저는 면접이 있는 전형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인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면접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상당수의 학교들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연습하기도 했고 스스로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그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친구들과의 모의면접과 개인발표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의면접을 할 때는 늘 보는 친구들이다 보니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자 할 때는 몰랐던 자신의 버릇을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약간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이 있는데 모의면접을 하면서 친구가 그 점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는 의식해서 바른 자세로 앉는 것도 연습했습니다. 개인발표시간은 저에게 자신감을 준 전환점입니다. 하루는 진로 선생님이 자신의 꿈에 대해 발표해보자고 했고 용기를 내어 첫 타자로 나섰습니다. 4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나니 2~3명 정도의 면접관 앞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발표를 통해서 친구들과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부족한 점을 고쳐나갔습니다.

면접 당일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부드러웠습니다. 2대 1로 면접이 진행되었고 교수님들께서 웃으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시려 했습니다. 제가 약간 버벅거린 부분이 있었는데도 표정을 굳히지 않고 웃으며 들어주셨습니다. 덕분에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했던 것은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에게 강점이 될 부분과 약점이 될 부분을 추려냈었고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뽑아냈습니다. 그 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인재상과 비전 등을 찾아보았고 그에 맞출 수 있는 강점들을 주로 자기소개서에 기술했습니다. 또한 제 장래희망이 3년 동안 변함없이 번역가였음을 강조해서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열정도 나타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체육대회에서 지속적으로 한 역할만 맡아 온 것을 말하고 3년 동안 그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를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한 달, 혹은 한 학기처럼 짧은 기간이 아니라 3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느낀 점이기에 때문에 진실성이 잘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자신이 진학 희망 학과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적합한지를 어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어영문학과이다 보니 언어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뿐 아니라 제 2외국어였던 일본어 성적이 남다르고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경험 이 있다는 점을 자기소개서에 넣었습니다. 또한 저의 자기소개서는 제 주변인들은 적어도 1번씩은 봤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에게 여러 번 첨삭을 받았습니다.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담임 선생님, 과외 선생님, 친구, 가족 등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면 다 보여줬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글의 문맥에 어색한 부분을 지적해주셨고 영어 선생님은 영문학과 특성상, 어떤 부분을 넣으면 더 이득이 될지 알려주시곤 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비교적 최근에 입시를 경험하셔서 선배로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첨삭을 받다보면 꼭 공통적으로 지적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수정해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간혹 학생들이 내 담임 선생님이 아닌데 부탁드리면 싫어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부탁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첨삭을 받다보면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어색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언들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영어영문학과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만 가는 학과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날 때 마다 심심찮게 “영문학과는 영어 잘해야 해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영어를 못해도 관심과 흥미가 있으면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타 학과에서도 해당 학과의 전공지식이나 배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듯이, 영어영문학과에서 영어를 원어민처럼 유창하게 잘하면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따라가기 힘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휘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영미문학에 관심이 있어 영문학과에 지원하였고 지금은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영어에 대한 조금의 관심만 있다면 다양한 과목 속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제일 기본적인 시험은 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영어영문학과는 졸업요건 중 하나가 토익 920점 이상입니다.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정도의 토익점수면 취직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서 기준점을 달성해 놓는다면, 차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무역에 관심이 있는 친구는 무역영어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할 때 좋은 스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C대학교 영어과 김인엽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영어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양한 나라에서 쓰이는 언어인 영어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통해 세계를 무대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TV에서 해외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해외에 가고 싶었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가장 공용화된 영어를 배워 가는 것이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수능을 안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다가 군 전역 후 수능이 2달도 남지 않은 시점부터 수능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출석도 제대로 안한 저로서는 아예 공부의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모든 과목이 어려웠고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항상 응원해주셨고 그런 부모님의 응원에 저는 배신하기가 싫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저는 영어전공자로서 전공에 기초가 될 만한 고교 교과목으로는 당연히게도 영어이며 추천도서는 삼국지입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자와는 대화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삼국지에는 매우 다양한 인물, 상황, 사건들이 벌어지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인생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인간관계로서든 사회에서 제 위치에서든 대처능력을 쉽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입학 전에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만 가지고 있었을 뿐 딱히 노력은 수능공부 제외하고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에는 교수님, 학우들과 잘 어울리며 교수님의 프로그램 추천, 학우들과 같이 공부 등으로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으며 그에 따른 공부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책임, 결과로 이루어져 있으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매일매일 열심히 하기를 기원합니다.



중국어·문학

중국어·문학 분야는 중국어와 중국문학을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서, 중국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고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중국어학 분야와 문학 분야로 나뉜다. 어학 분야에서는 고문, 현대문의 해석 및 회화 능력의 배양을 기초로 하여, 중국문자의 창제와 발전과정, 자음 및 자의를 연구하는 문자학과 언어의 구조, 발전법칙 등을 연구하는 어법학을 탐구하고, 문학 분야에서는 시, 사, 곡 등 고전을 비롯하여 신문학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분야를 연구한다.

공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유정환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관광산업에 관심이 많아 졸업 후 관광산업으로 취업하고 싶었습니다. 관광산업은 언어가 중요한 분야임으로 고민을 하다가 어려서부터 중국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떠올라 어문계열인 중문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정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결과가 늦게 나와서 정시 합격 발표시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또 정시는 제일 마지막에 뽑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입학을 하지 못한다면 재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아무래도 우리과는 중국어를 모르고 들어오는 것보다 알고 들어오는 것이 좋으니 제2외국어인 중국어 과목과, 추천도서는 중국어공부에 도움이 많이 된 신HSK중국어 책입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중문과는 언어뿐만 아니라 중국문화사와 중국의 역사등도 배우고 다양하게 중국에 대해 배우는 학과입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여자선배들은 승무원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중문과 이다보니 외국계 회사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공부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해야 하고, 아직은 학생이니 이것저것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어려우니, 책을 많이 읽어서 많은 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찾길 바랍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남혜민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교육청 주최 5박 6일의 국외문화 탐방 프로그램에 부산대표로 중국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많은 고구려 유적지 중에서도 특히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광개토태왕릉비를 보며 두 가지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바로 중국의 대륙을 달렸던 한민족의 자긍심과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중국 역사 속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선조들의 자취가 묻어난 중국 대륙을 여행하면서 중국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남다른 역사의식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세계 속의 큰 영향권으로 자리한 중국을 이해하여 우리나라 외교 위상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관이라는 꿈이었습니다. 이 외교관이라는 꿈을 중어중문학부에서 중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중국 전문가이자 외교관으로 발전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미래인재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한 상황에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학생들과 함께 경쟁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서 재수생이 합격한 경우는 거의 없고, 재학생 위주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자소서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학과에 지원했는지를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그런지 1차는 무난히 합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2차 면접을 위해 부산에서 혼자 서울로 올라왔었는데, 정말 학교에 와보니까 합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교수님이 계셨는데, 많이 떨렸던 건 면접 대기실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면접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면접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떨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접 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최초 합격을 하게 되었고, 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힘들었던 건 반장과 부회장을 하면서 남들이 겪지 않을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의 왕따 사건을 해결해야하고, 축제를 혼자 기획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여학생이다 보니 너무 힘들고, 다른 친구들도 이러한 일을 겪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중국 천재가 된 홍대리〉



〈중국문화의 즐거움〉

추천도서로는 중국 천재가 된 홍대리 와 중국문화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중국 천재가 된 홍대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고, 중국 문화의 즐거움이라는 책은 학부 생활을 하다보면 중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공부할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던 책이었기에 이 두 책을 추천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고등학교 때는 정말 대학교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재감이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운 생각도 많이 들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부분 또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테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중국학과 황나리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중국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저의 꿈은 승무원, 기자입니다. 승무원이라는 꿈을 갖고 항공과 각 아닌 중국학과에 입학하게 되는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승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4년제 대학교 학생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많고 외국어가 중요한 서비스직을 하면서 많은 외국어를 골고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어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 재학 중인 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광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른 학교와는 다른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지만 그 꿈에 대한 100%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직업도 더 있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복수전공을 하기 좋게 되어있습니다.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로 복수전공을 하며 두 가지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결정 시 원광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A등급으로 그때 당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국가장학금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 장학금 제도 또한 잘 되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광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원광 희망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원광 희망장학금은 부모님의 소득으로 책정되어 장학금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과 비슷한 형태의 장학금으로 부모님의 부담 또한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학생회 활동과 봉사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저에게 학생회 활동은 저의 성격 형성과 대인관계 관리를 위한 큰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 임원을 해왔다는



것보다도 학생회 임원을 하며 반을 대표하여 소리를 낼 수 있고 반 친구들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책임감을 길러주는 활동이었습니다. 봉사활동 또한 저에게는 힐링할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 생활 속 전공 이야기

저의 전공은 중국어입니다. 저는 입학 당시 중국어로 인사도 할 줄 모르는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과목으로 들던 것과 전공이라는 말은 느낌부터 달랐기 때문에 부담감을 안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기초적인 발음부터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니 빠르게 중국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중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데는 원광대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어학 능력 향상 프로그램인 중국어 사관학교 수업이 있었습니다. 중국학과 학생뿐만 아닌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모아서 중국인 교사 선생님들께 배우는 중국어 수업도 있었습니다. 여러 지원을 받으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광대학교 프로그램에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중국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은 주로 승무원, 호텔리어, 가이드 등의 서비스직, 통역사, 중국어 선생님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송바다



□ 학과, 전공 선택 이유

처음부터 중어중문학과 진학을 희망했던 건 아니었다. 중국어에 관심은 있었지만, 중어중문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건 입시철이 되어서였다. 무슨 과를 가야 내가 원하는 진로(무역/국가교류)에 적합할지 고민하던 참에, 중어중문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다. 중어중문학과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 문학, 역사, 경제, 정치 등 중국에 관해 폭 넓은 지식을 배운다.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후에 사회에 진출해서도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중어중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 대입 준비방법

나는 정시전형으로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입학했다. 수능 90%, 내신 10%로 입학하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수능공부에 매진했었는데, 특히 스티디플래너를 적극 활용해서 공부했다. 예를 들면 국어

1:수학2:영어1:탐구1로 각 과목에 비중을 두어 특정 과목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매일 전 과목을 일정하게 꾸준히 공부했다. 수능공부든, 내신공부든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규칙적이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학교(전공) 자랑

타 대학의 중어중문학과와 비교했을 때,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현지학기제와 복수학기제이다. 현지학기제는 2학년 2학기에 모든 학생이 중국의 최고 명문대인 칭화대학교(清华大学)에 가서 수업을 듣는 제도이고, 복수학기제는 국립대만대학교(国立台湾大学)에서 2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 대만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두 대학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둘째, 역사가 유구한 원어연극대이다. 오직 중국어로만 진행되는 연극대는 매년 여름에 정기적인 공연을 하며, 교수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하여 무대에 오른다. 반년동안 공연 준비를 하면서 연극대멤버들끼리 친목도 많이 쌓을 수 있고,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셋째, 중국공연관람의 기회가 많다. 중어중문학과이다 보니 타 과에 비해 중국공연관람의 기회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중국 현지에서 공연 전문가를 학과로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도 한다.

우리 학과는 한 학년당 5-6명 정원이어서 학생들끼리 서로 친하고 분위기도 좋다. 일명 ‘군기’ 문화는 찾아볼 수도 없으며, 선후배간의 관계가 특히 허물없고 돈독해서 정보교류도 수월한 편이다. 대학에 오고 나서 가장 만족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학과 분위기였을 정도이다.

□ 전공교과목 소개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와 전공제도는 다른 대학과 다소 다르다. 각 학년마다 필수적인 전공수업이 지정되어있는 다른 대학과는 달리,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는 1, 2학년 때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수업이 있으며 3, 4학년 때는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전공수업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대신, 다양한 전공핵심/심화 수업 중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만 골라서 들을 수 있다.

1학년 때는 ‘현대 중국의 정치경제’, ‘한자한문의 이해’, ‘중국어학산책’, ‘중국고대문학의 이해’라는 수업들이 필수적인데, 과목명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의 언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1학년 전공수업에서 학습하게 된다. 2학년 때는 ‘중국근대문학의 이해’, ‘중국어작문 1’, ‘중국의 언어와 문화’, ‘현대 중국어 문법’이라는 수업들을 듣는데, 1학년 과정에서 좀 더 확장된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전공필수 이외에도 전공핵심/필수라는 분류로 ‘집중중국어연습’, ‘중급중국어1, 2’, ‘중국고전읽기’, ‘중국공연예술과 미디어문화’, ‘중국마케팅론’, ‘한중언어비교와 브랜드네이밍’ 등의 다양한 수업이 존재한다.

그 중 한 수업에 관해 설명하자면, 1학년 1학기 때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수업 중에 ‘한자한문의



이해'라는 수업이 있다. 이 수업은 번체자(우리나라 한자)를 배우는 수업이다. 중국은 간체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어중문학과에서 왜 번체자를 배우나 싶지만, 번체자를 배움으로써 중국과 한국의 옛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중국어를 배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교수님이 해주셨던 과제 중 '현재의 상호(영어/한자/한글)를 재해석하여 소리는 같고 뜻은 다른 한자로 바꿔보아라.'라는 과제가 가장 인상깊게 남아있다. 평소와는 다른 참신한 과제였기 때문에 과제를 하면서도 즐거웠고,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중어중문학과는 수천 년 역사 문화대국의 문화와 어문학을 공부하는 만큼 그 과정이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전망도 매우 밝은 보기 드문 인문학 전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는 졸업생의 취업률도 높고 취업의 질도 매우 뛰어난 편이다. 최근 중국어 및 중국에 관한 전문 지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대함에 따라 중어중문학과 졸업생들은 교육, 기업, 언론, 무역, 해외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계에서는 보통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학계·교육계에서는 중국어실력을 적극 활용하여 교직이수를 통해 교사, 교수가 되신 분들이 많다. 또한 언론·출판·문화계에서는 작가나 비평가, 언론인, 번역가 등 전공과 흥미를 살린 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통역사나 번역사 등의 진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다.

□ 꼭 하고 싶은 말

중어중문학과는 아무래도 중국의 문화와 언어에 흥미가 있고 적성이 맞는 학생이 지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꼭 이런 학생들만 지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가 중국과 관련이 있다면 중어중문학과에 지원하는 것 역시 좋은 선택이라 생각한다. 굳이 진로가 중국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에 대해 조금의 흥미만 있다면 분명 만족스러운 학과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기타 아시아어·문학

기타아시아어·문학 분야는 아시아 각 지역의 언어와 문학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문명의 전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아시아어학 분야와 문학 분야로 나뉜다. 어학 분야에서는 문법, 음성학, 어휘론 등을 연구하고, 문학분야에서는 문학개론, 문학사, 민간문학, 현대문학 등을 연구한다.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박민정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선택)하게 된 이유(계기, 동기)는 무엇인가요?

여러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열려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몽골에 봉사를 다녀왔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몽골만의 특산품을 이용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 여행사나 여행 상품 개발, NGO 등 여러 분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준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인 DKU인재전형에 지원하여 약 9:1의 경쟁률을 뚫고 몽골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최저등급도,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와 학생부가 유일한 평가 요소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내신 관리를 중점으로 준비하였고 봉사활동은 물론 독서활동, 교내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던 점을 가장 크게 어필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몽골과 관련한 경험(봉사활동)을 바탕으로 몽골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진학 후 목표는 무엇인지를 위주로 작성하며 몽골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학구열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교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교내 활동이 있다면 거의 다 참여하였고 일회성 봉사가 아닌 꾸준히 하는 봉사활동을 위주로 하였습니다.



□ 단국대학교 몽골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몽골학과는 몽골어 뿐만 아니라 역사, 경제, 지역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웁니다. 1학년 때는 언어를 위주로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때문에 몽골어에 대한 사전 학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역사, 문화에 대해 배우는데, 몽골학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몽골비사'라는 책을 읽어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비사에는 칭기즈칸 설화가 나오는데 이것을 미리 읽어보면 '몽골 문학의 이해'라는 수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북아유목문화대사전 등 단국대학교 몽골연구소에서 편찬한 책을 한 번 읽어본다면, 몽골의 의식주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학과장이신 송병구 교수님께서 출연하신 세계테마기행, 배낭 속에 인문학과 같은 몽골 관련 다큐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몽골학과는 교환학생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있어 저희 학과 학우들은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1년까지 몽골 현지에서 문화, 발음 등 더욱 깊은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몽골에 있으면서 통역 등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 졸업 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졸업 후 심도 깊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수도 있고, 몽골어의 희소성을 살려 관련 특채 전형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전공 공부와 공무원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며 졸업 후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고 몽골 대사관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항공, 호텔, 여행사 등 다양한 분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인문학 영역은 인간과 인간의 문화, 사상 일반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며, 국가마다 포함되는 학문영역에 차이가 있다. 관련 분야로는 철학·윤리학, 역사·고고학, 종교학, 문화·민속·미술사학, 국제지역학, 교양인문학 등이 있다.

철학·윤리학

종교학

문화·민속·미술사학

철학·윤리학

철학·윤리학 분야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가치 있는 실천의지를 탐구하고, 동서양의 윤리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윤리사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윤리의 주체가 되는 인간을 탐구 대상으로 하며, 인간 공동체의 현상인 사회와 국가에 대해 연구하여 인문학의 근간이 되는 학문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인식론, 형이상학, 논리학, 한국철학, 불교철학, 유가철학, 도가철학, 윤리학, 현대윤리학, 응용윤리학, 미학, 예술론 등이 있다.

경상대학교 철학과 박정수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철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나'에 관한 관심 때문입니다. 누구나 겪는 사춘기 시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결국 대학을 오게 하고, 대학에서 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게 한 것입니다. 철학은 '나'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 계속해서 물어 보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물음에 답을 찾아 가는 행위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에 관하여 알아가는 행위가 내 삶의 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철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물음도 철학과를 선택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중학생 때부터 글쓰기를 많이 했고,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 신문을 제작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궁금했고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에 관한 물음은 자연스럽게 정치철학과 사회철학, 문화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책도 찾아 읽게 되고, 철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즉, 결국 나와 세상에 관한 호기심이 철학과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 철학과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저는 윤리와 사상이라는 철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을 비롯해서, 국어과목, 영어, 수학, 과학 모두에 흥미를 느끼고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어과목의 문학과, 언어학의 도움이



없다면 '나'에 관한 물음에 글쓰기 능력을 기를 수 없습니다. 외국어는 생각의 사고를 넓혀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철학은 사고하는 학문으로써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은 논리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며, 과학은 철학의 기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교 시절 여러 분야에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 철학과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추천하는 도서로는 철학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어려운 도서보다는 퓌 페리 저 『철학의 다섯 가지 대답』, 앤 루니 저 『15분 철학』 등의 책들을 추천하며, 심화과정으로 여러 철학자들의 도서를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경상대학교 철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경상대학교 철학과에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으로 나뉘며 동양철학은 인도철학과 불교철학, 중국철학, 한국철학으로 되고 서양철학은 현상학, 실존철학, 영미철학, 과학철학 현대프랑스철학, 윤리학, 정치사회철학 등으로 나뉩니다. 교수님들께서 뛰어난 철학자이셔서 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여 주십니다. 특히나 각 분야에서 권위자로 많은 저서활동과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철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능력을 함양하여 인간, 자연, 문화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기초로 합리적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부에 뛰어난 교수님들께서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특히나 저는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철학과에 진학한 뒤에 내 글쓰기의 잘못된 점이라든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글을 써야 하고, 사고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평을 쓰는 것에 있어서 능력을 향상하여 교내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서평회에서 수상을 하기 도 했습니다. 또한 철학과에는 논술트랙을 비롯하여 논술교사준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이는 논술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대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일정한 수업을 이수하고, 전국대학철학과연합회 논술교육인증원의 인증심사를 거치면 논술교육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으로 논술을 교육하는 교사나 다른 곳의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제가 철학을 공부한다고 말하면 어렵게 느껴지거나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하곤 합니다. 철학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기초학문이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거나 무척이나 어렵게 느낍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걱정과 달리 저는 철학이라는 학문이 제게 주는 조언은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함으로써 인하여 생각의 사고가 넓어지고 이것이 사람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합니다. 특히나 토론과 같은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며, 창의적 활동에 함여 있어서 계속해서 물음을 제시함으로써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움은 제가 토론대회에 출전하게 하며, 사람들과 철학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철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공무원, 교사, 언론 및 출판계, 금융계, 공기업, 각 연구기관 등 사회 다방면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논리적 사고를 잘할 수 있는 철학과 졸업생들은 언론과 출판계에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 선배가 이미 언론방송으로 많이 진출하여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철학과를 진학하여 공부를 한 뒤에 전공을 살리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문화철학분야를 더 공부하여 문화평론가의 길을 가려 합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우리 인간에 대한 깊은 고민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문화 현상에도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었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라는 것에 관하여 더 공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철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철학상담 치료사 2.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에서 주관하고, 해당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 요건을 갖춘 후 필기시험 및 면접을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기반으로 상담치료 유급보조 및 조교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비판창의적 사고력인증시험이라는 비판창의적 사고를 인증받아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시험이 있습니다. TOCT(비판창의적 사고력인증시험)을 이용하여 국내 대기업 등 다수의 기업들이 기업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기에 철학과 학생들에게 좋은 자격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철학과에 진학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룩한 이 세상을 관조하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삶에서 어려움을 많이 마주하게 되더라도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철학과는 어떻게 보면 실용학문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지만 충분히 실용학문으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직접적이지 않을지언정 간접적으로라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책읽기에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서적들을 읽고, 생각해보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고심해서 자신의 의견을 저술해 놓은 여러 철학서적을 통해서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술하는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철학과에서 배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학문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어렵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철학함을 통해 스스로 알아가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철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등학교 시절 저는 윤리와 사상 교과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거 성인들 혹은 철학자들의 생각이 담겨있는 그들의 주장과 사상에 대해 배우다 보면 몰랐던 것들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스쿨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법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생겨난 이후 LEET라고 하는 법학적성시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치는데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흥미와 장래희망을 고려하여 철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철학사' 책을 추천합니다. 러셀은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일뿐더러 뛰어난 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에 이 책을 통해 서양철학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철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철학과에 온 뒤 철학과에 온 것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철학이 정확히 무엇을 배우는 학문이며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정치외교학과나 사회학과, 심리학과 진학을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 수업을 제대로 듣기 시작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과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잘 맞는, 제가 원하던 학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대학생들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철학이란 학문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넓혀주고 다양한 일을 하는 기초를 쌓아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확히 답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느낀 철학은 세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이고 세상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져보고 스스로 반성하는 학문입니다. 그 형식상 구분으로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논리학으로 나뉘며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다른 학문을 배우는 것에 바탕이 됩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일, 그것이 철학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험도 모두 서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누가 잘 암기했는가 아니라 누가 잘 이해했으며, 자신의 생각이 논리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란 학문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

다. 배우는 즉시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철학과를 들어온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 말하자면 넓은 평지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좋은 공기와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국의 거점국립대학교로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이 곳에서 자신의 꿈을 힘차게 펼쳐나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졸업 후 기대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철학과’, 직관적으로 이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무엇을 할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해서 꼭 가야하는 길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자 종합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철학이라는 학문만이 있었고 이것이 전문화 되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철학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그 무엇이든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학과 출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방송국 혹은 신문사의 기자입니다. 아무래도 읽고 생각하고 글 쓰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 그러한 분야로 진출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 논술지도자 자격증이나 철학 상담치료사 자격증 같은 것을 많이 취득하고 졸업합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졸업 후 로스쿨에 들어가지도 합니다. 철학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LEET 시험을 조금 더 수월하게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직에 관심이 있다면 학과에서 일정한 인원에게 주는 교직이수의 기회를 살려 교직의 꿈을 이루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자신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취업을 할 때 회사에서도 전공을 잘 보지 않습니다.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취업이 잘 된다는 소리도 옛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학교 취업률 수치를 보면 경영대 보다 인문대가 취업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전공보다는 스펙을 통한 실무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것인지 철학과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과 업무의 특성과 상관없이 철학이란 전공은 어디서든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철학을 배우며 익힌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을 더욱 배우고 활용하면 어떠한 곳에서든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창의적 인재라 함은 남들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통찰하며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이 아니라 철학함을 배운다.’ 그렇습니다. 철학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저 철학함만을 가르칠



수 있을 뿐입니다. 철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그것을 더 깔끔하고 수려하게 갈고 닦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여기입니다. 자신이 했던 생각들을 과거의 철학자들도 하였고 그것을 이론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는 것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한 번에 관련된 생각이 정리되는 기분이 듭니다.

현대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질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신의 의견을 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능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여기 철학과라고 확신합니다.

송실대학교 철학과 전혜미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송실대 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디베이트를 하다가 어떤 토론 주제든지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궁금했고 처음엔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 어디서부터 합의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철학책 토론 동아리에 들어가서 '생각' 그 자체를 처음으로 탐구했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역대 사상가들의 사고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했던 사고들이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해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철학책을 읽으면서 철학자들이 기존의 통념을 비판하고 새로운 사고를 하는 것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내 생각과 남들로부터 온 생각을 구별해서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열망이 절 철학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었던 까닭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방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술도, 논문 쓰기도, 경제도, 정치도 모두 재미있었습니다. 저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오히려 이것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가 논증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얼마나 그것이 설득력 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된다고 여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저의 말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듯이 너무 자신을 꾸며내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설득력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활동을 하나의 스토리 안에 녹여 넣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활동 하나 하나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도와주셨던 선생님으로부터 너무 인위적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차'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 해온 모든 활동이 아마도 뜻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자기소개서에서 넣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서는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근거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화려하게 스스로를 꾸며낼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한 까닭을 곰곰이 성찰해본 결과, 솔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는데, 철학과는 아무래도 하나의 연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들을 하나로 종합시키는 것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한된 글자 수 때문에 내가 그 활동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가 빠지는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제가 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는지를 다시 깊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알고 싶어서, 제가 무지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탐구하여 알아가면서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지의 상태를 자기소개서에 적절히 표현했고 그 까닭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과는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의 답을 찾고 다시금 자기 반성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치열한 고민 끝에 내가 무언가를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틀릴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과연 진리가 가능한지에 관한 물음인 인식론과 자연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탐구를 하는 형이상학과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를 밝히는 윤리학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고 과정을 위해 형식과학인 논리학을 배우기도 합니다.

심리학과 비교해보자면, 심리학은 사람의 심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합니다. 철학 분야 중 인식론과 가장 비슷한데, 그런데 인식론은 진리라면 어떤 조건을 지녀야 하는지에 관한 규범 차원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다릅니다. 심리학이 사실 차원에서만 인간의 심리 과정을 다룬다면, 철학은 인식에 관해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철학과 졸업 후 더 깊은 탐구를 위해 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논리학을 배우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을 진학하기도 합니다. 인식론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심리학 과로 진학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 혹은 출판 업계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1인 작가나 유튜버 등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사실 수험생이라는 시기가 자신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쉽게 흔들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해 당연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가 옳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라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자신이 알 때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종교학

종교학 분야는 다양한 시대와 지역, 문화 내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학문 분야이다. 각 종교의 교리 및 신앙, 조직 및 형태는 물론 신화, 의례, 상징 등 다양한 종교적 현상과 문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종교 현상들에 내재하는 보편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종교철학, 종교현상학,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신화학, 비교종교학, 원시종교, 고대종교, 불교학, 기독교학, 이슬람교학 등이 있다.

승실대학교 기독교학과 서지수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꿈은 국제 지도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기독교적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국제적 리더,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역동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국제사회와 기독교를 잇는 교량적 역할을 하고 싶어 기독교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치외교학이나 국제관계학과를 추천하실 수 있지만 기독교학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사회구현의 기본은 기독교의 올바른 교육입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가 점점 어두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학과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저의 자질 함양과 학문 연마를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진리라고 배웠던 도덕과 윤리들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본래 진리를 찾고 지키고 싶었습니다. 기독교관에서 나온 바른 가치관들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역사가 있는 학과를 선택하였고, 바른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 입학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수시(학생부종합전형)를 위주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자소서와 생활기록부 준비를 위해 입시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정보들을 찾곤 하였지만 학과 특성상 타 학과에 비해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보를 더 얻으려고 발버둥치기 보다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더

가꾸어 나가자는 마음으로 학교와 학과 홈페이지를 토대로 자소서와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갔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학과의 인재상이나 교육과정에 맞게 도서, 동아리, 과목별 세부능력특기사항, 교내활동 등을 채워나갔으며, 자소서는 제일 먼저 학과 인재상과 커리큘럼을 머릿속에 입력한 상태에서 제가한 활동 중에서 인재상과 부합되는 것으로 찾아 썼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기록부의 도서 항목의 경우, 기독교도서, 혹은 자기성장/자기개발 도서를 통해 내가 무엇을 느꼈으며, 꿈(진로)을 향해 어떻게 다가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식으로 썼습니다. 자소서의 경우에는, 꼭 기독교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교내활동이 아니더라도 이 활동을 통해 기독교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해 연결하여 썼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생활기록부 관리보다는 자소서 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활동들을 했어도 제한되는 글자 수로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잘 안 써진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듯이 자기소개서는 몇 십번의 수정에 수정을 반복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활동들 중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고, 학과/학교 인재상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활동들을 표시합니다. 표시한 활동들에서 어떤 사건이나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간략하게 종이에 써내려갑니다. 쓴 활동들 중에서 타 학생과는 차별성, 독특성이 있는 활동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 이 활동들은 자소서의 중요한 소스가 되는 활동이 됩니다. 이렇게 활동들을 정했으면 이제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자소서를 쓰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 오히려 잘 안 써지고 더 막막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앞서 말했듯이, 자소서는 엄청난 수정이 있어야 '나만의 자소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정한 활동의 에피소드의 과정을 꼭 쓰고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에 대해 쓰기 시작합니다. 다 썼으면 스스로 퇴고의 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문장과 단어들을 삭제하고,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첨삭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에는 '진실성'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했고, 마침내 '나만의 자소서'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자기소개서를 완성시켰다면,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접 준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예상 질문을 만들고, 친구들과 면접 그룹을 만들어 매일매일 면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며, 선생님과 부모님께도 도움을 요청해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 스스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표정과 제스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는 면접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수님과 입학사정관 선생님께서 긴장하지 말라고 얘기해주시며 간단한 대화(어디서 오셨어요? 뭐 타고 왔어요? 누구랑 같이 왔어요?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등)로 긴장을 풀어주셔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대화를 해주셨는데도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준비의 길을 굉장히 힘들고, 엄청난 노력이 따릅니다. 제가 특별히 입학을 위해 신경 썼던 노력 중 제일은 성실한 학교생활입니다. 소위 말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활동을 가리지 않고! 여기서 가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진로와 원하는 학과와 관련성이 없는 활동이니 안 나가도 돼”라는 생각을 갖고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성이 없는 활동이라도 나도 모르게 배움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귀찮기도 하고 나가기 싫었던 적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을 없애고 참가할 수 있는 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의 경험을 늘려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송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으로는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이며, 추천도서는 <유럽의 시간을 걷다>와 <현대인과 성서>입니다. 사회문화는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학과 문화학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은 윤리학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럽의 시간을 걷다>와 <현대인과 성서>는 전공 기초 교과목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유럽의 시간을 걷다>는 유럽의 건축양식과 교회의 건축양식 등을 시각적 자료와 함께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도움을, <현대인과 성서>는 성서학을 배우는데 있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학과와 신학과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학과와 신학과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기독교학과와 신학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차원의 학문입니다. 먼저, 두 학과의 공통점으로는, ‘성경’을 배운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신학과는 성경만을 파고들어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는데 있다면, 기독교학과는 성경을 기반으로 인문학을 배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학과는 정말 말 그대로 ‘신학’, ‘성경’만을 배운다면, 기독교학과는 큰 범위로는 ‘인문학’으로 시작하여 신학, 성서학, 사회학, 문화학, 윤리학, 상담심리학, 봉사학 등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기독교학과와 신학과는 차이점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항상 최고입니다. 학과에 대한 이미지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학과의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선배에게 무한대의 사랑을 받으며, 이 사랑을 후배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학과가 기독교학과입니다^_^ 선·후배 간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며 친밀감이 넘치고, 모든 학과 행사는 교회 수련회 같이 편하고 재미있으며, 교수님들에게서 따뜻함과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기에 저의 만족감은 최고입니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졸업한 선배들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학대학원/일반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총신대, 장신대, 성결대 신학대학원으로 진학하여 활발한 목회활동을 하시는 선배도 있고, 숭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국제정책대학원, Harvard Univ, Copenhagen Univ와 같이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 학위 중이신 선배도 있습니다.

언론/방송/출판 분야로는 Korea IT Times, 한국 HRD협회, 석간경제 e투데이, 도서출판<꿈꾸는 터>, CROSSROW(기독교웹진), WOWCCM. Net(기독교 인터넷방송 진행)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기독교기관 분야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으로, 외교/국제기구 분야로는 NGO와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학원 운영, 사회복지사, 고양문화재단 사업부, 대응계약, 삼성생명, CCM가수, MK창업, 중앙대 행정직, 건국대 영양사, 그리스도대 총장비서실, 서강대 어학원 매니저, 네오위즈로 진출하시기도 한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국제법무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고, 국제관계학을 더 배워서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싶습니다. 학문을 다 배운 후에는 UN 국제기구로 진출하여 기독교적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국제적 지도자로서의 활약을 펼쳐나가고 싶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3년의 시절을 결코 헛되이 보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의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는 귀한 시간이고, 앞으로 20살의 여러분으로 이끌어 줄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시간을 귀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먼 훗날 돌아봤을 때 고등학교 시절 때 “후회 없이 열심히 학교생활 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오예림

저는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가난하고 마약과 폭력에 찌든 개발도상국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학교와 학과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서 저는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싶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 NGO활동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독교학을 기초로 하여 상담학, 심리학, 봉사학, 철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을 배우는 학과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기독교학과에 진학한 선배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대학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며 학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학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의 삶의 방향과 학과가 추구하는 배움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보았고, 기독교학과를 목표로 하여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SSU미래인재전형)을 준비 하였습니다. 저의 특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재수를 하였고, 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했던 노력들을 차근 차근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 종이가 닳도록 읽고 체크하였던 생활기록부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먼저 생활기록부를 5번 이상 정독했습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들고 지난 3년간의 기록들 중 저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들을 체크하였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고교 3년 동안의 제 모습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정독하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활동들이 하나씩 생생하게 기억날 것입니다.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한 활동들을 보면 자신의 비전과 관련하여 그 활동들의 공통점이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이어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어떤 활동이든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했던 활동들이니 공통점을 잘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생각해보면 쉽게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첨삭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처음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할 때 가까운 친구가 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친구들에게 첨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실수였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첨삭을 해준 친구의 자소서와 저의 자소서는 무의식중에 비슷해져가고 있었고, 문체뿐만 아니라 주제 또한 비슷해져있는 것을 발견하여 처음부터 다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자기소개서를 돌려보며 서로를 첨삭해주는 것은 수험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본인의 이야기를 적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이 겹칠 수도 있지만 각자가 그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은 다릅니다. 첨삭은 본인을 잘 알고 있는 부모님이나 고등학교 선생님과 같은 멘토를 3-4명에게 꾸준히 첨삭 받기를 추천합니다.

□ 면접 준비1, 예상 질문, 답변 준비하기

면접을 준비할 때, 먼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보여드린 후, 예상 질문을 받고 계속해서 답변을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 면접 준비2, 모의 면접

점심시간마다 친구들과 그룹으로 모여 모의면접을 하였습니다. 면접장 문을 두드려 면접 고사장에

입장하여 인사를 하는 것부터, 질문들에 답을 하는 것까지 실제 면접처럼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하는 모의면접인데도 너무 긴장되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기 일쑤였는데, 모의 면접을 하면 할수록 훈련되고 면접 분위기에 적응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접 때는 떨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 면접 준비3, 영상으로 기록하기

모의면접을 하는 모습이나, 혼자 말하기 연습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영상을 찍어 보면 자신도 몰랐던 본인의 행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면 무의식중에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다던가, 횡설수설하며 불필요한 말을 하며 몸을 베베 꼬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고쳐야 할 모습들을 파악한 이후로는 제 행동들을 의식하면서 면접에 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실제로 느꼈던 면접은

저는 1차 서류전형에 모두 합격해 6곳 이상의 학교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학교마다 면접의 방식이나 분위기는 다 달랐는데, 대체적으로 면접관님들께서 정말 인자하신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고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면접에서 면접관님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나온 기분이었고, 어차피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므로 긴장하지 말고 면접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알아두면 좋을 것들

많은 대학들이 모의면접과 같은 대학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5-6월에는 전공체험 Weekly 프로그램이 있고, 7월에는 모의면접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미래인재 WEEK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공체험 Weekly 프로그램은 실제로 학과 교수님들의 학과 안내 및 전공강의를 맞볼 수 있는 전공특강과 학과 실습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전공체험, 캠퍼스투어, 입학사정관과의 1:1 전공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미래인재WEEK 프로그램은 실전처럼 면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모의면접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우리학교와 나의 대학생활

제가 생각하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의 장점은 단순하게 신학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학을 기초로 하여 역사학, 봉사학, 사회학, 상담학, 심리학 등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입학 한 후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것은 사랑받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학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과를 다닌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의 비전은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취미와 관심사는 무엇인지 등 정말 하나하나 궁금해 하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학생에게 사랑이 없으면 보지 못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받으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학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이렇게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실대학교 입학사정센터 서포터즈 슈가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공멘토단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슈가온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송실대학교 재학생 모임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된 행사들을 맡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슈가온 활동 중 가장 주된 활동은 전공체험 WEEKLY 활동과, 미래인재 WEEK 활동, 그리고 전공멘토 활동, 면접도우미 활동을 합니다. 여러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슈가온의 멘티가 되는데, 이 친구들과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멘티였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할 때, 그리고 멘티였던 학생이 슈가온에 들어와 후배로 만난다면 정말 그 보람은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송실대학교를 준비하는, 그리고 송실대학교 기독교학과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제가 느꼈던 학교와 학과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 수험생에게 꼭 하고싶은 말

관심 있게 학교와 학과를 알아보며 꾸준함으로 준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송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긴 친구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꼭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시기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D

문화·민속·미술사학

문화·민속·미술사학 분야는 인류의 사회, 문화, 미술 일반을 총체론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전통문화학, 문화재보존학, 민속학, 민속문화론, 미술사학 등이 있다.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이광빈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3년간 꾸준히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관심은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졌고, 미래의 직업에 연연하지 않으며 역사와 관련된 깊은 공부를 해보고자 다짐을 했었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학과라면 많은 사람들이 사학과를 떠올리듯이 저 역시 사학과로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산시 교육청에서 주관한 동아대학교 전공체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사학과 전공체험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첫 강의가 돼서야 고고미술사학과 전공체험인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생각했을 그 시간이 저에게는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고고미술사학과가 문화재에 대한 공부를 하는 학과이며, 문화재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울 수 없는 역사적 유물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에게 전공체험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현재 고고미술사학과 학생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어떤 학과로 진학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에 전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꿈을 찾아 해당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수시)으로 동아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결실은 바로 자기소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본인이 3년간 교내에서 활동한 내역만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교내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내 활동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동안 실시했던 것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3년간



‘지역사연구부’ 라는 역사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부산의 유적지나 박물관 등에 답사를 갈 기회가 많았고, 이 경험은 현재 제가 학과 내에서 답사를 가는 것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활동할 수 있는 ‘인턴십 체험’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인턴십 체험을 통해 현재 제가 재학 중인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의 교수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학교가 아닌 오로지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 진학을 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외에 동아대학교에서 실시한 전공체험과 같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했을 정도로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너 아니면 누구를 뽑아’라고 할 정도로 학교에 대한 관심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준비해온 과정이 모두의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길을 걷어가더라도 그 길에 대한 절실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자신의 정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고고미술사학과’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 소개를 할 때면 많은 전공자들이 영화 ‘인디아나존스’로 예를 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화 속에서 여러 보물이 등장하기 때문인데, 고고미술사학과는 바로 국가의 보물인 ‘문화재’를 공부하는 학과입니다.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고고미술사학과는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토대로 한국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나아가 세계 속의 한국문화의 독자성과 가치를 바르게 인지하여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선진 문화인으로서의 자질함양과 문화재 연구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고미술사학과에서는 고고학과 미술사학을 함께 학습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은 기초강좌를 비롯하여 선사고고학, 역사고고학, 인류학, 야외고고학(Field- Work) 등의 심화 강좌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점과 흐름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재조명합니다. 방학이 되면 학과생들이 직접 발굴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등 고고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술사학은 미술사 기초강좌를 비롯하여 회화, 공예, 건축 등의 장르에 걸친 한국 및 동서양미술사의 심화강좌를 통해 문화의 이해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화강좌를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학과’라는 명칭 때문에 고고미술사학과와 사학과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학과 같은 경우 기록이 남아있는 문서를 바탕으로 역사를 공부합니다. 반면에 고고미술사학과의 경우 토기·

인골(사람 뼈) 등을 통해 역사 속 문서에 남아있지 않는 부분까지도 알아가는 공부를 합니다.

국내에는 여전히 발굴되지 못한 유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역사를 위해서 문화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재들이 고고미술사학과 출신 학생들이며 미래의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고고미술사학과 졸업생은 전문분야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에 폭 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문화재 관련기관을 비롯하여 전공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 관련 일반 분야에도 진출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시군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나 전국 문화재 발굴전문기관 등에도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졸업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판사 및 문화 전시 기획, 문화 관광, 축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 관련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일반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고고미술사학과에 진학한 많은 학생들이 그렇듯 저 역시 학예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학예사는 큐레이터를 넓게 포괄하는 의미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기획을 주 업무로 하는 직업입니다. 저는 ‘그냥’ 학예사가 아닌 저로 인해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하는 학예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사람들이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박물관을 오가는 것과 동시에 문화재를 공부하는 많은 인재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전공 박하영

□ 시작 전, 전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문화관광학전공 박하영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는 숙명글로벌인재전형(어학특기자)으로 입학하여 현재 3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부종합이나 논술, 혹은 정시가 아닌,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입시를 준비하면서 특기자 전형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는 불안함 때문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또 대학가에서 점점 어학특기자 전형을 축소/폐지하면서 나중에는 아예 이 전형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도 휩싸이곤 했습니다. 또 전공을 정할 때에도 대학에 어떤 전공이 있는지 몰라 제가 좋아하는 것이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공에 지원해야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여행을 좋아하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럼 어떤 학과에 지원해야하지?’ 하는 고민들이요. 하지만 여러 고민과 탐색 끝에 결국 제가 관심 있는 분야와 적합한 전공을 찾았고, 즐겁게 공부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길을 걷거나 같은 고민을 갖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 제가 겪었던 입시/전공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전공 선택 이유

‘여행과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고등학생, 문화관광학전공에 입학하다.’

제가 문화관광학전공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국내외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그곳 문화를 접하는 것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아는 여행을 무척 좋아했는데, 그 언니가 관광학과에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그 덕분에 대학이라는 곳에 관광학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계기였어요. 또 한국문화를 알리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 중국에서 살면서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한국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이를 외국에 알리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 여행을 좋아하다보니 스스로 여행상품을 만들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문화관광학전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전공소개

‘문화예술과 관광의 결합, 문화관광학전공을 소개합니다.’

1) 전공소개

이렇듯 여행을 좋아하고 한국문화를 알리고 싶어 하는 제가 왜 문화관광학전공에 지원했는지 이해하려면 과연 이 전공이 어떤 전공이고,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야 할 거예요. 아마 많은 친구들에게 문화관광학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광경영, 호텔경영, 항공경영, 그냥 관광학과는 들어봤어도 문화와 관광이 합쳐진 문화관광은 생소하기 때문이죠. 문화관광은 말 그대로 문화예술과 관광을 합친 것으로, 전시, 공연과 같은 문화예술을 배우거나 호텔, 여행사, 항공과 같은 관광분야를 배웁니다. 또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문화관광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배우기도 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공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예로 들어볼게요. 문화예술의 대표 수업으로는 ‘이것이 뮤지엄이다’라는 수업입니다. 뮤지엄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박물관/미술관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박물관/미술관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뮤지엄은 어떤 것이고, 종류론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등등 정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은 역사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 유형도 다르고, 작품의 구성도 달라지게 돼요. 혹은 공연/전시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공연의 경우 ‘연기하는 법’에 대해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공연을 기획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감독 및 배우를 섭외하고, 주제를 정하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이 포함되겠죠. 관광 전공에서 항공수업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본 전공에서 배우는 항공은 승무원이 될 때 필요한 자질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항공업을 경영할 때 필요한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또 관광분야 대표적 수업으로는 '문화관광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문화관광의 트렌드를 배우고, 직접 조별과제를 통해 실전에 적용해보는 법을 배워요. 2016-1학기에 들은 수업이었는데 제가 배웠을 때는 체험형 관광이 문화관광의 트렌드였어요. 그리고 과제의 주제는 '한류 확산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이 주제였죠. 한류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버스투어 상품을 기획해 발표했습니다.

2) 전공 장점

문화예술분야와 관광분야를 폭넓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자 장점이예요. 장점으로 보자면 한 분야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관광분야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원래 입학할 때만 해도 여행사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입학해서 수업을 들은 후 여행사는 저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오히려 전혀 관심도 없던 항공업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이유는 폭넓게 배울 수 있는 만큼 심화해서 배우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호텔 분야에 뚜렷하게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 호텔경영학과보단 호텔관련 수업이 적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공부를 하지 못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맞게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준비방법

앞서 말했지만 저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숙명여대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어특기자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영어특기자 전형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로 토익, 토플과 같은 공인어학성적과 한국어/영어면접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의 경우 전공적합성 면접을 봤기 때문에 진행되는 언어만 달랐을 뿐 학생부종합 친구들과 면접 질문은 거의 동일했어요. 그래서 영어특기자 전형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면접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1) 영어특기자 전형

먼저 저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 힘들었고 그래서 공인어학성적에 더 집중했어요. 내신 성적을 커버하기 위해 토익을 가장 열심히 공부했고 5개월 후 990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공인어학성적을 보는 학교들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토익 고득점이라고 생각해요. 전형이 축소되면서 1차 합격은 토익/토플 점수로 결정되는 일이 대다수였기 때문이에요. 특히 인기가 높았던 저희 전공의 경우 1차 합격자 모두 990점 만점이었습니다. 또 내신을 아예 챙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영어/중국어와 같은 언어과목은 최상위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별히 고3때는 관광과 관련 있는 한국지리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토익점수를 굉장히 빨리 만든 편이었어요. 고2 겨울방학에 만점을 받았고, 그 덕분에 3학년 때는 내신 및 면접에 오로지 집중할 수 있었어요. 영어특기자 전형을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다면 공인어학 점수를 최대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2) 면접

숙명여대 어학특기자 전형은 전공적합성을 보는 외국어 면접을 진행했어요. 면접 당시 교수님 두 분이 계셨고, 학생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 전공 관련 질문을 반반씩 받았습시다. 예를 들어, 고3 때 성적이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번역동아리 회장을 맡았는데 어떤 경험이었는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시다. 전공 관련으로는 지원동기와 한류와 관련된 질문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생각하는 합격 이유는 문화관광학전공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알아가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공에 대해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 관광분야의 시사상식을 많이 알기 위해 노력했어요. 매일 인터넷에 '관광'을 검색해서 요즘 관광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고 했고, 그래서 관광이슈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아는 선에서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또한 숙명여대 문화관광학전공 홈페이지에 들어가 어떤 전공인지,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 메모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 면접관님께 문화관광학전공에 입학하여 제 꿈인 외국에 자랑스러운 한국문화 알리기를 어떻게 이루고 싶은지 많이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제 열정과 관심을 알아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 학

법학 분야는 정의의 실현 및 질서의 유지를 기본가치로 하는 사회규범인 법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헌법·행정법 등 공법, 민법·상법 등 민사법, 형사법, 각종 소송법 외에 사회법, 지적재산권법, 과학기술법 등의 실정법에 대한 해석과 관련 이론 및 판례분석이며, 이외에 법철학이나 법제사 등 법이론적 연구를 포함한다. 최근에는 해석법학의 범주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례에서의 실용적인 법 적용과 입법정책을 비롯한 법정정책학적 연구를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법 학

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 이지수

□ 학과, 전공 선택 이유

저는 어릴 적부터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대중의 환호와 칭찬을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원하는 안무 영상을 찾아 외우고 공연하여 그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때, 안무 영상 제작자가 이를 보고 안무의 저작권은 자신들에게 있으니 모방하려면 미리 말을 해달라고 경고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문화콘텐츠관련 저작권 및 재산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창작물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창작자와 상담하며 그의 권리를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고 그에 적합한 직업들을 조사하다가 변리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과정과 향후 계획을 위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비판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의식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법학과에 지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 대입 준비방법

저는 내신점수보다는 학교생활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저를 보여줄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주로 준비하였습니다.

수많은 대학과 학과, 전형 속에서 나에게 맞는 전형과 학과를 찾는 것은 대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핵심인 법을 공부하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 중 법학전공이 있는 학교를 찾았고, 현재 나의 성적과 위치에 맞추어 선호대학을 선발하여 전형을 알아보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도권 지역 이외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 주로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대학과 그들의 전형을 알아보는데 꼬박 이틀 밤만 새웠습니다. 저의 주관으로 바라보면 미래지향적으로 이들의 시간은 충분히 투자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톨릭대학교 지역균형전형으로 법학과에 지원하였고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름 방학식, 많은 대학들의 입시설명을 듣던 시기에 가톨릭대학교는 제 기준에서 타 지역이라서 직접 입시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모집요강을 살펴보다가 대구 EXCO에서 대학입시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가톨릭대학교 부스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참여하였습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스에서 헤매던 것도 잠시 가톨릭대학교 부스를 발견하고 바로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스에는 한 분의 선생님이 계셨고 저의 요청에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저는 성적에 비해 상향인 가톨릭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의 생활기록부를 보시며 교내활동의 여러 활동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고 용기를 주셨고 마지막에는 가톨릭대학교에서 만나자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톨릭대학교에 원서를 내기로 다짐하였고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면서 성과가 나고 이로 인해 행동변화가 생긴 일들을 나열한 후, 스스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정리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 쓰고 싶은 교내활동이나 수상실적 내용을 선택하여 각 문항별로 나열한 후 각 활동별 인과관계와 글자 수 등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 첫 시작이 어렵다면 글을 작성하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낼지 목차를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자 수는 제한글자에 가깝게 맞추고, 본인이 지원학교 인재상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 1,2,3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느낀 점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그 당시의 감정이나 생각을 적어주면 나만의 이야기 또는 느낀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번 문항에서 학급간부로서 진행한 학급비 기부와 매년 한 '생명사랑 걷기' 봉사활동의 인과관계에 맞추어 맡은 역할과 활동을 적은 후 당시의 보람찼던 감정과 성취감을 위주로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또한 학우들을 배려하고 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였으며, 학급비를 둘러싼 갈등을 관리한 후 기부와 봉사 활동 속에서 협력한 저를 표현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또는 선배들에게 많이 첨삭을 받아야합니다. 가능한 첨삭을 많이 받는다면 문맥이 정리되어 논리적인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로 본인을 표현하기에 부족했다면 그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법정경찰부 면접후기를 보고 저의 서류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이 예상 질문에 대한 나만의 대답을 개인카메라로 촬영을 한 후,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꾸준히 저의 생활기록부를 정독하였고 실제 면접 대기실에서는 긴장을 풀기위해 따뜻한 물을 마시며 안정을 취하였습니다.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재치를 발휘하여야 합니다. 재치란? 눈치 빠른 재주, 능수능란한 솜씨를 말합니다. 면접관님의 질문의도를 눈치 빠르게 파악하고 아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하고 모르는 질문도 당황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요청한 후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능수능란하게 재치 있는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관점에서 문제의 답을 생각해보라 말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평가자의 관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즉, 평가자들이 나의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읽고 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수백 개의 고등학교에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때문에 나만의 독특한 활동으로 어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같은 활동이더라도 나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저의 꿈을 위해서 학생자치모의법정, 학생회, 교내경시대회, 봉사, 학습동아리 등 교내 활동 중심으로 제 역할을 분명히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높은 가산점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손아람’ - 소수의견

이 책은 법조인으로서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책으로 주인공은 약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 강자인 정치인들과 법정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형법상의 다양한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사건을 추론하는 내용을 통해 논리적 추리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조인으로 어떠한 자질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 나만의 대답을 정리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법조인이 되겠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나의 진로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면 입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원동기와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저작권법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학습하고자 상법과 민법 위주의 강의를 자주 듣고 주로 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헌법 강의를 찾아서 듣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는 민법, 상법, 회사법, 헌법, 형법 등 다방면에서 훌륭한 교수진들이 있어 원하는 강의, 필요한 강의를 자유로우면서도 수준 높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강점 중 하나는,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다른 곳에서도 강의교재로 쓰이는) 교재로 해당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의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학과생활과 융복합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학과 내 학회를 통해서 모의헌법재판, 모의국무회의 등 전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활동이 많고 국가기관을 방문해서 관계자(해당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와 질의응답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학부제로 운영이 되어 가톨릭대학교만의 법학, 행정, 경제가 통합되어 법학행정경제의 공통 분모를 찾아 융합적 인재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작권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의 진로이므로, 그 시작으로 제가 아는 것을 널리 알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교내 입학사정관실 소속 기관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입시 정보와 경험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고, 전공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법학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정보전달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법은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1) 공무원시험

경찰, 법원, 교정직에서는 법학을 전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법원 공무원직에 합격한 선배들 중 법학전공자가 다수였습니다.

2)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진출하여 필요한 학문을 공부하며 법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은 높은 로스쿨 진학률을 보여주는데, 사교육 없이 교내 스터디와 교수님들의 강의를 바탕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의 로스쿨에 합격하고 있습니다.

3) 취직

사기업의 인사과, 법무과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은 모든 부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기자(법학지식이 업무에서 도움이 됨), 행정직처럼 다양한 분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법학전공은 우리 생활에서 떼어 수 없는 생활규범 중 하나로 가장 기본이지만 어려운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motivation을 하는 기회를 갖고 나를 돌아본다면 법학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의 동기를 잘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길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정완



저는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중 ‘Do Dream전형’과 ‘학교장추천전형’에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법조인이라는 확고한 꿈이 이 있었기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내용은 오로지 법조인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에서 주관했던 ‘학교폭력 근절캠페인’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동아리활동도 3년 동안 모의재판, 시사토론, 법 상식 공부하기, 법 관련 영상보기 등 법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생활동안 진로희망에 대한 열정으로 법과 관련된 활동들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 저의 학교생활기록부는 법학과에만 전공적합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다른 학과에서는 힘을 쓸 수 없었던 학교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시 전형 6개 중 법학과가 아닌 나머지 4개는 모두 떨어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당시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학교장추천전형’으로 지원했던 것은 예비 변호였기에 마지막 남은 동국대학교 법학과 ‘Do Dream전형’에 모든 것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을 깨닫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챙겨서 책상 위에 펴두고 연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 $24 + 4 = 170$ ’이라는 연산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생활기록부 24장과 자기소개서 4장을 가지고, 명사를 위주로 키워드를 잡아 밑줄을 그으며 170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였습니다. 정읍이라는 시골마을에서는 사교육의 힘을 빌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한 부씩 더 뽑아서 친구에게 모의면접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교수님 한 분과 입학사정관 한 분, 총 두 분께서 면접을 진행하셨습니다.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부터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한 봉사활동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법과 관련된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 차이는 무엇인지 등 총 13가지 질문을 약 15분에 걸쳐 질문하셨고, 모두 예상했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대답하고 즐겁게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그 때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았을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반드시 꼭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다니고 싶다는 절실한 ‘간절함’을 표현했던 것이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국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게 된 저는 지금 ‘법학입문’, ‘민법총칙’, ‘헌법총론’ 총 3과목의 전공과목과 공통교양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18학점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강의수강 이외에 ‘학생부전형알리미 Dreamer 7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동국대학교 입학처 소속의 학생이 되어 학생부 전형에 관한 입시설명회를 학생입장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소모임 축구동아리 ‘FC FL’를 하며 취미생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곳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는 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하고 Legal Mind를 형성하여 국제기구 직원, 공무원, 기업의 법무팀, 국내외 로스쿨, 법무실무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전공트랙제'를 실시합니다. 이는 법학과 강의를 진로에 적합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과목을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졸업한 많은 선배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시절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입시에 대한 정보 하나라도 더 알아보려는 하는 고등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대학생 전공멘토단이 되어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사회과학

사회과학 영역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경험적 지식체계를 구축하는 과학이라 할 수 있다. 관련 분야로는 심리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국제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소비자·가정자원, 언론·방송·매체학, 도시·지역·지리학, 행정학, 인류학, 군사·국방·안보, 문헌정보학, 교양사회과학 등이 있다.

심리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국제학
아동·가족학
사회복지학
언론·방송·매체학
행정학
인류학

심리학

심리학 분야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인간의 마음에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개인에 초점을 맞추며 경험과학의 방법론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인간학들과 구분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기초심리학, 정서심리학, 인지심리학, 임상 및 상담심리학, 산업 및 조직심리학 등이 있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김수빈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고 ‘내가 저 상황에 있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지금 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이러한 대화 습관을 반복하다보니 심리학이라는 전공에 관심이 갔습니다. 심리학이라는 전공에 관심을 가진 후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의 진로를 찾아보니 상담관련 진로가 있었습니다. 평소 타인의 심리를 파악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심리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전형 준비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심리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수시 전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학과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적성을 찾아갔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심리학과에 가야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심리학과 관련된 교내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것이 고등학생으로서 관련 서적을 읽는 것 이외로는 전문적으로 공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나중에 심리 관련 직업을 얻고 정말 잘할 수 있을지 알기 위해 심리 관련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래심리 상담동아리에 가입하여 다양한 상담기법을 배우는 것 뿐 아니라 또래조정교육도 받았으며, 멘토멘티활동을 하며 상담과 관련된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목표로 정했는데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소개서, 면접 뿐 아니라 비교과활동, 공부 모두 끊임없이 해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이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딱 보았을 때 눈에 띄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눈에 띄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문장의 끝맺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멋있고 세련된 말을 많이 써야 하는지 등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점을 입시 담당 선생님께 여쭙보았지만 자기소개서에는 정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도 너무 불안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제 언어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정말 많은 조언이 있지만 제가 많은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정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내용을 멋진 말로 풀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면접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이나 모르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피하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여 계속해서 면접을 연습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생활기록부를 보며 간단하게 적힌 줄도 놓치지 않고 모든 문장에 대해 면접 예상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면접관이라면 이 활동에서는 어떠한 질문을 하실지 등을 고민하며 만들었습니다. 면접 질문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조리있게 설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가며 면접을 연습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목소리의 크기나 시선처리, 손동작 등을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의 생각을 조리있게 말하는 연습을 자주 하며 면접을 쉬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심리학은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상담심리, 범죄심리, 임상심리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는 다양한 심리학 분야에 대한 전공강의를 들으며 자신에게 맞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심리사업단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심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심리와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여 수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심리사업단에서는 심리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과 심리학과 학생이 직접 만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멘토링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에서는 심리학개론이라는 수업을 통해 심리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우며, 2학년 때부터 성격심리학, 산업심리학, 소비자심리학, 인지심리학, 감각 및 지각,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임상심리학 등을 통해 세분화된 심리학 분야의 지식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3학년 때부터는 심리학과 관련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범죄심리 및 실습, 상담 면접 및 실습, 진로 상담 및

실습, 청소년 상담 및 실습, 경력개발 코칭 및 실습, 임상현장실습 및 지도, 아동상담 및 치료실습 등의 실습수업을 통해서 전공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진로

심리학과를 졸업한 후 대부분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학부과정에서보다 더 깊이있게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졸업 후에는 다양한 분야로 진로가 정해지는데 기업의 인사 또는 마케팅 분야,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프로파일러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데 심리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상담심리사, 발달심리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등이 있습니다. 많은 심리학과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다양한 분야의 심리를 공부한 후 자신에게 맞는 분야로 진로를 선택합니다.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박해준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중, 고교 생활동안 주변의 여러 친구들을 보면서 불안한 청소년 시기에 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더 안정된 유년기를 보내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힘든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청소년지도사 또는 심리상담사를 꿈꿔 현재 광운대 산업심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준비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이 전형을 통하여 입학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2학년 때 까지 논술을 준비하였지만 교내에서 한 활동들이 꽤 있었고 점점 논술의 선발정원이 줄어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급하게 바꾸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과정은 약 3개월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은 1학년 때부터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많은 학생에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서는 두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본인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기 전에 타인의 글을 읽거나 첨삭을 받지 않을 것, 물론 처음 쓰면 막막하고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조차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모든 수험생이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다른 사람의 글이 머릿속에 맴돌고 결국 무의식적으로



따라 쓰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 글은 절대 여러분의 글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심층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하지 못하는 큰 이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고 문맥이 맞지 않더라도 끝까지 써본 후 도움받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 친누나에게 도움을 부탁하였지만 같은 말을 들었고 후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말 맞는 말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학교별 제출 자기소개서는 다르게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심리학과를 가고자 했을 때 모든 학교의 과 이름이 심리학과가 아닙니다. 지원단위가 단과대(추후 전공선택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저희 학교와 같이 산업심리 또는 교육심리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 말은 같은 학과라도 학교별로 특이점 또는 강세인 분야들이 있고 여러분은 이 점에 유의하여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청소년 학과를 지원할 때와 심리학과를 지원할 때 그리고 저희 학교인 산업심리학과에 지원할 때 모두 다른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미래 진로에 관한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교과목을 살펴보며 정말 세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작은 팁이 있는데 가장 먼저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면접 순서는 지원서 접수 순서대로 정해지게 됩니다. 때문에 확실히 지원의사가 있는 학교라면 가장 먼저 지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의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초두효과'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가 가장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더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로 갈수록 면접관의 체력과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밖에도 대기시간이 꽤 길어 수험생 본인이 긴장감에 지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지원을 첫 번째로 하였고 두 번의 면접을 맨 처음으로 보았으며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심리학과를 기준으로 추천 드리고 싶은 교과목은 크게 없습니다. 대부분 사례와 실험위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추천해드리고자 하면 생물과 수학 정도입니다. 심리학은 과학을 기초로 합니다. 때문에 눈의 구조부터 뇌에 전달되는 신경과정까지 학습합니다. 그리고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수학을 놓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추천도서로는 대학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심리학 개론 책을 구하여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심리학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시중에서 파는 심리학서적들은 너무나도 재미있게 서술하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전공책은 다릅니다. 딱딱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4년 동안 배워야 할 학문이며 이를 확실히 인지하여 본인의 적성과 비교하는 과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학 중인 산업심리학과에 대해 약간 설명하자면 조직의 효율을 관리하는 학문입니다. 조직의

구조에 대해 평가하고 재설계 해주기도 하며 고위직들의 부하 관리법에 대해 코칭을 하기도 하고, 회사에 필요한 신입사원의 조건들을 정리해주고 선발 방법에 대해 지도해주기도 하는 역할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심리학과 하면 독심술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것 같지만 절대 심리학은 그러한 학문이 아니며 철저한 연구와 실험의 결과로 이루어진 추측이 아닌 과학적 결과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멋있어서 라는 생각으로 지원해볼까 하는 친구들은 입학하여 진로에 대해 방황하게 될 수 있으니 충분한 고려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늦은 것은 없으며 인생의 답은 대학이 전부가 아니니 결과에 실망하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차분히 그리고 현재 고3 친구들과 수험생활을 즐기며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김은수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심리학과가 전국에 단 하나뿐 이기도 하고 교육학과 심리학 두 가지를 같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학과 선택을 할 때에 1순위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학적, 심리학적 기법과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교육심리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를 입학해서는 심리동아리를 찾아서 들어갔고, 여름방학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1:1 학습지도하는 교육봉사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에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스스로 팀원들을 꾸려 교육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20차시로 활동내용을 꾸려서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고, 교육적인 이슈와 여러 나라의 교육영상 등을 찾아보면서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제 관심분야에 대한 활동이 자연스럽게 쌓여갔고, 학급회장과 학년회장 등의 리더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원하려는 학과와 알맞은 활동들을 했고, 진솔하게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원하는 학과와 비교과 활동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6개를 다 준비했지만, 내신 성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대학을 결정할 때부터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걱정을 달고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성적이 하나의 중요한 평가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결과를 좌우할 만큼 큰 요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꼭 성적이라는 수치만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알맞은 전형을 찾아서 잠재력을 마구 뽐낼 수 있기를 바랄게요!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저는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가장 우선시로 했었습니다. 각 대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해년도의 모집요강과 기출문제, 경쟁률 등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올려둔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니까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방법을 추천할게요. 학원이나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자료와 정보도 도움이 되지만, 본인이 스스로 찾아보면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서울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매년 만드는데, 이렇게 각 대학교의 특이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각 학교에서 직접 제작한 자료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는 발표(제시문)면접과 서류면접을 보고 입학할 때가 때문에 어떠한 제시문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출문제는 물론이고 여러 시사관련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알아보았어요. 실제 면접 때에도 제시문 이해에 큰 어려움 없이 발표면접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면접 분위기는 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정말 좋고 수험생들을 편하게 해주려는 분위기입니다. 보통의 학교들은 서류면접이 이루어질텐데, 서류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이 했던 활동과 서류에 적혀져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숙지하는 것입니다. 긴장을 해서인지 몰라도 앞에서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님께서 학생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단기간에 준비하기 보다는 원서를 쓸 때부터 시작해서 생활기록부 분석을 조금씩 하면서 예상 질문도 생각해보고 자기소개서에 쓸 만한 소재들을 뽑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활동한 것도 많고 다 좋아하는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어떠한 활동을 위주로

적어야할지 선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어떤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거나 혹은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다는 생각이 들면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다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쓰고 보니 한 카테고리 안에 묶이는 활동들이 생길수도 있고, 줄글로 적을 때는 막막했지만 서로서로 활동들 사이의 연관성이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활동을 정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각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원하는 초점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1. 미움받을용기 (베스트셀러라 한 번쯤은 들어봤겠지만, 요즘 뜨고 있는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여서 추천합니다.)
2. 창가의 토토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람직한 교육자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1학년 때는 교육학개론, 심리학개론을 배우고 지금은 교육심리학, 성격심리학, 교육심리통계 등을 배우고 있어요. ‘교육심리’학과이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는 교직이수를 하면서 주로 다루게 되고, 전공 수업에는 심리학 위주의 교육과정도 편성되어있어요.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교육심리학과에 대한 관심도 많고 경쟁률도 엄청나요. 그런 만큼 간절한 친구들이 뽑혀서 서로에게 배울 점도 많고, 무엇보다 한 학년에 30명인 소수학과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교육심리학과가 특별한 이유는 타 대학교의 심리학과와는 다르게 ‘중등교사 상담 정교사2급 자격증’이 주어진다라는 점이고, 타 대학교의 교육학과와 다른 점은 교육과정 내에서 심리학의 분야를 배우고 다룬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심리학과 내에서 인턴십이나 학술교류, 지역사회연계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하며 알찬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진로



사회학

사회학 분야는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모색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여러 개인들이 어떻게 사회라는 집합체를 이루며, 어떤 방식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가를 구조와 변동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비교사회학, 정치사회학, 경제사회학, 정보사회학, 사회조직론 등이 있다.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최지안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생활 3년간 대학의 학과들과 미래의 진로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을 저의 학과로 선택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난 후였습니다. ‘기자’라는 꿈을 꽤 오래 가지고 있던 탓에 신문방송학과를 가장 당연한 진학의 선택지로 생각하기도 했고 역사나 유물에 대한 막연한 관심으로 고고미술사학과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토론이나 시사에 관심이 많고 글쓰기나 발표를 좋아하여 정치외교학과 혹은 국문학과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사회학이라는 학문자체에 매우 큰 관심이 생겼고 사회조사분석 특강을 수강하면서 사회학의 존재와 본 학문에 매력을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현상이나 규율을 학문적으로 판단하는 것, 모두들 ‘객관적일 수 없어!’라고 ‘원래 그런 것’이라 여기는 것들이 왜 그러한지 알아내는 것. 이것들이 다른 학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사회학의 매력이자 제가 사회학을 배워야만 한다고 느끼게 한 모습들입니다. 또한 사회학도로서 사회를 보는 다양한 눈을 가지며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전공자분의 조언을 토대로 기자라는 저의 꿈과도 더없이 적합한 학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의 실질적인 취직이나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영대학이나 혹은 의료 계열과 같은 그들의 기준에 ‘실용적인’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권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의 4년, 그리고 전공이 취직을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앞으로 대학에 진학할 혹은 진학한 학생들이 누려야할 대학 4년은 그 이상의 흥미와 적성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지식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학이 마냥 취직과 관계없는 전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 전의 이와 같은 확고한 목적의식과 학문에 대한 확신은 제가 대학에 진학하여서도 전공에 흥미를 느끼고 ‘전공멘토단’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추진력이 되었음을 자부합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동아대학교 사회학과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입니다. 학생부종합이라는 입시전형의 특성 덕분에 고등학교 재학 중에 단지 교과목 학습만이 아닌 다양한 교내외 활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사회학과를 목표로 했던 저는 사회학이라는 학문 자체와 시사에 관련된 활동을 주로 접했습니다. 특히 교내에서 진행되었던 토론대회나 사회 탐구 보고서 대회, 교외에서 진행된 사회조사분석실습 수업들을 통해 고등학교 시절 전공과 적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이를 찾아내고자하는 적극성을 바탕으로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제가 학창시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입시 준비였습니다.

시작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한다는 목적으로 다양한 대회,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본 과정에서 정말 나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가 되고 싶어 신문방송학과를 한때 꿈꾸기도 하였으나 교내 ucc대회와 같은 영상을 편집하고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활동들보다 사회탐구보고서 대회와 같이 사회현상을 관찰하고 이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일에 더욱 흥미를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다 적합한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적성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시전형 6개를 거의 다른 학과를 지원할 정도로 전공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필연적으로 작성해야했던 자기소개서를 만들어가며 그 속에 녹여낸 나의 3년이 향한 방향과 지금의 내가 원하는 학문이 무엇인가를 어느 때보다 깊이 고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학도로서의 저의 확신을 얻게 해준 결코 짧지 않은 과정들이 자기소개서로 확신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경험이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적성과 흥미를 찾아내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의 숨겨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늘 생각하게 하는 저의 경험들입니다.

□ **동아대학교 사회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사회학과에서는 사회적 현상 혹은 체계 때로는 현재에 존재하는 경제적 관념들이 발생한 원인과 이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관련하여 학습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정의 하자면 ‘사회과학대학의 철학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문과학대학에서 철학과의 학문적 토대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듯이 사회학도 사회과학대학의 다양한 학과들의 학문적 토대이자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학과입니다.

사실 상상 이상으로 범위가 넓고 다양한 학문이라 전공학생들도 다양한 사회학 분야에서 흥미나

관심도도 상이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꼽자면 사회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임에도 그 폭과 범위가 매우 넓어 풍부한 지식을 얻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목으로는 사회문화 과목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고 이의 기초가 되며 기업사회와 같은 교과목에서는 경제와도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이라고 하면 상당히 실용적이지 못하고 여러 학자에 대한 공부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사회복지학과와 유사한 학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마주하곤 합니다. 사회복지학과와 유사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사회과학대학 소속이라는 것에서의 어느 정도 유사성은 분명 가지고 있지만 그 명칭이 비슷할 뿐 주요 학습 요소가 다르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학이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사회현상과 체계들에 대한 연구와 학문이 과거에만 머무른 것이 결코 아니며 현재의 기업체계 경제 체계, 나아가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현재의 초점에 맞춘 연구와 학문적 가르침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지식들은 정책연구나 객관적인 사회 사실 보도에 가장 적합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 사회학과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고교시절 사회문화라는 교과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학과의 다양한 학문들은 사회문화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회문화에 관심이 있고 적성이 맞는 학생이라면 사회학과 진학에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졸업 후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사회학과에 입학했으나, 내가 기자로서 이루고 싶었던 가치,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직업들이 참으로 방대하다는 것을 최근 깨달았습니다. 정책연구원 혹은 통계 관련 직종 등을 생각하고 있는 요즘 사회학의 직업 선택의 폭이 결코 좁지 않다고 느끼며 학문과 진로의 결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사회학과는 특성화된 전공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분야로의 취업 및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사회학과는 부산·경남지역의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지역사회전문가’ 과정, 사회조사방법의 전문적 지식과 조사역량을 갖춘 ‘사회조사분석사’ 과정,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지닌 착한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동아대학교 사회학과 홈페이지 참조)본 특성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사회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으며 사회조사 혹은 사회 기업 등에 관심이 많은 고교생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학과입니다.



정치외교학

정치외교학 분야는 국내외의 정치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분야이다. 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정치이론, 정치제도, 정치과정, 국제정치, 한국정치, 정치사상, 비교정치, 정치외교사 등이 있다.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나연

반갑습니다. 저는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강나연입니다. 제가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고자 한 가장 큰 이유는 저의 꿈과 목표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정치 또는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관심 분야와 목표를 위해 ‘정치인’의 길을 가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면, 제가 좋아하는 공부도 하고 정치 및 시사 문제에 더욱 비판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으며, 실제 정치 활동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공부도 좋아했지만, 공부뿐만 아니라 ‘경험’과 ‘도전’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만 가능한 활동들을 최대한 많이 해보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많은 대중들 앞에서 발표하고 나서는 것을 좋아했기에 스피치 대회, 토론 대회뿐만 아니라 모의재판대회, 과제연구대회 등 참가하지 않은 대회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정치인의 자질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해 고등학교 재학 내내 신문동아리 NIE(Newspaper In Education)의 회장을 맡고, 학급의 임원진으로서 학생들의 복지와 권리를 위해 힘썼습니다.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었고 ‘정치인’이라는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과 자질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즉, 스스로에게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한 신념이 있고, 언제나 당당하고, 정의로우며, 리더십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으며 누구보다 친근하고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학생 신분이었던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 졌습니다. 많은 일에 도전하고 경험해보는 것, 많은 사람 앞에 나서보는 것, 누군가의 대표자가 되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볼 것 등. 저는 이러한 추상적이지만 작은 목표들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수많은 대회 수상 경력과 회장 및 임원진으로서 활동했던 3년동안의 많은 기록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 및 시사 안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력과 수용력을 위해 신문 동아리에 가입하여 중요한 기사를 스크랩하고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생소한 정치 용어들을 배웠습니다. 물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실제로 저의 소심했던 성격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재료가 많으니, 가장 바람직한 재료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임의로 작성하고 담임선생님께 첨삭을 받았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제 자기소개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그대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에서 더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만들고 싶었던 저는 평소 많이 따랐던 국어 선생님께 첨삭을 부탁드렸고,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출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고 첨삭 학생이 많아 선생님께서도 제 것만 봐주실 수 없었던 상황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지만, 굴하지 않고 저의 학교생활을 다시 되돌아보며 차근차근 자기소개서를 뒤엎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주관적인 몇 가지 팁들이 생겼습니다.

짧게 언급하자면 첫째, 많은 지원자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경험과 강점을 살려 자신의 목소리로 글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타인의 자기소개서는 되도록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글의 첫 문장은 “ ”의 형식으로 짧지만 인상 깊은 헤드라인을 언급하는 것이 보기에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셋째, 선생님들께 첨삭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한 분에게 또는 너무 많은 선생님들께 첨삭을 받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지나친 과장 또는 각색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소설입니다. 다섯째,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해 꼼꼼히 조사하고 자기소개서에 적절하게 녹여내세요. 여섯째, 맞춤법 검사 사이트를 통해 문법에 어긋난 문장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일곱째, 명확하고 단호한 어조로 끝맺음을 분명하게 하세요. 여덟째, 제한 된 글자 수를 꼭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문장이 잘릴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공통 양식 1번 문항은 “소통하고 ‘공감’할 줄 아는 준비 된 정치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정치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자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의문문으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자질에 대해 언급하고,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도서를 읽고 바라본 참혹한 현실과 느낀 점을 통해 ‘올바른 정치, 깨끗한 정치란 사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숨은 내면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으로 모든 국민이 보편타당한 행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서론, 본론, 결론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책의 내용보다는 내가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교과 학습을 통해 깨닫고 발전했다는 단순한 내용보다는 독서를 통해 깨달은 내용이 더 특별하고 직접적으로 와 닿을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동아대학교 면접의 경우에는 어렵고 복잡한 시사 문제 보다는 지원자의 인성과 잠재력 및 학교와 학과에 대한 관심과 노력, 계획 등을 위주로 질문했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생각이나 계획 등을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저의 지역구 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사했던 기억들을 토대로 면접관님들께 '나를 놓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은 평소의 품행과 태도, 학과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노력, 계획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의 특성 상, 정계 또는 외교 분야를 비롯하여 언론계, 학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합니다. 현재, 저는 정치외교학과에서 비교지역정치, 현대매스미디어와 정치, 제3세계 정치론, 한국현대정치사 등의 전공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시생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지만 정해진 분량으로 정리하려다 보니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멘토로서, 입시 생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학

국제학 분야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인문계열의 언어·문학영역이나, 일정한 국가나 지역의 문화, 역사, 사상 등을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인문계열의 지역분야와는 구별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국제관계이론, 국제협상론, 국제정치경제론, 비교정치체제론 등이 있다.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국제통상학과) 장하은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가톨릭대 국제학부 내의 여러 트랙들 중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하고 KOTRA(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입사해 여러 수출, 무역관련 상품들을 기획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목표는 KOTRA에 입사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위한 일’, ‘나라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에 중점을 두어 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어마어마한 경제발전을 갱신하며 놀랄만한 속도로 강대국대열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힘이 막강하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FTA문제나 한일 간의 독도문제 외교협상들을 보면 아직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열망이 들었고 그 첫걸음이 바로 ‘경제발전’이라고 생각해 통상, 무역,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실무능력을 기르고자 가톨릭대 국제학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저는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 이렇게 세과목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재수생으로 입시를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재수시절에도 역시 세 개의 전형을 준비하며 입시를 준비하는데 더 철저히,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활동은 바로 제가 원하는 전공에 맞춰서 진학하기 위해 했던 동아리 'VANK'입니다. 저는 신설고등학교 1기생으로 주변에 도움을 줄 선배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체가 되어 동아리를 만들고 이끄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모든 활동을 기획했기에 '반크동아리'는 저에게 있어서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담당선생님 섭외부터 동아리 부원 모집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과 동아리 창설 전 '전국반크동아리연합'에 가입해 미리 연합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등 '반크동아리'의 모든 활동이 제 손을 거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제가 스스로 찾아보거나, 특히 재수시절에는 학원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아는 선배가 없는 학생들은 이렇게 대입포털이나, 대학에서 실시하는 모의면접, 학생부 종합 모의체험 활동 등을 신청해 많은 대학선배, 멘토를 만나 자료를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면접/논술/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실제로도 제가 느꼈던 논술 분위기나 면접분위기는 그야말로 치열하고 긴장감 넘치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긴장감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은 한순간의 순발력으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그 만큼 자신감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은 결국, 평소 학교생활 안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데, 저는 1학년 때부터 전공에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은 거의 다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안에서 본인의 숨어있는 역량들을 찾는 데 수월할 것입니다. 1학년 때부터 성급하게 진로, 전공을 찾지 않아도 좋습니다.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적극적으로 대회,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재수생 때 합격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면접관님께서 요구하셨던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통해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저는 2번의 학생부 종합전형 도전 끝에 처음으로 한 군데에서 면접을 볼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처음 합격해 면접에 응시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던 저는 정시 성적이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때보지 못했던 면접이 보고 싶어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면접을 끝낸 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때 솔직하게 '여기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처음 붙은 곳이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대학에 꼭 온다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라고 대학에 대한 저의 솔직함, 간절함을 어필했습니다. 그 덕에 대학에 당당히 최초 합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국제학부에서 국제통상 전공을 위해 국제통상이론, 국제학과경제 등 국제학부 전공 과목들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제 자신에게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입시생 시절에는 무지 어두운 학생이었습니다. 입시에 관한 고민, 트라우마, 내신, 비교 등 대입현실에 부딪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밝아지고 사회성을 많이 기르게 되었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저희 학부는 한 학년 당 72명 정원으로 타 학과에 비해서 매우 소수입니다. 그러기에 학과 사람들은 서로서로를 잘 압니다. 처음 입학 전 까지 만해도 학교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지만 입학 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학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학교에 대한 만족감, 애교심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동아리 활동에 가장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실 소속기관동아리인 날아가대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입시에 관한 멘토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도전해보세요. 좌절하고 실패해보는 경험이 절대 안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중에 입시보다 더한 시련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 길일뿐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 택하느냐가 입시입니다.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떻든 개척하고 다양한 길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절대 입시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 입시도 좋지만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활동에 계속 도전하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성과로 이뤄보고 실패도 맛보면서 본인의 진로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어 본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더 좋은 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입시준비하시는 모든 중고등학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원하는 목표 이루시기 바랍니다.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이지영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운대학교 국제학부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공부를 하며 제 2외국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중·일의 역사, 정치, 국제관계 등을 공부하며 전문 지식을 쌓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배우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국제학부를 선택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광운대학교 국제학부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과목이 많은데, 고교 교과목에서는 한국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중국이나 일본을 공부할 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추천도서로는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입니다. 이 책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만 읽어도 좋고, 흥미를 느끼셨다면 2권까지 읽어도 좋을 듯합니다. 한·중·일 3국의 시선에서 본 동아시아의 역사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새로운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는 현대 일본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현대 일본 사회의 경우, 최근 일본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학생들과 토론하는 형식입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서 공부하며 보다 객관적으로 일본 사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해외 교류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중국 등 다양

한 국가에서 6개월이나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운대학교로 오는 외국인 유학생도 있기에 학교에서도 교류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학과에 대한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저는 국제학부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 2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학부에는 일본어 스터디나 일본인 학생들과의 교류가 가능한 일본어 소모임이 있어 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또한 1년동안 일본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국제학부에서 제 2외국어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한 선배들은 주로 외국계 기업, 은행, 항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국제학부에서 배운 교과목을 통해서 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고, 제 2외국어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었던 환경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광운대학교 국제학부는 한국, 일본, 중국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제 2외국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진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일본학전공 문푸름

□ 학과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무엇인가요?

저는 수시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고 6개 대학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 넣었습니다. 다른 전형과 달리, 성적과 비교과, 출결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골고루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 특성 프로그램이 많고 성적은 중간대인 제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전형을 준비하고, 면접에서 느낀 것은 정말 어느 한 부분만 좋다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재학 중인 대학 입학 면접에서는 생활기록부 1페이지에 있는 출결부터 시작하여, 봉사, 이수한 과목, 비교과, 독서, 성적, 자기소개서까지 골고루 질문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이 생각해도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이유를 미리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성적이 낮았다



면, 왜 낮았는지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한다면 면접관님도 조금은 이해하시겠죠?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일본학과”이므로 기본적으로 일본어는 알아야 하고, 제2외국어 일본어 수준 정도라도 배워오면 도움이 됩니다. 일본학은 경제·역사·정치·문화에 대해 다양하게 배우는 학과입니다. 경제·정치·문화는 지금 이 소개를 읽는 중에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관련 지식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수능 필수과목인 한국사나 동아시아사 과목이 연관 되어 있으므로 역사와 관련된 책을 꾸준히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수학, 전공 3분야가 있고 저는 그 중에 전공 분야 멘토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대일 멘토-멘티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는 일대일 멘토링 활동을 하고, 한 학번 복학생 선배와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공 강의에 어려움을 겪는 멘티의 학습을 도와주고, 저 같은 경우는 친한 사람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외에도 학교생활 부분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일본학은 사실 관련된 자격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어학시험 정도 있습니다. 일본어 어학 시험은 크게 4종류 있다고 볼 수 있고, 흔히 아시는 JLPT, JPT와 SJPT, EJU, FLEX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주로 취득하는 건 JLPT와 JPT입니다. 두 시험의 차이는 JLPT는 일본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 JPT는 한국 기업에서 주관하는 시험입니다. 활용빈도는 JLPT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이 1년에 2회 있다는 점과 과락 제도와 영역별 최소 점수가 있습니다. 반면, JPT는 토익과 마찬가지로 매달 시행되고 있고, 99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동·가족학

아동·가족학 분야는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생활 증진에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아동 및 가족발달, 영유아보육, 아동 및 가족(정)복지, 아동 및 가족상담, 가족관계, 가족생활교육, 가족정책 등이 있다.

동아대학교 아동학과 김소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관심이 있는 것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였고, '아동 전문 상담가'라는 꿈을 선택하여 현재 아동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일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며 친구들의 고민에 대해 공감해주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같이 고민해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리상담'에 관심을 가지며 이와 관련된 진로를 만들어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로 탐색의 날'이라고 해서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스스로 검색하고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하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알아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상담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상담기관에 찾아가 상담선생님께 직접 질문지를 만들어가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 여쭙보고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1학년 때는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에 있는 Wee 센터에 가서 상담선생님들께 다양한 상담사의 종류와 상담사가 지녀야 할 자질에 대해 배웠습니다. 2학년 때는 직접 울산에 있는 상담센터에 찾아가서 상담소의 현장 분위기를 느꼈고, 상담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내담자의 유형에 대해 들었습니다.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크게 와 닿았습니다. 어렸을 때의 상처를 잘 치유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간 발달에서 어렸을 때의 경험이 성인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동가족학과를 나오신 상담선생님께서 아동과 부모를 상담하시는 것을



보고, 심리학과에서만 심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가족학과 또한 아동을 중심으로 한 상담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심리라는 큰 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꾸준히 탐구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본 결과, 저는 ‘아동 전문 상담가’라는 꿈을 가질 수 있었고, 목표 학과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며 꿈을 구체화시키고자 아동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평소에 학교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 활동 직후에 날짜, 활동명과 함께 무엇을 배웠고 느꼈는지 간단하게라도 기록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고 또 그 활동의 직책도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더욱 느끼는 것이 많아 바로 느낀 점을 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을 대비해 글의 소재들을 미리 정리 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기록하고 정리한 덕분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저에게 글자 수가 정해진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의 질문을 읽고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내가 했던 활동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고, 활동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 제가 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한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활동(ex : 아동 관련 주제 보고서와 아동 발달&심리 독서 활동)을 묶음으로써 글의 주제를 잡아 방향을 정해서 글을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기록하고, 소재를 구분하고 묶음으로써 제가 한 활동에 대해 빠짐없이 자기소개서에 담을 수 있었고, 제 마음에 드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더 이상 자기소개서를 가감할 필요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수능 최저등급을 맞추는 연습, 그리고 논술 준비와 함께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면접 준비는 제가 했던 많은 활동을 정리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앞에서 그들의 눈을 보며 확실하게 제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면접장에 들어가 보니 긴장이 많이 돼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웠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비한 말을 모두 다 하지 못해서 속상했지만, 면접관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여쭙봐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제 꿈을 이루고 싶다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외치고 나왔습니다.

면접은 준비한 대로 완벽하게 치르지 못했으나, 서류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에 충실했고, 전공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며 경험하고 배우고자 했습니다. 이를 분량이 정해진 자기소개서에 제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서 최대한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을 어필했고, 면접에서도 마지막까지 간절함을 내보였습니다. 제가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활동마다 진심이 담긴 열정 그리고 꿈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아동학과에서는 영유아, 아동의 발달뿐만 아니라 전 생애 발달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인간 개개인을 알아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발달의 기반이 되는 사회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만들어어나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론과 흐름을 읽는데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발달, 아이의 발달과 사회성, 심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책을 읽었습니다. 심리학의 대가인 프로이트를 비롯한 인간의 발달과 심리에서 대표적인 학자들을 인물로 등장시켜 재미있게 소설로 알려준 이남석의 ‘자아 놀이 공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우연히 송명자 교수님의 ‘발달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학과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전문가이신 이영애 교수님의 ‘아이의 사회성’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를 보며 아이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등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를 파악하기’입니다. 온전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은 인생에서의 목표설정과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파악하고 인정하며 나만의 것을 찾아 나가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행동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난 후, 그것을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려 나가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 몰두하여 끊임없이 알아보고, 경험해 보고, 느껴 보는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기록하기’입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을 지켜가며 예쁘게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기록만 해도 나중에 본인에게 중요한 자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며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이 어떤지 글로 표현을 하면서 본인을 다독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 분야는 인간의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민간이 제공하는 정책과 제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등이 있다.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부(실버산업학전공) 이정연 

□ 재학 중인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지 고민하다가 실버산업학과에 관심이 생겨 실버산업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버산업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한 전형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대학입학을 위해 실버 산업과 관련된 독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사회문화 등 다양한 학문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버산업 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보이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작성하였습니다. 1번 문항에는 제가 실버산업학과를 준비하며 한 노력들을 작성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아리 활동으로 VANK 부기장, 기장을 하며 우리나라 역사를 바로잡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제 꿈을 더 확고하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토론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토론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생각을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생활기록부, 전공 관련 질문, 제 꿈 관련 질문 등 다양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면접당시 제 답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

을 때 좌절하지 않고, 면접위원님의 말씀에 수긍하면서 자신감 있게 제 생각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으로는 경제와 사회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실버산업에서는 금융, 경제와 관련된 강의도 듣기 때문에 경제시간에 배운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버산업과 관련된 경영강의에서는 사회문화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버산업학과는 40대부터 100대까지 중장년층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질 높은 서비스와 용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합니다. 실버산업학과에 대한 정보, 용품, 경제, 회계, 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실버산업학과의 가장 큰 장점은 고령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국내유일학과라는 것입니다.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는 그 직업에 실버만 붙이면 새로운 직업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하기 전에는 실버산업학과와 사회복지의 차이점을 잘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입학하고 실버산업학과에 대해서 알아가고 공부하면서 실버산업학과와 사회복지의 차이점을 점점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실버산업학과에 대한 현재 저의 만족감은 120점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수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버산업학과의 오해 중 하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과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실버산업학과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시니어가 되실 중년층도 함께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실버산업학과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모든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실버산업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은 화장품회사, 식품계열 회사, 금융계열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하여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버산업학과를 졸업하게 된다면 실버산업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창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리더란 무엇인지, 조직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등 다양한 지식들을 쌓기 위해 배우고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자신이 공부를 왜 하고 있는지,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학교에 진학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고민을 하며 자신의 꿈을 찾는 학생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전현산



□ 학과, 전공 선택 이유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봉사활동을 하며 뿌듯함을 느꼈고 주변에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보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커졌다.

□ 준비방법

1)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다. 활동 스펙트럼이 넓을수록 자기소개서 내용이 풍부해지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진로 정하기.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그에 대한 과정을 서술하기도 쉽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하기 수월해지니까. 힘들었던 점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리하게 봉사시간 95시간을 채운 것이다. 공부와 봉사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꽤 컸던 것 같다. 선생님들도 지금 시기엔 공부에 집중하라는 말들이 많았고 스스로 이게 맞는 일인 걸까 하고 심적으로 지쳤던 것 같다.

2)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 결과로 얻은 것은?

지금 당장 앞에 닥친 상황들에 더 집중했던 것 같다. 봉사할 때는 봉사에만, 공부할 때는 공부에만.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일정 시간 동안에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공부할 때 모두 쓴다는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생활했다. 공부할 때도 봉사활동에 대해 고민을 하고 봉사활동 할 때는 공부할 고민을 해서 일어난 문제였으니.

□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1)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응할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세계 역사 이 과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단 사회복지도 사회제도의 기본적 틀 안에서 운영되는 활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 필요가 있다. 사회 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상, 어떤 시대를 거쳐 어떤 배경에서 복지 제도가 등장했는지, 사회변동에 따라 새로운 복지 제도가 등장함으로써 따르는 윤리적 문제는 없는지 등 이 네 가지 과목은 전공의 이론과 실질적인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부해두는 것이 좋다.

추천도서는 청소년 범죄의 사회 제도적 이론(김복준, 염건령)이다. 복지에 웬 범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의 학제적이기 때문에 정치, 역사, 법 등 여러 분야가 얽혀있다. 이 책은 청소년 범죄에 따른 복지 제도나 사회 정책이 서술되어있기 때문에 복지의 대체적인 흐름 파악에 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다만 자유 시간에 하는 활동이 다양해진 것 같다. 고등학생 때는 자유 시간에도 압박감이거나 그런 게 있어서 쉬어도 마음 한쪽이 무거웠는데 입학 후에는 확실히 그런 압박감이 줄어서 자유 시간을 조금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고등학생 때보다 더 바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과제나 팀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많아서 그에 할애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다.

3)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도?

사실 사회복지학과라고 하면 과 특성상 뭔가 차별해 보이고 튀는 염색 같은 건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두발이나 복장 등은 개인의 자유이다. 사회복지학과에 오는 사람들이 다 조용할 것 같지만 사실 유쾌하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교수님들도 전반적으로 유쾌하신 편이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4)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족복지학과나 아동복지학과 같은 학과를 유사 학과로 들 수 있는데 같은 복지에 대해 배우지만 사회복지학과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사회전반적인 흐름이나 복지에 대해 배운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1)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주로 비영리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시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시는 것 같았다. 아직 1학년이라 졸업한 선배들은 잘 모르지만, 현재 재학 중인 선배들께서 따로 본인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스터디를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고는 한다.

2)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일단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 진출 분야가 더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따게 되면 다른 과정을 거쳐 의료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다. 혹은 어느 정도 공부한 후 사회복지공무원 시험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운전면허는 있는 게 좋은데 2종보다는 1종 면허가 기관에 소속되어 팀과 함께 움직일 때 용이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는 1종을 추천한다.

□ 하고 싶은 말

사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봉사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 학교행사나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소개서의 1번, 2번 문항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교내활동에 관한 내용에 관한 서술이기 때문에 학과 자체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해두고 공부와 교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허수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한 이유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활동하는 저에게 가장 좋은 전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로 인해 다른 사람이 희망을 얻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성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학과에 입학하여 수업을 들을 때는 이 전공이 맞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학과에서 배우는 것과 입학 전에 생각했던 부분이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과에 입학하면 이론보다 어떤 활동을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줄 알았지만 그러한 것이 아닌 역사부터 어떠한 모델과 이론이 있는지에 대해 배워서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수업을 듣고 그 중 내가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수업을 들으면서 점차 더 학과에 대한 흥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사회복지학과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에서 근무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한 후 진로를 결정할 때는 복지관을 제외하고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할 수도 있고 교정사회복지사, 학교상담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곳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도 종합복지관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로도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희망하기 때문에 정신보건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수업시간

에는 깊게 배우지 못하는 점이 아쉬워 정신보건관련 병원으로 올 여름 실습을 갈 계획이며 직접 현장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그로 인해 한 층 성장하고 싶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학과 4년제를 졸업을 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국가고시를 준비하여 매년 1월에 있는 1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합니다. 국가고시 자격증뿐만 아니라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복지관이 아닌 이외의 곳으로 진출을 희망한다면 관련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획득하여야 합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소개할 자리에서 주로 학교, 나이, 이름 정도만 말했던 저에게 1,0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하니 막막했습니다. 이럴 때 주변에서 최근에 대학에 입학한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쓰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대학 입학한 분이 없는 친구들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썼다고 해서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몰라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후 최종합격이 나왔을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제가 쓴 자기소개서와 제가 준비한 면접으로 대학에 합격했다는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사회복지학과라는 전공에서 입학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희망을 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도를 해 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다양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황성혁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복지관을 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 물론대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던 피아노학원과 공부방을 이용하면서였습니다. 이때부터 복지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학교로 진학 후 학교복지관을



이용하며 복지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다닌 성당에서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가 말벗서비스를 해드리거나 환경미화 등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성당에서의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또래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함께 하는 활동을 많이 경험하여 대인관계를 나이 상관없이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다양한 세대와의 대화로 세대 간 고민과 욕구가 다른 것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통해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꾸준한 대화로 세대 간의 다양한 고민과 욕구를 이해하고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사회복지상담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고교 교과목 중에서는 문과계열의 전공이지만 생물과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와 상담을 같이 배우면서 사람의 발달과정과 발달과정에 따른 심리변화를 배우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생물이 기반이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고 수학은 사회복지에서 설문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사회복지가 마냥 봉사하고 좋은 일만 하는 분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추천도서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입니다. 학과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학자의 이름이고 그 학자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입학할 한다면 수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에는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보건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가 있습니다. 복지계열 유사학과가 3개가 있지만 각 학과는 엄연히 다른 전공입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사학과 중에 유일하게 정신보건사회복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보건학과는 간호단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와 보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웁니다.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가 점점 중요해지면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식으로만 활동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상담이라는 분야를 같이 배울 수 있게 만든 학과입니다.

이러한 현재 사회복지현장의 흐름에 맞게 사회복지상담학과에 진학한다면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복지분야에는 복지관 뿐 아니라 청소년, 아동, 다문화, 장애인, 노인 등등 여러 가지 분야의 센터들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격증도 다양합니다.

취득유형	자격종	자격종류
졸업 후 즉시 취득	사회복지사 2급	국가전문 (보건복지부)
자격증 취득 응시자격 부여	사회복지사 1급	국가전문 (보건복지부)
	청소년지도사 2급	국가전문 (여성가족부) ※과정 이수시 필기시험 면제
	청소년상담사 3급	국가전문 (여성가족부)
자격증 취득 관련 과목 이수	건강가정사	국가전문 (여성가족부)
	직업상담사 2급	국가전문 (고용노동부)
	심리상담사 2급	민간전문
	사회조사분석사 2급	국가기술(통계청)



사회복지상담학과 졸업시 사회복지사 2급이 주어지며 1급 응시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건강가정사, 직업상담사 등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대학은 끝이 아니고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전공을 정하고 대학을 입학했다고 평생 그 전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입학하고도 자퇴를 하거나 휴학, 편입 등 많은 길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과를 못 가게 되어서 낙담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꼭 가고 싶었던 전공과 학교가 막상 자신과 안 맞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한 가지의 전공, 학교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넓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언론·방송·매체학

언론·방송·매체 분야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 학문으로서 여러 사회조직체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제 형태와 과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여기에는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광고의 역할과 광고에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등 광고관련 이론분야와 광고기획, 제작, 조사, 미디어 활용 등이 있다.

강남대학교 한영문화콘텐츠학과 차서빈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학생 때부터 문화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화의 흐름에 앞서는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앞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사회적인 현상과 다양한 문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참여형 콘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제가 느끼는 흐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극부, 영상동아리, 소록도 봉사활동 등을 체험했고, 문화콘텐츠학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 대입 준비방법

1)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학교 과전형 1개, 종합전형 4개, 논술전형 1개 준비했습니다.

2)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논술과 수능최저기준 충족, 자기소개서를 모두 준비하느라 시간분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3)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는 공부에 충실했고 방과후에 논술과 종합전형 준비를 했으며, 이를 통해 끈기를 배웠습니다.

4) 면접/논술/적성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논술은 학교별 기출문제 위주로 풀었고, 시간안배에 힘썼습니다. 면접은 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궁금할만한 예상문제를 종이 한 장에 가득 써넣어서 대답달기 연습을 했습니다. 면접 볼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심적 부담감 때문에 첫 번째 면접은 대답조차 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5)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고, 또 평소에 자기성찰을 해왔던 친구들이라면 무리 없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3년 내내 진로 희망사항이 일치했고, 기타 활동 역시 일관성 있게 해온 편이었으며, 제 목표가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깊게 고민했는가'를 충분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세상 속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해준 연극부 ZA8의 '2014 어린왕자' 작품]

문화를 만드는 사람은 콘텐츠를 담은 예쁜 그릇을 고민하기 전에 마음을 울리는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진로를 가진 사람들이 떠올리는 방송부 대신, 연극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방법은 나중에도 실습할 수 있지만, 이 순간의 감성과 사회, 현실을 오롯이 표현하는 것은 연극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극작팀을 구성하여 회의를 거쳐 어린왕자라는 캐릭터를 차용한 에피소드 형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용의 선정이었습니다. 저는 뜬구름만 잡는 내용이 아닌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치밀하게 담아내기 위해 한국문학책을 많이 읽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장면을 더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고 작품을 감상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소외로부터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를 대변하겠다는 목표 역시 갖게 되었습니다. 후에 무대연출을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구상하면서, 사회 역시 한 가지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 공연장에서 감명을 받고 우는 관객이 있을 만큼 몰입도 높은 극을 완성하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이 때의 경험 덕분에 인권연극제 봉사활동의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경제 탐구에서 복지와 분배라는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내 백일장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다음 해의 동아리 단장으로 선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나리오의 완성과 세상을 향한 첫발 '강우석영화제작반']

연극을 해보니, 극처럼 대본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영상미까지 동시에 갖추고 있는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우, 작가, 카메라 감독 등을 꿈꾸는 친구들과 영화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재밌지만 안타까운 고등학생의 현실이 드러나는 스토리를 구상해보자는 의견을 모았고, 야간자율학습실이 8층인 점을 이용하여 콘서트 표를 얻기 위해 학교를 탈출하는 가칭 “야자 탈출기”를 찍었습니다. DSLR 2대를 사용해서 한 장면을 두 각도로 찍고 편집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추격 장면을 위해 선생님을 직접 섭외하러 교무실을 드나들고, 넘어지는 장면을 찍다가 무릎이 까지기도 했습니다. 제작기간 동안 주연 중 한 명이 촬영 도중에 전학을 가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급하게 대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결말이 미흡했던 점이 아쉬웠지만, 작품 총괄로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 해에는 교내 미술 동아리와 연합하여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완성작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다큐멘터리의 성공적인 게시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오히려 다소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년의 반응이 더 열렬했던 것을 보면서 수용자의 연령층을 고려한 소재 선택이 매우 중요함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균 성적이 타 지원자보다 높은 편이었으며, 면접 성적이 우수했다(높은 전공적합성, 철저한 면접 준비)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면접 질문이 있었습니다.

Q. 학생의 경제과목 성적이 유난히 높은데, 왜 굳이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요?

A. 제가 한영문화콘텐츠학과를 꿈꾸면서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삶을 문화콘텐츠에 잘 녹여낼 수 있을까”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경제라는 과목은 인간의 삶을 도식화 해놓은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경제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서 대답을 잘한 덕분에 제 면접이 현재 모의면접의 모범답안으로 쓰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 덕분에 과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국어(문학), 오디디푸스는 학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인문학만 배운 사람과 이공계를 함께 배운 사람은 앞으로 큰 차이가 생길 것이므로 이공계적 소양을 함께 융화 하는 것입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수능 이후로 비교적 삶에 여유가 생겨서, 덕분에 좀 더 '나다움'이 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사람들은 우리학교를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남에 위치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학교가 많이 알려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학교 홍보대사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많은 중고교생을 만나면서 제 대입준비와 학업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학과에서 영상 기법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같은 영상 프로그램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학과는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흔히 문화콘텐츠학과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유사 학과로 생각합니다. 이는 “콘텐츠=미디어”라고 생각하는 인식에서 비롯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미디어학에 대한 과목이 조금 더 많고, 앞서 언급했던 “영상”에 대한 부분을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조금 더 심도 있게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학과는 문화 자체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를 어떻게 콘텐츠화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대학교에만 있는 한영문화콘텐츠학과는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기초소양이 풍부하게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한국문화와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가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학과입니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2017년에 신설된 학과라서 아직 졸업생이 없습니다. 제가 1기 졸업생이 될 예정인 만큼 롤모델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콘텐츠 제작팀 또는 마케팅, 문예창작 분야에서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경영(상경계열) 또는 디자인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시장에 내놓기 까지는 많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분야의 지식이 있다면 조금 더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가 생성될 것이고, 경영 분야의 지식이 있다면 콘텐츠를 시장에 출시했을 때 더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윤주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저의 꿈과 관련 있는데요! 처음에는 막연히 친언니를 따라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미용계열을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단지 할게 없어서 선택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비전캠프를 참여하게 되었고 많은 강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의 가슴을 울렸던 말이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순간부터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1월쯤 학교의 축제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모든 학급이 참여하는 장기자랑의 총괄을 담당했습니다. 축제가 마무리 되고 친구들은 모두 다 저에게 너무 고생했다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연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저의 꿈인 PD라는 꿈을 갖게 되어 이 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입학을 위해 준비한 전형을 무엇인가요?

저는 수시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진로희망으로 작성하여 저의 모든 생활기록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관련 글만 작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꿈을 바꾸는데 많은 고민을 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자고 결심해서 고3부터 교내 UCC 공모전을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간에 꿈이 바뀌는 상황은 어떤 고등학생이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여태 살아온 약 18년 정도 되는 인생으로 학생들의 꿈을 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그 꿈을 키워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왜 꿈이 바뀌었는지 이 꿈을 위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녹아내렸고 그 결과 이 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동아대학교는 튜터팀 고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여기 소속된 학생들의 슬로건은 “뜨거운 열정을 안고 나아가다” 입니다. 그만큼 활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중·고등학교에 나가 자신의 전공은 물론 다른 전공 설명과 자기소개서, 면접과 관련된 꿀팁을 주기도 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 자유학기제로 학생들의 꿈을 찾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접 재학생들이 겪었던 일들을 진솔하게 청소년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으며, 그렇게 자기계발까지 하는 학생들입니다.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같은 경우 실습과 이론을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디어에 관한 기본이 되는 이론은 물론 방송실습실을 통해 카메라, 조명, 음향, 마이크 등 촬영장에서 사용하는 실제 장비들을 사용하여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정말 다양한 미디어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신문방송학과부터 언론정보학과 광고홍보학과는 미디어 분야 중 한 분야에 대해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많은 학과를 전부 통합해 다양한 미디어를 배우는 곳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입니다.

추천도서는 [PD가 말하는 PD]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현직 다양한 방송 분야의 종사하시는 현직 PD분들이 직접 작성한 책으로 실제 촬영장의 생생함을 더불어 PD라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 수험생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우선 ‘자신의 꿈을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를 진학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학과 특성처럼 카메라를 잘 만지거나 아니면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러한 기본 실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친구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으며, 그런 촬영, 편집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대학교 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꿈, 직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런 꿈을 찾아가고 배워가고 개척하는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주영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데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 이외에도 자기소개서 작성에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저녁에 잠들기 직전에 또 수정을 하는 패턴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사실 입시 정보를 학교에서 제공받을 기회가 많아서 그런 입시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힘든 경험은 없었습니다. 면접 준비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질문을 100개 정도 만들어서 대비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바탕으로 학생들끼리 모의면접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여름 방학에 시행했던 동아대학교 다우림 모의 전형에 참가하여 실제 면접 분위기를 느껴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특별한 활동을 하기 보다는 학교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고, 이러한 경험들이 목표를 이루는 데에 효율적인 습관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런 습관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제가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전공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으로는 국어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마셜 매클루언 저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이 도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는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탐구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은 무엇인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탐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의 지식수준으로 기대하던 학과보다 더욱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심층적인 전공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기간에는 전공 과목의 추천도서를 읽으면서 다음 학기를 예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라고 하면 방송국으로만 진출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유사학과로는 신문방송학과, 언론학과가 있습니다. 이 두 학과는 좀 더 신문이나 언론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졸업 후 진로가 궁금해요.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생들은 방송계, 신문계, 광고계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콘텐츠 분야가 촉망받는 직종으로 떠오름으로써 이 분야로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관련 자격증은 사회조사분석사가 있고, 어도비 디자인 툴 관련 실무 자격증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문의 특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소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더욱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학과 전공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잘 전달해줘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차보은 

□ 신문방송학과 개요

- 대중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사항과 그에 따른 다양한 현상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 신문/방송 기자, 방송제작 프로듀서, 광고,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관한 이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신문/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사회과학적 이론과 함께 실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언론 현장에서 실무자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배양함
-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신문방송학과 전공세부영역

커뮤니케이션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 조직, 대중매체 등 사회 전반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기술을 학습, 연구하는 분야 • 사람들 간 의사소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배우는 과정 • 실기보다는 이론 중심적이며,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음
신문/저널리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이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언론의 역할,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 연구하는 분야 •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연구방법인 통계, 표집, 확률 등에 대해 배우는 과정 • 매스미디어를 통해 공공적인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도하고 논평하는 활동인 저널리즘과 관련된 이론을 습득하고 실무 교육 및 다양한 종류의 저널리즘에 대해 배우는 학문

방송/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 사회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 매체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기능과 구조, 역할에 대해 학습 하는 분야 • 방송이 대중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배우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디어(TV, 라디오, 영화, 잡지, 광고 등)에 관한 연구 •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SNS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연구
영화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탐구를 하며 영화의 역사, 구조, 형식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학문 • 영화의 구조뿐만 아니라 영상의 구조, 배경, 편집기법, 촬영기법 등에 대해서 연구, 비평하는 분야
PR/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와 관련 된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광고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인 설득 기법, 마케팅 기법, 스토리텔링 기법 등을 연구 • 광고를 어떻게 기획하고 제작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습득하고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기르는 학문

□ 신문방송학과 졸업 후 진로

진출분야	대학원 진학, 대기업, 관련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학계,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 광고 기획사, 출판사, 광고대행사, 인터넷콘텐츠 기획 및 제작업체 등
직업	PD, 신문기자, 감독, 교수, 평론가, 기획 및 홍보 전문가, 카피라이터, 광고전문가, 방송연출가, 아나운서, CF감독, 기상캐스터, 리포터, 마케팅사무원, 쇼핑호스트, 신문제작관리자, 연극·영화 및 방송 기술 감독, 연극연출가, 연예프로그램진행자, 웹방송전문가, 잡지 기자 등

□ 대입지원 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

①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려면 영상을 꼭 잘 만들어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문방송학과에서 영상을 많이 제작하기는 하지만 대입에 있어 크게 반영되는 요소가 아닙니다.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면 영상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을 학습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관련 경험과 실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하려면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잘 해야 할까요?

⇒ 지원 대학과 관련 학과 별로 과목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의 반영 비율을 반드시 살펴봐야 하며, 잘해야 하는 과목 보다는 말하고 쓰는 능력과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분석력, 창의력 및 예술성이 중요시 됩니다.



③ 신문방송학에 진학하면 무조건 방송국 PD나 기자만 되는 건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방송학과 내에 여러 가지 전공세부영역(광고, 미디어, 영화, 신문,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며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꼭 방송국 PD나 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아나운서, 방송작가가 되려면 무조건 신문방송학과를 가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하고 나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하나 ‘꼭, 반드시, 무조건’ 신문방송학과를 진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어국문학과나 사회학과, 언론정보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등 유사학과나 비슷한 학문을 배우는 학과 등을 졸업해도 아나운서, 방송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⑤ 신문방송학에 진학하려면 고등학교 때 반드시 신문방송학과와 관련 된 경험이 있어야 하나요?

⇒ 아무래도 전공적합성 부분에 있어서 신문방송학과와 관련 된 봉사활동, 독서, 활동 등의 경험이 있으면 좋지만 만약 진로가 바뀌었다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하고 싶은 계기 혹은 신문방송학과와 관련 된 본인만의 이야기를 잘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주요 교과목

- 기초과목 :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개론, 매스컴연구방법, 방송영상제작의 기초
- 심화과목 : 광고론, 영상비평론, 언론윤리법제, 보도사진론, 뉴미디어론, 매스컴분석, 사회조사실습, 저널리즘, 광고스토리텔링, 정치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소통, PR론, 정보사회론, TV스튜디오 제작, 포트폴리오와 프레젠테이션, 매스컴분석 등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저널리즘전공 오유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말을 걸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렸을 때 참여한 어린이 기자단 활동으로 우연히 기자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자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직업 중 하나인데요. 기자가 되기 위해서 꼭 언론영상학부를 진학할 필요는 없지만, 기자라는 직업이 가져야 할 직업윤리, 미디어와 관련된 각종 이론을 배우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

저 현재 재학 중인 언론영상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저희 학과는 학부제로 운영되고 있어 2학년 진학 전에 세부전공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1학년 때 진로탐색과목인 <미디어와 나>를 수강하게 됩니다. 저널리즘, 디지털영상,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등 세 가지로 나뉘어있는 세부전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전공을 떠나 자신의 진로를 함께 고민하는 과목인데, 이 과목을 통해 세 개의 세부전공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목을 들으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로에 대한 꿈을 더 확고하게 세울 수 있었고, 저널리즘전공으로 세부전공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 입학에 준비하며 주도적으로 전형을 선택하고, 전형에 대한 준비를 했던 점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조언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건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전부터 꾸준히 관심 있는 대학과 학과 홈페이지에 접속해 찾아보았고, 매년 변하는 입시요강도 직접 찾아 필요한 정보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진행되는 예비대학, 전공체험, 모의논술, 모의면접과 같은 프로그램도 직접 찾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도적인 노력은 결국 저에게 가장 맞는 대학이나 전형 결정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면서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현재 대학에 다니면서도 공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와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수시 논술전형과 정시 전형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시와 정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선택은 결국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와 정시 모두 균형을 이루어 준비하는 것이 변수가 많은 입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수시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은 '입시를 위해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시는 재도전이 있지만, 고등학교 생활에는 재도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입시만을 위해 다니는 고등학교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와는 거리가 멀더라도 나의 진로, 나의 관심분야라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고등학생 때 사회적 프로젝트를 진행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 우연히 서울여대에서 진행한 인성교육에 참여했었습니다. 입시에는 관련없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우연처럼 마주쳤던 서울여대와의 첫 만남이 지금의 서울여대 재학생인 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를 소개해 주세요.

사실 저는 서울여대에 입학하기 전까지 '여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학하고 학교를 다녀보니, 오히려 여대에 다니게 된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성 인권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 성평등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제가 여대에 다니며 젠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에게 큰 변화였습니다. 스스로에게 있었던 성 고정관념 역시 학교를 다니며 많이 무너트리기도 했습니다.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는 타 대학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학과입니다. 언론영상학부에서 배우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커뮤니케이션' 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필수요소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총체적 학문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부는 타 학교와 다르게 학부제로 운영되고 있어 저널리즘, 디지털 영상,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세 개의 세부전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타 학과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는 대학특성화사업단에 선정된 '미디어 비오톱 사업단'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창의성 캠프, 전공탐색과목, 포트폴리오 시스템, 학과 내 인턴십 프로그램 등은 오직 언론영상학부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특히 언론영상학부는 '능력자' 들이 모인 학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되는 만큼 다재다능한 친구들과 유능한 교수님들이 많은 학부입니다. 여러 명의 생각이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보니 조별과제가 많은 학과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단순 강의형 과목보다는 토론형, 프로젝트형, 실험형 과목이 많다는 것도 저희 학부의 특징입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진출분야는 정말 다양합니다. 신문사, 방송사는 물론 다양한 분야와 직무에 진출하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 떠오르는 분야인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웹, 모바일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세부전공이 있는 만큼 진출하는 분야도 다양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재학 중에는 복수전공, 부전공 등의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전공을 접하며 언론영상학부와 타 전공을 접목시켜 본인만의 차별성을 이끌어내 취업을 하는 선배도 있습니다. 학부에 다니면서 배우는 내용들이 모든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에 어느 전공과 연관시킬 수 있다는 것도 취업에 있어서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죠?

□ 꼭 하고 싶은 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했다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봉사활동 등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든 우선 참여해보세요. 틀림없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질타에 무너지지 말고 자신이 믿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세요. 입시는 타인과의 싸움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일 더 나아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치를 믿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길 응원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저널리즘전공 정현경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7학년도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하여 현재는 언론영상학부 저널리즘 전공에 재학 중입니다. 대입을 준비하던 시간동안 언론, 미디어, 방송에 관련한 학과를 꿈꿔왔기 때문에 자율전공에 재학 중에도 학부의 강의를 들으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던 전공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더욱 더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던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활동이 제 적성에 잘 맞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아리 활동, 교내 학술제, 학급 임원 등을 통해 방송국에서 활동하며 저의 목소리를 전국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교내활동은 다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개최해 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입학 당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것저것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제 성격 때문에 다양하게 준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제가 가장 노력한 활동은 고등학교 3년을 바쳐서 활동한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방송부와 홍보반이 결합한 미디어 홍보부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였고, 부장으로 동아리를 이끌었습니다. 부원들이 속해있는 반과 학년이 모두 달라서 의견을 모으는 데에도 어려웠고, 주 1회인 동아리 시간만으로 성과물을 얻기 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을 쪼개서 동아리 활동을 한 덕분에 우수 동아리로 책자도 발행 할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확실한 메시지 전달에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좋은지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는 업무보다 같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견 조율 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극복사례를 언급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바쁘게 보낸 고등학생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지는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할 일도 많아서 시간은 부족한데 해야 할 일들은 많아서 쉬는 시간에도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6번의 쉬는 시간이 있으면 4번은 공부하고 2번은 쉬는 걸로 저에게 보상을 주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저는 매년 성적향상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대입 준비에 필요한 자료는 주로 담임선생님께 구하거나, 각종 대학에서 보내주는 책자를 통해서 공부하였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는 6개의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긴장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 오전/오후 조 중에서 오전 조에 속해있었습니다. 오전 조 중에서 8번째 순서였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대기 시간동안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면접 당일엔 일찍 준비를 끝마치고 면접을 보기 전까지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준비할 때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로 진행되었던 면접 대비반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만약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들께 모의 면접을 진행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에서 필요한 능력은 순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활동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의 숙지는 필수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형식으로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사례와 결들여서 말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면접에서 당황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연습했습니다. 머리를 만진다거나, 손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경직된 표정, 방황하는 눈동자 등 불안해 보이는 모습에서 자신감이 가득 찬 당당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3학년 여름 방학부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면서 해당 질문에 어떤 내용을 적는 것이 좋을지 형광펜으로 내용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다르지만 이 내용을 잘 어울리게 만들어서 한 편의 자소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과 입학사정관분님들이 자기소개서를 읽으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지속적으로 임팩트가 남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무조건 학생회, 회장, 부회장 이렇게 큰 활동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시간에 내가 했던 발표가 큰 의미로 다가왔다면 그러한 내용을 적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들이라도 느끼고 배운 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적어내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표현은 생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를 적는 것임은 밝혀지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언론영상학부에 오게 되면 ‘사회문화’라는 과목과 관련된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를 분석할 때에 기능론과 갈등론의 시각으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회과학대학의 소속인 언론영상학부에서 ‘사회문화’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보다도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주의와 갈등주의는 사회문화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이론인데, 이는 대학 수업시간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널리즘전공생들이 사회학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디어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특정한 한 권의 책이 도움이 되기보다 책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의 초점은 내가 얼마나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현재 언론영상학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으로 저널리즘의 이해라는 이론과목과 미디어 글쓰기 기초라는 실습과목 두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의 이해’ 시간에는 저널리즘의 역사, 흐름, 핵심 이론, 주요 가치 등을 공부하며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디어 글쓰기 기초’라는 과목은 언론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발걸음을 떼는 과목입니다. 시사 상식을 주제로 해서 학우들과 토의를 하며 배경지식을 쌓기도 하고, 올바른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비문을 올바른 문장으로 고치는 법을 배우고, 직접 기사를 고쳐보며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또,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는 과제를 통해 배운 글쓰기를 실전에 옮기는 경험을 합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서울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에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라는 문구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학우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도 잘 갖추어져있어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또한, 타 과생들과의 교류도 원활하다는 점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재학생 입학멘토단인 '슈가멘토'라는 활동에 가장 몰두하고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 소속 슈가멘토는 고등학생들을 직접 만나며 친구들의 입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째 활동하고 있는 슈가멘토에서 다양한 과의 친구들,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인턴,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올해는 슈가멘토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져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이라면 꼭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고등학교 3년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보낸 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본다면 전 고3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대학입학을 앞둔 시간인 만큼 예민하기도 할텐데 그럴 때 일수록 가족들 혹은 친구들 내가 가장 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기보다는 웃으면서 생활해보세요.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힘든 시간에 툼툼이 느꼈던 소소한 행복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엄청난 추억으로 다가옵니다. 친구들과끼리 추억 여행을 하면서 놀기도 한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캠퍼스에서 봄을 만끽하길 바라요! 파이팅!

차 의과학대학교 의료홍보미디어학과 김세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기획과 홍보에 관심이 있는 한편, 과학을 좋아하여 의료나 생물분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분야를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 보다 두 가지를 한 번에 배우고 싶었던 저에게 맞는 학과를 찾던 중 기획, 홍보, 광고에 의료를 접목하여 한 번에 배울 수 있다는 의료홍보미디어학과를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료홍보미디어학과를 더 알아보고자 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하면서 의료홍보 미디어학과가 국내 유일하게 차 의과학대학교에 있는 학과임을 알게 되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vr분야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있었는데, 의료홍보미디어학과는 국내 최초로 vr 산업이 교육과정 내에 추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저의 선택은 더욱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좋아하는 분야가 과학인 만큼 교내 이과 동아리 중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동아리에서 활동했으며 2학년 때는 저의 진로를 찾기 위해 진로동아리에 들어가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맡아 기획하며 주도하는 것을 좋아하여 탐구발표에도 많이 참여하였고 상도 받았으며 교내 연주회나 연극 등 교내 행사mc, 무대감독 총괄직을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주변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너에게 이러한 활동들이 잘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의 기획력은 물론 사람 앞에 서서 발표하는 것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지 않게 되었고, 진행 순발력 또한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의료홍보미디어 학과는 광고PR, 미디어, 언론에 의학이 접목된 학과로, 2018학년 입학생부터는 전공인 의료홍보미디어학과를 제외한 바이오공학과, 의생명과학과 등 다른 의료 관련 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것을 필수로 하여 졸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한 선배들의 진출 분야는 차 의과학대학교가 차그룹 산하 재단 대학이다 보니 차그룹의 차병원 등으로 진출을 많이 하시는 편이며, 세부 전공인 광고PR분야로는 기획이나 콘텐츠 팀, AE(Account Executive)광고기획자로 많이 진출하는 편입니다.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선배의 진출분야는 VR를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기획하는 분야에서 활동하는 선배입니다. SEOUL SKY에 VR콘텐츠 팀으로 취업하였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 또한 그랬듯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현재 당장 자신의 진로에 대해,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보고 찾아보고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하고 자신과 맞는 진로도 찾게 되고 미래 또한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보다 더욱 넓고 재미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이 너무 힘들다고 지치고 속상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신대한



□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우리 학과는 미디어, 영상과 광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며 실습 강의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은 마케팅, 광고,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전공에 대한 이론수업을 통해 전공지식을 습득합니다. 2학년부터는 세분화된 광고 및 미디어영상의 학습과 실습을 병행하며 실력과 지식을 겸비할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광고기획, 광고카피, 광고캠페인, 영상제작, 포토샵과 스토리보드제작 등 광고와 미디어 업계에서 필수적이고 기본이 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강의가 있습니다.

□ 대학생활에 대해서(고등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학교 안팎으로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진로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대학에서는 의무교육에서의 수동적인 교육과정과 달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며, 이 둘은 성취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과는 대외 활동이 많을수록 경험과 정보력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세미나 참여 및 대외활동 참여가 중요합니다.

□ 나의 진로계획

광고업계의 직무군은 크게 AE, CW, AD 등이 있으며, 미디어업계는 PD, FD, 촬영기사 등이 있습니다. 저는 AE(광고기획자)로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대외활동 탐색 및 참여, 팀을 결성하여 광고기획서 및 브리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중점으로 종합광고대행사인 제일기획(삼성), 이노션(현대), 대홍기획(롯데), HSAD(LG)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한 많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하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는 개념으로 진로를 세우는 것이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 학사 제도

우리 학과는 공모전이나 기타 대외활동을 정리하여 학우들에게 공지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학우는 공모전과 대외활동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참가할 시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MT에서는 학과의 성격에 맞게 각 조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상을 제작, 발표합니다. 이를 교수님들께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지며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미디어영상광고학과의 가진 큰 장점이자 타 학과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연 1회 광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우들이 모여서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어 풀어내고 프레젠테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광고제는 학우들이 자신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학과의 전통적인 축제이자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

행정학 분야는 정부나 공공 분야의 운영과 관리, 즉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수많은 유형의 공공 문제에 대응력 있는 행정운영체계를 수립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적절한 관리방법 및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정책학, 행정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도시행정론, 지방행정론, 조사방법론, 계량행정론 등이 있다.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이민선 

□ 공공인재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막연하게 진로를 가지고 뚜렷한 목표가 없는 상태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보냈습니다. 수요일마다 동아리 활동 시간이 있었기에 개인당 하나의 동아리를 필수로 가입해야 했습니다. 저는 ESPEC이라는 사회토론동아리에 가입하였고, 동아리 내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기관에 방문하고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분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토론활동과 체험활동을 통해 사회문제 실태를 많이 접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사회제도에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복지정책과 관련된 기사를 접하면 ‘내가 직접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는 진로에 마음을 생기게 했습니다.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로와 관련이 높은 국가와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행정학과에 관심이 생겨 법과 행정을 아울러 배울 수 있는 공공인재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 고교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소개해 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 진로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구체화되면서 관심사가 동일한 친구끼리 만든 자율 동아리 MPSW(Moonil Public Social Welfare)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만나 고충을 듣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 등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남동구청 복지정책팀에게 면담을 요청하였고, 면담에 앞서 사전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서 가장 힘든 점,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개선점, 현재 시행되는 복지 관련

분야 중 가장 시급한 부분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몇 분의 의견이 다르긴 했지만 가장 공통적인 의견은 복지정책이 확대되는 규모에 비해 현재 인력의 부족함과 처우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로 인한 자살이 나타날 때마다 현상 속에 감춰진 문제점은 고려하지 않고 드러나는 사실만을 보도하는 언론의 무책임성과 이에 따른 즉흥적인 정부 대처법이 오히려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의욕을 상실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그동안 언론에 드러난 모습만을 믿고 쉽게 판단했던 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복지 공무원은 사명감이 전제되어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율동아리를 개설하고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리더십이라는 역량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공무원이라는 진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 전공과 관련된 도서를 소개해 주세요. 관련된 활동도 좋아요.

고등학교 재학 중 동아리 시간에 오마이 뉴스 대표 기자가 저술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토론 도서로 선정하여 읽으면서 덴마크의 교육제도 및 복지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사회적 이슈나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덴마크의 복지사회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저자를 초청하여 북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독서한 활동을 통해 3학년에 올라와서 사회문화 시간에 복지제도의 발전과정 및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배울 때 저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 책은 사회의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인 행정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는 행정, 법과 관련된 진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1학년 때는 공공인재론이라는 전공에 NCS라는 교과목이 있어 미리 공기업 취업을 위한 시험문제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에서는 종합고시반 학생을 선발하여 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진로를 향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 졸업 후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공공인재학과는 크게 두 분류로 행정과 법학 전공을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공공인재학과는 법무 행정/정책기획/행정사무 전문가로 진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출 분야는 공직분야, 금융권, 일반 기업, 공공기관 등이 있습니다. 행정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은 대개 공무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행정학과와 관련된 시험은 국가고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법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은 법무와 관련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법학과는 로스쿨을 진학해야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정책 관련 공무원이라는 진로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정책분야에서도 사회복지 관련된 분야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복수전공이라는 제도가 있어 사회복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정책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분야



도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중·고등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3 수험생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이므로 반드시 의지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내, 교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진로를 찾을 수 있었고, 많은 경험으로 폭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서정화



반갑습니다. 경상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멘토단 서정화입니다.

우선, 경상대학교 행정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진로를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취업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중 경상대학교의 학과 체험 행사인 ‘OPEN CAMPUS’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경상대 행정학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행정학과 교수님으로부터 행정학과 공무원 취업 현황과 이와 관련된 학과 지원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제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경상대학교 행정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상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어떤 전형을 통해 학과에 입학해야 할지 고민해 본 결과, 수능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평소 다양한 교내활동과 부족하지 않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던 저의 장점을 살려 학생부 종합전형인 개척 인재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입시 전략을 세웠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저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무척 다양한 교내활동을 하였습니다. 전교 학생회장을 맡아 평소 제가 생각하였던 학교와 학생회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제 스스로도 역할을 수행하며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두루 갖춰 공감형 리더로 성장해 나가하고자 하였습니다. 학생회장 활동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제 스스로가 가장 많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또, 학교 신문의 편집장을 맡아 교내에 여러 소식을 기사로 작성하여 분기 별로 학교 신문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고 관련된 이슈를 찾아 소논문을 만드는 동아리와 협동 학습 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한 후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자기소개서’ 작성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되기 전의 기간 동안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일차적으로 개요를 짠 후 뼈대를 갖춰 3학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더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기소개서 시즌’에 바쁘게 짜낸 자기소개서 보다 훨씬 탄탄하고 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서의 작성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후 일차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까지 마친 후에는 면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시험을 치고 시간이 넉넉한 시기에 친구들과 면접 스터디를 꾸려 예상 질문에 맞춰 대답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예의바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자세와 말투도 함께 연습하였습니다. 제 스스로 본 학과에 합격한 이유를 생각 해 보면 다양한 교내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잘 표현하였던 점과, 면접 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와 학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대학교는 경남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국립대학교의 장점인 저렴한 등록금으로 특성화 산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경남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행정학과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막연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행정학은 '행정'에 대해 공부를 하는 학문으로 세부과목은 재정학, 인사행정, 조직론, 정책학, 지방자치론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용 학문으로서 경제학과 정치학 법학의 특성과 학문적 성질을 함께 가진 학문입니다. 행정학에 기초가 되고 전공에 도움이 되는 교과목은 사회 탐구 과목 중에서 경제와 사회문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학 세부과목 중 재정학은 경제 원리가 바탕이 되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행정학이라는 과목 역시 사회 과학의 학문이기에 사회문화 과목 역시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유시민 작가의 도서가 행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배경 지식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로 추천 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 행정학과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ENA(공공 전문가양성 사업단)입니다. 이는 행정학과를 대표학과로 정치외교학과와 법학과와 함께 공공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단입니다. 이 사업단을 통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 취업 소모둠을 만들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해외 공공기관을 방문해 공공리더십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LG 개척관 4층에서 정독실을 제공하여 4~5인 당 1개 교실에서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행정학과를 졸업 후에는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합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 뿐만 아니라 검찰 공무원, 교육 행정 공무원,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무원, 우정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렬에 진출하여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 역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시설물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경상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꼭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전공) 구자균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보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직접 뛰어다녀야 했다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 진로진학 선생님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형에 알아보기도 하였으며, 학교에 찾아오는 대학 입학처 관계자들의 입학 설명회에 꾸준히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름에는 친구와 함께 대교협에서 주최하는 COEX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어떠한 점이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정보를 단순히 가지고 있다고 하여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험생이던 저는 당시 입학사정관제, 현재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와 면접, 나아가 포트폴리오 등 기타 자료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 중 자기소개서나 면접과 같은 경우는 지금의 학생들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스피치/면접 학원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교육보다는 평소에 저를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거의 매 쉬는 시간마다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선생님께 첨삭을 받았으며, 면접을 준비할 때에도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한 함께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되돌아 봤을 때, 특별하게 노력을 한 점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에 활용할 수 있던 주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지 않아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동안 오히려 친구들과 더 많은 교감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하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행정학과 행정학과를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의 전공분야는 기본적으로 '사회가 어떠한 원리와 규칙 속에서 작동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원리와 규칙 속에서 행동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책이나 교과목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해서 작동을 하는가와 정부라는 제도 속의 사람들, 바로 공무원과 공공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이 어떠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학과에서는 주로 행정학, 정책학 그리고 이외 행정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다른 분야의 전공, 예를 들어 경제학이나 법학(헌법, 행정법), 정치학, 통계학 등을 배우게 됩니다. 행정학에서는 행정학을 포함하여 재무행정, 인사행정 및 조직이론과 함께 대학에 따라 지방행정, 정부학, 한국행정 등을 배우게 됩니다. 행정학의 오랜 친구와 같은 정책학과 관련해서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분석 및 평가 등을 배우게 됩니다. 다소 이론 중심의 딱딱한 이름의 과목들이지만, 실제 수업을 들을 때에는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되기 때문에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많은 양의 글을 읽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행정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고교 교과목으로는 사회탐구 교과목이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분야는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행정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읽을 수 있을만한 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교과목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이 정부와 공공조직에서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며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외 글을 많이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어, 행정학의 본고장이 미국이며 실제 대학의 행정학과에서 영어로 된 논문을 꽤 읽는다는 점에서 영어, 마지막으로 통계학을 공부한다는 점에서 수리적인 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대학 이름과 행정학과는 그 이름만 보아서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이 만나고 싶지만 만나서는 안 되는 관계 같고 또한 학교의 관심 밖 존재로 여겨질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우리대학 행정학과는 전국 단위의 어느 행정학과와 비교했을 때 훌륭한 교수님들과 교육시설이 있어 공부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학과입니다. 전공 강의는 미국 사립대학 수준인 20~40명의 중소형 강의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컴퓨터 실습실이 있어 통계나 모델링 프로그램 등을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어 보다 실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은 단순히 강의를 하는 사람과 강의를 듣는 사람의 관계가 아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에 속한 하나의 가족으로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 졸업 후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행정학과에 진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부 또는 공공분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의 경우,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졸업생 중 취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5명 중 53명, 즉 절반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정부 등 공공 분야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김기환·김상목, 2009, p2-p3), 행정학을 전공한 대학생 중 70.2%가 공무원 등 공직 진출을, 13.3%가 공기업, 공사 등 공공분야에 진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모두 공무원이나 공사 등 공공분야로만 진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의 제도를 통해서 다른 전공을 함께 공부하거나 혹은 따로 복수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민간분야에 진출을 하거나 행정학 또는 이외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때로는 시민운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제3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 비정부기구나 비영리기구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행정학 용어 중 하나인 Muddling Through(Charles W. Lindblom)라는 단어를 통하여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특정한 목표를 향해 마치 진흙탕을 지나가듯이 천천히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한 이야기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스피치 학원을 다니다더라, 누군가는 고가의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당장 본인을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모집요강도 잘 읽혀지지 않지만, 혹시나 놓친 것이 있을까 불안함 마음에 계속 반복하여 읽게 됩니다.

고3 수험생 그 당시의 저 또한 그러하였지만,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그 시절을 보내면서 좌절하고 낙담을 하면서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훌륭한 학교생활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스펙 한 줄, 학교생활기록부 한 장으로 취급되면서 본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잃어갑니다. 돌이켜 생각하고, 지금 그러한 학생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Muddling Through는 결국 그 목표에 도달함을 이야기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불확실한 환경에서 좌절하고 낙담을 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과정을 거쳐 본인에 대하여 그리고 본인의 꿈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배혜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찰이 된다면 평생 함께 해야 하고 숙지해야 할 내용들을 그저 외우기보다는 학우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참여하면서 실무를 미리 경험하면서 경찰에 필요한 법률적인 지식이나 실무적인 지식들을 그저 공무원시험대비만의 과목이 아닌 학문적으로 다가가서 접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경찰행정학과는 인성과 지성을 갖춘 정의로운 치안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경찰행정학, 법학, 범죄

학 등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지역 경찰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예비 경찰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법원, 경찰청, 교도소 등의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공직/민간 분야별 전담교수제와 1인 1시험, 1자격증 합격제도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열정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사제동행캠프 등의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 선후배 간의 멘토링 활동과 소모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으로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실습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시험 등 각종시험에 대비한 고시반 운영을 통해 전국 최고의 경찰행정학과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 관련된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나요?

현재 우리 학과에서는 법학, 행정학, 범죄학, 민간경비 등의 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경찰행정학 전공자들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시험으로는 변호사(로스쿨),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특히 관련전문가),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경비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 졸업 후에는 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경찰행정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경찰(간부후보생, 순경공채, 경찰행정학과 특채), 법원 및 검찰, 교정 및 소방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학 및 행정학 관련 과목과 연계된 전문자격시험을 거쳐 전문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경비지도사 등의 진로가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류정민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적부터 막연하게 경찰을 꿈꿔왔지만 그 꿈이 선명해진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앞 정문에서 삐에로 마스크를 쓴 남자가 자동차를 끌며 주변을 배회하며 겁을 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심상치 않게 여겨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남자의 차량종류와 동선을 설명해가면서 경찰관분들이 그 남자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 이 경험을 통해 마치 제가 경찰이 되어 그 남자를 잡은 듯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고, 경찰이 되어 관할구역을 수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대입 준비방법

1) 내신이 좋지 않은데 정시만 올인해야 할까요?

이 항목에 대한 답변은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 하나입니다. 혹시 지금 내신이 좋지 않아 걱정되시나요? 절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네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후반까지 제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를 갈 수 있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레 성적도 좋지 않았습니 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2학년이 되자마자 지난 1년 동안 주구장창 다닌 학원을 단호하게 끊어버렸고 오로지 저 혼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학원에 의존했던 저는 점점 학교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했고, 수업이 끝난 후 모르는 것을 질문하며 1:1과의 못지않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차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내신이 좋지 않다고 하여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2) 학과(학교)에 입학 을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저는 수시전형을 준비했고 교과와 종합전형 둘 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수능 최저등급을 맞춰야하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정시공부도 놓지 않았습니다.

3)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꿈이 경찰이었기에 당연히 경찰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치법정동아리, 솔리 언 또래상담 동아리, 명예경찰 등을 했고, 진학하고 싶은 학과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 싶어 전공서적을 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자신의 꿈이 경찰이라고 경찰과 관련된 책만 읽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인문, 사회, 과학 등 여러 분야의 책을 두루 읽는 것이 기본소양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난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또한 머리로 생각만 하지 않고 대입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의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노력하면 원하는 학교, 학과에 당당히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경찰시험과목은 대체적으로 법과목과 한국사, 영어이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 도서는 경찰학개론 피해자학 등 전공서적과 손자병법, 인문책입니다.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만의 자량은 뭔가요?

저희 자랑스러운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그 어느 학과보다 선후배간의 단합과 끈끈함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의 대표적인 행사인 한불취제는 학술제, 토론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장기자량을 준비하며 협동심을 기릅니다. 또한 환경캠페인 활동은 경찰행정학과 마크가 새겨진 띠를 두르고 대학로에 나가 쓰레기를 주우며 저의 학과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환경도 개선하는 뜻깊은 활동입니다. 환경캠페인은 추후에 경찰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활동입니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1)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저희 학과에서는 매년마다 적어도 2~3명 씩 간부시험에 합격한 선배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차 순경시험에서도 많이 합격하십니다. 또한 국정원, 해양경찰, 교수 등 진로가 다양합니다.

2)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경찰공무원은 가산점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5점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태권도와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산점을 모두 채웠습니다. 이 외에도 가산점을 채울 수 있는 자격증이나 어학관련 시험이 많이 있으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인류학

인류학 분야는 인간 역사의 전시대와 전세계에 걸친 인간에 관한 일체의 현상들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물학적인 특징과 문화적인 특징이 어떻게 연유되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변화해 왔는가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인류학의 이해, 인류학사, 생물인류학, 영상인류학, 응용인류학, 의료인류학 등이 있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문화인류학과 임진주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문화인류학에서도 특히 고고학 분야에 관심이 있어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찾는다는 일도 흥미가 있었고 박물관에 특히나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을 잡고 다양한 박물관들을 방문하며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실제 유물들을 찾고 빛날 수 있게 도와주는 학예사들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입학을 위해 준비한 전형을 무엇인가요? 고교 재학시절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학과 입학 을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한양대 에리카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면접도 없고 별도의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 보여주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학생생활기록부 하나 뿐인데 종합전형에서는 성적뿐 아니라 수상실적이나 특기활동, 자격증 등을 통해 능력을 입증해야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자기소개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 중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열 가지 항목(수상실적, 특기사항, 활동내용 등)을 리스트로 적어 제출할 수 있으니 이 점에서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어필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활동 중 전공과 가장 관련이 깊고 인성 등의 면에서도 강조할 수 있을만한 활동 위주로 우수수위를 정해 10개의 항목을 적었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점이 수상실적을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뒀다는 것인데요, 교과목 성적이나 교내 글짓기 등 여러 대회를 통해 받은 수상내역

은 분명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긴 하지만 꾸준히 해온 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에 비해서 일회성에 그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교내에서 받은 상과 국회의원장상 수상실적을 가장 뒷 순서에 배치하고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을 가장 앞 순서에 배치하여 전공과의 연관성을 최대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부분의 학교를 지원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활동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문화인류학과는 아닌 정치외교학과 지원을 희망했기 때문에 1학년 때 했던 활동들이 현재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입학한 한양대학교 에리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받고 있으니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려는 친구들이라면 이 점을 학교별로 상세히 알아보고 1,2학년 때 했던 지원 학과와 다른 활동들도 자신만의 이야기로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문화인류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1,2학년 때 여행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하면, 1학년 때 여행 동아리의 경험으로 다양한 지역들의 지리를 잘 파악하고 여러 곳을 다니며 견문과 시야가 넓어졌다, 이러한 점이 문화인류학과의 답사에도 배경지식이 되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장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장점을 내세우려면 무엇보다 가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 상세한 파악과 여러 교과목과 커리큘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더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문화인류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전공에 도움이 될 만한 교과목은 한국사, 사회문화와 한국지리입니다. 학과 특성상 매 학기 답사를 다니는데, 여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답사지에 대한 지리적, 환경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이해입니다. 그러니 한국지리를 선택해서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런 배경지식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과목을 통해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인류학 수업을 수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문화인류학과는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문과와 이과가 융합된 학문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부분의 이과 학생들이 사회문화나 한국지리 등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어 힘들어합니다. 더불어 한국사 공부 역시 열심히 하고 오면 더 좋은데요. 고고학의 경우 기본적으로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학문이므로 기존에 정리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 등은 알아두고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학하기 전에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는 책과 송도영의 ‘서울읽기’ 등을 읽어보고 오길 권하는데요, 두 책을 읽어보면 문화인류학에 대해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인 낮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의 문화인류학과 책의 바이블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도서이며 동시에 1학기 기초필수인 ‘인류학의 초대’ 과목의 전공서이기도 합니다. 내용도 가장 기본적이고 재미있으니 꼭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두 번째 송도영의 서울읽기에서 저자 송도영은 저희 학과 학과장인 교수님인데요. 이 책 역시 한국의 인류학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들을 쌓을 수 있고 동시에 입문서로 가볍게 읽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과장 교수님이 쓴 책이니 수업의 내용이 어떨지 감도 조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문화인류학 전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사람의 몸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닐까? 고고학과 인류학 중 무엇을 배우는 걸까? 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학과 전공 수업 중 전공심화로 유전학과 고인골학 등을 통해 인간의 진화과정과 신체구조 등에 배우긴 하지만 의대나 간호대처럼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고인류에 대해 배우기 위해 현생 인류에 대한 기본정보를 익히는 정도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인류학과는 고고학과 인류학 중 무엇을 배우냐는 질문 역시 많이 듣는데요. 다른 학교에도 문화인류학과와 유사한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과, 고고지리학과, 인류학과 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학과와 달리 문화인류학은 고고학과 인류학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로 모두 배우게 됩니다. 다중전공이나 부전공을 한다면 원할 경우, 고고학이나 인류학 둘 중 하나에만 선택하여 수강 신청해서 듣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두 분야의 과목을 모두 듣게 됩니다.

입학 전과 후, 가장 달라진 점은 친화력이 좋아졌다는 것인데요, 답사를 통해 꾸준히 다양한 지역, 나이대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라포(친분)을 형성하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고 원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한 학과에 입학하기 전에도 박물관을 좋아해 자주 다녔는데요, 이전엔 박물관의 유물 하나하나에 집중했다면 요즘은 이 전시를 기획하고 배치한 사람의 의도나 유물들의 배치순서, 이동 동선, 설명의 적절성 등에 더 중심을 두며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박물관을 꼼꼼히 살펴보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입학하기 전에는 학과가 순수학문에 가까운 만큼 지루할 것이라는 인식이 조금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공부해보니 가장 활동적이고 살아있는 학문이 문화인류학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물 발굴에 있어서도 단순히 이론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굴을 해보고 복원하는 과정을 다양한 실습을 통해 배움으로서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자량은 문화인류학과 중 가장 오랜 기간 꾸준히 현지답사를 떠나는 학교라는 점입니다. 다른 학교의 문화인류학과 학생들이 우리 학교 답사에 참여해 답사의 방식 등을 배워갈 정도로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져 온 전통있는 답사라는 점이 최고의 자랑입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고고학의 경우, 박물관이나 발굴기관, 문화재연구소 등이고 인류학은 리서치업체를 비롯해 다양한 직군과 회사로 진출하는 편입니다. 학과가 필드워크를 꾸준히 다닌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여기서 인터뷰를 주로 하고 현지인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 주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배들이 회사에 입사해서도 이런 장점을 살려 영업직으로 많이 나아가는 편입니다.

박물관 등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려면 대학원에 진학해 학예연구사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때문에 고고학 중에서도 박물관 쪽에 관심 있는 대부분의 선배들이 대학원으로 진학해 실질적

인 학사 졸업 후 취업률은 대학원 진학을 배제하면 타과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전공을 살리려면 대학원 진학이 거의 필수적인 학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조사분석사라는 자격증을 따면 인류학과 고고학 분야 어느 쪽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인류학 분야에서는 리서치를 하거나 리서치 관련 분야로 진출 시 유용하게 사용되고 고고학 분야에서도 양이 많은 유물(성곽의 돌, 장성)등 규모가 큰 경우에 대부분 spss라는 사회조사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공핵심 수업으로도 사회조사분석사 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중요한 관련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문화인류학과의 특별한 점이자 장점이 다른 학문과의 시너지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고학이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선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박물관 학예사를 꿈꿨지만 지금은 역사 다큐멘터리 피디가 되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선배 중에 여러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피디가 된 선배도 있습니다. 문화인류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박물관이나 발굴기관 등에 취직하리라는 편견을 버리고 전공 공부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경제

경영·경제 영역은 일반 조직체 혹은 기업 등의 조직 구조와 행동의 원리를 연구하는 경영 영역과 경제활동에 기초를 둔 사회적 질서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제 영역으로 구분된다. 관련 분야로는 경영학, 경제학, 경영정보통계학, 금융·보험학, 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광고·홍보학, 관광학, 부동산 등이 있다.

경영학
경제학
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
광고홍보학
관광학

경영학

경영학 분야는 모든 조직체의 경영현상에 관한 이론과 이의 응용 및 기업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인사·조직, 경영전략, 생산, 마케팅, 재무, 국제경영 등 경영학의 기능영역별 전공분야 등이 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진혜미

□ 글로벌경영학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호텔경영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경영이기에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호텔경영학과는 호텔경영에 대한 지식을 전문적으로 배워 실무를 쌓을 수 있는 학과이며, 제가 공부하는 글로벌경영학부는 경영학과와 국제통상학과 두 가지의 전공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배워 나아갈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제가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수시 종합 전형(면접)이었습니다.

□ 고교 재학 당시 주로 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임원활동과 방송부 동아리 활동, 학생위원회 자치부활동과 봉사활동을 주로 하며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아 나갔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면접 때 당당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백규리



□ 학과, 전공 선택 이유

반갑습니다. 동아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백규리입니다. 경영학도를 꿈꾸었던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그 때의 저를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교내에서 열린 직업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중 우리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면 관심을 많이 갖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방송 마케터’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TV 프로그램 방영 전에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티저 홍보영상, 예고편 등이 있답니다. 저는 그 직업에 매료되어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과를 정해야 할 시기에 제 꿈과 관련된 학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경영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영학과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학과였고 여러 기업 사례들과 운영원리들을 공부하며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학생들이 지원한다면 학과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입 준비방법

먼저, 자신과 맞는 전형을 찾아보고 원서를 균형 있게 쓰는 것을 추천하고 싶어요. 고3때를 돌아보면, 친구들 중에 꼭 “나는 수시로만 대학을 가야지. 나는 모의고사가 더 잘 나오니까 정시로 가야지.”라고 말하는 소위 수시파, 정시파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꼭 당부하고 싶어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능은 변수가 많아서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날의 자신의 컨디션, 고사장 환경, 예측할 수 없는 등급컷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정시파 학생들은 꼭 수시로 보험을 들어놔야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수능점수가 잘 나왔는데 수시에 먼저 붙어서 정시 지원을 못하면 어쩌하나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전장치가 있는 전형을 쓰면 됩니다. 교과전형 같은 경우, 우리 동아대학교에는 ‘학업 계획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교과 전형을 붙고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타 학교의 논술전형도 수능 후에 치는 논술 전형을 지원하면 나중에 시험을 안 보러 가면 되고, 종합전형의 경우에도 면접을 안 보러 가면 되니까 주어진 6개의 수시카드를 적절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간부생활, 동아리활동, 토론대회 등 교내 활동을 많이 참여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경영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 노력과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였고 결과적으로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자. 제가 자기소개서를 총 13번을 썼어요. 학생 여러분들은 제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방학 내로 끝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수능에 응시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자기소개서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 시간 중에 3시간은 자기소개서 쓰기, 2시간은 수학 공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소개서 첨삭 부탁하지 말기. 사람마다 글을 읽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잘 쓴 글로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은 글로 보일 수 있어요. 계속 수정하다 보면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면접을 보기 전 모의 면접을 많이 해 보자. 저는 면접을 보기 전에 친구들과 면접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었어요.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실제 면접 상황처럼 진행을 하니 실제 면접장에서 긴장을 덜하게 되고 도움이 많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마다 모의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도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면접관 역할을 하는 모의면접을 참여했었어요. 학생 여러분의 학교에도 이렇게 모의면접을 실시한다면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경영학과는 생각보다 수학과와 친밀도가 높아요. 난이도 높은 수학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꼭 수학을 잘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좀 더 친근하고 쉽게 경영학 학문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동아대학교 경영학과는 1학년 때, 전공과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학과목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복습할 기회가 있으니까 수학을 못하는 학생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영학과는 기업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어야 해요. 현재 사회의 트렌드와 기술적 환경에 뒤처지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요즘 경영학 관련 분야와 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기술문명이 등장한 만큼 경영학도가 될 학생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바로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의 '제 4차 산업혁명'이에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우리 사회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제 4차 산업혁명을 쉽게 설명하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추천도서입니다.



‘경영학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드라마에 등장하는 흔한 회장님을 떠올리더라고요. CEO가 되고 싶은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지만 경영학과는 전체적으로 기업의 운영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에요. 기업이 운영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 전자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했어요. 그러면 이 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사고 싶게끔 만들어야합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할 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서가 바로 마케팅 부서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돈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기업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재무 회계 부서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인사 조직부서도 있어야 해요. 경영학과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저마다 다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성에 안 맞는 과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이름 있는 대학을 가야할지, 아니면 정말 배우고 싶은 전공을 택해야 하는지, 대학 진학에 있어서 부모님과 갈등이 있다든지, 저도 다 겪었던 상황들이었고 같이 입시 생활을 한 친구들도 대부분 하던 고민들이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던 제가 지금 대학교에 진학하고 든 생각이 있어요. ‘정말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자신이 배우는 전공이나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도 힘이 들고 해왔던 과정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를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려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수험생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고3 학생들, 많이 힘들고 눈물 나고 버거울 수 있지만 조금만 힘내서 끝까지 놓치지않는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종료될 것 같지만 고등학교 때 최선을 다했던 소중한 시간들은 대학교에 와서도 저를 발전시켜주는 동력이 되더라고요. 학생 여러분들, 정말 이 소중한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말고 본인을 위해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이아진



□ 학과, 전공 선택 이유

중학교 3학년 때, 유명인의 탈세관련 혐의에 대한 뉴스 봤습니다. 그 뉴스를 보고 국민의 의무를 누군가는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이 그 당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회계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고등학교 3년 동안 저의 꿈은 회계사였습니다. 꿈이 확고했지만, 세무회계과를 가지 않았던 이유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세무회계과를 간다면 회계를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 준비방법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가장 중요시한 것 중에 첫 번째는 도서였습니다. 저는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분야 상관없이 모든 분야의 책을 읽도록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는 총 3개를 했습니다. 경영동아리, 독도기자단, 역사신문동아리였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역사와 관련된 동아리 부원으로서 활동했습니다. 처음으로 신문을 만들어봤던 경험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스펙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을 하니 공부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고, 학교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조세방법과 현재 세금방법'을 비교하는 신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진학하는 과와 관련된 동아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흥미 있고 관심 있는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더 추천합니다. 그런 활동도 충분히 전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노인 요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2년을 다니면서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부 하는 것에서 벗어나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배웠으며,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활동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한 번도 임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할 때 그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도전을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한 경험이 아직도 인상 깊고 대학교 생활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임원활동을 하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사람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활동이 아니라도 전에 해보지 않았던 활동에 도전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경영학부는 수학을 잘 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일 못하고 싫어했던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모든 것을 손으로 풀고, 계산기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대학교에서는 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로그, 지수 등은 쉽게 계산기로 풀 수 있습니다. 수학을 증오하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부는 총 6가지를 배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회계, 재무, 인사, 마케팅, 국제경영, 생산입니다. 이 6가지를 배우는 이유는 기업의 부서가 이렇게 구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으로 한 분야씩은 들어야 하고 본인의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전공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아 마케팅 수업을 집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전공에 기초가 되는 수업은 경제와 정보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의 기본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경제수업을 의무적으로 듣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경제를 배우지는 않지만 기초적인 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제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가 진학하면 좀 더 쉽게 경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교과목으로 정보를 선택한 이유는 경영 수업에 경영데이터 수업이 있는데, 컴퓨터를 이용하는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엑셀, 액세스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며, 컴퓨터와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정보시간에 엑셀이 무엇인지 알고만 오면 대학교에서 쉽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엑셀을 잘 다루지는 못했지만 용어나 배웠던 기억을 바탕으로 수업을 들으니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초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가르치기 때문에 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책은 '트렌드 코리아 2018' 추천합니다. 경영은 현재 트렌드가 무엇이고, 사회적으로 무엇이 이슈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트렌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학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뉴스를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성적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알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회계사라는 직업을 꿈꿔왔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꿈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며, 엔터 분야로 취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꿈은 바뀌고, 하고 싶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차 의과학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 엄태영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학생, 고등학생시절부터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대학교 전공 선택 때 경영학과로 학과 위주로 대학교와 학과를 찾아보았습니다. 수시 접수기간에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의 추천

으로 차 의과학대학교라는 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 때 제가 찾고 있던 경영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차 의과학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학과 커리큘럼이 글로벌 경영, 회계, 마케팅, 조직행동, 인사관리 등의 일반적인 경영과 코딩을 하는 데이터경영 이렇게 3가지의 부분을 배운다는 점을 보고 흥미를 느껴 차 의과학대학교 데이터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입학을 위해 준비한 전형을 무엇인가요?

저는 수시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시로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제가 차 의과학대학교 저희학과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시에 일반전형, 종합전형 등이 있습니다. 수능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내신의 성적이 좋은 편이면 일반전형을 지원하는 것을 추천하고, 내신이 조금은 부족하지만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경우에는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면접에서 학과에 대한 진정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 의과학대학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자병원인 차병원과 차그룹의 많은 계열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학금, 지원금, 실습 등 재학생들이 학습하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각 학과의 전공과 관련된 차그룹 산하의 기업(조직)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미래 취업분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더불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부분이 매우 다양하고 그 금액도 높은 편이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금의 절반 정도만 납부하며 재학 중에 있습니다.

□ 수험생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고교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적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성적만큼이나 학교생활과 자기소개서, 면접준비, 학교에 대한 고민 등 성적 외의 부분도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준비를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학교를 가고 싶고, 어떤 학과를 가고 싶고,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하는지를 함께 알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김진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글로벌비즈니스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직업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시절 열정과 흥미를 느꼈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전에서 재활용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회사를 경영하시는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경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심을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면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 경영 동아리를 만들어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광고제작동아리에 들어가 광고제작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저는 경영, 마케팅, 광고, PR 등 분야들에 열정과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분야들을 모두 배울 수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던 도중에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를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대내·외 활동에 모두 참여하면서 공부 외의 지식과 경험을 쌓으려 노력하였습니다. 대내활동인 체육대회와 축제 등 학교행사 뿐 아니라 소논문대회, 나의 꿈 발표대회, 동서양문화교류 등 다양한 대회에서 공부 외의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하였고, 경영동아리 및 광고제작동아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대외활동으로는 경영캠프 및 경영경제캠프를 참가하여 경영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활동은 제 2회 DYMI 경영캠프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것과 광고제작동아리에서 학교홍보동영상 제작 총괄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경영캠프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맡으면서 행사기획, 예산, 참가자 모집, 운영 등 다양한 부분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 경험들은 대학생이 된 지금도 행사를 기획할 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홍보동영상 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약 6개월간 학교홍보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콘티 작성, 촬영, 대본 작성, 내레이션 모집 및 녹음, 편집 등의 활동을 하였고, 저희는 노력을 인정받아 학교 공식 홍보동영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행사 및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 경험해 볼 수 있었고 동시에 행사가 끝났을 때의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느꼈던 성취감과 뿌듯함을 바탕으로 대학생 때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일반사회 과목 중 '경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는 1학년 가을학기에 '미시경제학' 과목을 교양필수로 듣고 있습니다. 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꼭 들어야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필수로 들어야합니다. '미시경제학' 내용 중 일부가 일반사회 '경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미리 배운 학생이라면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가지 도서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에 대해 관심이 있고 재미있게 마케팅을 알아보고 싶다면 '마케팅 천재가 된 홍 대리(권경민)'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때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던 당시에 읽었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고 직업으로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마케팅/광고 분야에서는 현재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현재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트렌드 코리아 2018(김난도)'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학교에 들어온 이후로 '린튼국제홍보대사(LIA)'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학과는 Linton school of global business라는 단과대학에 속해있는 학과입니다. 린튼국제홍보대사는 저희 단과대학을 국내/국제로 홍보하기 위한 단체로서, 국내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린튼영어캠프 및 린튼 모의유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외국인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활동 내용을 SNS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린튼국제홍보대사에서 대외팀 팀장을 맡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홍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과 학생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활동입니다. 신입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는 것과 동시에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고민과 걱정을 들어주며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으로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학과의 장점 및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시대에 맞게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학과 수업을 배우는 동시에 영어 실력도 함께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비즈니스학과에서는 경영, 경제, 미디어, 문화, 무역 등 다양한 학문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영어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해외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1학년 의무 기숙사 생활을 통해 선배들과의 교류가 많아 대학생활 적응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회에서는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학과는 CK-1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해외 기업 탐방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챌린지, 해외 계절학기 프로그램진행(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필리핀-실리만 대학교), 국내외 봉사활동(개발도상국으로 봉사활동 파견), 글로벌지역학 계절학기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를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전공 박민지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와 세계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찾았고 대학에 가서 이 두 가지에 대해 배우고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한남대학교 린튼글로벌비즈니스는 고등학교 2학년, 영어회화동아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린튼글로벌비즈니스는 한국에서 유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견학갔던 학교, 학과들과 달랐습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수업과 외국인교수님, 외국인학생들과 함께 전공을 배우고 서로 다른 문화들이 모여 해외로 가지 않아도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공도 경영&무역과 미디어&문화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제가 배우고 싶던 공부들과 잘 맞았습니다. 또한 국제대학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저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글로벌비즈니스학과에 입학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입학을 위해 준비한 전형을 무엇인가요? 고교 재학시절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전 입학사정관제)을 준비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부 터 꿈꿨던 직업을 알아보고 싶었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며 대학을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전, 이 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EBS 교육뉴스나 기사를 보고 앞으로 이 전형에서 대학을 얼마나 갈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방학마다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에서 열리는 박람회와 전공체험에 참여해 입학사정관님이나 학과 교수님들을 만나며 대학별 인재상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에 맞춰 제가 목표한 꿈에 대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승무원이 갖춰야할 능력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부분은 중간, 기말고사에서 최고점을 받으려고 노력하였고 동아리는 영어회화동아리에 들어가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로 말하는 시간을 가지며, 교내중국어경시대회를 나가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직업정보를 찾았지만 저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도 좋지만 책을 보면 원하는 직업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생생한 경험들을 확인할 수 있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준비한 것이 합격이라는 결과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저는 해외여행이나 외국으로 유학을 가 본 적 없지만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영어는 고등학생 때까지 가장 자신 있는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개강 전 겨울방학에도 영어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공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을수록 여태 배웠던 영어와 너무나 달랐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곧잘 질문했었는데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수업듣는 학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에서 살다 온 동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되는 것 같아 학교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업당 질문을 한 개씩 하거나 간단한 인사라도 영어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공공부는 모르는 단어를 따로 모아 단어장을 만들고 한 단원이 끝날 때 마다 요약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고 현재는 영어에 자신감이 생겨 수업 참여도, 과제, 교수님과의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교류센터 서포터즈가 되어 유학생들과 국제행사에 참여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으니 다른 언어권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중국어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린튼글로벌비즈니스를 졸업한 선배들을 보면 주로 국내·외 금융업(은행), 항공사(관광), 무역, 경영, 마케팅, 홍보 분야 등으로 진출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전공을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학과에 비해 폭넓게 분포 되어있습니다. 전공 중 '직업탐구와 이력서작성'이라는 유일한 한국어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유는 한남대 취창업센터 선생님들과 교수님 그리고 졸업한 선배들이 일주일 2번씩 방문해 진로선택과 이력서작성, 실무 경험, 회사소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관리를 꾸준히 하게 되었고, 항공사 실무진들을 만나며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저는 국내, 국외 항공사에서 여객운송팀 지상직으로 일할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의 꿈과 다르지만 대학생활을 하며 여러 활동을 하며 배운 것들과 경험을 해 본 결과가 직업이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저의 활동(계획)이 기대됩니다.



한남대학교 글로벌IT경영전공 이상유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영정보를 전공하신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와 친해질 기회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문과였음에도 자연스레 소프트웨어와 IT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대학 진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책자와 인터넷으로 원서를 넣을 학과를 찾을 때 컴퓨터와 경제경영 분야가 접목된 학과를 우선으로 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남대학교 글로벌IT경영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로벌IT경영전공을 알게 된 후 학과 홈페이지와 인터넷 입시 카페들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 해외 파견의 기회가 많다는 것이 이 학과의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혜택을 알고 나서 망설임 없이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내에서 가장 공들였던 활동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고등학교 3년동안 저는 경제·경영 동아리 활동을 했고, 2학년 때 동아리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많은 활동들 중 가장 많이 진행한 기초적인 활동은 경제 신문 구독이었습니다. 학교로 배송되는 경제 신문을 읽고 '9시 등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조선사업의 최신 동향', '영국의 탈EU가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매주 중심 사건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신문 스크랩은 내가 분석한 내용과 내 의견을 정리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면, 토론 활동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까지도 함께 정리할 수 있어 시각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토론에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모아두었기 때문에 후에 다시 읽어보고 더 찾아보며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외 동아리를 통해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축제기간 플리마켓 운영, 경제 경시대회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독서 활동은 꼭 필요하면서 관심 분야에 맞는 책을 읽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책에 필기하며 읽는 습관 때문에 책은 꼭 사서 읽었습니다. 문학 작품은 필독 도서 목록을 참고하였고, 주말에 서점을 돌며 관심 분야에 있는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필수인 봉사활동은 교내 봉사 뿐 아니라 봉사 인증 기관을 통해 따로 신청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재능(악기연주)을 살려 병원이나 양로원 등에서 재능기부도 했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땠나요?

처음 한남대학교 글로벌IT경영전공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기술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지금, 앞서 나가는 선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 켠에는 글로벌이라는 수식어가 주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수능 이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바닥을 치던 저에게 영어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선택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영어 강의를 듣는 것은 노력이 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영어로 배우기에 영어와 전공지식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수강한 영어 강의를 너무나 재미있어서 2학기때에는 모든 전공 과목을 영어 강의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 파견의 꿈도 이루게 되어 만족합니다. 현재 글로벌IT경영전공은 CK-1이라는 사업의 도움을 받아 매 학기 학과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올해 초, 인도로 해외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단지 기회가 많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제가 해외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해외 파견의 기회에 아주 만족하며 재학하고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 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님, 선생님도 신경이 곤두서는 힘든 기간임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것이 입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라 자기소개서 작성하라 하루하루가 힘들겠지만 결과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 저는 그 어떤 보약보다 입시기간동안 부모님께 따뜻한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힘이 되었습니다. 학부모가 아닌 부모의 마음을 담아 하루에 한번 따뜻한 한마디로 격려해 주세요.

입시는 운이라는 말이 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 속담을 기억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노력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김동희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 저는 자연계열 학생이었습니다. 다양한 대외활동을 하면서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해석할 수 있는 학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현대 경영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히 '인사, 조직' 분야에 흥미가 있어서 경영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즐겁고 보람차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을 만나서 얼굴과 이름을 비롯하여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나 성향 등을 잘 알아내고 기억을 잘 합니다. 이러한 성격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 조직’ 분야와 잘 맞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저는 비교적 오래전에 학교에 입학하였기에 현재 상황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수 및 삼수를 하면서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강남 8학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내신은 평균 5등급 정도였고, 논술은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재수 및 삼수를 할 때는 집에서 혼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수능을 준비하였습니다. 수능은 개념 이해 및 기억도 중요하지만 결국 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삼수하면서 문제 풀이 속도와 정확도에 대한 훈련에 노력했습니다.

재수, 삼수하면서 학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 비교 대상이 없어서 너무 여유롭게 공부했습니다. 생활 방식을 잡기 위해 매일 운동하며 규칙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고, 1년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 입학처 사이트 및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정리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혼자 준비하느라 힘든 점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고 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경영학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인사조직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기에 기업 내의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 관리하는 인사조직 분야의 수업을 중점적으로 들으며 공부 중입니다.

제가 다니는 한양대학교는 현재 3S 혁신으로 창의적 대학(Smart Hanyang), 스타트업 대학(Start up Hanyang), 사회혁신 대학(Social Innovation Hanyang)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도로서는 특히 매력적인 것인데요. 요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사회혁신 분야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프로젝트에 학부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혁신 분야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혁신을 꿈꾸는 학생들은 한양대학교에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 무기력한 삼수생이었고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 탓에 남들 앞에서 말을 하거나 친하게 어울리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많은 친구를 사귀고 친하게 지내고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는 공대 위주의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인문계열 인프라가 약간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좋은 시설과 교육 과정, 높은 수준의 동료 학생들 덕분에 자극도 많이 되고 학교생활이 만족스럽습니다. 요즘에는 관심 있던 인사조직 분야에 대한 공부와 각종 사회혁신에 대한 사례 조사 및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경영학과를 나오면 무조건 CEO처럼 기업가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게 된다고 아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학과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직도 하나의 진로이며,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사회혁신 분야로 나가는 방법도 있으며, 인사조직과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경영을 하는 경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한양대에는 경영학부 말고도 파이낸스 경영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에서는 금융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경영학부에 와서 배우는 전공과목들은 정말 다양해서 고등학교 교과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경제학부터, 사회문화 등의 과목이 좀 더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책을 보는 것도 현대 경영학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 후에는 대부분 취업을 목표로 합니다. 경영학과의 특성상 산업군과 관계없이 모든 회사의 Staff 부서나 영업, 마케팅 부서 등 모든 회사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도 갈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포기하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노력하면 그 이상 이룰 수 있습니다.

협성대학교 유통경영학과 정지윤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머천다이저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갖고 찾아보았습니다. 3학년에 진학하고 학과를 정할 때 여러 학과를 접하고 알아보던 중 유통경영학과라는 학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직업인 머천다이저라는 직업이 마케팅과도 많이 연관되지만 유통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여 조금은 생소한 유통경영학과에 관심을 가지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진학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상당수의 학생이 전공과 맞지 않다며 자퇴, 재수 등 후회를 하는데, 유통경영학과는 다양한 전공과정을 통해 넓게 지식을 키워 나갈 수 있어 좋았고 적성에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는 물론이고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 큰 편입니다. 유통경영학과는 다른 대학에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학과가 아니라 유통이나 물류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전제적인 경영학적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



다 보니 학교와 학과에 매우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협성대학교 유통경영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유통은 물건의 흐름 즉, 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학, 물류학 수업을 중심으로 마케팅에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나 홍보방법 그리고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고객만족도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배웁니다. 그 외에 경영, 재무, 회계, 소비자 행동론, 전공 영어 등 유통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경영학적 수업들을 기본적으로 배우며 경영과 유통관리 등에 대한 이론과 실기 수업으로 유통시스템에 관한 전문 지식뿐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균형적인 감각과 폭넓은 교양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저희 과는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이란 물건제작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인터넷 쇼핑을 통해 집으로 배달되기까지의 과정, 백화점이나 마트 등으로 제작된 물건들이 유통되는 과정 등 정말 많은 과정이 생활 속에 있으며, 유통 뿐 아니라 마케팅 또한 모든 상품의 수요와 공급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경영대학의 유사계열인 경영학과와 국제통상학과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저희는 다른 과와는 다르게 유통과정과 소비자에 대한 이해, 시장 수요 등을 차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전에는 학교 수업이나 발표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발표를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수업에서는 레포트 작성은 물론이고 발표나 팀별과제가 정말 많은데, 점점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교수님들께서도 과제나 발표에 피드백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후로부터는 발표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자신있게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외활동이나 많은 교내 활동들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게 전공멘토단까지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저희 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취업 방향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대형 도매 및 소매기업, 제조 기업을 포함한 각종 기업체 관리직 및 마케팅 관련 업무 더불어 시장조사기관, 정부기관의 유통·물류 관련 부서 뿐 만 아니라 항공, 해운업의 물류업체 및 물류기업관련 연구소와 연구원, 전자상거래업체 관리직, 정보산업관련 업체 그리고 인터넷비즈니스 창업(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 관련 자격증으로는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등이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언어 자격증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다양한 학교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면서 더 깊고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하며 저만의 경쟁력을 키울 예정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대학교에 진학하여 전공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련 자격증 공부와 외국어 공부 또한 열심히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을 다니며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대학생활의 꽃이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타 학과 학생들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학년 때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생활을 더 알차고 재밌게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2학년 때의 즐거웠던 학생회 생활을 통해서 3학년 때도 학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계방학 때는 해외봉사를 다녀와 정말 너무 좋은 추억과 뜻깊은 경험도 해 보았습니다. 해외 봉사의 경우, 학생회나 동아리처럼 장기적이지 않고 방학동안 참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학생회 활동에 부담을 느끼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합니다.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 말고도 방송부, 많은 교내 프로그램과 대외활동들, 봉사활동, 해외탐방, 멘토·멘티 수업이나 스터디 그룹 등 여러 활동과 경험들을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제학

경제학 분야는 개인이나 사회가 한정된 자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분배·교환·소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를 연구하는 미시경제학,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을 해명하는 거시경제학, 상품과 자본의 국제거래를 다루는 국제경제학 등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박혜원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경제학부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과적 성향의 문과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과였지만, 국어와 영어보다는 수학에 더 강점을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고1때는 이과로 진로 방향을 정할까 생각했지만, 이과로 진학을 하면 더 어려운 수학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제 강점인 수학이 약점이 될까 우려되어 문과로 진학했습니다. 또한 서술이나 암기보다 이해와 적용을 더 수월하게 했기 때문에 문과로 진학을 결정했을 때부터 경상대로의 진로를 정했습니다. 사실 접수 당시에는 경제와 경영의 차이를 잘 몰라 경쟁률이 더 낮은 경제학부를 지원했었는데 들어오고 나니 경제학이 상대적으로 암기보다 적용이 많이 쓰이는 학문이라 경제학부에 입학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음으로 논술과 정시만 준비했는데 정시로 합격을 하였으므로 정시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저는 복습과 오답노트에 집중해서 정시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하려고 했고, 혹시나 시간이 되지 않았다면 그 주 주말에 라도 복습을 끝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풀면서 스스로 유난히 많이 틀린다고 생각하는 유형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형의 문제를 따로 노트에 모아 놓고 여러 번 풀어보거나 정말 풀리지 않는다 싶으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부 뿐 아니라 '멘탈 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3때 수능을 너무 못 봐서 재수를 해서 대학생이 된 경우인데, 고3때 수능에서 점수를 너무 받지 못해 재수 때도 항상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다른 애들이 나보다 잘하는데 대학을 못 가는 것은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수능 3일 전부터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수능 때도 속히 말하는 '멘붕'이 와 20분을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날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불안감은 '나만'이라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하지만 대학에 와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전날 불안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능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러면 안돼!' 보다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를 소개해 주세요.

먼저 숙명여대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숙명여대는 황실의 지원으로 외국의 자본에 의존함 없이 오직 우리 힘으로 일으킨 민족 여성 교육의 효시입니다. 1906년 국권 상실의 위기에 처한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실이 교육을 통한 구국(救國)과 근대화를 목표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여성사학 숙명여자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특히 숙명의 경제는 1955년 처음 국내 여자대학에서 설치되어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집니다. 경제학부에서는 시장, 화폐 등과 같은 경제 전반에 통용되는 이론을 공부하고, 그 이론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보통 학생들은 '경제'라 하면 복잡한 그래프가 가득한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가 되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내용이 모든 전공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 전공을 들었을 때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프는 길게 풀어져 있는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므로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찬찬히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경제학을 배우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경제학부에 들어오게 되면 기초부터 배우기 때문에 굳이 연습을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배우고 싶다면 고등학교 사회탐구 과목 중 '경제' 과목을 수강하시거나, '최진기의 지금 당장 경제학'이라는 책을 읽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제학부와 경영학부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경제학부는 주로 기업, 가정, 정부가 어떻게 경제적, 효율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배웁니다. 반면 경영학부는 주로 기업에서의 회계, 마케팅, 재무 등에 대한 지식을 배웁니다. 따라서 경제학은 상대적으로 이론의 이해와 실제의 적용에 비중을 둔 학문이고, 경영학부는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식의 암기와 사례 조사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경제학은 사회 전반에서 쓰이는 학문이므로 어떤 직업을 꿈꾼다 해도 걸림돌은 없을 것입니다. 주로 경제학부를 졸업하신 선배들은 은행과 같은 금융권이나, 증권사, 기업의 총무 등의 계열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대학원에 진학해 교수와 연구원이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학은 필수 과목이므로 경제학을 배우면서 회계사를 지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경제학은 논리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학문이므로 로스쿨을 지망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백수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제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과목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과목을 학습하든지 제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제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학은 제게 잘 맞는 과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삶 속에서의 개인과 집단의 의사결정과 동기에 대해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살 때도, 미래의 더 나은 가치를 위해 놀기를 포기하고 공부를 할 때도 모두 경제학적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제 삶 속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저는 논술 시험에 합격하여 숙명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시와 정시, 그리고 논술 세 개의 시험을 모두 준비해야했기에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틈틈이 논술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겠지만, 논술 또한 단기간에 완성되는 시험과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타 과목들을 공부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정도는 논술 기출문제를 풀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학교에서의 공부시간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논술은 주로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같은 주말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했습니다.

흔히들 ‘논술에 무슨 답이 정해져 있느냐, 논술은 정해진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매년 논술 시험에서 각 대학은 해당 시험에 대한 정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정답을 기술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논술이 어느 정도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논술은 공부를 통해 정답에 다가갈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술을 공부하다 보면, 비슷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주제들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연습이 있다면 해당 주제가 출제되었을 때 쉽게 풀이를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숙명여자대학교에 논술 시험을 보러갔을 때, 전에 연습했던 주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되어 제시문을 쉽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사회 탐구 과목 중 경제를 추천합니다. 이 과목은 대학교에 와서 배우게 될 다양한 경제학 분야들의 기초가 되는 원리들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와서 배우게 될 과목들인 노동경제학, 환경경제학, 경제발전론 등의 과목은 수요와 공급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기반 하에 시작됩니다. 물론 대학에 와서도 경제학원론이라는 과목을 통해 경제학의 기본적 사항들을 배우게 되겠지만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도 경제라는 사회탐구 과목은 경제학을 먼저 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경제학을 다루어보고 싶은 친구들에게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출판사 부키)’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통해 기초적인 경제학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에 들어와 처음으로 경제학을 접하게 된 터라, 제게 경제학은 너무나도 어렵고 추상적이었습니다. 그 때 제가 학교 선배로부터 추천받은 책이 바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였습니다. 이 책은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들을 다양한 설명과 예시로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를 들어와 가장 처음으로 배우게 될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들이 궁금하거나 혹은 현재 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 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은 국제경제 및 통상 분야, 금융 분야, 그리고 기업경제 및 경영전문가와 같이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 과목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경제 및 통상전문가로 진출한 선배들은 국제관계에서의 경제흐름을 파악하는 국제금융·무역·수출입과 같은 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한국 무역협회나 한국 수출입 은행, 혹은 한국은행이나 외국계은행과 같이 국가와 세계 경제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에 특화된 과정을 학습하고 금융계통으로 진출한 선배들은 주로 금융기관 내 각종 연구소나 은행원 혹은 주식·증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지식을 습득하고 기업경제 및 경영전문가로 진출한 선배들도 있습니다. 이 분야로 진출한 선배들은 국내 혹은 외국계 기업에 입사하여 컨설팅이나 회계, 보험, 노무, 리서치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 이론에 대한 학습을 다른 분야와 접목하여 경제 외의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선배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획득을 통해 회계사 혹은 세무사와 같은 전문직에 근무하기도 합니다. 또는 대학원에 간 후 연구원이나 교수가 되거나, 경제학 교직이수를 통해 사회과목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교에서 선생님이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금융·회계·세무학

회계·세무학 분야는 조직체의 경제활동 결과를 측정·요약하여 의사 결정하는 방법과 개인과 기업의 조세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회계원리, 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전산회계, 재무 분석,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재산세, 지방세, ERP회계 등이 있다.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김재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회계세무학과를 오게 될지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어릴 적, 저는 회계라는 개념조차도 모르는 일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제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 전까지 제가 생각하는 '경제'라는 것은 막연히 어렵고 복잡하고 저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 배울수록 조금씩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진로를 경영·경제 쪽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계세무학과는 그 해에 처음으로 생겨난 신생학과였습니다. 최근 기업에서의 회계를 배운 사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회계의 중요성이 커졌고 이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학에서 분리되어 특성화학과인 회계세무학과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에 들어가서 저의 꿈을 펼쳐보고자 지원하게 되었고 결국 합격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저는 이 과에 수시(교과우수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형으로만 지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아직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다니는 학과와는 전혀 상관없는 활동들도 무차별적으로 해왔습니다. 경북대에서 시행한 별자리 관측행사도 갔다 왔었고 역사 골든벨 참여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또 동아리도 뭔가 진로와 연관이 있을 만한 동아리를 들어가야만 할 것 같아서 결국엔 영자신문 동아리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현재의 학과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학과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고민해왔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활동, 맞지 않는 활동들을 차근차근 찾아가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저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를 소개해 주세요.

영남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크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울대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학교가 영남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큰 학교의 위엄을 보여주듯 학교 안에는 교내 순환버스가 있고 자전거도 빌려줍니다. 거기다가 학교에 비행기 비상 활주로로 활용하기 위한 도로가 있다고 한 말을 듣고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큰 학교에 다니려면 엄청 걸어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학했지만 제가 다니는 경영대학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회계세무학과에 지원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회계세무학과는 생긴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학과입니다. 회계를 잘 아는 사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취업에 대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계가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이 국내에서 어렵기로 손꼽히는 시험인 것을 보면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계 배우기를 꺼려하고 이것을 기회 삼아 오히려 회계를 파고 들면 분명 취업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회계세무를 갑작스럽게 배우면 처음에는 약간의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 접하지 못한 개념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몇 번 보다보면 적응을 할 테지만 만약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간단하게 개념을 알아보고 싶을 경우에는 ‘지금 당장 회계공부 시작하라’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회계와 예시를 들어서 회계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에 제법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 졸업 후 진로는?

회계세무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진출할 수 있는 진로의 폭이 꽤 넓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공인회계사가 가장 대표적이고 세무공무원, 관세사, 금융관리자, 선물거래중개인, 리스크관리자, 신용추심원, 재무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직업들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으로는 전산회계, 전산세무, 기업회계, 세무회계 등이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박영미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회계라는 학문을 처음 접했어요. 처음 배울 땐 기존에 배우던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같은 과목들과 너무 달라서 낯설었지만 배울수록 공부하면 정말 유용한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수학을 못하는 저도 잘 따라갈 수 있어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더 깊게 회계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회계세무학과에 진학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사실 입시를 고등학교 졸업 후 혼자 준비했기 때문에 자료를 얻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회계학과에 대한 정보는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원한 학교의 회계세무학과 홈페이지를 자세하게 찾아 봤어요.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은 기본 질문과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앞으로의 제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고 말로 정리했어요. 언제든지 교수님께서 여쭙보시면 답할 수 있게요. 면접장 실제 분위기는 굉장히 조용했고, 또 엄숙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장 분위기는 면접을 보시는 교수님들 성향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 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입시를 혼자 준비했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소개서가 가장 힘들었어요.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고 도움을 주실 선생님이나 선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일단은 글자 수를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써 봤어요. 어차피 수십 번 읽어보고 고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소리 내서 많이 읽어 봤을 때 어색한 부분은 수정하면서 문장을 다듬었어요. 내용은 학과와 연관 지어서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찾아보고, 그 활동들을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같아요. 요즘 자기소개서는 '자소설'이라 불릴 만큼 과장된 이야기가 많고, 허위사실이 많다고 해요. 그런 자기소개서는 읽는 사람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쓰는 것보다 먼저 솔직하게 써 보는 게 좋아요.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회계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회계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서 회계학과를 희망하는 분들은 방학 때 잠깐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글짓기 동아리를 고등학교 3년 내내 활동했는데, 매 해마다 한 권의 책을 부원들과 써 냈어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내가 쓴 글을 읽어보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많았는데, 돌아보니 참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꾸준히 글을 썼던 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그 꿈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신감을 교수님들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합격한 것 같아요. 사실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교수님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회계원리는 정말 중요해요. 회계에도 많은 종류(원가회계, 세무회계, 재무회계 등)가 있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회계원리입니다. 회계원리에 대한 기본서는 시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1학년 때에는 전공에 대한 기초인 회계원리 과목을 배우고, 2학년부서는 본격적으로 전공에 대해 공부해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회계는 필수적이랍니다. 회사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이에요. 회계에도 종류가 많은데, 회사에서 제작하는 제품들의 원가에 대해서 다루는 원가회계, 세금에 대해 다루는 세무회계, 또 외부에 사람들에게 보고하기 위한 재무회계 같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입학 전에는 사실 전공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제가 기존에 공부했던 것은 거의 기초적인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입학 후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두려움은 조금 덜게 되었답니다. 모르면 알 때까지 쉽게 가르쳐주시는 교수님들 덕분에 자격증 공부까지 쉽게 할 수 있어서 학교 공부가 정말 유용하다고 느꼈어요.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영남대학교에 입학 전에, 제가 느낀 영남대학교는 조금 '딱딱한' 이미지였어요. 하지만 학교에 다니다 보니 이만큼 복지가 좋은 학교가 또 있을까 싶어요. 일단 학생들의 해외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아요. 또한 도서관도 잘 되어 있어서 원하는 책을 찾고 공부하기에도 환경이 좋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트랙이 마련되어 있는데, 회계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전공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시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학교 고시원에 들어가면, 숙식이 해결되고 회계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교수님들의 지도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학교에서 학생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전공에 대한 오해라면, 막연하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점 아닐까요? 회계라는 건 사실 보통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다면 접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있어서 그렇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배우다 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다가도, 기업에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예요.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가 회계를 전공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수학 잘하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전 중·고등학교 때 수학과는 거리가 먼 학생이었어요. 수학과와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다면, 수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그 외에는 전혀 다른 학문이에요. 회계를 함에 있어서 복잡한 수학 공식은 필요하지 않아요.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아직 저희과는 영남대학교에서 신설된 학과라 졸업생이 배출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학교의 회계학과에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기업의 회계팀, 회계사, 또는 세무사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은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최하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1급부터 시작해서 재경관리사, 그리고 회계에서 가장 어려운 자격증인 회계사 자격증까지 찾아보면 엄청 다양하답니다. 회계를 전공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1급 시험에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계를 배워놓으면 쓰일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 꼭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회계학과'는 어떨까요? 대입 원서쓸 때가 되어서야 회계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만큼, 아직 많이 생소할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또 논리적인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격이 꼼꼼하고 돈 다루는 것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꼭 한 번 눈 여겨 보시길 바랄게요.



무역·유통학

무역·유통학 분야는 무역, 유통 등에 관한 제반 이론과 그 실제적인 응용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통상학, 무역원리, 무역학 개론, 무역영어, 무역 실무, 무역 법규, 전자무역, 물류 관리, 국제 운송론, 유통학 등이 있다.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전범수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처음부터 국제통상학부를 알게 됐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학과를 알게된 것은 고3 수시 쓰기 직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학과를 지원한 이유는 3가지의 전공으로 다시 나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학과는 원래 무역학과였지만 국제통상학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학과명칭을 바꾸면서 무역 뿐 아니라 무역과 관련된 경제, 경영까지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큰 매력이었습니다. 평소에 한류문화에도 관심이 있었던 저에게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과도 연관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은 학원선생님과 상담도 하고 선생님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학교에서 받는 정보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가고싶은 학교에 전화도 해보고, 직접 상담센터를 찾아 진로활동도 해보고, 대학교입시 박람회에도 찾아가 입시상담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스스로 찾아다녀야 한다는 게 부담이 됐었지만, 돌이켜보면 내 미래를 내가 직접 찾아다녔다는 생각에 뿌듯함도 생겼고 글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장정보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무역을 배우려면 제 2외국어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대학생들도

교수님들에게 어떤 제 2외국어가 가장 유리한지 묻기도 합니다. 우리 학과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영어부터 하라” 입니다. 물론 제 2외국어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다면 제 2외국어를 배우는게 맞습니다. 확실히 제 2외국어는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큰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2외국어에 대한 관심, 흥미가 없으면서 단지 무역을 배우기 때문에 제 2외국어를 배우려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부에 대한 성취도도 떨어지고, 흥미도 떨어집니다. 영어부터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우리 학교에는 ‘국제지역학부’가 있습니다. 국제지역학부와 국제통상학부는 한 단어만 다르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국제지역학부는 그 나라의 언어, 문화, 관습에 대해서 배웁니다. 국제통상학부는 해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진출하고, 무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웁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저는 현재 신문방송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학부에서 공부를 하면서 더욱 더 한류 문화 수출에 대한 꿈이 커졌습니다. K팝문화는 점점 더 많은 세계인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제통상학부에서 배운 무역지식과 신문방송학과에서 배우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문화 수출에 힘쓰고 싶습니다!

협성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신혜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무역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무역에 관한 흥미를 느꼈고,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전공하여 무역관련 전문가가 되기 위해 국제통상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협성대학교 수시로 지원하여 합격하였습니다. 수시 면접 준비는 준비되어 있던 면접 질문에 대한 답을 최소 두 개 이상씩 준비하였으며, 고등학교 내에서 비슷한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끼리 면접 스터디를 통해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 협성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하면서, 무역영어, 거시경제학, 신용장론, 경영학원론, 무역중국어, 국제무역결제론 등을 배우면서 무역 전문가에게 필요한 전공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 졸업 후 진로는?

관련 자격증으로는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유통관리사 등이 있으며, 무역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외국어 관련 자격증인 HSK와 토익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여 관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아직 전공을, 그리고 적성을 찾지 못한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 본인의 길이 막연하고 두려울지라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포기 하지 말고 그 분야에 대해 탐구하여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현재의 직업이 같은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 저조차도 저의 길이 현재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잘 모르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들도 도전하고 멈추지 않는 용기를 갖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홍보학

광고·홍보학 분야는 현대 사회에서 광고의 역할과 광고에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 물적자원 및 인적자원 등에 대한 광고와 홍보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광고학개론, 커뮤니케이션, 광고심리학 등 광고관련 이론분야와 광고기획, 제작, 조사, 미디어 등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전서원

숙명여자대학교는 1906년 대한제국 황실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 여성 교육의 효시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는 창학 이래 수많은 여성리더들을 배출해냈으며, 이는 특정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숙명여자대학교에는 다양한 학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1997년 신설된 홍보광고학과는 학교 내에서도 전망 있는 학과로 유명합니다.

우선 홍보광고학을 배울 수 있는 대학교가 굉장히 드물며 숙명여자대학교의 홍보광고학과는 국내 동종 학과에서 가장 많은 40개의 전공 과목을 가르치고 있기에 학생과 교수님 모두 학과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 전공 3명, 광고 전공 4명, 총 7명의 교수님이 재학생들에 대한 알찬 교육과 홍보광고학 연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학과의 모든 교수님은 전공적 지식, 연구실적 뿐만 아니라 전공분야에서의 탄탄한 실무경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전임교수님들은 총 실무 경력 40년, 1인 평균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고 계시며, 현업에서 활동하고 계신 겸임교수님들의 경우 1인 평균 25년이 넘습니다. 이는 동종학과가 설치된 국내 대학 중에서도 월등한 수준이며, 현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기회 창출과 더불어 홍보광고학이라는 실용학문의 교육에 현실감각을 높이는 저희 학과만의 유용한 자산입니다. 또한 전공 특성상 트렌드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는 등 꾸준한 교과과정의 개편과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40여개의 전공 과목은 본과 재학생들이 4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분야별 로드맵에 따라 관리·지도되고 있습니다. 전공은 크게 홍보와 광고과목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1학년 때 수강하는 광고원론, PR원론을 마치면 보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과 실습과목이 균형을 이루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도 학생들에게는 수강



과목 설계에 있어 큰 이점이 됩니다. 모든 전공 교과목은 전임교수진과 검증 받은 겸임교수 및 현업의 매니저급 외부강사진에 의해 성실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학과의 또 다른 장점은 IPP라고 할 수 있습니다. IPP란 ‘일학습병행제’로, 전공 관련 업계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고, 관련된 지식은 학교 수업을 통해 보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IPP의 최대 장점은 학교 내에서만 배웠던 전공 관련 지식을 취업 전 실제 근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학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턴 경험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취업 과정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과에서 다양한 전공지식과 함께 실무 경험을 쌓은 뒤에 졸업을 하게 되면, 진출할 수 있는 전공분야는 실로 다양합니다. 먼저 홍보분야를 보면 기업체나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의 홍보실(또는 마케팅부서)이나 PR대행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광고분야에서는 광고대행사의 광고 기획자, 카피라이터, 미디어플래너, 프로모션대행사의 판촉 또는 이벤트 기획자, 또 프로덕션의 CM플래너나 CF감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밖에 미디어리서치회사나 소비자조사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광고는 마케팅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마케팅부서에 입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홍보광고학은 결국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홍보광고인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업과, 브랜드, 소비자 등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홍보광고학과에서는 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인재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학과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과제들은 임의의 팀을 구축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며, 그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보다 홍보광고학과에 적합한 인재상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히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이끌어내고 자신 역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홍보광고학과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과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툴을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염려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는 학과에 입학한 후에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툴을 배울 수 있는 오픈 소스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또한, 다른 무엇보다 과제를 해결하면서 툴을 직접 이용해 보는 것이 실력이 느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홍보광고학과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레 일정 수준 이상의 툴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홍보광고학과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입학 전 툴을 다루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생각의 힘을 기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얼마만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느냐가 창의력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관찰하는 연습과 함께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를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위해 일기를 쓰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광고홍보학과 강하은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사람의 인지와 태도, 행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수많은 선택지 중 왜 그것인지 궁금했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소비자 심리 쪽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우연히 광고홍보학과를 알게 되었고 알아보니 배우는 내용들이 대부분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것들이라 고민 없이 광고홍보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저는 정시 수능 100%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목표가 단순히 입학 뿐 아니라 입학 후에도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라면 저는 평소 “왜?”라는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광고나 PR활동을 보고 이것이 효과적인지 효과적이지 않은지 판단해보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효과적이라면 왜 그랬을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광고와 PR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사회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분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순한 추측을 넘어 구체적인 자료나 수치를 통해 논리를 세워보는 연습도 기획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광고홍보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배우는 과목을 우선 이야기 하자면 1학년 때 광고원론, 커뮤니케이션론, 홍보원론, 전략적프리젠테이션을 배웁니다. 2학년 때부터 전공과목을 수강하게 되는데, 전략적 기획론, 카피라이팅, 디지털뉴스라이팅, 여론과 트렌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광고홍보연구방법론, 디지털미디어, 설득커뮤니케이션, 이노베이션마케팅, 매체원론을 시작으로 해서 매체기획, 디지털사이니지론, 데이터애널리틱스, 디지털페르소나, 위기와 재난대응 커뮤니케이션, 소비자심리, 헬스커뮤니케이션, AD/PR과 사회, 디지털미디어 광고제작, 브랜드드 콘텐츠, 수용자와 미디어 전략, 브랜드 캠페인, 디지털 광고 실습, 사회마케팅, 광고홍보 법제와 윤리, 전략적 글로벌 캠페인, 인터랙티브 캠페인, 국제 전략 커뮤니케이션, 광고홍보 특별주제 등의 전공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의 장점은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훌륭한 교수진과 선배들, 둘째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회 시스템, 셋째는 광고홍보학술제 COMMAH(콤마)입니다. 우리 과에는



여덟 명의 교수님과 두 명의 부교수님 그리고 여덟 명의 겸임교수님과 많은 강사님이 계십니다. 또한 89학번 선배님부터 현직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실무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광고기획학회 너리알리, 광고비평학회 꺼리나누기, 영상제작학회 이미지, 이슈토론회 프리즘, 크리에이티비티학회 썸, 트렌드분석학회 팝업, 콘텐츠디자인학회 답다까지 7개의 학회가 활성화되어 있어 강의 시간 외에도 선배들과 학과 관련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콤마는 'COMMunicate with ADPR of Hanyang'의 약자로서,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유일의 학술제를 뜻합니다.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과제를 수주 받아 해결함으로써 그동안 학과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연중 최대 행사입니다. 1990년, 제 1회 광고홍보학술제로 시작하여 발전을 거듭하여 2018년 29회를 맞게 되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폭스바겐, 파리바게뜨, 한돈, 한컴, KT, GS칼텍스 등의 기업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홍보학과가 되었습니다.

□ 졸업 후 진로는?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한 이후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카피라이터, 아트디렉터, 광고 프로듀서, CF 감독, 미디어 플래너, 이벤트 프로듀서, 광고 사진가, 온라인광고 전문가 등 광고계로 취업할 수도 있지만 위기 관리자, 온라인SNS PR인, 글로벌 PR인, 마케팅 PR인, 사내 소통자, 정책 홍보인, Public Affairs 전문가, IR 전문가, PI 전문가 등 PR계로 취업할 수도 있고 평소에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와 커뮤니케이션을 접목하여 얼마든지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요즘 시대에는 PR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제품 PR을 넘어 이제는 자기 PR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또한 대중매체 중심에서 일인미디어, 즉 개인미디어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PR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PR은 마케팅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공중과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별개의 학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다면 광고홍보학과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광고홍보학과에 적성이 맞아 매우 만족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광고홍보학과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해 입학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계기로 평소에 관심 있었던 학생들이 광고홍보학과에 대해 알게 되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학

관광학 분야는 인간 삶의 중요한 요소인 여가와 관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호텔, 여행사, 리조트, 테마파크, 컨벤션, 카지노 등 관광산업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업종별 경영 및 개발, 관리에 관한 이론 및 기술적 내용과 관광정책, 관광자원 및 상품개발, 국제관광진흥, 관광법규, 관광경제학, 여가부문 등이 있다.

공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이예림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수시 전형에 탈락하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관광경영학과에 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관광경영학과 중 관광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관광업은 우리 삶에 가장 인접한 분야라고 느꼈습니다. 관광은 여행업, 항공업, 의료업, 예술업 등 많은 분야와 접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광에 대한 지식을 채우고 다른 분야를 배운다면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이 무엇인지 더욱 알고 싶었습니다. 여행이 ‘떠나는 것’이라고 정의되지 않고 더 많은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갑작스럽게 학과를 바꾸게 되면서 혼란이 왔습니다. 준비했던 자료들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친구들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정시는 성적만으로 뽑습니다. 면접에 자신이 있다고 해도 정시는 수능 성적만 보기 때문에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면접에서의 분위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잘 풀어 말하고 지역 축제에 대해 설명하기, 관광과 여행의 차이를 말하는 등 심도 있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광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분위기가 중요하므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 있고 부드럽게 말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 공주대학교 관광경영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공주대학교의 관광경영 수업은 호텔, 여행, 전시, 항공 등 한 분야에 치우쳐진 수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수업이 많습니다. 한 가지 분야의 책만 읽기보다 여러 분야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아가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다면 수업시간 교수님들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콘라드.N.힐튼 저 '호텔왕 힐튼'이라는 책은 500개가 넘는 대규모 호텔 프랜차이즈를 갖게 되는 세계 최대의 호텔왕이 되기까지 힐튼의 인생 역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코너 우드먼 저 '나는 세계일주로 경제를 배웠다'라는 책은 6개월 동안 세계를 여행하며 물건을 가고 팔면서 경제를 배운 경험을 담은 책입니다. 공정여행과도 관련 있고 여행이 여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전시와 관련해서는 책을 읽는 것보다는 여러 전시회를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시회 서포터즈를 통해 경험을 하고 참관하는 것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공주대학교 관광학부는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에 나가 경험도 쌓고 학점도 취득할 수 있는 수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해외의 공항이나 호텔에서 일하고 있으며 인턴이 아닌 직업으로까지 이어진 선배들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식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영학과는 관광과 경영이 합쳐 만들어진 과로 특정 분야와 관련된 수업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호텔경영학은 호텔을 중심으로 과목을 배우지만 관광은 호텔, 여행, 항공 등 다양한 분야와 인접하기에 한 과목만 심도있게 배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과목을 접하면서 자신과 가장 어울리는 분야를 만날 수 있고 다양한 과목을 통해 여러 지식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졸업 후 진로는?

우선, 어학 능력과 정보화 능력이 중요합니다. 관광은 전 세계를 무대로 나가는 분야로 토익, 토스, HSK, JLPT 등 어학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 등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증이 있습니다.

관광과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국외 여행 인솔자, 관광 통역 안내사, 국내 여행 안내사, 문화 관광 해설사 등이 있습니다. 관광은 여행, 호텔, 전시 등 많은 분야로 구분됩니다. 관심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영학과 졸업 후 다양한 분야로 취직합니다. 지상직 승무원, 한국관광공사, 관광고등학교 선생님, 동시 통역사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선배들을 보면 관광이라는 분야가 여러 곳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서도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모습은 내가 닮고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고등학교 생활하는 동안 제가 관광학부에 진학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좋아했고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에 흥미가 있었기에 당연히 유아교육과로 진학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광학부에 진학하게 되고 관광, 여행, 호텔, 전시 등 다양한 한문을 접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 더 일찍 알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관광업은 그만큼 매력 있는 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관광산업은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중요해 지는 산업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주대학교 관광영어통역학전공 정은지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항공에 관심이 많았고 호텔 연회팀 또는 외식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 서비스업이 재밌고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항공사 지상직원'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 맞춰서 과를 생각하다가 항공서비스학과를 가야할지 영어는 필수가 되는 직업이니 영어영문학과를 가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어영문학과는 영어실력이 좋지 않아서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항공서비스학과로 방향을 잡았는데 대학교를 알아보던 중 제가 배우고 싶어 하는 관광과 영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공주대학교 관광학부 관광영어통역학전공을 알게 되어 지원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수시로 준비했는데 특성화고전형이나 자기소개서를 쓰는 종합전형이 있는 학교라면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학교 임원을 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여 오케스트라, 창업, 승무원 동아리 활동을 하였고 학교 서포터즈와 학생회 여자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종합전형 지원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저를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개인적으로 대학교 항공과 입시를 위해 승무원 학원을 다니는 것은 비추라고 생각합니다. 항공과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같이 모의면접을 하며 준비하는 것은 물론, SNS를 활용하여 항공과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또는 실제 항공과를 다니는 선배님들께 연락을 하여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상 질문을 알아보며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SNS를 통해 가까운 지역에 사는 항공과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모의 면접 스터디는 초반에는 서로 답변을 써오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과 서로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했고 여름방학부터 실제 모의 면접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면접처럼 면접복과 구두를 일주일에 한번은 꼭 입고 2명씩 서서 다른 친구들이 예상 질문을 내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또한 대학교 항공과 측에서 주최하는 멘토링 등이 많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여 항공과 재학 중인 선배님들께 인사부터 답변까지 모두 피드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시간을 내서 예상 답변을 써서 고치고 읽어보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벽에 몸을 붙이고 말하면서 자세교정을 했습니다.

더불어 면접 준비를 할 때 각 학교만의 특색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면접관으로 계시는 교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 분인지에 따라 초점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주대학교 면접을 보러 오기 전 선배님께 교수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알아보고 가서 의료관광을 가르치는 교수님과 영어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셨기에 그것을 중점으로 답을 했던 것은 가장 강력한 합격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 항공서비스학과가 아닌 관광학부를 선택하고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항공서비스학과를 많이 지원하기도 하였지만 저의 1지망 대학교는 공주대학교 관광학부 관광영어통역학전공이었습니다. 제가 배우고 알아가고 싶었던 관광지식과 항공 분야에서 필수로 하는 영어를 한 번에 할 수 있고 국립대학교 중 유일한 관광영어통역전공이기 때문입니다. 원했던 학교이기에 만족스럽고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들 간의 우애는 물론 선후배 관계, 사제간의 관계가 매우 돈독합니다.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수업이 많고 호텔, 항공사, 관광마케팅, 관광가이드 등 관광이라는 폭넓은 직업정보에 대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끔 아쉬운 점은 항공과만의 과복이 있다면 저희 관광학부는 과복이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전공 수업 중 스투어디스 이미지메이킹이라는 수업 때 면접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만족합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공주대학교 관광학부 관광영어통역전공의 필수 과목은 통번역학개론, 여행학개론, 관광학개론, 호텔경영론, 관광호텔영어, 영한/한영통역기초입니다. 이 외에도 관광영어, 스투어디스 영어, 스투어디스 서비스실무, 항공예약발권, 여행사지식경영론, 토익, 국제시사 등 관광과 관련된 폭넓은 다양한 수업이 있으며 또한 학점을 인정해 주는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조원들이 여행을 가는 국내외 여행실무답사 수업도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국가의 핵심역량사업 분야인 관광산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뛰어난 영어구사 능력과 국제적 관광마인드를 함양시켜 문화관광산업분야인 호텔, 여행사, 항공사, 리조트, 전문 통·번역사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해외인턴십 과정을 통해 호텔에서 취업을 하는 선배들도 많을뿐더러 항공사 승무원(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카타르항공, 제주항공, 에어말레이시아항공, 에어부산(스튜어드), JIN AIR, 아랍에미레이트 항공 등), 항공사 지상직(싱가폴항공, 프리미엄패스 인천공항, 대한항공, 청주국제공항, 대한항공예약센터(주)유니에스), 여행사(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유니콘여행사, 현대드림투어 등), 호텔(플라자호텔, 신라호텔, 리츠칼튼호텔, 하얏트호텔, 롯데호텔, The-K호텔 등),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충청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증권 등), 공기업(한국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서울시관광협회, 대전수자원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에서 근무하거나 제약회사(동아제약, 광동제약, 일동제약 등)와 관광, 그 외 다양한 분야(이랜드, 세브릭카지노딜러, 파라다이스제주그랜드카지노딜러, 영어학원강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찰 및 행정직 공무원, 대전,청주출입국관리직, 대명비발디파크, 휘닉스파크,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등)로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국제관광학과 김아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릴 적부터 항공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였습니다. 어릴 적 항공승무원은 선망의 직업이라는 인식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입시를 시작할 시점에 전직 항공승무원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확실한 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겉보기에 승무원은 아름다운 직업일지 모르지만 고객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강인함이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항공승무원과 관련된 대학을 알아보다가 항공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탐구해 보고 싶어 국제관광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전형 준비방법을 알려주세요.

동아대학교 국제관광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두 가지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내신공부와 수능준비를 동시에 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힘들었던 경험이 떠오릅니다.



원래 내신공부에 집중했던 저는 수능공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둘 다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공부를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내신과 수능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암기과목 같은 경우 내신은 꼼꼼히 수능은 크게 보면서 유형을 익히기 위해 노력했고 수학과 같은 이해과목에서는 수능교재를 위주로 오답노트와 함께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내신공부와 수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어 뿌듯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학교선생님들을 통해 많이 얻었습니다.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께 계속 찾아가고 묻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먼저 고교생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보았습니다. 굳이 큰 활동이 아니라도 사소한 일까지 모두 적어 그 중에 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틀을 잡은 후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세하게 일기를 쓰듯이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초본을 완성하고 맞춤법이나 띄어 쓰기 등을 고치고 국어선생님 한분께 초 본을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초본에 관해 피드백을 해주시면 피드백을 통해 매끄러운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고교생활 중 저는 방송부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내 진로와 완전히 관련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 제가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송부는 교내 모든 행사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대회,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때 저희 부원들은 행사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무대 뒤편에서 다른 학생들이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일을 했습니다. 물론 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학교친구들이 저희를 통해 행복해하는 모습과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보람찼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교내 라디오방송을 진행했는데 모든 기획과 진행을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모두다 처음이라 의견충돌도 많았지만 서로 맞춰가고 협력하면서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부를 통하여 뒤에서 일하고난 후 뿌듯함과 팀원들과 협력, 배려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동아대학교 국제관광학과에 뽑힌 이유는 제 자신을 솔직히 보여주고 과에 대한 열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스튜어디스, 스텐드가 말하는 항공승무원’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항공승무원의 업무와 그 속에서 승무원들이 느끼는 책임감과 강함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공사도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관광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추천하고 싶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동아대학교 국제관광학과에서는 1학년 때는 경영대학에 관련된 교양수업과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광과 관련된 수업이 진행되는데 크게 항공사, 여행사, 카지노, 호텔, 컨벤션에 관해 각각 세부적인 이해와 업무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서비스업에 걸 맞는 관광전문인을 배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동아대학교 국제관광학과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학과목이나 관광과목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교환학생, 어학연수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있기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실 소속 튜터단 '고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온을 통해 중학생, 고등학생 즉 예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전공 설명, 입시강의,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온에서 제가 한 것과 같이 대학생 전공멘토단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항공사, 호텔, 여행사, 컨벤션, 카지노 등 다양한 관광기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광학과를 통해 관광전문인의 소양을 길러 관광기업에 진출한 모습이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다양한 어학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학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TOEIC, HSK, JLPT 등 어학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대학 전공멘토단이 되어 제가 겪은 대학입시에 관한 정보를 후배님들과 공유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두세희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두세희입니다. 이번에 전공멘토단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저희 과를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저희 과에 대해 소개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처럼 흔한 과가 아니라 특수과이다 보니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호텔경영만 생각했지 관광경영이 무엇이고 이 과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우연히 전주대학교에서 개최하는 진로진학박람회에 다녀온 뒤에 관광경영이라는 학과를 알게 되었고 그 과에 가기 위해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전주대학교는 학생부교과에 종합전형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저는 학생부교과로 관광경영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수험생과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과 탐방이나 진로진학박람회, 학교설명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학교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저도 전주대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특히 이 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르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아 저희 학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광경영학과는 여행사나 항공사, 호텔, 리조트 등 관광에 관련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전공지식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서비스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항공사나 호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저희 과에 대한 선호도 또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서는 수업만 듣고 매일 과제만 있는 과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선후배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학과입니다.

저희 과의 전공과목에 대해 소개하자면 1학년 때는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세계 관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론, 세계문화사, 세계문화체험, 관광학원론, 관광법규, 관광자원론, 항공서비스론, 관광기초영어를 배우고 2학년때는 관광마케팅, 관광사업론, 관광기초외국어, 관광실무영어, 산업체현장실습, 컨벤션산업론, 관광개발창업, 관광비즈니스영어, 관광정보론, 관광행동론, 산업체현장실습(2), 여행사경영실무 등 관광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3학년 때는 관광교과교육론, 관광교통론, 관광영어회화, 산업체현장실습(3), 산업체현장실습(4), 이벤트비즈니스론, 항공객실서비스론, 항공예약실습, 항공발권실습, 관광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관광경영론, 관광서비스경영론, 관광실무영어회화, 녹색관광창업, 축제이벤트론 등 이론보다는 실습에 중점을 두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졸업하기 전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숙박업종사자, 국내여행안내원, 국외여행인솔자, 항공예약 수료증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3학년 때 항공 발권실습을 들은 학생들은 항공예약수료증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학과가 다른 학과와 달리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답사입니다. 답사는 1년에 두 번, 한 학기에 한번씩 1학기는 국내답사, 2학기는 국외답사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대학생활 중 해외여행이나 여행을 꿈꾸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과는 그러한 꿈을 실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대학교에 들어와서 해외여행을 처음 가보았는데 그게 답사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답사라고 딱딱하게 진짜 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를 정해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작년 2017년에는 국내답사를 부산으로 가고 국외답사는 일본 오사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사카를 가기 위해 저희는 이스타항공을 타게 되었는데 그때 비행을 해주시던 승무원은 저희과 07학번 졸업생 선배였습니다. 저희 과를 나와 항공사를 취업하는 선배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더욱 반가웠고 이로 인해 항공사에 대한 취업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는 관광과만의 개성있는 축제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광제에서는 관광과 답게 옷도 차려입고 축제를 즐깁니다. 학년별로 장기자랑이나 합창, 저희 과를 졸업하신 선배들과의 대화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세 번째로는 교환학생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필리핀에 있는 바기오대학교로 매년 20명 정도의 교환학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그 나라에 가서 1년 정도 생활하다보니 영어실력 또한 월등히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나 선배와 같이 가다 보니 더욱 더 친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은 항공료와 수업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외에도 학과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가지의 동아리가 있는데 이벤트프로, 길, 스카이메이트, 텍이 있습니다. 길은 저희 과에서 가장 오래된 동아리로 다양한 축제를 직접 답사하며 관광지만의 문화를 인식하고 해결점을 모색하고, 이벤트프로는 관광관련 공모전이나 지역 축제 등에 참여, 스카이메이트는 많은 여학생들이 꿈꾸는 승무원을 양성하는 동아리로서 교수님의 특강이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실제 항공사로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텍은 영어동아리로 필리핀바기오대학교와 관련하여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여기까지이지만 실제 저희 학과에 와서 활동을 하면 다양한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더욱 더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당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백미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항공서비스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원래 잘 웃으며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했고 저의 그 성격을 잘 살리면서 잘 맞는 직업이 뭔가 찾다가 마침 학교에서 진행한 직업 체험 중 항공



승무원 체험에 참여 하였는데 제 성향과도 너무 잘 맞고 원래 생각을 해놓았던 직업이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수시(교과)이며, 저희 학교 학과는 면접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족한 수시 등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 준비는 학과 페이지에 올라온 면접 예상 질문과 동영을 참고하여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면접은 웃음 가득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어내지 않고 솔직한 답변을 준비하였으며 과하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임했던 게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도움이 될 만한 고교 교과목으로 영어 과목을 추천합니다. 학과 특성상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전공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튜어디스. 스튜어드가 말하는 항공 승무원' 도서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항공 승무원분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승무원이란 직업을 알기에 정말 좋은 책입니다.

초당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양효빈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되고 싶은 직업은 항공 승무원입니다. 어떤 대학을 나와도 승무원을 지원할 수가 있지만, 굳이 제가 항공서비스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영어수업과 실무수업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대학을 가도 외국어를 배울 수는 있지만 항공기 안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들을 배울 수 있고 또, 항공기모형으로 된 실습실이 있어 현장감 있는 수업으로 실무능력을 향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항공서비스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 초당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를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는 금호그룹 오너일가 이신 박종구 총장님이 취임하신 뒤 대학 최초로 아시아나 본사와 산학협력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주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과도 협력을 체결하게 되어 상호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어를 학습하는 환경이 갖추어 있습니다. 1학년 전원이 한 달 동안 전액무료로 말레이시아의 APU대학에서 외국인들과 수업을 받게 됩니다. 또한 원한다면 2학년 때는 일 년 동안 중국 어학연수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방학기간 중에는 직접 해외여행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80%의 지원을 받고 나라 제한 없이 원하는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마음 편히 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또, 저희 초당대학교는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해서 방과 후 토익 프로그램은 물론, 방학기간 중에도 토익캠프를 운영하고 있어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리적인 면에서도 유익한 경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초당대학교는 무안 국제공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항체험, 다양한 항공사의 취항식, 의전활동 등 많은 체험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무안 국제공항 뿐 만아니라 인천공항과 광주공항으로도 실습을 가고 있어 많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 졸업 후 진로

저는 학교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여 외국어가 능통한 승무원이 되기 위해 토익 800점과 HSK 높은 급수를 꼭 취득할 것입니다. 또, 식음료서비스수업을 통해 조주기능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제가 생각하는 승무원의 자질로서의 조건들을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승무원이 되고 난 후에는 저의 꿈이 끝난 것이 아닌 또 다른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승무원은 승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비스는 물질적인 부분 뿐 아니라 비물질적인 부분까지 모두 섬세하게 챙겨야 하는 것 같습니다. 비물질적인 부분 중 진실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내에서 승무원은 손님에게 눈과 눈을 맞추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된다면 손님 또한 편안한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손님에게 몸과 마음 모두 편리하게 도와주는 최상의 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한때의 입시를 준비했던 고3으로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제공되지만 사실상의 정보의 한계점과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당대학교 홍보단과 sns상 메신저를 활용할 때에는 학과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도움을 받고 입학하였기에 저희 후배들에게도 이러한 작은 도움으로 대학진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잘 안내를 해주고 싶습니다.

한남대학교 컨벤션호텔경영학과 김태원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저의 성격이나 적성과 맞는 직업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문과계열 학생이었지만 경영, 경제, 정치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진로 설정이 꽤나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찾던 중 국제회의나 기업회의 등 대형 이벤트나 행사를 기획하는 ‘컨벤션기획사’라는 직업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컨벤션기획사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흥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아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한남대학교 컨벤션호텔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고교 재학시절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고등학교 시절, 서울에 있는 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학회에 방문하거나 그 학회에서 주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사실, ‘컨벤션’이라는 분야 자체가 많이 생소하고 정보가 많지 않았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서 관련 전공 대학생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나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진학에 더 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 한남대학교 컨벤션호텔경영학과를 소개해 주세요.

컨벤션산업은 21세기의 각광받는 글로벌 서비스산업입니다. 컨벤션산업은 컨벤션센터, 호텔, 관광, 외식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종합산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최근에는 컨벤션산업이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and Exhibition/Event: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전시회/이벤트) 산업으로 대변되기도 한다. 한남대학교 컨벤션호텔경영학과는 지역 및 국가경제의 활성화와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의 이미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창의적이고 봉사적이며, 국제문화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한 컨벤션 전문가를 양성하여 배출합니다.

컨벤션호텔경영학과는 외국의 문화, 관광 및 역사와 국내외의 각 분야 컨벤션 참가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교류, 국제행사의 진행, 도시마케팅 등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공입니

다. 국가와 도시를 대표하는 컨벤션센터(서울코엑스, 부산벡스코, 고양킨텍스, 대구컨벤션센터, 대전 컨벤션센터 외 다수), 국가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급호텔기업(하얏트호텔, 신라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메리엇트호텔, 힐튼호텔, 웨라톤워 커힐호텔 외 다수), 국민들을 대표하는 항공여행기업(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 한진관광, 롯데관광, 모두투어 외 다수) 분야의 직업선택 기준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자 하는 열정과, 미래를 예측하면서 현재를 가장 현명하게 살아갈 자신과의 약속, Step by Step으로 접근해 외국의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신감과 의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전공 공부는 평생 직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있다는 측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데, 컨벤션호텔 전공을 통해 사회에 나아가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국제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전공입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컨벤션산업의 이론 및 실무적 역량을 갖추게 되어 컨벤션산업 또는 관련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게 됩니다. 컨벤션센터, 전시장, 국제기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사, 외국인 기업체, 일반 대기업 및 중소기업, 단체(협회.조합), 전시회 전문회사, 무역업체, F&B기업, 외식업체, 동시통역 및 시청각기자재회사, 국가공인 컨벤션기획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컨벤션기획사 자격증, 호텔서비스사, 조주기능사, 바리스타 자격증 등

□ 꼭 하고 싶은 말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면 겉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호텔리어나 컨벤션기획사는 겉에서 보이기에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공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면, 다방면으로 많은 정보들을 찾고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분야인지 생각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전공 대학생, 교수님, 졸업생, 관련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께 용기내서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받길 추천합니다. 한 걸음만 용기내서 앞서 간다면, 분명히 미래를 그리는 데에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 수험생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한남대학교 컨벤션호텔경영학과 유재봉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 만들어지는 사회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며 존재가치를 빛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터 주변사람들에게 사교적이고 눈치가 빠르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심하다는 말을 줄곧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제 성격은 사람을 상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을 금방 알아차리고 그에 맞게 대해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사에 긍정적이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먼저 다가가는 저의 태도는 사람들의 진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 성격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서로 교감하며 누군갈 위해 배려하고 뛰는 서비스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관광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관광 및 숙박업으로 시선이 집중되었고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는 작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 그리고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호텔리어가 되고자 컨벤션호텔경영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을 준비함에 있어 노력한 점을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성적향상에 대한 노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 활동적인 저는 수업이 끝나면 교실을 박차고 나가 뛰어놀기 바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부를 위해 먼저 책상과 친해져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앉아있는 연습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선명히 떠오릅니다. 수업종료 후 2분, 그리고 수업시작 전 2분 미리 책상에 앉아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4분동안 옆 친구와 떠들며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을 위한 명상, 전 시간 수업내용의 복습, 다음 수업시간을 위한 쪽잠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며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더 나아가 뛰어놀기만 했던 점심 및 저녁시간에도 산책 후 들어와 앉아서 쪽잠을 자거나 영단어를 외우는 등 문제지 풀이나 수업내용 복습 등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상에 앉는 습관을 기르다보니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으며, 자투리 시간을 통해 학업에 보다 많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한남대학교 컨벤션호텔경영학과를 소개해 주세요.

본교 컨벤션호텔경영학과는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사업'에 선정돼 2년간 총 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과 산업체간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과


협약산업체가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여 사회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과 동시에 해당기업에서 채용하는 체계로써 이번 사업 선정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현장실습 및 진로설계 기회가 제공돼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전공에 기초가 되는 고교 교과목으로는 ‘지리’를 뽑고 싶습니다. 제가 지리과목을 좋아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공은 관광업계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배움에 있어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 호기심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 지역은 어떠한 기후, 지형이 발달했으며 그에 따라 문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이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고 어떠한 지형이 발달했기에 큰 관광지가 되었는지 등 관광업계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도서는 ‘호텔리어 로랑의 시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호텔리어가 갖춰야 할 면모나 저자 ‘구유희’씨가 호텔리어로 살아남기 위해 했던 노력, 또한 호텔에 근무하며 있었던 갖가지 에피소드가 담겨있어 관광업계, 특히 호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되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로는 크게 컨벤션, 호텔, 여행항공, 공공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컨벤션 분야로는 주로 컨벤션센터나 컨벤션뷰로, 전시회기업, 이벤트기업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호텔외식 분야로는 특급호텔기업, 리조트기업, 외식기업 등에 종사하며, 여행항공분야로는 항공사, 여행사, 국내외 공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는 한국관광공사, 지자체관광공사, 한국관광업협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컨벤션호텔경영학과 이준원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호텔에서 일하고 싶은 꿈을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 적는 칸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호텔리어라고 적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호텔에 가고 싶은 포부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텔과 관련이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서빙 방법과 음식에 대해 배우면서 호텔리어에 대한 꿈이 강력해 졌습니다. 그토록 호텔로 취직을 하고 싶고 지금도 이 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위해 열심히 자기계발을 하고 있습니다.



□ 대입전형 준비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컨벤션호텔경영학과 입학에 위해 준비했던 전형은 정시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뉴질랜드로 2년 동안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2년 동안 배운 영어 실력을 가지고 TOEIC, TOEFL을 준비하였고 고등학교 수능영어와 TOEIC을 병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능영어를 고득점을 받게 되어 대학교를 진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대학생활을 공유해 주세요.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추천도서는 컨벤션호텔경영학과에 전공필수도서인 MICE 산업론이란 책입니다. M(Meetings) I(Incentive tour) C(Convention) E(Exhibition)에 대한 것을 다룬 책으로 저희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용어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 컨벤션호텔경영학과의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행요원, 고교초청행사, 공모전 등 학과 외부 활동을 주로 맡고 있으며, 요즘 제가 가장 몰두하고 있는 활동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YOUTH 국제 컨퍼런스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과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는 학과이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컨벤션호텔경영학과는 교육부의 '사회맞춤형 교육과정 모듈 사업'에 선정돼 2년간 총 3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니다.

□ 졸업 후 진로

졸업한 선배들의 진출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호텔, 승무원, 여행사, PCO, 바리스타 등 현재 각 분야별로 진출해 있는 선배님들이 많이 있고, 저도 항상 제가 원하는 직업을 선배님들처럼 취업해 학과의 기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관련된 자격증은 조주기능사,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대학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 모두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고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직업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조금 방황하던 시기에 공부를 뒷전으로 생각하여 체대입시를 꿈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맞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 실력도 늘지 않고 둘 다 놓칠 뻔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제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여 지금도 후회 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은 우주와 물질의 기원으로부터 생명현상까지 다양한 물질세계의 원리를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하고 새로운 자연법칙을 개발하는 기초자연과학과 이러한 원리를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응용자연과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한 지식경쟁시대에 인간의 생활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신지식 창출의 주도적 역할을 할 우수한 기초 및 응용자연과학 연구 인력의 양성과 자연과학 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수학·물리·천문·지구, 화학·생명과학·환경, 농림·수산, 생활과학, 의료예과, 약학, 간호, 보건, 교육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 화학·생명과학·환경
- 농림·수산
- 생활과학
- 간호학
- 보건



화학·생명과학·환경

화학·생명과학·환경 영역은 물질의 성질·조성·구조 및 그 변화를 탐구하는 화학 영역, 생물의 구조와 기능 및 생명현상을 연구하고 응용하는 생명과학 영역,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환경영역으로 구분된다. 관련 분야로는 화학, 생명과학, 환경학 등이 있다.

화학
생명과학
환경학

화학

화학 분야는 물질의 성질, 조성 및 구조 그리고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인 화학반응 등을 주로 연구하는 분야로서 자연과학의 기초적인 학문이며 물질의 성질 및 반응을 취급하는 순수과학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화학의 기초개념,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신소재화학, 광화학, 레이저 분광학, 이론물리화학, 촉매화학, 유기합성, 신농약 합성, 신의약 합성, 고분자 합성, 전기화학, 분석화학, 단백질 화학 등이 있다.

동아대학교 화학과 정세빈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동아대학교 화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화학은 실생활에 적용되고 활용되는 부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흥미로움과 즐거움을 더해주고 알면 알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학과 관련된 모든 학교 행사와 발표에 참여하면서 화학은 저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수소 결합과 같은 친구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화학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동아대학교 화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동아대학교 화학과에 지원하고 싶었기 때문에 화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항상 제가 꿈꾸고 있는 제 목표를 생각하였고 화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관련된 활동은 모두 참여하였고 독서량 또한 늘렸습니다. 또한 매일 화학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집에 있는 칠판을 활용하여 스스로에게 가르치면서 복습을 철저하게 하였고 3학년 때는 친구와 함께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화학에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였더니 성적이 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는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매일 읽으면서 스스로 예상 질문들을 만들어보고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있는 면접 준비 영상을 보면서 그 분위기를 익혔고 매일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준비한 질문들로 대답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을 하였고 자세, 표정, 발음, 목소리 크기 등을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실제 면접을 보러갔을 때는 머리가 길다보니 단정하게 묶었고, 교복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실제 면접 분위기는 면접관분들께서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셔서 평소에 준비한대로 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동아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는 학과교양으로 1학년 때 생물학 및 실험 과목을 배우고, 생명공학과는 학과교양으로 1학년 때 일반생물학을 배우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생명과학1, 2를 기본적으로 미리 공부하고 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학1만 공부해온 친구보다 생명과학2까지 공부해온 친구가 수업 이해도도 빠르고 기본 배경지식이 더 있으니까 공부할 때나 시험을 칠 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아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는 이기적 유전자(리처드 도킨스)라는 책이고 생명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는 MT 생명공학(최강열)이라는 책입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생명과학과 기준]

동아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식물분류기사, 동물분류기사, 생물공학기사, 식물보호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대기환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생명공학과 기준]

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IPAT, 수질환경기사, 생물공학기사, HACCP, 식품기사, 유기농업기사, 토양환경기사, KGMP 등이 있습니다.

생명과학

생명과학 분야는 생명체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생명현상을 미시적으로 동시에 거시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식물, 동물, 미생물 등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밝히고 응용하여 생물산업, 농업분야, 의약학분야, 환경 등 인류사회와 밀접한 제반 생명산업분야의 토대를 이루며 현대 유전공학의 근간을 구성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일반생물학, 동물학, 식물학, 미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유전자재조합기술, 분자생명공학, 암생물학, 세포생물학, 바이러스학, 발생학, 생태학 등이 있다.

동아대학교 의약생명공학과 서대경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동아대학교 의약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돕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 중 간접적인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꿈인 CRA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이 직업은 약을 제조한 과정을 통해 그 약을 시판하기 전에 임상시험을 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직업입니다. 이 직업은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직업을 나의 꿈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로 인해 직업에 대해 탐구하고 생각함으로써 의약생명공학과를 알게 되었고 이 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나의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동아대학교 의약생명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누구나 한번쯤은 매우 힘들어 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시절에 제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새 친구들과 함께 흔히 말하는 '캠퍼스 라이프'를 상상 했던 것 같습니다. 즉 미래를 꿈꾸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내가 즐겁고 내 꿈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상상을 하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위로가 되는 책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곤 했던 것 같습니다.



다. 그 책 속에 나오는 글귀들을 포스트잇이나 사진을 찍으면서 힘들 때 한번 더 나 자신을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제가 꿈꾸고 있는 직업과 미래에 한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서 원하는 학과에 진학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제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일단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일반생물학과 일반화학을 바탕으로 심화 과정을 배우고, 기초 약학에 대해서 배우며 약에 대해 반응하는 실험과정을 실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명과학과 화학을 꼼꼼히 공부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몸을 기초로 하여 심화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기초내용을 짚고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천도서로는 자기개발서를 통해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도서도 좋고 저희 학과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말씀드리자면, 약과 건강, 생물 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동의보감 몸과 우주 그리고 삶의 비전을 찾아, 코스모스라는 책입니다.

학과에서 배우는 약과 건강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고 과학에 대해서 흥미롭게 서술한 책들도 있으니 한번 쯤 읽어보면 유익한 책들이 될 것 같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바로 꿈을 꾸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꿈과 목적 없이는 너무나도 방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어도 갈망하지 않아도 올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가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이 짜릿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해쳐나간다면 분명히 그 뒤에는 밝은 미래와 원했던 그 꿈에 아주 가까워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로써 꿈을 꾸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아주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 하나 소개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는 짧은 글입니다. 어떤 것에 도전하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정답이며 여러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유빈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약품 제조 및 인공장기, 줄기세포 등을 연구하면서 많은 이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저의 꿈이기에 '생물학연구원'이 되는 것이 진로목표입니다. 저는 생물, 보건 그리고 영어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매우 낮았던 터라 성적을 올리기 위해 부지런하게 공부했습니다. 제가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입시 때 많이 속상했었습니다. 경험과 스펙을 쌓기 위해 여러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화학실험, 모의유엔, 의료봉사 동아리 등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활동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을 다 잡았었습니다. 특히 경로당과 꽃동네 봉사를 통한 사회경험을 하면서 인성 또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 대입전형 준비방법을 알려주세요.

면접은 예상질문을 인터넷에서 찾거나 선배, 선생님들을 통해 들어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면접연습은 학교 빈교실에서 준비하거나 교외 세미나를 빌려 실전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수시변의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틀을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교정은 국어선생님과 오랫동안 교직생활을 보내신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교정했습니다. 넓게 3달의 기간을 잡아 작성했습니다. 소재를 찾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읽으며 찾았고, 자세한 경험을 떠올리기 위해 예전부터 썼던 플래너와 일기장을 봤습니다.

□ 고교 재학시절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했습니다. 화학실험동아리를 통해 교과서의 이해를 넓혔고 의료봉사동아리를 통해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모의유엔동아리를 통해 회화실력을 갈고 닦았으며 발표력과 책임감을 길렀습니다.

도서 '초신성의 후예(이석영)'를 추천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많이 얻은 책입니다. 천문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저자의 깊음 또한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의 말 하나하나를 메모해가며 읽을 정도로 저에게 감동을 준 책입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생명과학2이 전공에 기초가 되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경계 - 배제된 생명들의 작은 승리'는 교양을 쌓고 전공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1학년으로 생물학과 화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선 교직과 공무원, 연구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식물생리학과 면역학이 연구전공으로 가장 인기가 많으며 학교에서 가장 투자율이 높은 연구분야입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꿈꿔왔던 진로와 다른 전공이지만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연구하면서 의료보건분야에 저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전공공부에 열의가 있으며 빈 강의시간 틈틈이 복습을 하고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편입을 준비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전혀 편입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대여서 수준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교수님의 수준이 매우 높아 전공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고, 수업에 재미를 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의 과는 유독 동기와 선배간의 교류가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적응하기에 수월했고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는 안하고 입학했던 학교였지만 현재 매우 만족하며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활동으로는 과학생회와 부과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론 아직 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학과 수업에 매우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업이란 것이 이렇게 재미있었나 싶을 정도로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생명과학부는 생물학만 배운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은 극히 일부에 미친 과목이었습니다. 생명과학부는 교직 이수를 하면서 교육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생물학, 생화학, 환경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를 생물학에 기초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생물화학환경과 생명과학과 등이 있습니다. 저의 학과와 공통점으로는 생물학을 배운다는 점이지만, 깊이가 다릅니다. 생물학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전공을 배울 수 있고 전공에 맞는 실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명과학부가 다른 학과와 차별화된 점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생명과학과가 아니라 생명과학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저의 학교는 의치한 다음으로 매우 투자가 높은 학과입니다. 교수님들도 큰 열정이 가지고 학생과 소통하고 수업을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의료분야에 꿈을 가졌던 저이지만 현재 매우 만족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환경학

환경학 분야는 환경문제를 인간 및 생태계와 연계하여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화학적 분석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연구하는 분야이다.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의해 버려지는 오염물의 악영향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생태복원, 소음, 진동 등이 있다.

환경대학교 식물생명환경과학과 김가은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2018년에 식물생명환경과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식물과에 진학한 이유는 제 꿈이 식량연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식량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식물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꿈을 가진 이후 계속해서 식물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식물은 답이 없다는 점에서 식물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식물은 기온 하나 병균 하나에도 다양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중 식량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작물이고 정말 많은 의문을 품고 있으며 계속 발전한다는 부분에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재력우수자전형 즉 종합전형을 통해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자체가 작고 뽑는 인원 자체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학과와 관련된 활동과 독서, 봉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수업의 내용과 연결해 공부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식은 물론 생활기록부도 같이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 2학년 2학기에 내가 정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선배들처럼 성적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주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그걸 알아보신 선배와 3학년 선생님이 상담을 해 주시고 정보를 찾는 것도 도와주셔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극복을 하니 2학년 겨울 방학이 되었습니다. 다시 마음

이 급해졌지만 천천히 생활기록부를 읽으면서 학과와 관련 활동과 특별한 활동 등을 체크해 나열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과가 있는 대학을 다 정리하고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찾아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어려웠던 것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간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채워갔습니다. 고3의 첫 생활은 공부와 자기소개서, 활동으로 종합 전형에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챙기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월 인대파열로 한 달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생각이상으로 성적이 떨어지면서 걱정이었던 대학들이 소신으로, 소신이었던 대학이 상향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선생님은 학과를 고집하기보다 좋은 학교 낮은 학과를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물을 공부하고 싶었고, 재수까지 생각하고 원예, 식물, 식량학과를 5종합 2최저 교과, 1면접교과로 대학 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제가 5개 학교에서 1차 불합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극상향이었던 대학을 빼고 모든 대학 1차를 붙였습니다. 또한 2차에서 3개 합격, 2개 예비를 받는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저는 8개 대학 중 5개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다른 지원자보다 성적이 낮았지만 꿈이 확실했고 그 준비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준비한 점과 학교와 학과의 인재상을 알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습니다.

□ 한경대학교 식물생명환경과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한경대 식물과는 2학년부턴 전공을 배우고 1학년 때는 전공 기초인 화학, 생명, 수학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화학, 생명, 수학입니다. 그리고 딱히 추천도서는 없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공적인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도서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책이 한문이 혼합된 책이기 때문에 읽고 싶으시다면 화학과 생명 관련 도서읽기를 추천합니다. 아직 저는 1학년이기 때문에 수학과 같은 기초 전공만하지만, 2학년부턴 자원심화트랙과 나노환경심화트랙으로 분류되어 수도작, 농약학 등 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지원했던 원예, 식량, 식물은 유사학과인데 원예는 꽃과 채소, 식량은 말 그대로 식량 작물을, 식물은 전반적인 식물을 모두 배우는 학과입니다.

입학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은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의 종류와 범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생활 내내 식물과 농업에 관한 독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는 관련 도서가 없었기 때문에 늘 신청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오니 한 층의 1/4의 책장이 다 학과 관련이며 논문도 정말 많습니다.

아직 저는 입학한지 1달이 조금 지났고 아직 전공을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많은 선배들과 함께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학과 동기들과도 농업에 관한 주제로 토론이 가능하고 선배들과 대화를 하면서 알지 못했던 지식까지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농대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낮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많은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대학별로 다르지만 농업계



열은 대부분 국립대에 개설이 되어 있어 내신이 생각보다 높고 모집인원까지 적어서 경쟁이 심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진출 분야는 어떠한가요?

대부분 식물과를 졸업하신 선배들은 공무원, 일반 사기업, 국내 또는 국제 연구소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모두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는 농촌진흥청 국립 식량과학원 7급 연구원(공무원)입니다. 종자 기사 등 농업 분야도 많은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기사와 같은 자격증은 전공자만이 취득가능한 자격증이므로 관련된 기관이나 회사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저는 식량을 연구하고 싶기 때문에 식량 작물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농대는 이제 막 몰리기 시작한 단과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도, 준비하기도 힘이 듭니다. 저 또한 3년 동안 꾸준히 준비해서 겨우겨우 진학했습니다. 진학하고 나니 3년 동안 준비했지만 모르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농대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농대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한 학교만이 아닌 다른 농대의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경대학교 원예생명과학과 이혜미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중학교 때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인문계를 가고 싶지 않았던 저는 여러 군데를 찾아보다가 여주에 있는 농업고등학교에 관심이 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집에서 약 200여 종의 꽃을 다루시고 부모님께서도 자연적인 것을 좋아하셔서 어렸을 적부터 자주 꽃 시장이나 수목원 등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고등학교부터 진로를 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며 말리셨고, 저 또한 중학생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것이 두려워 직접 고등학교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집 근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한 목표가 아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좋아한 저는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운영하시는 태권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문서 작업을 도와주는 것을 하면서 무엇이든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넌 체육할거지?”라고 하며 그냥 체육교육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며 이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건지, 환경에 적응을 한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생활기록부에는 학생회나 멘토링 등 다양한 내용이 있었지만 반 이상의 분량이 여러 체육 대표, 동아리 활동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과를 준비

할 수가 없어 부모님과 함께 상의하며 매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원서 마감 이틀 전에 선생님 권유였지만 넣고 싶지 않은 학교를 대체하기 위해 정보를 찾다가 국립대를 찾았고, 그 중 교차 지원이 가능하면서 교과성적으로만 선발, 교직이수가 있던 원예생명과학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 학과 입학을 위해 교과와 최저를 준비했고, 다른 학과는 종합과 실기를 준비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각 학교 입학처에 들어가서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찾았고, 진학사 어플라이의 스마트 경쟁률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쟁률을 보는 목적이 아닌 거기서 단어를 검색하면 학과가 전체가 뜨기 때문에 몰랐던 대학교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회를 하며 인사캠페인, 친구 사랑의 날, 우산대여시스템, 체육대회와 축제,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주도했습니다. 학교 일정이 아닌 저희끼리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들을 할 때 재밌었고, 문제점을 짚고 내년에 더 발전된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생각을 공유할 때 큰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응원동아리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했고 무대 위에 섰던 느낌이 짜릿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을 꾸리고 지도 선생님을 찾는 등 어떤 한 단체를 제 손으로 만드는 것이 처음 해 보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더욱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학교 대표 배구선수로 활동했는데 공부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회를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기대고 응원하면서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공부와 관련된 활동들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반에 가서 고등학교 생활이나 다양한 공부 방법, 생활기록부의 팁 등을 2시간 동안 설명해주고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활동을 했습니다. 1대1이 아니라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한 반을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더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방과 후 시간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 돌아가면서 면접자와 학생이 되어 질문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취약하다고 예상했던 부분은 실제에도 질문을 받았으며 준비한대로 잘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독서에 관한 내용은 없었으며 확인하는 질문보다 생각해서 말을 풀어나가게끔 하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각 학교에 들어가서 인재상을 찾고 그 인재상에 맞는 활동들을 뽑아서 작성하여 담임 선생님께 첨삭을 받으면서 진행했습니다.



□ **한경대학교 원예생명과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농업고등학교를 나오셨다면 전공교과목은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문계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생명과학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간단한 화학개념과 이론, 지구과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암석에 관한 내용을 추천합니다. 추천도서로는 생명과학 길라잡이, 다양한 꽃 도감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양 수업 뿐 아니라 저희 학과의 기초가 되는 일반화학실험, 생물학개론, 실험통계학을 1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2학년이 되어서는 필수적으로 원예학개론과 식물병리학, 작물 생리학을 배우며 다양한 회사를 견학하거나, 조별실험, 토양이나 화훼, 자생식물 등 여러 흥미가 있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3.4학년이 되면 2학년 때 접했던 큰 틀을 통해 과수, 화훼, 채소 등 원예의 각 분야 중 관심 있는 분야를 더욱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학과에 대해 대부분 “꽃꽂이 배우네? 나중에 꽃집하니?”, “쉽겠다. 나는 요즘 000전공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농사하계?” 등의 말을 많이 합니다. 화훼를 배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저희의 전공의 약 10퍼센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업을 하러가기 위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농학을 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름이 비슷한 학과들과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조경, 식물, 원예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식물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저희 학교에서의 3개의 과의 차이점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조경학과는 자연과학대학에 속하며 캐드 등을 통해서 공원을 설계하고 아파트 근처의 자연적인 조형물의 배치 등을 디자인하는 학과입니다. 원예생명과학과는 과수나 화훼, 버섯 등을 주로 다루며 작물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닌 생명과학분야와 결합하여 접목이나 병해충 관리, 시설 이용을 위한 시스템 관리 등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식물생명환경과학과는 벼, 밀 등과 같은 식용자원, 농작물들을 주로 다루며 농작물이 시들지 않도록 관리, 품종을 늘리는 방법, 농약에 대한 것 등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요즘 제가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튜터링입니다. 한국사는 튜터로 활동하고 생물학개론은 튜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보충요소들을 학생들에게 배움으로써 더 서로의 입장이나 어려웠던 부분을 더욱 더 잘 이해해주고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제 진로에 매우 도움이 되는 부가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 **졸업 후 기대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2가지에 관심이 있는데, 첫 번째로 조경입니다. 임용고시 볼 때 따로 독학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먼저 배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이며 운동 종목이 아니라 재활이나 생리학, 구급법 등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희 학과의 관련 자격증은 식물보호 기사와 종자기사 유기농업기사이며 졸업 점수에도 포함됩니다. 졸업생은 거의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관리사, 협력센터에 농업 분야 등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농림·수산 영역은 토지·산림·물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과 임산물을 연구하는 농림영역과 바다·강·호수·하천 등의 물속에 사는 생물을 인류생활에 유용하게 이용·개발하기 위해 연구하는 수산영역으로 구분된다. 관련 분야로는 작물·원예학, 산림학, 축산학, 수산학, 농림수산환경생태학, 농림수산바이오시스템공학, 식품가공학 등이 있다.

식품가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가공학 분야는 인간생활 영위에 필요한 식품과 관련하여 에너지, 영양소, 기호성, 생리활성성분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생산, 가공, 발효, 저장, 유통 전반에 관한 품질과 위생관리의 이론과 기술을 다루며, 새로운 식품소재의 개발, 식품기능성의 체계적인 해석과 신제품 개발, 전통식품의 과학화 및 식품공정의 첨단기술 개발, 식품안전 신기술,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농·수·축산가공학, 발효식품학, 식품분석학, 식품영양학, 식품생화학, 식품위생학, 식품저장학, 건강기능식품학 등이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 정재은 

□ 대학입학을 위해 준비한 전형과 준비방법

저는 대입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술과 학생부종합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1) 논술 : 어떻게 준비하였나요?

논술은 각 학교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논술 기출문제와 수능유형에 나오는 29,30번 문제를 이용하여 대비했습니다. 각 학교별로 기출을 보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나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학교의 기출을 3개년정도 까지는 풀어보았습니다. 논술을 대비하여 문제를 풀 때는 수능처럼 시간을 촉박하게 하기 보다는 다양한 풀이를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오래 생각해보았습니다. 또 정리하며 풀이를 적어 내려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수능을 풀 때는 시간상 외워서 사용하는 공식들도 논술을 풀 때는 어떻게 그 공식이 나왔는지 명시했습니다. 또 허용범위에 등호나 부등호를 수능문제를 풀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논술에 명시하기 위해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논술을 준비할 때는 수학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깊이 생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학생부 종합 : 고등학교 재학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하였나요?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실험수업, 심화수업 등 다양한 것을 했지만,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과제연구이었습니다. 실험을 하는 방과 후 활동을 신청하여 실험설계, 실험 기구 조작 등의 능력을 배우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친구와 함께 주제 선정부터 논문작성까지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동안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선행연구에 주제가 중복되어 도중에 주제를 바꾸기도 하고, 실험결과가 잘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 진행한 결과,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녹여내어 자기소개서에 담았습니다.

□ 식품공학과가 궁금해요.

식품공학과는 영어로 Food Science&Technology입니다. 즉, 과학과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학문입니다. 식품의 특징, 식품의 변화원인, 가공 시 필요한 원리 등을 공부하는 과학, 이를 기반으로 식품 시스템에 적용하여 식품을 보전, 가공, packaging, 운반까지의 기술을 연구합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가공 및 저장 중 화학반응에 의한 질적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화학(chemistry)과 식품의 보전 및 새로운 식품 생산을 위한 미생물(microorganism)을 연구하는 미생물학 또 대량생산 및 가공 시 필요한 공학적 원리 연구를 위한 공학(engineering)을 중심으로 배우는 과입니다.

□ 식품공학과 vs. 식품영양학과

두 학과 모두 식품에 대해 연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두 학과의 연구 방향은 다릅니다. 식품공학과는 생물, 화학, 물리 등을 기초로 한 응용과학으로, 식품의 효율적인 생산 기술, 제품개발, 가공, 품질관리, 식품 위생, 발효공정, 생물공학적 기법 등 식품생산에 관련된 기술개발 및 제조장비 등에 관한 기계적 기술론에 대해 연구합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식품의 구성, 구조, 성질과 위생적인 식생활 관리 영양 문제 등 식품과 영양에 대한 전반을 배우는 곳입니다.

□ 졸업 후 진로

식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은 아주 큰 산업입니다. 졸업 후, 산업체에 들어가서 생산, 기획, 유통, 경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기관에 들어가 식품보건정책을 수립하거나 감시, 감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학교 우리학과에는 교직이수를 할 수 있어 교직이수 후 식품관련학과 소유 고등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1) 식품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으로, 식품제조가공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공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입니다.

2) 위생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것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고3때 물론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원할 전공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에 항상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의 공부에만 열중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연계, 인문계를 선택할 당시에도 영어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수학성적을 올리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자연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진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놓인 공부에만 충실한 저에게 지원할 학과를 선택하라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운처럼 진학한 학과가 잘 맞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자신의 적성과 잘 맞지 않는 학과에 진학하여 다른 길을 찾아보는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래를 정하려 하지 말고 틈틈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꼭 갖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하고 싶은 꿈을 자세히 그릴수록 그 꿈에 더 잘 다가갈 수 있다는 말도 하고 싶습니다.



생활과학

생활과학 영역은 인간이 생활하는 인접환경의 현상을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연구하는 자연과학 분야로 가정 및 사회에서의 의, 식, 주 부분을 연구하는 영역이다. 관련 분야로는 식품영양학, 조리과학, 의류·의상학, 주거학 등이 있다.

조리과학
의류·의상학

조리과학

조리과학 분야는 조리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최적의 조리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조리의 원리와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성과 예술성을 갖춘 조리기술로 식생활 수준의 향상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조리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조리원리와 과학, 실험조리,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제빵 등이 있다.

서원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 장휘재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외식서비스산업은 선진국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21세기 경제를 주도해 나갈 유망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V 및 각종 매스미디어에서도 외식이나 음식 조리에 관련된 기사가 연일 방영/보도 되고 있으며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 시대를 맞이하여 음식의 안전성, 영양, 기능성, 기호성 등을 고려한 먹거리를 선정하는 추세이므로 그 비전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 서원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를 소개해 주세요.

서원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는 2007년 외식산업학과로 설립되어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외식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성과 인격을 겸비한 창의적인 외식조리 관리자 및 디저트식음료경영 관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원대학교 호텔외식조리학과에서는 일식, 양식, 한식, 디저트, 제과제빵, 식용곤충 등 동아리 부분에서는 항상 독특하고 개성 있는 실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식 동아리에서는 300kg 대형 참치를 해체하는 실습을 하거나, 식용곤충 동아리에서는 식용 곤충을 이용한 우리 대학교만의 특색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제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한식의 날' 대회, '코리아 푸드 앤 테이بل' 대회, '코리아 트렌드 페어' 대회에서 서원대학교는 항상 우수한 수상 실력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리식품 성분의 기능성을



이해하고 조리법 개선과 식자재 활용도를 높이는 교육을 통해 국내는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홍콩, 뉴질랜드와 같은 글로벌 인재로서 전문 외식조리인 및 외식매니저 양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관리능력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 교육을 강화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견외식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대표 취업처로는 대기업 외식사업부, 외식프랜차이즈기업, 호텔, 식품제조회사, 커피기업, 제과·제빵 기업 등의 관리자와 조리외식 교육기관, 위생보건관련 공무원, 교직, 외식컨설팅 및 외식연구소 등 있으며 개인 소유의 레스토랑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취득가능한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나요?


중등교사 2급(조리)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주기능사, 제과/제빵 기능사, 제과기능장, 위생사, 푸드코디네이터, 커피바리스타, 와인소믈리에, 워터소믈리에, 식용곤충식 강사자격 등이 있습니다.

□ 졸업 후 진로

1. 외식산업체 : 프랜차이즈, 호텔, 케터링, 단체급식, 식품유통 등
2. 외식서비스업체 : 조리사, 소믈리에(와인감정사), 바리스타(커피전문가), 바텐더, 파티쉐, 매니저, 외식기업 경영 및 컨설팅, 프랜차이즈기업, 조리연구가, 푸드스타일리스트, 파티플래너, 연회기획자, 외식창업자 등
3. 교육기관 : 중등학교 조리교사, 대학교 교원, 요리학원강사 등
4. 정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원, 질병관리본부, 한국소비자원, 보건직 공무원, 위생직 공무원 등
5. 기타 : 식품관련 언론매체(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등

의류·의상학

의류·의상 분야는 인간생활의 환경적응과 조화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식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의류학을 발전시키고 의류산업과 패션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의류소재, 의복구성, 의류환경, 복식사,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등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장은성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입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입었던 중고 옷을 사고팔며 나중에는 저만의 구제샵을 만들어 팔기도 하였습니다. 꾸미는 것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지만 옷을 스타일링하고 직접 보러 다니는 재미가 가장 컸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학할 전공을 고민하면서 초반에는 방송계열을 생각했으나 저는 방송에서도 패션 분야를 전담하는 프로를 맡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 결국 어차피 어느 분야를 가던 패션과 접목시킬 것이라면, 제대로 본 전공을 살려 의류학과로 진학하면 어떨까 싶었고 미래에 옷 혹은 패션과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하든 삶의 낙이 없겠다는 확신과 함께 전공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준비한 과정이 궁금하네요.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수시 교과, 종합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결과에 대한 불확실함과 막막함과 함께 어떻게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해야할지 가장 힘들었어요.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가장 큰 건 마인드 컨트롤과 꾸준함인 것 같아요. 사실, 수험생활을 보내면서 주위에 친구들은 가끔씩 약속을 잡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꼭 참고 혼자 독서실에 가는 욕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 안 살아봤지만 여태껏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노력은 결과에 비례합니다. 정말 간절하다면, 일 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면, 꾸준히 스테디 플래너를 사용해 계획을 짜고 독하게 마음잡고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혼자만의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고, 모의고사 한 회차만 더 풀어보자 하는 행동으로 말이에요!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교실에 배치된 거의 모든 대학의 입시 전형 책자를 보고 우선적으로 준비했었고, 수시박람회를 다니면서 생각해두고 있는 대학의 입시책자를 가져와 집에서 분석했어요. 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교사만 열람 가능한 사이트에서 사용하시는 성적과 대학을 매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상담을 해주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면접/논술/적성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이 끝나면 바로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수능 직전의 시기였기 때문에 지장은 많이 안 가도록 짧고 굵게 3일을 오로지 면접에만 시간 투자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에서 나올만한 예상 질문을 모두 뽑아서 예상 답변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약 60개 정도의 질문이 나왔고, 달달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작성하며 상황에 따라 꼬리질문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두 준비했었죠. 많은 양을 외우는 건 절대 불가능할거라 생각해서, 저는 준비한 답변지를 읽고 또 읽었고, 토대로 3일 동안 오로지 모의 면접만 하면서 면접이라는 상황과 긴장감에 익숙해지려고 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내신공부는 열심히 수업 듣고 복습하면 되었지만, 정답이 없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적과 활동기록부를 보면서 어느 것이 장점이고, 자기소개서에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영광пен 밑줄을 쳐가며 진로 또는 진로와 관련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총 정리했습니다. 활동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를 알아본거죠. 이를 토대로 꼭 진로와 관련이 없는 활동들이더라도 하나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저만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 문항이 어떤 것을 묻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반장을 고등학교 3년 내내 했었는데 고등학교 재학 당시 활동 중 가장 잊을 수 없던 활동이에요. 리더십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다양하고 기억에 남는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결혼식 축가를 2번이나 해보기도 하고,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를 주관하면서 반끼리의 단합도 다질 수 있었죠. 지도자의 역할, 사람 간의 관계, 행사 기획 진행, 책임감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때도 저는 3년 내내 반장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면접의 영향이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장에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고 당당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성격상, 면접을 볼 때 밝고 열정적인 면모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모르는 질문을 면접관님께 받기도 했는데 솔직하게 잘 모르겠지만 후에 꼭 그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던 기억이 납니다.

□ **숙명여자대학교에서의 대학생활이 궁금해요.**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패션의 탄생 /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각각의 인물 중심의 전기를 만화 형식으로 풀어낸 서적입니다. 간편하고 가볍게 읽기 좋으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에 대한 그리고, 그 브랜드의 어떤 상품이 세계적 브랜드로 이끌었는지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희 학교에서는 동양복식 미학과 디자인, 패션마케팅, 의복구성, 섬유과학, 패션디자인 총 5분야로 크게 나누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는 세부적인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요. 동양복식은 우리가 하는 한복을 위주로 배우며 패션마케팅은 패션 산업을, 의복구성은 직접 의복을 제작하는, 섬유과학은 소재를, 패션디자인은 일러스트뿐만 아닌 도식화 등의 업무 및 제작을 위한 드로잉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 한복 파트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스타일 분야의 연구와 수업이 타 학교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서양복 뿐만 아닌 우리 전통 의상, 한복을 자세히 배워볼 수 있죠.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입시미술이나 미싱기를 이용한 의류 제작을 해 본 경험이 없어 입학 전, 실습 수업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아마 의류학과를 희망하는 많은 친구들도 현재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수업에서 배우고 있거든요. 학과 커리큘럼만 단계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드로잉과 제작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거랍니다. 저도 드로잉과 제작에 현재 많은 흥미가 있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여대는 기가 썰 것이다, 무서울 것이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모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말 큰 오해라고 이야기 해 주고 싶어요. 저는 여대이기에 너무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답니다. 정말 다양하고 많은 소중한 인생 친구들이 생겼고,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캠퍼스 생활이 가능해요. 학교 또는 사회의 각종 이슈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아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많은 숙명인들이 사회에 퍼져있답니다. 숙명을 바라보는 좋은 시선들까지! 전 우리 학교에 대해 너무 만족합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숙명전공알리미'라는 숙명여대 입학처 연계 동아리에서 회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 중고등학교에 방문해 숙명여대를 알리고 자신의 전공에 대해 설명해주는 전공 멘토 역할을 하고 있죠!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패션을 배우는 학과라 기가 썩고 개성이 많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개성 강한 친구들이 많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만하고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하게 살아오고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입고 놀 줄 아는 밝은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친구와 학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패션디자인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입시미술을 통해 실기 시험을 보고 입학하는 패션디자인학과와는 조금 다르게 내신과 수능, 종합전형 등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드로잉 말고도 패션 마케팅, 심리학 등의 더 폭 넓은 부분까지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죠. 학교마다 학과마다 모두 전형이 다 다르지만, 대부분이 이리하답니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 졸업한 선배들의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의류 업체 회사에 MD, 디자이너, 바이어 등으로 취직을 하거나 제작 분야에서 패턴사, 모델리스트 등이 되기도 하죠. 해외 무역으로도 많이 갑니다. 교직이수로 교수나 교사가 되는 분들도 있고 직접 창업을 하거나 패션에디터 등으로도 취업을 많이 하죠. 패션과 관련된 분야 어디든 진출이 가능해 다양한 방향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복수전공으로 미디어를 하고 있어요. 패션에디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등학생 때부터 꿈이었던 패션에디터가 되기 위해, 에디터로의 자질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해외 취재, 화보 기획, 잡지 구성, 기사 작성 등의 실무적인 업무들을 말이죠! 10년 뒤에는 이 전공안내서가 아닌 패션잡지에서 제 기사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네요:)

□ 꼭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될지 모를 앞으로의 미래에 무척이나 막막하죠? 아직도 전공을 정하지 못했어.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등 많은 고민이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노력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해내고 만다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세요! 자기소개서도, 면접도, 내신도, 수능도 끝까지 매달려서 끝장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과 열정 넘치게 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결과가 여러분을 반겨 줄 거랍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했어요. 언제 한 번쯤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겠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에서 우리 또 만나요:)



간 호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질병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으로 이론과 실무, 연구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간호관리학, 간호정보학 등이 있다.

간호학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강윤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린 시절 감기로 인한 고열로 입원이 잦았습니다. 입원할 때마다 부모님과 제 곁을 밤새 지켜주는 간호사 선생님이 고맙고 대단해보였어요. 어느 날은 아침 일찍부터, 어느 날은 밤을 새면서까지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위장병, 비염 등 여러 가지 질병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아졌고 앓고 있는 병이 발생하는 과정과 치료에 대해서도 자주 찾아보던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건강과 질병예방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입과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간호학과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학과를 선택하기 전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서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이나 간호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의사소통, 다문화를 위한 간호 등 인간 간의 대화와 소통을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건강과 질병예방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과 많이 만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흥미와 적성에 가장 가까운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간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내신 성적이 나빴기 때문에 정시로 진학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전형은 수능 성적만 100%로 보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학과를 정하고 대학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에는 선생님들과 상담, 진학사 사이트, 대학입학자료 책자, 대학에서 배포하는 자료, 관심이 있었던 대학의 홈페이지에 학과 소개 및 교육과정, 대입성적 등에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때는 교육봉사 동아리를 2년 간 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에 즐겁게 봉사했고 한 사람의 인생에 작게나마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는 이론에서 배울 수 없는 경험을 통한 지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을 정할 때 나의 흥미와 적성에 가까운 봉사활동을 찾아서 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간호학과는 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등을 통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심리학 등을 배우고 이런 학문을 기반으로 아동, 성인, 모성,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에 대해서 배웁니다. 간호학은 질병과 건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직관력, 분석능력 그리고 적극성이 요구되며 다양한 보건의료관계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원만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과 책임감이 필요한 학문입니다.

입학하기 전에는 사실 간호사의 역할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알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봐왔던 간호사 선생님의 모습은 약을 주고 환자를 돌보며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호학과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실습을 돌면서 경험한 결과, 간호사는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인간을 전인적으로 포착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건강상의 욕구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적절한 간호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아과 병동 실습을 돌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13개월짜리 아기에게 정맥수액 세트를 연결하기 위해 간호사 선생님 한 분과 저를 포함한 실습학생 두 명이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는 처음 처치를 돕는 것이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는데 간호사 선생님께서 우는 아기도 달래면서 당황하는 저까지 꼼꼼하게 가르쳐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맥 수액 세트를 연결하고 아기의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면서 부종이나 발적이 있는지 다른 특이점은 없는지 살펴보고는 항문의 발적 상태를 발견하시고 보고하셨습니다. 처치가 끝난 후에는 보호자에게 아기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검사와 처치가 이루어지고 입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자가 병원에 들어오면서부터 나갈 때까지 옆에서 전반적으로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 투약 전에는 약과 약의 용량과 환자이름을 몇 번씩 확인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보호자에게 아기 상태나 흉부물리요법과 같은 교육을 하실 때는 친절할 말투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는 것을 보고 정확한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까지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사실 너무나 많았습니다. 실습을 돌면서 다리가 통통 붓기도 하고 많은 양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밤을 새는 일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똑똑해지지 않으면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에 전문성을 지닐 수 없겠다는 생각과 나의 간호를 통해 한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뿌듯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동기를 부여하며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간호학을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것은 선배님들과 교수님의 격려입니다. 입학 전에는 간호학과를 떠올리면 무섭게 군기 잡는 것이 떠올라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입학

후에 개강총회, 동아리, 사제동행을 통해 교수님과 선배들을 만나 전공에 관한 어려움을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통로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선배들을 통해 비싼 전공서적도 많이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장점 중 하나는 자대병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대병원이 있어 선배들이 자대병원에 간호사로 많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갔을 때 더 잘 챙겨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실습을 하다보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바쁘셔서 학생들이 잘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시켜주고 알려주고 잔소리 해주시는 것이 감사할 때가 많은데 자대병원에서 실습을 하면 선배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 졸업 후 기대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간호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하면 간호사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로 간호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간호사면허가 부여되고 간호사로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간호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로서도 일할 수 있는데 자격기준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 전문대학 이상의 간호학과에서 재학 중 교직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직이수자는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 후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이 발급되고 국,공립학교에 임용되려면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전문간호사로서도 일할 수 있는데,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간호사는 보건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중환자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아동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로 총 13개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연구원, 보험심사간호사, 개업간호사, 교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할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간호학과의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간호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학을 결심하기 전에 자기의 적성과 맞는지 생각하고 상담도 하신 후에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취업이 잘된다는 이유로 진학했다가 적성에 맞지 않고 너무나 많은 공부량 때문에 휴학이나 자퇴를 결심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이겨내고 졸업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에 진학하신다면 모두 열심히 하셔서 미래에 병원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대학교 간호보건전공 박신혜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소에 배가 자주 아픈 친구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복통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크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함께 병원에 방문하며 친구의 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치료법등을 함께 알아보며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검색을 통해 크론병 뿐 아니라 다른 난치병이나 희귀병, 불치병을 알아보며 여러 질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간호보건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대입은 정보싸움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보에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여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네이버 지식인, 수만휘 카페, 대학교학교 안내 책자, 어디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입정보들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입전형들과 학과관련 정보 등 간호학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부터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소재를 고르기 위해 생활 기록부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은 동그라미표시, 전공과 관련활동은 네모로 표시하며 활동들을 분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EBS자기소개서 특강도 듣고, 담임 선생님과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잘 쓰지 못하더라도 일단 이야기를 써보자는 생각으로 초본을 완성하였고, 그 글을 바탕으로 10번 이상 수정한 결과 나의 이야기를 잘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고등학교 생활 중 동아리를 운영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시작하였던 '인문 팟캐스트' 동아리가 흥행하자 다음 년도에는 과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인원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자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졌던 전년과는 다르게 모두에게 관심을 쏟기 힘들었고, 그로 인해 빈번한 의견 충돌과 이탈자가 생겨났습니다. 단합과 대화가 부족했던 것이 문제라 생각하여 충분한 대화를 통해 친구들의 성향을 파악하였고, 성향별로 팀을 만들어 모둠별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생각을 도출해내고 반영하여 팀워크가 빛나는 동아리로 발전해 나갔습

니다. 자만과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조금씩 배려하고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완벽한 보건의료제도를 찾아서, 만약은 없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고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책, 생명의 료윤리에 관한 책, 모든 생명은 돕는다, 나는 괜찮아요, 병원장사, 우리가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

□ 우리학교의 장점은?

자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실습같은 경우 동아대학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대학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보건복지센터,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원, 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병원 취업률은 지금까지 90~100% 선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5년 2월 졸업생을 기준으로 부산 및 경남권에서는 동아대, 양산부산대, 고신대, 울산대병원에 취업하였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는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 연대 세브란스, 고대 안암, 이대 목동병원 등에 취업하였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간호와 보건의 꿈이면 도전해보세요! 어느 전공을 하든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꿈이라면 힘들더라도 도전해보세요. 뭐든지 자신이 직접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동아대학교 간호보건전공 박정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심각한 취업난이 걱정되어 취업률이 높은 진로를 생각하다 보니 간호학과에 흥미가 생겨 지원하게 되었음.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수시를 중점적으로 준비함. 동아대학교 간호학과는 교과성적우수자 전형 뿐이기 때문에 동아대학교



는 교과를 준비하고 다른 학교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모두 준비함.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교과로 지원해서 최저등급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수능 공부를 놓지 않아야 해서 압박감과 부담감이 커서 힘들었음. 간호학과는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고 최저등급을 맞추기 위해 수능 공부도 열심히 준비함.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해당 대학의 모집요강 책자나 대학 공식 홈페이지, 입시 설명회, 선생님들의 말씀

□ 면접/논술/적성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생활기록부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준비했음.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동아리나 진로 활동 때 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준비했음.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음(학과에 관련된 진로활동이나 과의 인재상에 맞춰서 썼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많은 조언이나 피드백을 받아서 끝없는 수정과정을 거쳐서 작성했음.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함. 간호학과를 희망했기 때문에 생명화학 실험동아리에서 과학적인 내용을 더불어 해부 실험같은 것을 했고, 봉사동아리를 2~3개 들어서 봉사활동을 최대한 많이 하고 봉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전반적으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1. 『장관이 된 간호사(김희중)』 : 간호사로서 자기 일에 열심히 한 저자의 인생 여정이 오롯이 담겨 있음.
2. 『메플 전산초 평전(메플재단편저, 늘봄)』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33년간 봉직하며 한국 간호학의 선진적인 체계와 학문적 발전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한 메플 전산초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책

3. 『사랑으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간호사(나이팅게일)』 : 병들고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한 영국의 간호사, ‘나이팅게일’의 삶을 조명한 책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간호학개론(간호학의 입문과목으로 건강과 질병의 개념, 간호의 대상, 간호의 개념 및 간호의 역할 등), 성인간호학(면역, 종양, 전해질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혈액, 내분비계, 상부 호흡기계 문제를 지닌 성인 대상자에 대한 간호과정), 여성건강 간호학(총체적인 존재인 여성의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역할, 인식, 경험을 포함한 기초적인 지식과 해부학적 및 생리학적 지식 학습/임신과 분만, 산욕과 관련된 대상자에 대한 간호과정 학습), 간호연구(간호와 관련된 현상을 파악, 분류하고 그 현상을 설명, 이해하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학습하고 타인의 연구논문을 논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연구 논문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막연하게 ‘간호사’라는 직업을 희망했는데 교직이수가 가능하다 보니 ‘보건교사’에도 흥미가 생김.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입학 전부터 간호학과 공부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가 힘든 부분은 감안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음. 적성이 잘 맞아서 만족스러움.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방학이다 보니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동아리에 ‘청년나이팅게일봉사회’에 가입하여 독거노인을 의료적 차원에서 돕는 활동을 하고 있음.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들은 동아대학교의료원 간호사, 울산과학대학교 교수, 경성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대연초등학교 보건 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음. 간호사(3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부터 1차 의료기관인 개인병원을 비롯하여 기업체에서 필요한 산업 간호사로도 진출 가능), 보건교사(교직 이수), 간호직 공무원(보건소 근무), 복지시설 및 NGO단체, WHO와 같은 국제기구 진출 가능함.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간호사 면허증, 보건교사 2급, 보건교육사(3급 시험 자격)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유민영



안녕하세요. 저는 동양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유민영입니다.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생 때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지만 항상 밝게 웃고 투석하시느라 움직이기 불편하신 할머니께 긍정적인 말씀도 해주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간호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간호학과에 가기 위해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독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2가지 선택하자면, 백의천사 동아리 활동과 민물고기 생태 탐구입니다. 백의천사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vital sign(체온, 맥박, 혈압, 호흡수)를 측정하는 방법, 식물인간과 뇌사의 차이, 축산위생연구소 실습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민물고기 생태 탐구는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으로 개설된 강좌였습니다. 40여 종류의 민물고기의 종류를 알아보고, 선생님께서 잡아 오신 배스 물고기로 해부 수업을 하였습니다, 배스의 해부를 통해서 안에 있는 장기들을 하나씩 만져보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수업이며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활동입니다.

간호학과 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며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고등학교 교과목은 생명과학과 화학입니다. 이 두 과목이 가장 기초가 되므로 생명과 화학을 배우지 않아서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배우지 않고 잘 하지 못해도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에 충실히 하면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꿈을 가진 모든 고등학생이 간호사의 꿈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고, 간호학과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임상에서 멋진 간호사가 되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홍예경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원에서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수술인 만큼 긴장을 많이 했는데 긴장을 한 저에게 농담이나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해주며 심적 안정감을 유지하게 도와준 간호사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겨 관련된 봉사활동을 찾아서 해보았고 저의 적성과도 맞다고 느껴서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입학을 준비할 때 성적도 성적이지만 높은 성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생활기록부를 준비할 때 남들과 다르게 눈에 띄고 특별한 부분들을 만드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를 준비하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며 의견들을 많이 공유했었고, 그 결과 자율동아리라는 것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학교에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건 동아리가 있었지만 모든 학년들이 섞여있으므로 난이도가 있는 심층적인 활동은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간호사와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토 해보고 하고 싶었던 캠페인들도 주도해 이끄는 등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보건소에서 손 세균 검사기계를 빌려서 손 씻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백혈병소아암아이들에게 헌혈증을 기부하기 위해 헌혈증 기부 캠페인을 주도하여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과 같은 교육들에 대한 의견들만을 적던 자율 칸이 나의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바뀌게 되었고,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저만의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수지 간호사의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은 뒤에 김수지 간호사를 존경하고 또한 호스피스간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학창시절에 한 번 읽어보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간호같이 전문 간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건 동아리를 통해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간호박물관, 의학박물관 같은 곳도 견학해보았는데 특히 체육대회 때 다치는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인상에 깊었습니다. 아팠던 아이들을 제가 치료함으로써 상처들이 치치가 되고 아이들이 안심하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에 마음이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체육대회 이후에도 아프거나 힘든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거나 도와달라고 의지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고 간호사에 대한 꿈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봉사는 꾸준히 하는 봉사과 경험을 쌓아보는 봉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입학에 좋은 것은 꾸준히 한 곳을 하는 봉사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곳에서 다양한 경험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봉사를 고등학교 3년 동안 다니면서 장애인복지시설, 외국인노동자축제 스타프 같은 활동이나 save the children 모자뜨기 봉사같이 여러 활동들을 해보았습니다. 봉사활동이 필수이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즐겁고 재밌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스펙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은 생명과학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지식들을 주로 배우는데, 기초가 되는 과목이 생명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약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울 때도 뉴런이나 신경계와 같은 생명과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입학 전에는 교과서만을 위주로 공부했다면 대학교 입학 후에는 교과서로 사용되는 각종 책뿐만 아니라 논문, 인터넷 자료와 같이 폭 넓은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 깊은 생각을 요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간호학과하면 공부만 할 것 같다는 오해를 많이 하시지만 공부뿐만 아니라 연기나 풍물놀이와 같은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각종 축제들, MT들을 하며 재밌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학과에는 남자가 없을 것이라고 오해가 많은데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보자면 2017년도에는 7명, 2018년도에는 10명으로 갈수록 남학생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졸업 후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졸업 후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임상 간호사이지만 임상 간호사뿐만 아니라 조산사, 보건 심사 간호사, 산업 간호사 등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는 간호사가 아닌 제약회사에서 일하거나 의료기기 회사의 CEO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학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진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자격은 4학년 때 보는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따야하며, 같이 따면 좋은 자격증으로는 CPR자격증이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대학교는 고등학교처럼 모든 과목을 다 같이 배우는 것이 아닌 각자의 전공에 맞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배웁니다. 흥미가 없는 전공으로 대학교에 입학한다면 적응을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전공을 찾아 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김주원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어릴 적 어머니는 자주 아프셨습니다. 자주 병원에 입원하셨던 어머니의 힘든 모습을 자주 보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곁에서 간병하고 보살피는 것이 환자의 건강회복과 심리적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자의 치료와 의료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진학 후에는 의료원과 남부장애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간호사들의 일상을 곁에서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의사를 도와 환자들의 신체적 치료를 위해 힘쓸 뿐 아니라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자의 병원환경을 관리하고, 환자와 대화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했으며, 심지어 환자의 가족들까지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픈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는 간호가가 되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사가 되면 병원에서의 소임과 더불어, 독거노인 댁에 방문해 그분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한 전형은 수시 종합전형입니다. 자기소개서는 2학년 때부터 학교 선생님과 글을 썼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1) 봉사활동

저는 충남남부장애인복지관과 결연을 맺은 할머니 댁에 방문하여 3년 동안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하여 말벗 해드리기, 집 청소 해드리기, 음식 손질하기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할머니와 함께 병원 들렀다가 시장을 간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몸 왼쪽에 마비가 오셔서 휠체어로 이동했고, 저 덕분에 오랜만에 바깥바람을 쐬고 물리치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할머니의 환하게 웃으시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공부 때문에 잘 찾아뵙지 못한 점이 떠오르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시작한 마음이 가장 컸으나 봉사활동을 하며 단순한 봉사활동만이 아닌 제 진심을 다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서도 자주 찾아뵈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좋을 것 같아 후배들에게도 추천해주었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 진정한 봉사란 나의 진심을 다할 때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동아리활동

저는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인 탐구력과 분석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 체험 중점 생명과학동아리 '탐탐이'에 들어갔습니다. 2학년 때 단장을 맡아 토끼, 쥐, 개구리 해부, 동전 도금, 식물세포 DNA 추출 실험 등 다양한 실험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병아리 부화



실험이었습니다. 생명의 탄생 과정을 직접 관찰해 보고 싶어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달걀을 선택하였고, 전란의 문제로 인해 부화기를 사서 21일 동안 관찰하였습니다. 4일에 한 번씩 달걀 속을 불빛에 비춰 핏줄의 모습과 꿈틀거리며 자라나는 병아리를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탄생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사명감인 관찰력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생물&화학 동아리'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여 실험 관찰, 생활 속 화학 등의 보고서와 실험 과정을 하는 사진 등을 올려 원리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학습내용을 심화하였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학교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 한 곳이 아닙니다. 1학년 때는 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간호학과는 학점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학점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사, 간호사라서 다행이야, 졸업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학교가 다가 아니니 다른사람 페이스에 휘말리지 말고 본인의 페이스를 지키기 바랍니다.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김은솔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수시전형이 계속 바뀌면서 입학전형이 다양화되고 일정하지 않지만 수시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고등학교 때 생활 및 성적을 잘 보는 것!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는 그런 전형으로도 오는 경우도 있고 또한 봉사를 봉사시간만 채우는 용도가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 어떤 봉사를 얼마나 하였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봉사한다고 성적관리를 게을리 했다면 그건 유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죠? 추가하자면 면접전형에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미래 간호사로서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인상과 말투 그리고 어조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호계열 전공은 주로 인문계 및 자연계과정의 학생이 둘 다 지원할 수 있는 과로 많은 자연계열, 인문계열 학생이 지원하는데 이에 대해 인문계라서 과학을 잘 몰라 걱정이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호학과가 생물을 주로 다루고 이에 대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은 맞고 또 이공계열 학생이 적응을 더 잘할 수 있지만 학년 초에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며 배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초부터 배울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간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간호학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은 다 같습니다. 전공 이수 과정이 보편적으로는 해부학, 간호학개론 등 기초전공을 입학해서 많이 다루고 병의 기본적인 균, 바이러스 등 미생물에 대해서도 배우며 기초지식을 쌓은 다음 그런 신체 구조에 대한 생리, 병리, 그리고 그런 병리적 문제에 쓰이는 약물에 종류를 배우는 약리를 배웁니다. 이렇게 하나의 틀로 자리를 잡게 되면 대상자를 초점으로 모성, 아동, 성인 등으로 나뉘고 또한 보건분야에서도 정신간호, 지역사회간호 등으로도 나뉘어 배우게 됩니다. 계속 배운 부분을 배우고 또 배우는 만큼 처음 배울 때 기본 지식을 계속 알고 있으면 뒤쪽 내용은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

기본 학과 커리큘럼이 위와 같이 흘러가고 간호학과가 학업적으로도 바빠서 대외활동을 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공부만하고 아무것도 준비안하면 나중에 취업할 때 차별성이 없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1학기 전에는 기본적인 보건 관련 자격증에 어학점수랑 봉사활동, 등의 대외활동을 체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여기서 제 2외국어도 준비하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 졸업 후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간호학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간호사는 모든 보건의료시스템의 최전방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전문 인력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핵심 전문 인력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먼저 면허를 취득한 간호사 대부분이 대학병원, 일반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현장에 서 시작합니다. 간호기술을 배우고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간호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교원임용고시에 합격하면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간호장교로 국군병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사업장의 건강관리실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그 외에도 산후조리원, 요양원, 복지관 등에서 활동 가능하며 의료기기업체, 의료정보회사 등에 폭넓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화 되는 만큼 해외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영어 및 그 외의 언어의 능력을 갖추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인 전문간호사도 있는데, 이는 자격시험이 주어지며 분야별로는 가정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 보건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임상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마취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중환자전문간호사, 아동전문간호사, 보건전문간호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간호학을 배우면서 간호인으로써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미리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간호학과 지원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간호사는 환자, 대상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간호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제가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 사람들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고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이며 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었기에 그것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간호학과를 취업만을 목표로 선택하는 학생을 많이 봤는데, 취업이 잘되지만 그만큼 그 직업에 대해 사명감이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를 준비하는 학우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며 준비하는데 있어서 궁금한 것이나 상담하고 싶은 것을 전공멘토에게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박지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1년간 지하철을 타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도 적고 평화로운 출근길이었습니다. 그 때 엿! 하는 소리와 함께 중년남성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몇몇 분들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신고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아저씨가 남기고간 피를 닦는 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간호학과 학도였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간호학은 일상생활에 유용한 학문입니다. 건강은 평생 사람과 뗄 수 없는 주제이므로 이처럼 급박한 상황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사편입전형이었기 때문에 전적대학 성적60%, 면접40% 이었습니다. 이미 성적은 정해진 점수였기 때문에 면접에 공들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예상 질문을 모아서 답변을 만들고 달달 외운 것이 티가 나지 않도록 거울을 보면서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학사편입과 일반편입은 전형이 같고, 요즘 수시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면접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뻔한 이야기 말고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면접관님의 기억 속에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생각 될 때는 친한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면접 진행시 면접관 즉, 교수님과 눈을 맞추려 노력했고 웃으며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면접 진행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름표 하나하나 직접 준비하고 간단한 다과도 있어서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학교근처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편하게 학교까지 갈 수 있었고요. 가톨릭대학교답게 따뜻한 이미지가 뽐어져 나오는 학교였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간호학과는 우선 우리 인체에 대해 배우고, 그 기반은 생물학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간호학과 외의 보건의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생명과 과학 1,2까지 공부하기를 추천합니다. 1학년 때는 생물학, 2학년 때는 해부생리학을 수강하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간호학과는 이론 뿐 아니라 실습을 하며 같이 배웁니다. 1,2학년 때는 기초전공과 교양이 주를 이룬다면 3,4학년에는 좀 더 심화된 전공내용을 배우고 실습을 함께 합니다. 고학년이 되면 전공 외에는 수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학년에 모두 마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호학과는 1,2학년 때 조금 널널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된 과목과 실습으로 인해 조금은 바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6주인 한 학기를 10주는 이론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6주는 병원으로 실습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조별과제, 퀴즈도 물론 진행 되고요. 하지만 간호학과만이 바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에 비해 힘들다고 소문이 났지만 공대 및 다른 보건의계열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바쁘고 여유로움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정원이 적은 편이라 모두 얼굴을 알고 인사하며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물론이지만 교수님들도 출석을 확인하실 때 눈을 마주치시고 학생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신 편입니다. 뭔가 식구 같은 느낌이랄까요?

□ 졸업 후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간호학과라 함은 '국가고시'를 빼놓고 말씀드릴 수 없네요. 졸업하는 해 1월에 모든 졸업생들은 국가고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 면허를 따고 학생신분에서 벗어나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자기가 지원해서 붙은 병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임상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 보건직 공무원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경력이 기반이 되어 뺏어나갈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처음에 병원에 취업해서 적어도 3년 이상은 임상 경력을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상에 남아서 전문 간호사 및 수간호사가 될 수도 있고, 임상경력을 필수로 하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산업 간호사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침의 뜻이 있는 친구들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의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요즘 추세는 교수가 되지 않아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 박사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겠죠? 국가고시 외에도 'BLS'라는 기본소생술 자격증도 필수로 따고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 뿐 아니라 관심이 가는 학과가 생긴다면 커뮤니티를 찾아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정보를 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찾는 것이 오래도록 머리에, 가슴에 남습니다. 대학 입학은 시작일 뿐 인생의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자신이 그리는 미래에 한 발짝 가까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전하라



□ 학과, 전공 선택 이유

간호학과를 전공함으로써 미래에 더 많고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간호사는 병원에만 국한되는 직업이 아닌 산업체, 공공기관, 학교, 교육자 등 여러 가지의 영역까지 뿌리 뻗어있어 굉장히 매력적인 전문직이라고 보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 대입 준비방법

나는 학교를 알아볼 때, 전국에 있는 모든 간호대학을 다 검색하면서 모집요강들을 비교해보았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지만, 그만큼 정확한 방법이 없다. 목표하는 바가 있고, 이루고자 한다면 그런 노력은 기꺼이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른 누군가 나를 대신해 알아봐준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놓칠 수 있고 나에게 강점이 되는 포인트가 있는 학교들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역적인 면도 중요하다. 집에서 통학을 할 것인지, 기숙사에서 지내더라도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지 말이다. 그 후에는 면접과 성적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면접에 강하다면 면접비중이 높은 학교를 또 다시 표시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학교를 하나씩 가려내었다.

면접을 준비할 때에는 다양한 기출면접 문제들에 답변을 작성하여 보면서 외우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연습하려고 했다. 전년도 면접질문들을 준비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 비슷한 질문 유형을 다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질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였는지, 얼마나 진실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먼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는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역사가 짧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새롭게 쓰여 가는 역사 속에 발자취를 남길 수 있어 더 좋았다. 정원이 많은 편도 아니어서 교수님들 또한 모든 학생들 한명, 한명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며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주신다. 인천가톨릭대학교는 인천가톨릭교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인천교구 소속병원(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으로 실습을 주로 가며, 인천성모병원에 올해 대략 60%의 졸업생이 취업하면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간호학과 건물은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시뮬레이션 실습실과 기본간호 실습실 등 실습실들 모두 최신식 장비와 실습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다.

간호학과 전공과목들과 공부들은 매우 다양하고 어려워서 일단 4년 내내 고3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다. 1학년 때는 간호의 기초지식이 되어줄 기초과학과목(생물학, 해부학 등)들과 그 밖의 기초지식들(의사소통, 생명윤리, 심리학 등)과 교양을 배운다. 2학년 때는 기초간호전공(기본간호학, 간호과정, 약리학, 병리학 등)을 배우면서 심화된 과학과목(미생물, 생리학 등)들을 배우게 되고 기본간호학실습과 간호사정실습을 교내에서 진행하게 된다. 3학년과 4학년 때는 심화된 간호전공(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모성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등)들과 병원과 임상기관으로 나가서 임상실습과목들을 배운다.

실제 간호학과의 생활은 기대이상이라고 보면 된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고 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나도 매일매일 과제와 공부와 실습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다. 그렇지만 하루도 간호학과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었다. 힘든 것보다 하루가 지날수록 목표에 더 가까워지고 있고, 힘든 만큼 큰 배움과 보람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졸업 후 대부분 병원으로 먼저 취업하게 된다. 다른 분야로 나가기 위해서도 병원에서의 임상경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병원취업이 우선이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간호직공무원의 경우 경력과 상관 없이 시험에 합격한다면 바로 공무원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경력을 쌓으면 건강보험관리공단 같은 공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산업체의 건강관리실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그 외에도 대학교수, 연구원, 보험심사관리, 의료정보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취업 전 필요한 자격들은 토익성적과 BLS, 컴퓨터활용능력 등이 있지만 필수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자격은 어디까지나 '간호사 면허'의 유무이다.

□ 꼭 하고 싶은 말

취업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사명감이 있어서 간호학과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또한 가고 싶은 특정 대학들이 있다면, 열심히 알아보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에 맞는 성적과 그 외의 자격들을 잘 갖추며 준비하기를 바란다. 힘들게 잘 준비해서 합격해 간호학과에 들어오더라도 어쩌면 기대했던 대학생활



과 다른 생활에 실망감이 자주 찾아오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다른 길을 찾고 싶어지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절실하게 간호사가 되고자 간호학과에 진학한 것이라면 1등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멈추지만 말고 열심히 걸어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다. 큰 사명감 없이 취업을 위해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것이라도 좋다. 어쨌든 간호학과에 들어온 이상 최종 목표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 미래에 간호사로써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간호사로써의 다양한 삶을 살게 될 내 모습을 기대해보고 그려보고 또한 계획하면서 거기에 맞게 또 현재의 나를 계획하고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케이씨대학교 간호학과 김민영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로를 선택할 때 많은 고민을 해서 진로상담 선생님과 상담도 해보고 담임 선생님께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상과 현실이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약사를 지원하기에는 성적이 많이 부족하였고 평소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간호사를 추천받아 간호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 대입 준비 방법을 상세히 소개해 주세요.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저는 수시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수시로 대입을 결심하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진로를 나중에 선택해서 해왔던 활동들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그 부분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은 방과 후 학교에서 하는 면접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 아이들 앞에서 실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훈련을 하였습니다. 실제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 보다 부드러웠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자기소개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첨삭을 받고 그 뒤 따로 대학교 합격생 중 첨삭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께 부탁하여 완성하였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봉사는 3년 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HHH동아리에 참여하여 정신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책 읽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도서부원으로 활동하고 '수북수북'이라는 독서토론 동아리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으려면 학교에 국한된 활동이 아닌 교외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방학 중에 진로와 관련된 곳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대학에 합격한 이유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진 친구들과 경쟁을 하면서 면접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예상 질문과 목소리와 표정을 연습하였고 실제 면접에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도 최대한 자신감을 갖고 대답하였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간호학은 봉사 정신을 기반으로 돌봄을 제공해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1학년 때는 일단 인체의 구조와 인간의 심리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고, 2학년인 현재는 인간성장 및 학교에서의 실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졸업 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 저희 학과 선배님들 중 졸업생은 없지만 현재 병원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뿐만이 아닌 후배들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심리학입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인 요소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되는데 환자에게 다가갈 때나 일반적인 대화중에서도 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면 더욱 질 좋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간호사가 되려면 먼저 간호국가고시에 합격해야합니다. 병원코디네이터1급/병원서비스매니저1급/컴퓨터 자격증/언어 자격증 등을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아직까진 토익시험이 가장 중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건교사를 하고 싶다면 교직이수를 할 수 있는 대학을 가고 또는 외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싶다면 관련 자격을 찾아서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목표 없는 입시는 공허하다.” 저의 진로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를 만약 확고하게 정했다면 입시 전형도 생각해서 내신으로 갈 생각이라면 생활기록부 및 면접을 자신의 학과와 맞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KC대학교 간호학과 김예희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친언니를 보고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아 직업체험을 하는 등 경험을 많이 해보았지만 직업으로 삼고 싶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와 다르게 어릴 때부터 간호사를 하고 싶어했던 언니를 보며 자연스럽게 간호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원서를 넣을 때쯤엔 확실하게 마음을 굳혀 수시 6개를 전부 간호학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중 2군데가 붙었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KC대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의 입학처를 한 곳 한 곳 들어가 어떤 전형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수시전형으로 1차로 서류, 2차로는 면접을 보고 합격하였습니다. 서류의 비중이 크긴 했지만 면접 때 간호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며 간호학과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는 것이 잘 전해진 것 같아 합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에는 과학에서 생물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에 입학하고 1학년 1학기 때 해부학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 구조를 배우는 과목인데 그 때 ‘해부하다 생긴 일’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해부학을 재미있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간호학과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며 힘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저 또한 입학하기 전에 힘들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긴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다보니 간호학과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고 싶고 성적을 잘 받고 싶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간호학과 뿐 아니라 다른 학과도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잘 받고 싶으면 열심히 합니다. 간호학과라고 해서 공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 도서관에만 있지는 않으니 지레 겁먹고 ‘나는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생소한 용어들도 많지만 모두 다 같이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간호학을 공부하며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며 힘든 점도 있었지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친구들 및 주변 사람들에 관해서도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요즘 국제간호의 이해라는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프게 되면 아프고 싶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을 배우며 세계 보건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는 국제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세계 보건과 관련된 분야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보 건

보건 영역은 보건의료기관 내·외에서 인간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영역과, 국민의 질병치료와 건강유지 및 증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조직, 사업, 소비자, 기록, 정보 등에 대한 관리의 이론 및 기법을 연구하는 영역과 건강 문제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장애자의 재활능력 보존 및 신체기능의 활용에 대한 지식과 방법을 연구하는 영역으로 구성된다. 관련분야로는 보건학, 재활치료, 임상보건, 보건관리, 피부미용 등이 있다.

보건학
재활치료
보건관리학

보건학

보건학 분야는 인류의 수명연장과 건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보건통계, 노인보건, 정신보건, 보건교육, 병원관리, 환경 위생, 식품위생 및 산업위생 등이 있다.

극동대학교 방사선학과 양한빈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학년 2학기 초반, 진로 및 취업설계 과목시간에 담당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비디오에서 ‘우리가 모르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업들’이라는 편을 보다가 우연히도 방사선사라는 직업군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얀 가운을 입고 일하는 상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이고 당시 성적 또한 의사 보다는 방사선사가 거리가 가까웠고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도 적극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제가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지 아니면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지, 만약에 대학을 가게 된다면 어떠한 전공을 택하고 싶은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사선학과를 준비하다보니 학과에서 주로 다루는 과학계열 과목에도 자신이 없었던 상태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수시면접 준비를 하려하니 생소한 단어들에 어려움이 있었고 면접 준비 또한 힘들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네이버카페 수만휘(수능날 만점 시험지를 휘날리자)와 지식IN 등 포털사이트에 방사선학과에 대해 검색하여 과거 선배들의 면접 후기, 예상 질문지 등을 나름대로 수집하여 대비를 하였고 과학과목은 당시 같은 반에서 그 과목에 자신 있던 친구들과 담당과목 선생님들을 찾아가 차근차근 배워가며 준비하였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처럼 딱딱하거나 근엄, 진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저였는지 정말로 많이 떨었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장에서 불안해하는 저를 보신 면접관님들께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처음에 여러 가지 잡담을 주고받다가 제가 긴장이 좀 풀렸을 때 시작하셨고 유쾌하셨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신경써주시려는 모습이 눈에 보여서 안정적이었고 준비한 만큼 면접을 잘 치루고 나온 것 같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성적이 높은 편이 아니었고, 수시면접 준비기간도 길어봤자 한 달로 짧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대비를 꼼꼼히 해놓았던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고 준비했던 질문이 나왔으며 후에 교수님들께 여쭙보니 면접 당시 제 태도가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보고 대답을 하였고 급해 보이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였고 진심을 담은 답변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방사선사라는 직업은 주로 병원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방사선 의료기기 조작이 주 업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일반 진단영역에서부터 암 치료, 핵의학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과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들입니다. 따라서 생물과 물리 과목에 관심이 있거나 자신이 있다면 적극 추천하고 고등학교 땀 교과서 위주로 기초만 쌓아놔도 입학 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인체해부학부터 시작해서 일반X-선 검사, 투시조영검사, 초음파, 골밀도, CT, MRI 등이 의료영상 의학 분야의 교육과정이고 동위원소치료나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분야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과목들을 4년에 걸쳐 세부적으로 교육하며 방사선학과 졸업예정자는 방사선사 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이 주어지고 이 면허가 있어야 방사선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기에 첫 번째 목표는 국가고시 합격입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이론으로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구비된 영상장비들로 실습과 병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흥미가 붙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운이 좋게도 좋은 동기들과 선배들을 만나 소극적이던 성격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스스로 제 발전가능성을 찾아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들 앞에 나서길 무서워

하고 두려워했던 저였지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욕심과 열정 덕분에 지금은 학과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먼저 방사선학과에서 공부한다고 주위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병원에서 일하겠다고 듣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을 떠올리면 주로 원자폭탄,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들 방사선에 의한 피폭으로 미래의 저와 제 후세대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시지만 그런 일은 정말 드물고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미지와 정반대로 현재 방사선사의 전망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암 치료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핵의학 등 인류의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들은 방사선사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다보니 만족감 또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가장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 및 과거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방사선과 관련된 최악의 사건들은 정말 발생할 확률이 극히 드물며, 방사선작업종사자는 항상 기습팩에 선량계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면서 수시로 피폭선량 수치를 검사하고 국가에서 관리해주기에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후세대에 끼칠 영향이 정말 적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국내에서는 주로 병원에 취업하며 해외로 나가는 선배들은 주로 초음파를 다루서 국제 자격증을 취득하여 근무하는 편입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암 치료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꾸준히 1위를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치료를 하여 환자들이 건강해지고 회복된다는 상상을 하니 정말 뿌듯할 것 같고 엄청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방사선학과 졸업예정자는 방사선사 면허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를 합격하여 면허증을 취득해야 방사선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처음에는 방사선사의 겉모습에 이끌려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온 셈인데, 전공에 대해 배워 공부하다보니 겉모습만 멋있을 뿐 아니라 하는 업무 또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방사선사 면허가 없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전문적인 일들이기에 제 미래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기회도 정말 많아 취업률 또한 상당히 높은 직업군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군을 떠올리면 의사, 간호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방사선사를 제외하고도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등등 수많은 직업군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병원에서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원한다면 의사, 간호사 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고 저처럼 꿈을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 박범준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방사선학과를 선택하게 된 것은 방사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과학은 세상에 나온 지 100년이 조금 넘는 학문입니다. 그 100년 동안 다른 학문들은 쉽게 이룩하지 못하였던 눈부신 발전을 하였으나, 짧은 역사 때문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개척된 영역에 뛰어들어서 방사선 과학의 역사에 한 흐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 의학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기에 저의 두 가지 관심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방사선학과를 선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저는 정시를 준비하였고, 제가 방사선학과에 진학을 결심하였을 때 저의 성적에 비해 현재의 학과가 많이 하향지원이었기에 따로 많은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디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하면, 대입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 여쭙보아도 매 년 다양하게 개편되고 대학교 마다 방향성 또한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모두 수용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대입 정보 수집은 본인의 몫이라 할 수 있는데, 막상 인터넷을 켜 보아도 어디부터 들어가서 봐야 할 지, 희망 대학교 사이트에 가더라도 무엇부터 해야 할 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오는 각 대학교의 홍보단과 입학사정관 선생님들과 최대한 접촉하려 했습니다.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입시설명회와 대학교의 방문에 항상

참여하여 공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고 그 후에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교 포털에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여 단기간에 많은 입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 부산가톨릭대학교 방사선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방사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식 없이 막연하게 두려워 피하기만 한다면 방사선의 피해를 안 받을 순 있겠지만, 방사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이득을 모두 차단하는 것이 됩니다. 방사선은 현대 의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치에 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이런 부분을 타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사선학과에 진학할 경우, 방사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배우고 주변 사람들의 방사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역량 또한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방사선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배가하고, 그 불안을 없애므로써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비단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역량만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성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학과 진학을 위해 또는 그저 방사선에 대해 궁금하신 모든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뢴트겐의 생애와 x선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뢰트겐 선생님은 1895년 방사선을 발견하신 분으로, 방사선학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께서 학문적 뿐만 아니라 봉사적이고 인류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책이며, x선에 대해 간단히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전공의 선택과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지구에는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물질을 대개 방사선 동위원소라고 하며, 누구나 다 생각하듯 인체에 해를 주는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은 국가적인 단위의 규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이하 RI)를 다루는 자격증을 우리 학과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방사선사로서 취업을 위해 필요한 방사선사 면허도 있으며, 비파괴 산업 기사와 관련된 자격증의 취득 또한 희망자에 한해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과 면허는 재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취업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격증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방사선학과를 졸업할 경우 진출하게 되는 진로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 듯, 병원의 영상의학과와 핵의학과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큰 역할을 하는 방사선사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환자들을 대하는 만큼 쾌적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고수하고 있으며, 좋은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과 사회적 지위 획득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방사선



학과는 방사선을 다루는 만큼,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고리원자력 본부와 같은 방사선을 이용한 발전의 분야에도 진출합니다. 더하여 많은 산업체와 의료기기회사 등 알아보는 만큼 더 많은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방사선학과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문정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심장이 뛰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며 119구급대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되고 구급대원이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고자 응급구조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1)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교수님들께 진심이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했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발음연습을 했습니다.

2)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면접 준비를 하고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과 그룹을 이루어 서로가 면접관이 되어주며 면접 예행연습도 하였습니다.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합격인 것 같습니다.

3)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학교 홈페이지나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 찾았습니다.

4) 면접/논술/적성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질문은 학교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검색하여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쓰고 말하며 연습했습니다. 실제 면접장 분위기는 예상했던 것 보다는 화기애애해서 조금은 편하게 준비했던 내용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5)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학생회활동을 하며 학교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였고, 교내 안전관리 등을 맡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봉사활동도 중학생 때부터 다니던 복지관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부터 소방관 응원 캠페인까지 여러 가지 주제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소방관 응원캠페인을 한 후 119구급대원의 꿈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나사렛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1)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은? 생명과학

2)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심폐소생술과 의학용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3)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저희 과에는 남자가 많다고 다들 오해를 하는데 진실은 여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1)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한 선배들은 주로 병원 응급실이나 소방서에서 응급구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응급구조사 자격증과 소방공무원 시험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본인의 성적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학과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와 적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렛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김민정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중학생 때 부터 보건계열에 가고 싶어서 관련 학과를 검색하는 중 응급구조학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학과에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서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멋있게 느껴지고 와 닿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1)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수시 교과 일반전형을 지원했습니다.

2)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시험점수를 올리는 것과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3) 면접/논술/적성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먼저 면접 예상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적고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과 물어보면서 연습하였는데, 연습한 탓인지 실제 분위기는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4)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춤추는 것을 좋아해서 댄스동아리에 들어갔었고 그 이후 CCM이라는 기독교 찬송가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동아리들을 통해서 학교 축제와 같은 학교 행사, 교외 행사에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나사렛대학교 응급구조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1)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는 추천도서는? 어느 소방관의 기도 - 오영환

2)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의학에 필요한 의학용어도 배웁니다.

3)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입학 전에는 대학진학을 위해 공부했지만, 지금은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공부합니다.

4)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소방학과와 응급구조학과는 모두 졸업 후 소방서로 취업이 되지만 화재와 관련된 공부를 하는 소방학과와는 달리 응급구조학과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구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1)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119구급대원이 된 선배도 있고,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선배도 있습니다. 그 외에 경찰공무원에 합격하신 선배도 있습니다.

2)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심폐소생술 자격증인 bls자격증과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국가고시 등이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관심 있는 학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과 잘 맞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치료

재활치료 분야는 신체 및 정신적 장애자의 재활능력 보존 및 신체기능의 최대 활용에 관한 의학적인 제반지식 및 과학적 치료기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장애자들이 일상생활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운동학, 운동치료학, 재활의학, 발달장애학, 의지보조기학, 운동처방학, 운동손상학, 언어재활, 시각과 청각재활, 인지와 심리재활, 재활관리 및 재활상담 등이 있다.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최가람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간호학과를 원했는데 성적과 다른 이유로 인해 다른 학과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시 박람회에서 작업치료학과에 대해 알게 되었고 평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활동들이 작업치료사가 하는 활동들과 비슷해 작업치료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면접과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가고 싶은 학과를 제일 먼저 정한 후 그 학과가 있는 학교를 모두 찾았습니다. 그 후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재작년, 작년 등 지난 입학생 성적을 보고 제 성적에 맞는 학교들을 찾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해당 학교, 학과마다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지향하는 방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면접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면접을 보게 된다면 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교수님들의 눈을 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생명과학 I,II가 가장 유용합니다. 추천도서는 해부학입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재활치료학과가 가장 비슷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리치료는 물리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고 작업치료는 심리, 재활도 포함되며 섬세하고 사소한 것을 주로 많이 치료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주로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산재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보건소, 아동센터, 보건공단, 대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대학교 4학년 때 국가고시 시험을 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업은 몇 개 없어서 자격증을 받으면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작업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문지수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전공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즐거울까? 행복할까? 적성에 맞을까? 그러다보니 친구들이 원하고 준비하는 학과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제 주변 대다수의 친구들이 간호사, 물리치료, 임상병리사처럼 병원에서 일하는 보건계열 전공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안정적이면서 전문성이 있는 직업을 가지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보건계열 학과를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작업치료학과를 알게 되었고요. 작업치료학과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말을 읽고 나서인데요. 바로 사람들은 흔히 물리치료는 사람을 견게 하고 작업치료는 사람을 춤추게 한다. 보통의 보건계열 학과들은 사람의 기능을 좋게 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하지만 작업치료는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것에서 나아가 환자분들이 스스로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바로 이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순히 운동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원예 공예,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종이 공예, 요리 공예 등에 활동을 활용하여 예전과 같은 기능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을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이 제게 큰 매력으로 다가와서 '작업치료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전주대 작업치료학과만의 장점은 열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2010년에 개설되어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학교 못지않은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동아리입니다. 아마 다른 학교 친구들도 보면서 뭐야, 우리 학교도 과 동아리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과 동아리가 조금 특별한 이유는 ‘작업치료사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다, 그리고 다양한 작업을 통해 그들을 치료해야한다.’라는 모토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빵사가 손을 다치면 제빵이라는 활동을 하기 어려워 일상생활을 되찾기 위해 작업치료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치료사는 제빵사가 원하는 작업인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만드는 방법, 쿠키를 굽는 방법을 훈련시키게 되는데요, 만약 작업치료사가 제빵에 대해 모르게 된다면 과연 치료사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마 치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치료사는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하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동아리들이 많은데요. 원예 동아리, 샌드 아트 동아리, 신문 동아리, 영어 동아리, 바리스타 동아리 등 다른 학교, 학과 동아리에 비해 보다 전문적이면서 다양한 특색을 가진 동아리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사라제입니다. 호남 최초로 전주대, 동신대, 원광대, 조선대 총 4개의 학교에서 함께 매년 학술제를 열고 있는데요, 전주대 학생들끼리만 하면 정보 교류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지만 다양한 학교와 학술제를 개최하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미래의 동료들과 함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도 그랬듯이 대학에 입학해서 전공을 처음 접할 시기에 ‘정말 배우고 싶어 했던 학문이 맞을까? 하고 싶어 했던 활동들이 맞을까?’하며 학교 다니는 내내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의계열은 대부분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므로 다른 학과 친구들이 쉽게 만드는 공강을 4년 동안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수업이 끝나면 학과 동아리 활동, 또는 봉사활동, 그리고 수많은 과제들로 수많은 밤을 지새울 것인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쉬고 싶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방황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저널리스트 위니프레드 홀트비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가장 원하는 일들이 가장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일 것이다.’라고요. 저는 작업치료가 바로 인간이 가장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신체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건, 아마 의사, 물리치료사 모두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신체 기능을 좋아지게 하면서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바로 작업치료사. 한 명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미래의 작업치료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관리학

보건관리 분야는 국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조직, 사업, 소비자, 기록, 정보 등에 대한 관리의 이론 및 기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해부·생리, 병리, 공중보건, 보건의료제도, 병원행정, 병원경영, 병원조직, 병원마케팅, 원무관리, 건강보험, 의학용어, 보건의료관계법규, 의무기록, 의료정보관리, 의료관광 등이 있다.

경동대학교 메디컬캠퍼스 보건관리학과 김민우, 박지영, 권선주, 김현지, 김혜림, 신지수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동대학교 보건관리학과와의 취업률이 높았고 학교에서 메리트로 내세우는 점이 취업사관학교로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무기록사의 직업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이 큰 지원동기입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내신 성적 관리와 수능공부가 힘들었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첫 번째는 의무기록사로 대학병원에 취업을 했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힘든 과정을 극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에 대한 로망으로 힘든 과정을 극복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의 격려로 힘든 과정을 극복했습니다.

□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자신의 꿈을 향해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한 점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된 점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받는 학우들과 선배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고등학교의 생물1,2와 생활과 윤리, 세계사, 해부도감(제일중요)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경동대학교와 경동대학교 보건관리학과에서는 인성과 소통 화합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취업을 위한 국가 면허증&자격증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입학 전에는 부족했던 전공학과의 지식과 정보를 전문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 공부하는 자세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교수님들의 열정으로 수업의 질이 높았고 학생들을 위한 해외 프로그램이나 진로의 대한 상담 또한 많은 기회가 있어서 만족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건물이 아름다웠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학과에서 진행하는 의료봉사 동아리와 전공수업 스터디 활동을 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종합병원, 대학병원, 보험회사 의료정보팀, 보험공단, 연구소로 취업을 하여 보건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보건관련 교육 분야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고 그 이유는 보건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로망이었기 때문입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의무기록사 국가 면허증과 병원행정사 민간자격증 그리고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김건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원을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100의 90은 의사 혹은 간호사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병원경영학과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수많은 직업 중에 왜 굳이 병원을 택했냐고 물으신다면, 병원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매력 포인트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던 간에 병원은 결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병원에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사나 간호사를 생각했지만, 성적도 성적이거니와 고통 받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보다 피를 본다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도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물리치료학과처럼 병원에 관계 되어있으나 직접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학과 위주로 찾아보다가 문득, 병원도 기업의 하나인데, 그 기업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직업과 학과가 원무행정과 병원경영학과입니다. 영화로 비유를 들자면 의사와 간호사들은 주연배우입니다. 그리고 원무과, 심사과, 총무과 등 행정직 직원들은 조연과 같습니다. 잘 찍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연배우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조연의 도움 없이는 잘 찍은 영화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정직 직원들이 없는 병원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경영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우선 병원경영학과와 비슷한 의료경영학이나 기타 같은 부류의 학과들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곳보다 역사가 깊고, 그만큼 사회에 나가있는 선배님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수님도 모두 이 분야에 정통하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가톨릭대학교는 한국전쟁 이후 가난하고 상처 입은 지역민들을 돌보기 위한 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1964년 가톨릭 외국선교사들이 간호대학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학교는 '진리·사랑·봉사'라는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념과 전공분야의 기능적 전문인만이 아닌 '한 사람의 참된 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가장 와 닿았습니다.


보건계열 학과들은 진로의 문턱이 좁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기 잡힌 선후배 사이로 생각하기 쉬운데 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살갑게 대해주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심정을 말하자면, 학교의 역사가 깊고 얽고려 떠나서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타인을 배척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작은 사회라고 생각하면 믿어지십니까? 학교의 분위기는 아름다운 대학생활을 위해 아주 좋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병원은 의료를 공급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조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조직은 전문 경영인에 의한 과학적 경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경영학과 졸업생들이 활약할 분야입니다. 병원의 행정부서인 기획, 원무, 인사, 재무, 구매업무와 의료보험 청구, 산업재해 및 자동차 보험 청구업무 등에 전문 경영 인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사 국가고시 자격증을 취득한 졸업생은 병원의 각종 진료통계 및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실의 의무기록사로 활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및 각종 손해보험의 대인 보상분야와 생명보험 심사분야에의 취업도 가능하며 보건직 공무원, 의료보험조합 및 교육계 등으로의 진출이 가능합니다.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남재현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저는 수시도 아니고 정시도 아니었습니다. 형제자매도 많아서 고3동안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데 수시 논술과 정시 다 불합격 소식을 받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고3 수험생활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고 또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셔야 할 교육비를 생각하면 재수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입시 준비를 일 년 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수 후에 역시나 입시 정보도 부족했던 저에게는 수시와 정시 모두 불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삼수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 것 만 같아 너무 슬프고 매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학교를 가고 싶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해야 하나 라는 고민들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전문대 정시2차와 4년제 추가 모집이라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모집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여 이 차 의과학대학교에 들어오게 되었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 친구들에 비해 두 번의 실패를 겪었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버티어 지금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고 현재 학교생활, 학과 생활을 열심히 하며 즐겁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 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고등학교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바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춤에 자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많은 노력 끝에 여름 콘서트, 겨울 축제 2년 동안 무대에 서면서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저희 차 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는 보건의료산업 현장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1학년 때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으로 경영학, 경제학, 보건학을 배웁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고교 교과목 중에서 사회탐구 영역(경제)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 도서로는 첫 번째로 [명견만리]입니다. 이 책은 명견만리라는 TV프로그램을 책으로 엮은 것인데 전공 수업시간에 이 책을 읽고 발표준비를 하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최근 보건의료와 관련된 이슈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향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다양하게 다루어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념 의료]라는 도서입니다. 역시 의료와 관련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도서인 것 같습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자사고에 입학하여 첫 성적을 받고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여 노력해도 변화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고1,2 시절을 허비했습니다. 고3때 깨닫고 노력하였지만 역시나 부족했습니다. 현재 차 의과학대학교를 입학하고 처음 시작하는 전공 공부를 해보니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니 더욱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어있었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처음에는 물론 학교, 학과 역시 생소하였지만 우리 학교는 차그룹이라는 좋은 재단이 함께하고 있어서 취업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 뿐 아니라 학교생활을 하며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는 방학동안의 다양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탄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부분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학교와 학과 활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단으로 활동하면서 우리학교의 장점과 발전가능성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고 학과 학년 대표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이 다같이 학과활동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멘토활동을 통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저희 보건의료산업학과는 처음에 마주하면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보건의료산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해 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들을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는 지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우리학교 특성 상 차그룹 계열사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역시 많은데 저희 학과에서 높은 비율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전공 분야인 제약 관련 협회나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전공 분야를 살려 그와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복지 분야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 분야를 공부하면 지금의 전공분야에 더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전공 수업 중 정보 분석 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따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분야인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어느 정도의 높은 토익 성적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모두 저희 학교 졸업하는 데에 필수로 따라야하는 자격증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간결하게 말하면 열심히 하라고 하고싶어요! 고3 수험생활이 당연히 너무 힘들겠지만 그 시간동안 후회없이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어떻게든 부딪힐 것입니다. 저도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결과를 얻었지만 결국은 이곳에서 역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제 진심을 어떻게 전해야할지 너무 어렵지만 제 좌우명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된다.(좋은 결과를 얻는다)”입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당장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아직 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차근차근 좋은 결과들을 이루고 있으니 미래에도 역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학계열

공학계열은 공업생산기술을 자연과학적 방법과 성과에 따라서 개발 및 실천하는 응용과학계열로서, 자연과학이 자연 자체를 대상으로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면 공학은 주로 기계·장치 또는 가공된 재료 등 인위적인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역시 자연의 법칙을 탐구 하지만 실제로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실천행동에 그 초점을 맞춘다. 공학의 기초이론과 함께 각 전문분야별 이론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험 및 실습의 병행을 통해 창의력, 응용력 등과 같은 고등정신능력을 길러 정확한 판단력과 실천력을 구비한 과학기술 분야의 지도적 인재 육성과 고급 과학기술 두뇌의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 건설
- 기계
- 전기·전자·컴퓨터
- 재료
- 화공·고분자·에너지
- 산업·안전



건설

건설 영역에서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공간을 창조하는 학문영역으로, 공학기술과 예술적 측면에서 공간의 계획, 설계, 구조 그리고 시공 등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관련 분야로는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등이 있다.

건축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건축학

건축학 분야는 건축물의 계획, 설계, 유지, 관리 등을 위한 이론과 기술체계를 연구하는 분야로서 물리적 환경과 인간행태간의 상호관계 이해,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설계에 필요한 조형감각, 건물의 구조, 시공, 재료, 설비에 관한 공학기술 등 건축물의 설계에서부터 시공 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의 이론과 실무를 공부하게 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건축환경,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사, 건축이론, 건축조형, 건축의장, 건축구조, 건축재료, 건축설비, 단지계획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건축통합설계 등이 있다.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이주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축이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분야일지도 몰라도 거주하는 사람의 성향과 목적, 그리고 어떠한 재료를 쓰고 어떠한 컨셉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같은 목적의 건물이라도 천차만별입니다. 이처럼 건축이란, 예술과 과학 두 가지의 융합적인 명목이 합쳐져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2가지 분야가 아니라 사회적인 면모와 교양이 합쳐진 복합적이면서 아주 흥미있는 과목이며, 의식주에서 주를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누군가에 꼭 필요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누군가에겐 소중한 직장을 제공할 수 있는 건축이란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건축과와 관련된 활동을 눈에 두드러지게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전공에 관심이 많아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여행을 다니며 여러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전공과 관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에 정보수집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욱 열정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관련 도서를 읽고 스스로 스케치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입면접을 볼 때도 다른 학우에 비해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 더욱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고교생이 읽기 적당한 건축 관련 도서는 ‘딸과 함께하는 건축기행’ 시리즈와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건축학교에서 배운 101가지’를 추천합니다. 건축에 대해서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흥미롭게 접근하며 대학 전공수업시간에도 내용이 연결되므로 더욱 재미가 느껴질 것입니다.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학년이 높아지고 쌓이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건축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도 건축물 설립 배경을 생각하게 되고 이를 역사와 함께 생각하게 되어 단순히 건축물 자체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욱 발전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한 선배들은 주로 건축계열 회사에 입사하는데, 건축설계사무소나 아뜰리에처럼 작은 회사에 입사하여 해외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나 정림, 공간 설계사무소에 입사하거나 해외에서 건축설계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건축은 정말 많은 것을 알고가면 너무나도 흥미로운 전공입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전공이 나와는 잘 맞을까 수백 번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공에 대해 그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건축에 대한 정보를 쌓기 어려워하는 학생 또는 궁금해 하는 학생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서 고민을 털어주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가 꼭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건축공학

건축공학 분야는 인간이 주어진 자연환경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각종 구조물 그리고 도시규모에 이르는 각종 공간들을 계획하고 시공하며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학기반의 이론과 기술들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구조역학, 구조해석, 철근콘크리트공학, 철골구조, 특수구조, 건설관리, 건축환경 및 설비 등의 교과목이 있으며 이러한 제반 요소들을 통합하는 건축공학설계가 있다.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수범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축은 의, 식, 주 중 사람의 주거와 생활공간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의 건축물을 보면서 어떻게 건물이 지어지고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건축시공분야 전문가라는 꿈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건축이란 단순히 건축물만 만드는 것이 아닌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과 가정, 등을 제공하기에 의미 있는 전공이라 생각하여 건축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수험생활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역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였습니다.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을 모아 건축동아리 '가우디'를 만들어 활동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직접 건축 모형을 만들어 학교 축제에 출품하기도 하고 각자의 건축에 대한 생각이나 건축가에 대한 조사를 하여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고등학생 시절 소꿉장난이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저의 건축가에 대한 꿈과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축에 대해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저는 현재 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부경대학교는 부산공업대학교 시절부터 공과대학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이나 부경대학교의 건축학부의 역사 또한 전통이 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입학 전에는 단순히 건축은 철근을 박고 콘크리트를 부어 올린다고 생각했었지만 입학 후 전공에 대해 배우면 배울수록 늘 새로운 기분입니다.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 역학이라는 과목이 필수적입니다. 건축물이 어떻게 안전하게 서있을 수 있고 각 부재들이 받는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역학이라는 과목을 배워야하는데 고등학교 시절 물리과목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는 물리I 과목에 대한 자습서나 역학은 물리를 기본으로 한 미분, 적분이기 때문에 미적분학 책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 졸업 후 꿈꾸는 미래는?

저는 내년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축시공분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직접 건축물을 관리하고 확인, 검수하는 현장의 관리자 소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실무경험을 쌓은 뒤에 개인적인 회사를 차려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건축을 하는 것이 저의 최종 계획이자 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학과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인관계를 원활히 하여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도 건축주의 요구에 맞는 개성을 녹인 건축물을 지을 것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건축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김태영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공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저에게 ‘디자인’ 분야는 웬지 ‘무언가를 보기에 좋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코리아텍 디자인공학과는 국내 대학의 디자인관련 학부와는 다르게 입학전형에 실기가 없기에, 입시미술은 하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다양한 창작활동과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과 도전으로 본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 후 다양한 전공실습활동은 실기능력이 부족하였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조형실습, 기초실습 등의 교과목은 디자인을 학습하기 위한 초석을 다져주었습니다. 특히 동기들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스케치, 간단한 재료를 이용한 목업(Mock-Up)제작, Final Product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조형원리, 직접 발로 뛰어 자신의 아이디어에 맞는 재료 선정 및 구매, 수많은 피드백(Feedback) 과정은 정말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었기에 무색무취였던 저에게 ‘디자인’이란 옷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와의 가장 큰 차이는 ‘디자인+공학’이라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외형만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구동을 위한 내부설계까지도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적인 부분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인간공학, 디자인재료, 디자인사,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사진 등 디자인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목들도 흥미 있었습니다.

‘디자인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금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사용의 편의를 제공하며, 좋은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고, 필요에 의해 진행되며, 나아가 의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기에도 아름다워야 할 것입니다. 디자이너의 꿈을 가졌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혹은 다양한 창작 활동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비전을 가진 새내기분들께 코리아텍 디자인공학과를 추천합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대학교 학과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또한 입학 후 본인이 생각하였던 학과와 매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대학교 학과의 홈페이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대학이든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과 교육목표에 대한 설명은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름이 같은 학과라 하여도 대학별로 교육목표와 커리큘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별로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분야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자료를 얻는 방법은 직접 그 학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 아무리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달되었다 하여도 본인이 직접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학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학과 교수님과의 연락을 통해 1:1 상담도 가능할 것입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제가 더 준비해야 할 것과 제 꿈과 전공의 일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러한 것들이 제한된다면 수만휘, 네이버&다음 카페 등에서 또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솔직함과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활동이었습니다. 코리아텍 입학사정관 창의인재전형에 지원하였던 저는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솔직한 저의 가치관과 꿈, 그리고 학창시절 대학입학과 저의 꿈을 위해 노력하였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거창한 대외활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관심이 많던 3D모델링 분야가 진학을 희망하는 학과와 연관이 있다 생각하여 관련 대회에 몇 번 참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면접 또한 누구나 하는 형식적인 답변은 답하기 싫었기에 제 스스로를 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별다른 준비는 하지 않았고 제 강점과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한 후 면접에 임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했기에 꼭 정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였습니다. 고정관념은 버리고 보여주기 식이 아닌 솔직한 자신과 관심을 보인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2016.12.31.기준 71.8%)

학부(과)	최종 취업률 (%)	취업자(명)							
	우리 대학	소계	대기업	공공 기관	중소 기업	해외 취업	창업	프리랜서	기타
디자인	71.8	28	4(14.3%)	5(17.9%)	15(53.6%)	2(7.1%)	-	2(7.1%)	-

- 대기업 : 삼성전자, 에이스 침대, 한솔테크닉스, 케이티하이텔, 동양매직, (주)다우기술, LG로지스텍스, 신세계백화점 등
- 공기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코리아텍 등
- 대학원 진학 : 코리아텍 일반대학원 디자인공학 전공,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 전공, 홍익대학교 Product design 전공 등

코리아텍은 모든 학과가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대학입니다. 그중 디자인공학과는 전국 디자인관련학과에서 거의 가장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개인 창업을 통해 본인의 꿈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습니다.

학과 행사로 진행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통해 졸업한 선배님들과의 대화가 학부생들의 진로고민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고 디자인과 협업이 불가능한 분야도 없기에 선배님들 중 몇몇은 또 다른 학문을 학습하여 디자인+Something 분야로 진출하기도 합니다.

토목공학

토목공학 분야는 인류에게 주어진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인류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또한 친환경 개념과 정보기술 등을 접목하여 보다 나은 건설 및 개발을 위한 융합 연구와 교육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구조공학, 지반공학, 수공학, 환경공학 등이 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조민경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설시스템공학과를 진학하게 된 계기는 중학교 등굣길에 재개발 단지 공사장을 심심치 않게 구경하게 되면서 흥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중학생 때는 막연히 펜스 틈새로 보이는 건설기계들과 굴착되어있는 땅들이 어느새 고층 아파트들로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며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궁금증이 머릿속에 맴돌았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건설에 대해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신과 수능,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하기도 바쁘던 시간 중 우연히 동네 근처 대학에서 열리는 건축전문가의 초청강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일반시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 참여하였고 건축계에 여러 전문가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옥, 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명사의 강의에 학문적인 깊이와 이 학문의 활용도,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미래엔 건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기에 평소 알고 있던 단순한 지식에서 대학진학 후 직업을 가졌을 때의 모습까지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건설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학과를 지원할 때도 건축 및 건설 분야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수시, 정시를 준비할 때 성적이 애매하여 어느 한 방향으로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부에도 긴 시간을 집중할 수 없었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다보니 어느새 공부보다 입시정보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수시에 지원할 기간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만 더욱 커져 갈피를 못 잡던 순간, 오히려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입학전형을 살펴보던 중 학생부 종합전형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넣을 소재들을 생각하다보니 이 진로에 대해 열정적인 것을 보여줄 소재가 뭐가 있을까 막막하다고 느꼈습니다. 고민하다 역으로 생각해낸 결론이 같은 진로에 대해 지원하는 나와 같은 학생이 실제로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했을까란 질문이 떠올랐고 대답은 대부분은 나와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생활에서 내가 자신할 수 있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표현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는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 및 과학 동아리 활동이라는 단순한 주제에서도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었고, 계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자기소개서의 질문항목에 대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해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학교축제 때 공연한 무대에 대해 완성도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 했었던 얘기를 진솔히 표현하였고, 학교별로 자율적인 마지막 문항에 대해 특히 더 심도 깊게 학교의 인재상을 분석하여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여 표현했었습니다. 특별했던 수상경력 및 비교과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학생부교과나 정시에선 지원도 못할 대학교를 과감히 지원하게 되었고 모두 1차 서류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능을 치르고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분석하여 예상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답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며 긴장한 채로 대학교를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 대기실에 기다릴 땐 오랜 대기시간으로 오히려 긴장감이 풀려 면접장에서 들어가서도 긴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면접형식은 면접을 봤던 두 학교 모두 2대 1 면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면접 중 가장 신기했던 점이 자기소개서에 썼던 건설강연에서 강의하셨던 분이 면접에 들어온 교수님이셨습니다. 면접관님이 흥미로워하시면서 강연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했던 학과에 유일한 직접적인 비교과활동이었기에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었고 스스로 잘했다고 자부하며 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입시를 준비할 때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전형 중 어떤 한 전형만 정하여 준비를 합니다. 한 전형에 대해서도 학교마다의 전형명도 다를뿐더러 요구하는 목표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나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목표하고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 및 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전형마다 자신이 어디에 강점이 있을지 생각지도 못한 전형에서 강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에게 가장 중요한 합격비결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변사람들의 말과 결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전공에 기초가 되었던 교과목은 물리였습니다. 실제 수능 땀 점수가 잘 나오던 생명과학과 화학을 응시하였지만 물리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건설도 물리의 응용인 학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조물이 설계될 때 허용되는 하중과 재해에 안전하도록 하는 안전율과 같은 개념은 고교 때 배운 물리 힘과 운동에 근간하여 응용되기도 하며 대학에서도 대학 물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에 공학도가 되기 위해선 물리를 이해하고 관심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도서론 '물리선생님도 몰래 보는 물리책'을 추천합니다. 물리는 실험하지 않고선 이론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책은 그런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이론을 간단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담감 없이 쉽게 읽고 적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물리에 흥미 있었던 것에 비해 점수가 잘 나오지 못해 대학교를 가셔도 전공과목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평가는 고등학교와 다르게 얼마나 알고 있느냐 보다 답이 나오지 않아도 표현하고 기술하는 것에 대해 큰 점수를 주기에 많은 연습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물리과목들을 넘기고 나니 더욱 응용하는 설계과목(강구조설계, 구조역학)들이 많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원하는 진로를 위해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흥미를 잃지 않고 더욱 더 노력하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에서도 분야별(설계, 시공, 감리)로 직업이 나뉘기에 내가 갈 분야를 정확히 정하고 나면 전공교과목 중에서도 갈 분야와 관련된 과목으로 선택하여 진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장점은 다른 과에 비해 전공필수과목이 없고 전공과목이 모두 전공 선택입니다.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 및 불필요한 강의수강을 없애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영어강의가 많기에 현재 과포화된 국내 건설산업이 바라보는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시각을 넓히며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건설시스템공학과라는 학과에서는 흔히 아는 시공회사부터 설계사, LH,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기업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에 진학하기 위해선 토목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토목기사와 도시계획기사 모두 준비하여 도시계획분야로 SH와 같은 공기업에 종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설산업이라는 것이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닌 국가의 발전을 위한 근간이 되는 사업이기에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면서 해결되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학

도시공학 분야는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각종 도시 문제, 즉 주택문제, 교통문제, 공해문제 등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 토목 등의 공학적 측면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리 등의 인문사회과학적 측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도시공학, 도시계획, 도시교통론, 도시재개발 계획 및 설계, 도시환경정책, 도시관리 등이 있다.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오기현

□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도시공학과에 입학할 하게 된다면 과거에 행해졌던 도시 설계에 대한 것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나 도시 설계 분야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배우게 됩니다. 기사 시험에서 치게 되는 필기시험에 대한 내용들, 실기시험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 또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계획은 도시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있는 도시를 재생시키고 마을을 새롭게 탄생시켜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는 산업입니다. 입학 후 부전공 컨설턴트 트랙을 수강하신다면 과 수강내용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진행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부터 시작하여 해외탐방, 해외 인턴십 제도를 이용하여 해외를 탐방하는 프로그램, 해외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학교 측에서 상당부분 지원을 해주기에 참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55 FLOW'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3~5명이 한 조를 이루어 한 학기 동안 스터디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참가 시 지원금도 지원을 해주며 우수 팀으로 선정될 경우 상금 또한 지원합니다. 공부도 하며 지원금도 받기에 꼭 추천하고 싶은 제도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도시공학과 17학번 오기현입니다. 입학 당사가 어제 같은데 벌써 제가 2학년이 되었다

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스무살에 대학에 들어와 자신과 적성이 맞지 않아 전과를 하거나 자퇴를 하는 학생을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잘 찾아서 그에 맞는 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학우들과 사람들을 접하게 되며 새로운 대인 관계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의 진로계획

도시공학과는 공부하는 범위가 넓고 다양합니다. 그로 인하여 졸업을 하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습니다. 도시공학과 4학년이 되면 도시계획기사 시험 자격을 얻게 되는데 자격증을 취득 후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건설회사, 엔지니어링 회사, 공기업, 컨설팅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공기업이 최종 목표이기에 4학년 때 진행할 수 있는 기사 자격증 시험을 착실히 준비할 것이며 이후 엔지니어링 회사나 컨설팅 업체에서 경력을 쌓은 후 공기업에 가는 것이 제가 꿈꾸고 있는 제 진로입니다.



환경공학

환경공학 분야는 공중위생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자연과학의 기초이론을 토대로 환경문제의 해결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수질·토양·해양 등의 오염문제 해결과 예방, 소음 및 진동공해 방지, 환경방재학 등이 있다.

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전공, 생명공학전공 이동현 

□ 재학 중인 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을 보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 현상에도 흥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과 관련서적을 이용해 조사하면서 자연히 환경 분야를 진로로 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깊이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에너지수호천사단, 환경문제탐구반’ 등 교내 환경과 관련된 동아리에 참여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거나 친구들과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면서 환경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여러 환경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재활용품을 이용해 업 사이클링하기, 에너지절약 습관화하기 등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지만, 제 꿈인 환경오염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생명환경학부를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많은 학교들 중에서도 가톨릭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교육 시스템이 학부제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환경학부에는 제가 원하는 환경공학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생명과학까지 공존해있기 때문에 환경공학을 전공하면서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의 지식을 접목하여 더 넓은 폭의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환경공학에서 필요한 생명공학, 생명과학부분을 이용하여 환경공학에 대한 부분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에서 잘 마련된 교환학생프로그램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교환학생제도를 이용하여 독일과 스웨덴과 같은 환경선진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해본다면 ‘세계적인 환경오염분석가’가 되고 싶은 저에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가톨릭대학교 생명환경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위해 준비한 전형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6개의 수시전형 중 4개의 학생부 종합전형, 1개의 교과면접전형, 1개의 교과전형을 입시에서 준비하여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먼저,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수시 준비를 하였는데 생활기록부, 자소서, 독서활동, 예상면접질문 이렇게 4가지로 공책을 나누어 각각의 정보들을 정리하고, 직접 써보고, 매일매일 한번씩 읽어보고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종합전형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자세교정을 위해 스스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제 면접 자세를 보거나, 녹음기를 이용하여 목소리의 떨림이나 말의 빠르기 등을 체크해가며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왔던 것들이 저를 6합격이라는 길로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5번의 면접 경험과 나만의 자기소개서 쓰기, 생활기록부 쌓기 등의 경험들을 되살려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좀 더 가깝고 친근한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교 시절 대입을 위해 준비한 것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우선 학생의 본분인 학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제일 부족한 과목이었던 수학은 오답노트와 직접 풀이과정을 2, 3개로 만드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다른 과목들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책 필기와 자습서를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노력과는 달리 저의 내신 성적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활동적이고 명랑한 저의 장점을 부각시켜 저만의 열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관심 분야인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수호천사단, 환경문제탐구반, 독도탐방체험' 등의 교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선, 환경지킴 동아리 '에너지수호천사단'에서는 강사님의 강의와 에너지 센터 견학을 통해 '거창한 환경 정책보다도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라는 저만의 환경적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독도탐방체험활동에서는 독도에 직접 방문하고 느끼면서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독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에 대한 부족한 지식은 직접 '환경문제탐구반'을 개설하고 '과학토론티'에 참여하면서 선생님의 가르침도 받고 친구들과 환경, 과학 분야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환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지역 아동 센터에 방문하여 중, 고등학생 친구들의 학업을 도와주는 교육봉사와 한 달에 한번 양로원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청소와 침구정리를 도와드리는 양로원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해오면서 누군가와 교감한다는 따뜻함을 얻을 수 있었고, 가톨릭대학교의 인재상 중 하나인 봉사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적, 교내활동, 봉사활동을 조화롭게 꾸준히 쌓아오는 노력을 통해 제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생명환경학부를 소개해 주세요.

먼저, 저희 학교 생명환경학부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학부제로 되어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했던 환경공학은 생물, 지구과학, 화학, 물리 중에서도 생물과 가장 깊게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학부제의 장점을 이용하여 생명과학, 생명공학, 환경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운 후, 세부적인 학과로 진학한다면 다른 학교의 학생들보다 좀 더 폭넓고 색다른 시각으로 연구방향이나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톨릭재단을 통한 다양한 해외교류프로그램도 저희 학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제도를 이용하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이공계관련 연구에 대한 트렌드를 알 수 있고, 그들의 선진 연구문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보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와 관련된 서적을 추천해드리자면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 ‘지구가 빨났다’, ‘왜 식량이 문제일까?’라는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에도 정의가 필요해’, ‘지구가 빨났다’라는 책들은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환경이슈와 사회문제에 관련하여 환경공학을 준비하는 고교생들이 어렵지 않게 사회이슈를 인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잡아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왜 식량이 문제일까?’라는 책은 GMO식품과 관련된 책인데 이 책을 보며 생명공학의 양면성을 생각해볼 수 있고, 무조건적인 과학의 발전에 대해 고교생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꼭 하고싶은 말

우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저처럼 가고자하는 길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열정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힘든 수험생활을 견디고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즐거운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생 전공멘토단으로 임명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앞으로 전공멘토단이라는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수험생들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대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정책전공 김선률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부터 정치·외교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힘으로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계열선택에서도 자연계가 아닌, 인문계를 선택하려고 했죠. 1학년 겨울. 국제외교, 국제행정에 관심을 두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도중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환경공학이라는 어드벤처를 가지고 정치외교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 하에 자연계를 선택해서 환경공학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목표와 가장 잘 맞는 환경정책전공을 선택하게 됐죠.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했던 것을 이야기 해 주세요.

1)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대입전형에 대한 설명을 듣자마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제가 고등학교에서 하고 싶었던 생활과 동일했거든요. 저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진로체험이나, 동아리, 대외활동 등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대회에 나가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저는 유난히 비교과 활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어찌면 공부 빼고 다 좋아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과도한 투자가 입시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요.

2)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입학을 준비하면서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건 내신이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비교과 활동들을 해왔지만, 과도한 시간투자로 2학년 때 내신등급이 많이 떨어져버렸거든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2학년 끝나고 대입상담을 받았을 때, 저는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거점 국립대를 목표로 생각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대학을 이야기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대학을 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보다, 제가 거기에 지원할 가망조차 없다고 생각하니 참담했었어요. 그렇게 2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계획표를 짜고, 도서관에 다니고 수능특강도 몇 회독씩 했어요. 순간순간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극적인 성적향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3)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자기소개서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기도 했었고, 제가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를 적는다는 게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쓰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보통 자소서를 쓰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공통문항 1, 2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몇 번이나 다시쓰기를 거쳐서 하나의 방법을 찾아냈는데, 1번의 경우는 솔직



한 제 이야기를 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다른 자소서들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정형화된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왜 인문계가 아닌 자연계를 선택했는지, 선택해서 자연계열 과목들의 학습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 가감 없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2번이 사실 가장 어려웠는데, 어떤 식으로 적을지가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했던 활동들을 두서없이 나열하고 그 활동들을 통해 느끼고 성장한 점을 전부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계되는 활동들이 보이더군요. 1학년 때했던 활동을 통해 배운 점을 바탕으로 2학년 때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연계들을 위주로 자기소개서 2번을 적었습니다. 목표하던 전공을 위해 했던 활동들이라 적어놓고 보니 자연스럽게 전공과도 연계가 되었습니다.

4)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고등학교 재학 중에 했던 활동 중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소논문 작성입니다. 교내 사회과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며 하나의 대 주제 하에 본인이 원하는 전공과 연계해서 소논문을 작성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며 여러 책들을 찾아 읽고, 다른 논문들을 접한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면접과 자기소개서 작성들에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당시에 읽었던 책들은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권장하는 도서이기도 했습니다! 수업들 듣다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환경정책전공이지만, 환경공학전공과 공학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고교 교과목에서 환경공학의 기초와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을 고르라고 하면 역시 화학일 것 같습니다. 환경공학에서 배우는 전공들은 다양한 환경 분야의 수치들을 화학식을 통해 분석하고 실험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잦습니다. 물론 입학하신 후에도 기초 화학을 배우긴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화학1과 화학2를 잘 익혀둔다면 훨씬 수월하게 환경공학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전공 수업의 경우 행정학과 정책학 등을 배웁니다. 이러한 과목들의 추천도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게 많겠지만 제게 큰 도움을 준 책을 추천하라면 저는 제레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2001)>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비록 15년도 더 지난 책이지만, 앞으로의 경제와 정치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에 대해 정확한 전망이 적혀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사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환경정책전공은 흔한 학과가 아니니까요. 정확히 무엇을 배우냐, 환경공학과는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 배우는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환경공학이라는 공학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다만 그걸 기술과 연구 쪽으로 집중해서 배우냐, 아니면 관리와 정책 같은 사회적 분야와 연계해서 배우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환경공학과, 그 중에서도 환경정책을 선택한 후배님들이 이걸 읽고 전공에 대해 조금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환경공학과는 다른 여타 학문들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물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환경공학에서 내딛는 발걸음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학과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 계

기계 영역은 기계·교통·조선해양·항공우주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영역으로, 기계 및 관련 장치의 설계·제작·시험·활용 등에 관한 기초적·응용적 분야를 연구하는 기계영역, 물류이송, 교통영향, 교통안전시설, 교통계획, 대체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과 원인을 탐구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교통영역, 해양과 항공우주의 제반 운송, 개발, 제작 등에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고 적용하는 조선해양·항공우주 영역으로 구분된다. 관련 분야로는 기계공학, 기전공학, 조선·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철도공학, 자동차공학 등이 있다.

기계공학

조선·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기계공학 분야는 각종 기계와 관련된 장치 및 부품의 설계, 제작, 활용, 관리 등에 관한 이론적 및 응용적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로, 주요 교육내용은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공학, 정역학, 동역학, 제어공학, 기계제도, 생산공학, 기계설계, 전열공학, 유체기계, 에너지공학, 동력공학 등이 있다.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노광명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계공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어릴 적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중에 자동차를 좋아했는데, 미래 진로로도 자동차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만큼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계공학과에서는 여러 역학을 배우는데, 하나씩 배우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진로에 한발 한발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 대입을 위해 준비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1)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정시

2)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대입에 대한 생각이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하며 생기게 되어,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남들보다 3배 이상 공부시간을 투자하며 보낸 1년이 가장 보람차고 많은 변화와 노력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정한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3)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주변 선배들과 선생님들의 조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스로 검색을 통해 찾은 자료가 많습니다.



4) 면접/논술/적성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내신성적이 좋지 않아 논술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기상으로 수능이 끝나고부터 기존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하며 더불어 전년도 자료를 보며 준비를 하였는데, 아쉽게도 경북대학교 논술에서 후보 4위를 받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5)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철저히 자신의 성적을 분석하고, 이전 입시성적 등을 통하여 불/합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금오공과대학교는 저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대학이었고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1)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수학과 물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리2와 수학 가형을 문제풀이용이 아닌 이론에 대해 이해하고 학습해서 온다면, 1학년 대학생활을 수월하게 학교에 적응하면서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기계공학과에 중점은 기계의 구동원리나 여러 재료, 열, 유체 등의 이론을 익히고 실생활에도 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계 분야에 진로희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군대를 미루고 2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데, 2학년 들어서 재료역학, 열역학, 기구학을 수강중입니다. 저의 진로와 직관되어있는 학문이라 생각하여 지식을 쌓는 중입니다. 또한 자동차 연구 동아리에 속해 있는데, 이 또한 저의 미래와 매우 직접적인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학업과 병행하여 저의 미래에 한발씩 가까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4)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저희 학교에는 기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가 있는데 기초 베이스는 비슷한 커리큘럼을 공유하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시스템과 설계에 특화되어있는 학과입니다. 저희학과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뤄서 전반적인 분야에서 활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대학을 선택할 때 본인의 진로를 따라가세요. 대학 이름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학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학과를 따라가’ 였습니다. 저는 이 선택이 틀린 선택이라고 단 한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로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적에 맞춰서 진학을 하지 마시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꼭 있을 것입니다. 꿈이 바뀔 수도 있지만 우선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를 따라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이거성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조립하고 만드는 것에 흥미가 있어 막연한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기계 관련 일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꿈에 대한 질문도 받으며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공고로 진학하여 기술을 배우고 싶었으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의견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대학교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금오공과대학교의 기계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준비한 대입 전형으로는 수시(교과)와 적성고사를 준비하였는데, 고등학교 때에 내신 성적을 따기가 타 학교에 비해 수월하였던 탓에 대학교 원서를 쓸 때에 교과 전형 위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목들 중 수학을 좋아하여 수학 위주로만 공부하였기에 수학과목의 성적은 좋았으나 그 외 모든 과목들의 성적은 좋지 않았는데, 각 학교마다의 내신 산출 과목과 가중치가 달라 이러한 점이 오히려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로써 과목 중 수학 및 과학만을 산출하는 학교도 있었으며, 수학교육과 중에는 수학 1과목만의 성적을 보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현재 목표로 하는 학교가 있다면 해당 학교 입학전형에 대하여 미리 찾아보고 그에 맞추어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성고사는 일부 학교에서만 시행하고 되고 있는 전형으로 학교 자체의 시험을 통하여 부족한 성적을 보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각 학교마다의 시험 유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적성고사를 통해 원서를 쓰고자 한다면 희망하는 학교의 적성고사 문제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들에서도 그렇듯 입학전형과 전년도 입결 등에 따른 공부 계획과 본인 스스로가 미리 찾아보고 준비한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금오공과대학교는 경북 구미 소재의 4년제 공과(단과)대학으로 국립대학교의 공과대학 중에서도 등록금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또한 각종 사업단을 통해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일을 뒷받침하며, 교내 장학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더욱 덜어주고 있습니다. 본교의 기계과는 과거 기계계열(학부)에서 현재 ‘기계공학과’와 ‘기계시스템공학과’ 그리고 ‘기계설계공학과’로 정원을 나누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대표되는 학과인 만큼 학과에 대한 지원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미공단으로 인한 기업들로의 취업률 또한 높은 편입니다.

기계공학과에서는 기본적으로 5대 역학인 정역학, 고체역학, 동역학, 열역학, 유체역학과 함께 CAD, CATIA같은 설계프로그램과 응용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1학년 때 기본 교과목들을 배우기는 하나, 고등학교에서의 기초가 다져진다면 보다 수월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다른 도서 보다는 대학 입학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나 개념서를 통한 물리와 수학의 기본 개념에 대해 다 잡아보거나, 현재 기계공학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실제 배우게 될 이론공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전공서적들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오공과대학교 동아리 중에서는 전국 또는 전 세계의 많은 대학교 팀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자작 자동차 동아리가 있습니다. Baja, Formula, EV부문과 같은 대회를 준비하고 참가하며 학교에서 배운 전공 지식들을 실제 적용하여 보고 공부함으로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기계과의 졸업 후에는 현대자동차, KIA, POSCO, 삼성중공업 등 기계 관련 대기업 연구 및 생산분야, 기계와 IT, BT, NT 등 다학제 융복합 연구 및 개발분야, 우주항공·국방과학연구소·KIMM 등 국책연구소 연구 개발 분야, 국내·외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우수 기업 취업 등을 하게 됩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흔히 국가자격증 중 일반기계기사, 전산응용기계기사 등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장진희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학교 때 부터 이과를 가기로 결정한 이 후 기계공학과를 가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학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학과를 알지 못했고 단순히 무언가를 조립하는데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기계공학과를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진

학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예전부터 생각했던 기계공학
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학과에 대해 고민하였고 항공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기계항공공학부로 목표를 정하고 넓게는 기계공학과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꿈나무 도서관 자원봉사와 인천녹색연합에서 생태모니터링을 봉사활동으로 하였습니다. 동아리는
과학동아리와 영어 동아리를 하였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플라잉 디스크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년동안 체육부장을 하며 체육대회 준비를 주도적으로 하였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은 물리입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현재 역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고체역학과 열역학입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학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에 대한 만족감은 학교가 아담하고 다니기 편하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자동차, 방산, 기계설비, 기계요소, 연구소로 진출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과와 전기전자가 융합되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기계기사, 산업기사



금오공과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김효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처음 항공기를 실제로 보게 된 것은 2학년 수학여행 때입니다. 학교에 돌아가기 전 항공기 주차장 주위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관광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항공기가 비행준비를 하는 장면을 정말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의 전체적인 크기에 놀랐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웅장해 보여 그 모습을 계속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처음 본 비행기에 대한 생각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 계기로 인해 더 알아보며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학교로 돌아와 비행기에 대한 기사를 수집하거나 비행기와 관련된 법칙이나 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식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열리는 여러 교내 대회에 비행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참여하거나 동아리 아이들에게 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많이 하며 진로계획을 더 확실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비행기에 적용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배워 항공분야를 이끌어가는 엔지니어의 역할을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저의 꿈은 피아노를 전공하여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던 저는 연필을 잡고 있는 시간보다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놓게 되었고, 공부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이 고등학교를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가정형편상 꿈을 포기해야한 했습니다. 그 뒤 새로운 엔지니어라는 꿈이 생겼을 때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수학의 기초가 약해 심화 문제를 접할 때면 답지의 풀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떨어지는 내신 성적에 자괴감을 느낄 쯤 문득 기초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 2학년 교과서를 분석하여 공통되거나 연관성이 깊은 내용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해석을 통해 파트별로 만든 '개념 원리 포켓북'으로 기초를 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확인 학습을 위해 문제집을 풀 때, 번호 순이 아닌 난이도 순으로 각 단원에 있는 내용을 단계별로 재구성하여 익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 접근이나 풀이 과정에 어려움을 느낄 때 답지에만 의존하던 습관을 고칠 수 있었고, 기초적인 지식을 통해 심화 문제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공식을 증명해보면서 폭넓은 수학에 사고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빠름보다 느림이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고등학교 내에서 열리는 과학대회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과학탐구발표대회였습니다. 저는 ‘베르누이의 원리로 본 세상’에 대한 주제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투수가 야구공을 던질 때나, 분사기로 안개처럼 물을 분사시키는 현상이 나타내는 ‘베르누이의 원리’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비행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관련 조사를 통해 이것이 양력의 발생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식을 찾아 발표내용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눈으로 보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 발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날개 주위에서 기체가 흐르는 속도가 증가함으로써 압력이 감소된다는 현상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를 날 때 압력이 감소하여 끝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사진을 찾아 발표 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현장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하며 관련지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고, 비행 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음으로써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맛있는 물리-우리주변의 물리이야기’라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으로 항공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림과 함께 물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물리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어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흥미를 가지거나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기계라는 소재를 재미있게 받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저희 학교에는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이 세 가지 학과가 있습니다. 이 세 학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자동차로 들자면, 자동차의 도면을 기계설계공학과가 그리고 기계공학과가 그 도면을 따라 자동차를 만들면, 기계시스템공학과가 그 자동차 안에 보행자 감지나, 경고시스템을 넣어주어서 자동차 하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학과가 서로 서로를 모르면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일이 진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 전공은 이 세 가지의 학과가 모두 비슷하게 커리큘럼이 짜져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학과를 정할 때 꼭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해 주고 싶어요. 대학교를 가서 전공공부를 한다는 게 그 학문에 대한 깊은 지식을 탐구하는 일이잖아요. 학년이 올라 갈수록 전공공부는 더



어려워지고 더 깊어져서 중간에 학점을 포기하거나 자퇴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자신이 전공을 좋아한다는 마음하나만으로도 전공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힘내세요!!

금오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오준영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적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자동차를 직접 만지고 고장이 난 곳을 수리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좋아하게 되었고 자동차를 직접 만지면서 간단한 정비 지식을 알게 되고 직접 정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는 막연히 자동차를 좋아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문과와 이과를 선택할 때에 문과 성적이 우수했었지만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배우고 자동차와 관련된 직업을 갖기 위해 이과를 선택하여 공부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이 어려워 지칠 때도 있었지만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자동차를 깊이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고3 즈음 되어 학과에 대해 더욱 깊게 생각하였는데 자동차란 기계의 일부분이란 생각이 들었고 빠르게 발전해가는 자동차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자동차공학과보다는 기계공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고 기계공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만을 공부하다보면 나무만을 보게 되는 것과 같고, 기계부터 공부하는 것은 숲을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자동차 시장은 자동차라는 단일 상품이 아닌 모든 기계의 집합체, 더 나아가 모든 최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집약체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따라서 기계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제가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받아들이거나 이끌어 나가는 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제게는 확실한 꿈이 있었던 것이 제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확실한 꿈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데 분명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과 성적과 이과 성적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과를 선택한 저는 수학과 과학이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제게 맞지 않는 높은 수준의 문제들은 풀지 못하였고 성적은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과목을 피하기보다 기초부터 다지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기보다 ‘기초를 배우면 풀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수학과 과학이 어려운 이유를 찾는 공부를 하니 자연스레 성적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던 은인께서는 제 꿈을 응원해주셨습니다. 기술가정 선생님이셨던 은인께서 수업시간 1시간을 내 주셔서 제게 자동차 튜닝에 대해 반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막상 친구들 앞에서 제가 잘 안다고 자부했던 것을 설명하려고 하니 충분히 준비했다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졌고 모르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자동차는 이러해서 저리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던 저는 수업 후에 큰 충격을 가지고 학업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알아보는 활동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고 ‘당연하다’는 말을 멀리하고 당연한 이유를 알려고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이 확실했기 때문에 진로탐색시간을 조금 벌 수 있었던 저는 어떤 대학을 가야할지에 대한 탐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함께 탐구하는 것을 비롯하여 저 혼자서도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여 원하는 과가 있는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모두 들어가 특징점을 비교하다 현재 재학 중인 금오공과대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자작 자동차 동아리를 보고 제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고 공대라는 특성이 자동차 뿐 아니라 더욱 폭 넓은 기계를 설계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적합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하여 유리한 방법을 찾던 중에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신 성적이 우수하여 수시 전형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제 성적에 진학이 가능한 대학을 많이 알아보고 그중에 제 꿈에 다가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 원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수시원서 접수를 하고 나서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는 생각이 더욱 학업에 매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 금오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우선 금오공과대학교는 공학에 전문성을 둔 공과대학교입니다. 타 대학에서 공학계열은 학부나 단과대학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금오공과대학교는 1개의 과를 제외한 모든 과가 공학계열의 과로 이루어져 있어 공학계열 교육에 유리합니다. 또한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취업률 또한 높은 편입니다. 국가산업단지와 이웃해 있는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산학협력에도 유리하고 이는 다시 교육의 질과 높은 취업률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육의 질이 높은 것과 취업률이 높은 것은 금오공과대학에 뜻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학교를 다니는 지금까지 홍보책자에 나왔던 문구들이 미사여구는 아니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요새 학과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때 자작 자동차 동아리 활동에 몰두했었다면 3학년이 된 지금은 학과 공부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응용을 위해서는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대외활동 역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전공에 있어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고, 전공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과 수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계공학과라 하면 처음부터 기계를 만드는 것을 배운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설계하기 위해서는 역학을 배운 후 기계의 재료부터 기본 학문들을 익힌 후에 비로소 기계 설계를 배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계공학과와 기계시스템공학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학과 모두 기계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집중 되어있는 것은 맞지만 기계의 본질적인 것을 심도 있게 배우는 것과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함께 배우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 관련 학과를 선택 할 때에는 기계의 본질적인 것을 배울 것인지 기계를 응용하고 제어하는 학문을 함께 배울 것인지 선택해야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한 선배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R&D, 공학계열로 취직합니다. 인근에 국가산업단지 가 있기 때문에 공학관련 취업기회가 비교적 풍부한 편입니다. 늘 치열하게 살아가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공부는 치열하게 하지만, 늘 후배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며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미래의 저 역시 저렇게 좋은 선배의 모습으로 기억되고자 하는 꿈이 더해졌습니다.

현재 3학년 재학 중이지만 이제야 기계 설계에 대한 기초를 조금 다졌다고 생각됩니다. 기계 설계와 제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기초가 되는 전기 분야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교육 과정에서도 메카트로닉스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학년 까지 마친다면 충분히 공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동차 계열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주로 원하는 것은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입니다. 기초가 되는 역학부터 기계요소에 대한 설계 등 교과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실기 시험은 2D, 3D로 제품 디자인하는 것인데 이 역시 교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과목을 열심히 배우는 것 외에도 직접 응용하여 실습해보는 것을 게을리 하면 안됩니다.

금오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오진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원하는 항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계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전자와 같은 다른 전공과의 융합이 되어있는 학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계시스템공학과에 지원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준비한 과정을 이야기 해 주세요.

1) 학과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수시(교과/종합), 논술을 준비하였습니다.

2)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수만휘 같은 대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를 찾아 수험생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수험생들과 논술자료를 공유하고 입학하고 싶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3)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대본을 외워 로봇처럼 말하는 것을 피하고 중요한 키워드를 말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면접장에서는 다들 긴장을 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이라도 잘 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의미가 있었던 활동들을 위주로 자기소개를 하였고 전공에 관련되었던 동아리, 책 쓰기 활동 등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면접관분들이 저의 경험을 완벽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5)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학내 재량활동으로 물리 동아리에서 책을 쓰고 물리동아리에서 매달 수요일 요양병원으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6)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전공에 대한 열정이 보이게 면접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정재승교수의 과학콘서트, 물리과목, 수학과목 교과서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기계과에 필요한 물리에 대해 배우고 지금은 기구학, 열역학, 고체역학과 같은 다양한 역학분야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역학과 같은 전공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좀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기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동아리 활동에 중점을 두고 대회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물리, 수학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1학년 뿐만 아니라 2학년 전공을 시작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기계공학과보다 전자 분야를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되어 전자와 기계가 결합된 곳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보다 시간과 여유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이 조금 힘들더라도 노력을 하여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 자신이 생각했던 다양한 활동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오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정현경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기계시스템공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만들기를 좋아해 기계계열로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물리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공학적인 것에 대해 알아보다가 4차 산업혁명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기계계열에 진학하고 싶어서 전공에 대해 알아보던 도중 k-mooc을 알게 되었고 금오공과대학교 박준영 교수님의 열역학 수업을 듣게 되면서 금오공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에 빠져서 금오공과대

학교의 기계시스템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저는 여상도 교수님의 '열역학 개념의 해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고등학교 3학년 이었던 당시 제가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던 책이며 열역학의 기초를 쌓아두는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대학교에 와서 배우는 내용은 많이 없지만 열역학의 역사와 기본 틀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열역학에 대한 흥미를 돋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엔탈피와 엔트로피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기차와 자동차의 초기 발전 모습도 같이 다루기 때문에 기계 자체에 흥미가 있다면 충분히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혹은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k-mooc나 유튜브의 강의를 병행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만 물리 1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듣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꽤나 많이 나와 찾아서 봐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수첩에 단어들을 정리해 찾아서 보았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기계계열은 기계를 고치는 학과가 아니라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을 계산하는 과입니다. 고로 별도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컴퓨터를 고칠 수 없습니다. 또 학교 전체를 보면 여자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공대여신 혹은 아릅이는 어딜 가도 표준 이상인 사람이 공대에 온 경우입니다. 기계계열이 아무리 취직이 잘 된다고 한들 취직은 학교 이름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공부한 만큼 성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많다는 등 공대 도서관에 대한 로망이 가득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공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와야 합니다. 제 주변에는 단순히 차가 좋거나 비행기가 좋아서 온 사람부터 성적에 맞춰 온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서 온 사람을 흥미가 없는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단순히 취직이 잘 된다고 지원했다가 뒤늦게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도 많고 매일 먹고 놀고 마시는 나날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공대는 강력한 지원동기가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역학 과목들(고체역학, 정역학, 동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등)과 CAD(2D CAD와 3D CAD)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든 과목들에 흥미가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드물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흥미를 가져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다.

TOEIC은 고등학교 때나 1학년 때부터 들고 도는 비싼 인터넷 강의 광고들을 보고 괜한 자신감에



사로잡혀 사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 가격 대비 무의미합니다. 도서관에서 TOEIC 책을 일주일 정도 빌리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문제 유형만 훑어보고 한 번 즈음 시도해보세요. 공인어학성적이 있을 경우 학교 내부의 어학 프로그램 참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성적이 좋은 경우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공대 2학년에 TOEIC을 딸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데 비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매우 많아집니다. 짧게 2주~4주 사이에 모든 것을 끝마치고 모의토익을 치세요. 개인적으로는 1학년 2학기 초나 말에 추천합니다. 1학년 1학기에는 적응하기 바빠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 참여는 나중에 교환학생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우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동아리는 최대한 많이 알아보세요. 발명 동아리 등은 1학년들만 모집하는 경우도 다양하고 금방 모집이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친목 동아리(운동 동아리 등)은 선후배 관계를 많이 만들기 좋은 자리이며, 학술 동아리는 동아리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친목 동아리 같은 경우도 있고 정말 공부를 위해 모인 동아리도 있습니다. 학술 동아리는 선배들에게 학업적인 내용의 교육 요청을 요구할수록 더 도움이 됩니다. 또 동아리에 사람이 많고 동아리방이 넓을수록 편리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동아리를 가입하면 이도 저도 아닌 박쥐 꼴이 되거나 회비에 돈이 너무 많이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또 동아리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학과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황의준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교시절 저는 자동차를 좋아했습니다. 자동차는 한 가지 학문이 아닌, 여러 가지 학문이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기계장치입니다. 그 중 기계와 전자에 대해서 배우는 기계시스템공학과가 매력에 빠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정시전형과 논술전형을 준비 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교과과목에 충실하였습니다. / 확신이 없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대입준비과정에서는 항상 스스로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얻어지지 않다보니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의문과 함께 항상 날이 서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봐주신 은사님께서 추천하신 책을 읽고 화를 많이 다스렸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입시설명회를 많이 갔습니다. 원하는 학교든 아니든 입시설명회를 많이 가면서 학교별 입학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그 이후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데이터화 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논술 동아리를 활동하면서 당시 시사적으로 주목되었던 사건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 사고력을 기르고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수학, 물리**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시키는 삶에서,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우리학교는 매우 무난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입결도 높지 않은 편이고, 사람들의 기대감도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학 중인 저는 우리학교에 대한 높은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Formula라는 장르인데요, 일본에서 열리는 2018SFJ 팀의 팀장으로서 수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기계계열 학과는 공통적으로 역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기계시스템공학과는 ‘전자와의 융합’



에 대해서 배웁니다. 바로 메카트로닉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기계과 + 전자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열’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는 결국 모든 기술이 ‘에너지’ 중심으로 개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 ‘열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많고, 앞으로 발전분야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일반기계기사, 냉동공조기사

□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집이 어려워 살면서 사교육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양승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좀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는 없을까?’하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항공기 사고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항공기는 어떻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을까?’, ‘무겁고 빠른 항공기가 착륙할 때 어떻게 제동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연쇄적인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항공정보를 모아둔 블로그를 비롯하여 여러 매체를 통하여 자료를 찾아보곤 하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항공기에 대한 궁금증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신분으로는 학업을 하면서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여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고민이 많을 고3 수험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먼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과선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저도 학과선택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재학 중인 기계공학과보다 저는 산업경영공학과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학교생활기록부는 기계공학과 내용들로 채

워져 있었고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을 조금 일찍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계공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갖게 되는 만큼 취업이 빨리 될 것이고 그러면 제가 원하던 대로 결혼도 일찍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특별하지 않은) 이유로 기계공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학하게 됐고 학과수업을 들어봤는데 이 전공도 저와 잘 맞다고 느껴졌을 뿐 아니라 R/C비행기를 제작하는 기계공학과 내의 동아리활동을 통해 비행기의 매력에 더욱 더 빠져 항공우주공학기술자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과를 희망하는 이유는 제각각인데요. 오히려 정말 학과가 잘 맞아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더 소수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 입학 후에 새로운 흥미를 가지고 새 진로를 가질 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과 선택에 있어 고민하고 있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넓은 폭에서 선택을 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학과선택부터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두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자’ 입니다. 2학기에 들어서면 대입에 필요한 내신이 모두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최저등급이 없는 전형만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야자를 하지 않고 집을 가는 친구가 있다거나 노트북을 가져와 자소서나 면접 준비를 한답시고 탄짓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을 거예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잘하다가도 이 시기에 노는 분위기에 휩쓸려 공부도 안하고 자소서도 계속 뒤로 미루다가 본인의 능력보다 못한 대학을 간 친구가 정말 많은데요. 본인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인의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말자’ 입니다. 9월이 되면 여러분들은 수시원서접수를 하시게 될 건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대학결정에 있어서 부딪힐 일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제 기준에 맞춰 6개의 대학을 모두 정했는데 선생님은 안전하게 대학을 더 낮춰서 지원하라고 하시고 학생부교과전형을 몇 개 더 적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 대학을 밸런스 있게 잘 적은 것 같았고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 없이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됐어요. 선생님들은 매년 여러분 같은 학생들을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정보다 옳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의 말씀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랍니다. 선생님의 말씀도 좋지만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선택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본인만의 컨디션 조절 방법을 찾자’ 입니다. 저는 긴장을 많이 하고 멘탈이 좋지 않은 편이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수능 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너무 긴장해서 문제를 못 풀면 어떡하지, 면접을 볼 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떨면 어떡하지 하는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을 찾았는데요, 컨디션을 좋게 유지했던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유지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었어요. 수능과 면접 한 달 전쯤부터 자기 전에 시험을 치고 면접을 하는 과정들을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더니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본인만의 컨디션 조절방법을 찾아 성공적인 입시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다른 학교의 기계공학과는 대체적으로 배, 자동차, 비행기 분야로 특성화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동아대학교는 취업의 분야를 넓히기 위해 특성화가 있긴 하지만 강조를 하지는 않고 다양한 분야에 모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그 덕분에 취업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컴퓨터설계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자동차, 배, 비행기 모든 분야에 쓰이는 지능형 로봇제작, 스마트 팩토리 설계인력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와 전공과목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고교 교과목은 미적분과 물리입니다. 실제로 이 두 과목의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기에 고등학교에서 이 두 과목의 기초를 탄탄히 쌓아 두신다면 대학교에 와서 수월하게 공부를 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계공학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추천하면 데이비드 맥컬레이의 '도구와 기계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도구와 기계의 원리를 그림과 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기계 공학을 공부할 때 핵심이 되는 원리를 알고 공부를 한다면 내용이 훨씬 쉽게 받아들여지기에 이 책을 추천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해봐야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본인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가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도전해서 혹시나 좋지 못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도전을 꺼리는데요, 여러분은 아직 어리기에 무언가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 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좋은 경험으로 남기는 겁니다. 다음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여러분을 점차 성장시켜 나가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해보세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 황진성



대부분의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저와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딱히 하고 싶은 일이나 정해진 진로 없이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온 수능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찾아보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실습 위주의 학과과정', '높은 취업률'이라는 문구를 보고 입학を決정하였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입학하였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정이 없었고 그로 인해 캠퍼스에서 할 수 있었던 동아리나 학과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으며 학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의미한 학교생활을 이어가다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도

남들과 비슷하게 군대에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 샌가 제 미래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기계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전공 수업을 듣고 그에 맞는 소양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입학할 당시 보았던 문구가 단지 말뿐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학교는 정말로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고등학교 동창들 중 대부분이 기계공학부에 진학하였지만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학교만큼 실습을 많이 하는 학교는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수업시간에 선반이나 밀링 등의 기계를 통해 재료를 가공하는 실습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직접 용접하는 수업을 실시합니다. 또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설계를 하고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이프의 유체 흐름 등을 해석하며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론만이 아닌 실제 실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려는 학교의 교육방식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습 위주의 공부를 지향하다 보니, 타 학교에 비해 저희 학교는 산업분야에 쓰이는 많은 고가의 장비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 주도하에 직접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쩌면 평생 만져볼 기회가 없는 다양한 기계들을 한번이라도 직접 다뤄보는 이러한 점들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동시에 정말 많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기계공학부는 4대 역학을 기반으로 기계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며 설계, 제작 등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합니다. 4대 역학에서 파생되는 전공들이 많기 때문에 졸업 후 진로도 정말 다양합니다. 본인의 적성과 성향을 잘 알고 미리미리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해 나아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이 확실하지 않아서 학부 생활동안 계속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높은 취업률'이란 슬로건에 맞게 우리 학교의 취업 지원팀이나 각 학과의 기술 연구원 선생님들께서 많은 상담과 조언을 통해 진로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특히나 다른 학과와는 달리 기계공학부에는 3개의 전공이 있는데,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 자신의 전공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이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전공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계공학부에서 다루는 학문은 수없이 많아 전공을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을 정하기 전에,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선택적으로 듣고 그에 맞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랩(Lab)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랩에선 교수님의 전공에 따라, 혹은 본인의 관심 분야에 따라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해줍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3, 4학년 동안 본인이 취득한 전공 지식을 이용해 졸업 작품을 만드는 것도 본인의 커리어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과의 특성상 모든 산업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고 그것에 맞는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플랜트까지 이어지는 큰 스펙트럼 내에서 저희 학교선배들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졸업요건인 기사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준비하는 모습들이나 학교 내의 여러 전공 관련 동아리(드리븐, 자연인)에서 스펙을 쌓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저는 자동차 분야에 관심이 많지 않지만 자동차 분야로 나아가려는 선배들이 동아리 내에서 스스로 자신이 꿈꾸어 오던 자동차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직접 제작해 여러 대회에 나가 입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갖춰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계공학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직장을 가는지가 기계공학부 학생들의 주된 고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직장, 다시 말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가'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내 진로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그리고 그런 경험을 쌓음에 있어서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선·해양공학

조선·해양공학 분야는 기초과학을 토대로 하여 기술적인 문제를 공학적으로 구현하는 응용과학이며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생산, 건조, 운용, 개발 등을 연구하는 분야로, 주요 교육내용은 용접구조설계, 선체추진기설계, 생산시스템공학, 선박진동학, 해양구조물설계, 선박조종제어공학, 구조진동설계, 해양환경설계, 음향소음공학, 선박동력장치 등이 있다.

동아대학교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 이효란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선택)하게 된 이유(계기, 동기)는 무엇인가요?

대학교에서 주관한 창의공학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공학의 분야 중 현재 한국의 조선 산업이 세계 1위이지만 해양플랜트 설계 인재들이 부족하여 외국 선주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가 이 분야의 대표가 되어 한국의 조선 산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여 해양플랜트공학과에 흥미가 생겼고 그 흥미를 살려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바뀌게 된 꿈이어서 그런지 시작하는 부분부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체험하고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한 기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칼럼들을 모아 읽고 스크랩을 하기 시작했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뉴스나 인터넷 기사들을 많이 접하였고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양의 지식을 얻게 되었고, 흥미로워 하던 내용들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 동아대학교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를 소개해 주세요.

동아대학교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는 설계, 생산, 건조, 운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 육성과 다양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학문입니다. 동아대학교는 두 가지의 차별화된 전략을 두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해양플랜트 설계를 위한 화공과 기계 교과목 중심의 학제 편성 및 운영, 두 번째는 산업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수진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론 뿐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을 뛰어보며 경험을 쌓는 실무형 인력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지향합니다.

□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는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넓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세계 최고의 조선업체와 STX조선, 한진, 대선, 성동조선, 중소기업의 조선과 해양플랜트 설계회사, 조선기자재 산업체, 국가연구소의 설계기술자와 연구원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를 무사히 졸업 후 중공업에 취직하여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최종적으로 국가 연구소의 설계기술자 또는 연구원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항공·우주공학

항공·우주공학 분야는 첨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항공우주, 항공기계, 항공운항 등의 원리 탐구와 그 응용 대상으로 항공기, 무인기, 우주추진 발사체, 인공위성, 유도무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기역학, 공력소음, 항공기구조역학, 항공우주추진, 비행역학 및 제어, 연소공학, 우주역학 등이 있다.

극동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손규림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무엇인가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한 전형은 모두 수시였습니다. 교과와 종합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항공운항학과는 면접이 없는 곳이 없어서 면접위주로 준비를 하였고 내신 성적이나 생활기록부(봉사, 수상내역, 출결, 동아리, 여러 가지 활동)은 평소에 성실히 해두었습니다. 입시준비를 할 때 갑자기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 면접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근처에 면접 학원이 없었고 주변에 항공운항학과를 지원한 학생들도 찾기 힘들었으며, 담임 선생님 뿐 아니라 다른 선생님께서도 도움을 주시기 어려웠기 때문에 순수 혼자 힘으로 준비했습니다.

보람 있었던 것은 열심히 준비한대로 면접을 잘 보고 면접장에서 나와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담임 선생님께 전화 드려서 면접 잘 본 것 같다고 말씀드렸을 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면접을 피할 수 없는 학과에 지원하였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본적이 없는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막막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예비조종사, 수험생 커뮤니티나 카페에 가입하여 인터넷에 있는 항공운항학과 면접 합격자들의 면접후기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전공, 교양, 영어 면접의 기출문제들을 직접 파일로 만들어서 답변을 스스로 작성하고 또박또박 읽어보는 식으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공활동은 제한적이고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개최하는 대부분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기록부를 최대한 두껍고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행기에 관련된 활동이 없어서 산림청 헬기 격납고에 있는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으로 항공활동을 만들어 활동했던 점이 힘들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위에서 언급하였듯 힘든 과정들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한 면접 준비와 성실한 학교활동을 하면서도 성적을 놓치지 않았고 조종사가 될 그 날을 떠올리며 항상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항공운항학과에 입학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모두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파꿈모(파일럿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카페는 각 학교 항공운항학과 재학생들이 운영하며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면접후기들을 철저하게 읽고 자료는 면접 후기들과 재학생들의 조언을 토대로 직접 기출/예상 면접문항들을 만들어 스스로 저만의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먼저 면접 준비는 합격생 및 면접을 본 학생들이 인터넷에 남긴 후기를 보고 면접 분위기나 질문방식, 교수님별 특징을 파악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저는 지원한 학교의 교수님 이력을 모두 살펴보고 재학생들과 연락을 해서 교수님들의 특징과 받았던 질문들을 파악하였고 각 교수님마다 강의시간에 자주하시는 말, 좋아하는 말들을 넣어서 면접답변을 만들었고 연습했습니다.

입시가 끝나고 파일들을 정리하며 확인해보니 대충 600문제가 넘었습니다. 시사문제의 경우 한 해 동안 있었던 큰 사건을 중심으로 뉴스기사와 사설을 읽어 나가며 예상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시사문제는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항상 발생하는 이슈도 나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저출산 문제나 고령화 문제 등 광범위한 주제들을 5개월 동안 꾸준히 다뤘던 것 같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자기소개서 역시 각 학교 재학생들이 썼던 자기소개서를 먼저 수집했습니다. 파일럿을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카페에 가면 각 학교 메뉴를 담당하는 재학생들이 있기에 연락을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소개서를 받아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형광펜으로 꼼꼼히 자기소개서에 쓸 만한 내용에 밑줄을 그었고, 최대

한 항공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한 활동으로 보이는 활동을 담임 선생님과 엄선하여 주제를 고르고 쓰고 수정받고 쓰고 수정받고를 반복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우선 제가 읽었던 도서들은 모두 항공/국가/안보와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하늘, 비행기, 그리고 사람들, 비행의 시대, 나는 하늘을 날고 싶다, 하늘의 개척자 라이트형제, 파일럿의 특별한 비행일지, 하늘에 도전하다, 역사에 남을 유명한 비행기들, 나의 아름다운 비행, 하늘을 꿈꾸는 자, 전투조종사, 대한민국 공군의 이름으로, 스몰아홉의 꿈, 서른아홉의 비행, 하늘에 새긴 영원한 사랑 조국, 비행기 상식 사전, 파일럿의 진로탐색 비행, 위대한 연설 100 등 더 많지만 대표적으로 이 정도의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는 항공지식 동아리를 만들어 알지만 여러 가지 항공 상식들을 다루어 기초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산림청 헬기 격납고 뿐 아니라 현혈, 요양원봉사 및 교내봉사까지 총 50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나는 수년간 원했던 간절함,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열정 있는 답변들이 교수님께 잘 전달이 되어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하늘, 비행기, 그리고 사람들, 비행의 시대, 나는 하늘을 날고 싶다, 하늘의 개척자 라이트형제, 파일럿의 특별한 비행일지, 하늘에 도전하다, 역사에 남을 유명한 비행기들, 나의 아름다운 비행, 하늘을 꿈꾸는 자, 전투조종사, 대한민국 공군의 이름으로, 스몰아홉의 꿈, 서른아홉의 비행, 하늘에 새긴 영원한 사랑 조국, 비행기 상식 사전, 파일럿의 진로탐색 비행,

□ 극동대학교 항공운항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1학년 때는 항공우주학개론을 바탕으로 한 기초전공 수업으로 기초적이고 얇은 지식들을 다루고 영어중심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학년에 올라가거나 비행실습에서 영어가 발목을 잡지 않게 미리 교육을 합니다.

2학년 때는 Private Pilot Manual이라는 본격적인 전공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Level6 급 시뮬레이터 탑승을 통하여 비행절차를 익히고, ATC(Air Traffic Control)이라는 항공관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3학년 때는 Instrument Commercial Manual이라는 계기비행에 관련된 전공서적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다가서고 비행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기에 시뮬레이터를 통하여 좀 더 세밀한 비행조작과 기술 그리고 절차 등을 익힙니다.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한서대학교 Main Ramp에서부터 시동을 걸고 훈련공역에서 실제 비행에서 하는 기동들을 미리 연습하고 착륙하기까지 입출항 절차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훈련을 한 후 3학년 2학기에 비행실습을 하게 됩니다.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 1학기까지 1년간 하는 비행훈련에는 자가용면장, 계기한정,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까지 3가지를 포함하고 있으면 비행시간은 200시간 안팎으로 측정이 됩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입학 전에는 항공운항학과만 오면 조종사가 되는 줄 알고 허세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목을 입고 몇 부릴 생각과 이미 조종사가 된 것처럼 거만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입학 후에는 어려운 전공수업과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교수님을 만나면서 겸손해졌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고 더 노력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자리 잡고 있던 허세와 자만심은 곧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학교든 조종사가 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항상 노력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점을 배운 것 같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얼마 전 1기 선배님이 처음으로 민간항공사 부기장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입사준비를 앞두고 있는 많은 선배님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매년 전투기, 수송기, 헬기 조종사 선배님들이 학과를 빛내주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또한 한국항공대학교 울진비행교육원과 학점교류협력을 체결함으로써 3학년 때 울진비행장 항공대비행교육원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극동대학교도 항공운항학과 후발 주자로서 많은 조종사가 배출됨에 따라 학과가 무한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제 목표는 공군조종사이기 때문에 공군조종 장학생 프로그램에 가장 몰두하고 있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면 저도 고등학생 때 많은 오해를 했었고 많은 분이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항공운항학과에 온다고 해서 모두 조종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사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졸업과 동시에 항공사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문구로 입시생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광고를 하는 학교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항공사는 통상 만 28세부터 조종사를 채용하며, 남학생의 경우 정상적으로 군대를 다녀오고 졸업을 한다고 하면 26세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졸업과 동시에 에어라인 조종사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항공기를 많이 수용하는 태안비행장의 경우에도 비행시간은 1년에 200시간을 넘기 힘듭니다. 눈, 비, 안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기상 변화를 반영하여 많은 항공운항학과는 여러 비행장에 비행교육원을 두고 비행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1. 울진비행장 : 울진 비행장 항공대비행교육원의 경우 항공대학생, 일반인과정의 일반인, 극동대생 일부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2. 태안비행장 : 한서대와 극동대 학생들이 비행하고 있으며 공중에서 훈련하는 일정한 패턴에 항공기를 7대~9대 수용을 하며 외부 민간항공기는 내리지 않습니다.
3. 무안공항 : 민간훈련업체와 많은 운항학과가 훈련 중이며 훈련 패턴에 3대정도 수용하고 있으며 민간항공기까지 이착륙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광고들을 믿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비행시간이 많고 항공사가 원하는 비행시간을 채웠다고 해서 취업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행시간은 원서를 쓰기 위한 최저 조건일 뿐 모두가 똑같은 토익점수와 유창한 영어실력과 비행시간을 충족합니다. 300시간이상 훈련항공기를 탄 사람이면 비행스킬도 유사해 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변별력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간 공부한 학술실력이 학술면접에서 그대로 나타나기에 학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변별력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입학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행을 일찍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학생들이 많아서 씁니다. 입학하자마자 비행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뿐 아니라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비행을 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대부분의 Control은 교관이 하여 학생에게 남는 건 없고 그저 관광비행이 될 뿐일 것입니다. Cessna-172 항공기의 경우, 비행훈련비가 1시간에 30만원 안팎입니다. 당연히 Solo Flight나 자가용면장 취득시간은 확실히 배우고 비행훈련을 하는 학생과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분야는 크게 육해공 조종사와, 민간항공사 조종사, 교관으로 나뉩니다. 극동대 졸업생들은 공군에서 F-4, F-16, C-130, HH-60 등을 타고 공군조종사로 복무 중이며, 그 외에도 육군과 해군 조종사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민간항공기 조종사로서는 1기 졸업생이 2018년



1호 조종사가 되어 에어부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울산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 교관들과 한서대학교 태안비행장 교관으로 근무하며 타임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1학년 2학기에 항공무선통신사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비행훈련을 하고부터 취득할 수 있는 자가용조종사 면장, 계기 한정, 사업용조종사 면장 등은 재학 중 취득 가능한 자격입니다. 저희학교 학생들의 경우 비행훈련에 가서 비행에만 집중하기 위해 훈련을 가는 3학년 1학기에 자가용, 사업용 필기시험을 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합니다. 이 또한 우수한 학술 실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조종사라는 높은 목표를 향해 항상 낮은 자세로 열심히 배워 하늘 길을 오가는 조종사가 되어 공항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대학교 항공정비학과 김정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직한 땀을 흘리며 일할 것이다.’라는 저의 신념은 저희 극동대학교 항공정비학과에 너무나도 알맞은 신념이었습니다.

항상 모든 사물을 직접 만져보고 특히 분해, 조립을 해보며 작동원리를 알아내는 것을 좋아하던 저의 성향이 지금의 ‘항공정비학과’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작은 사물이 아닌 좀 더 커다란 사물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욕심이 커졌습니다. 현재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항공정비학과’는 여러 사람의 목숨을 보장하는 책임감이 막중한 전공이며, 저의 성향과 적성이 잘 맞는 전공입니다. 또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항공사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저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준비한 과정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남들과는 다르게 정원 외 특별전형인 ‘특성화고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였습니다. 면접과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교과) 입학하였습니다.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학교 입학홈페이지와 저희학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 내신관리와 동아리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반드시 항공관련 동아리가 아니어도 기계관련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셔도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학과와 유사한 다른 학교, 학과에서 실시하는 전공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한 면접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접은 전공질문이 아닌 교양질문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질문은 매우 간단했으며 교수님 2분과 저 1명 이렇게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면접을 조금 긴장하며 봤지만 긴장한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확실한 저의 생각이 담긴 답변을 교수님께 전해 드렸고, 이 점이 제가 합격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극동대학교 항공정비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저희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전공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 한다면 수학, 물리, 영어가 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학과 물리는 공학계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며, 영어는 요즘 시대에 어느 전공을 선택하든 필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항공사 공개채용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조건이 TOEIC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교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차후에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학교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도 유사한 학과가 많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만의 특별한 점이라면 항공기를 정비하는 skill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전반적인 설계/계발을 위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강하기 1달 전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군예비장교' 시험을 대비한 몰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학과는 학교에 '항공정비 실습동'이 있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현재 제가 몰두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은 자격증과 TOEIC점수입니다. 자격증은 '항공정비사 면장', '항공정비산업기사' 등 많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비사면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TOEIC공부를 통해 점수를 올려 경쟁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의 저와 현재의 저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학이라는 작은 사회에 들어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저의 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교수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느낀 것이 매우 많습니다. 예전의 저는 대입이라는 문턱을 넘는 것이 끝인 줄 알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문턱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노력해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문턱을 조금 더 빠르고 쉽게 넘는 데에 극동대학교 항공정비학과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졸업 후,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과의 역사는 약 10년 정도로 그리 깊지는 않습니다. 학과 창설 초기에 계셨던 선배님들은 대학교 재학 중에 '공군예비장교' 시험을 본 후 졸업과 동시에 바로 임관하셨습니다. 현재는 공군장교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기술훈련원, LCC(Low-cost carrier, 저가항공사)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하신 선배님들을 생각해보면 TOEIC점수나 자격증(항공정비사면장)은 필수로 취득하였습니다.

지금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취업할 시기에는 지금 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항공정비사'라는 직업은 절대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직업입니다. 인간만의 섬세함과 꼼꼼함은 로봇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저희 '극동대학교 항공정비학과'를 선택하신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항공산업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초당대학교 드론학과 우승완**□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드론이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 융합체입니다. 드론의 인기가 많아지고, 새로운 분야라는 점에서 전망이 좋아보여서 드론학과를 선택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드론학과는 공학에 가깝다 보니 수학, 물리학, 역학 등을 다룹니다. 저는 문과출신으로 공학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문과 수학 정도의 지식만 있으면 수학을 따라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리학 또한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수업만 잘 들으면 충분히 따라갈 정도입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c언어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은 괜찮지만, c언어가 어려워서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드론학과라고 하면 드론을 많이 날리는 이미지이지만, 그렇게 많이 날리지 않습니다. 학교 강의 중에 드론을 날리는 강의는 1학년 1학기에 있었던 수업 이후, 현재인 2학년 1학기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드론의 비행은 알고리즘으로 사람 한명이 1000대의 드론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비행만 많이 하는 것보단 프로그램이나 드론의 코드를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드론학과는 2017년 1기생들이 입학했기 때문에 아직 졸업한 선배들은 없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있는 진로분야에는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비행교육원, 산업체, 대학원 및 연구소, 국방관련 분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 해군 공군 학사장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대학원 진학을 위해 대학원을 알아보고 공부를 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만약 후배들에게 기억이 된다면 성공한 선배라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제 이야기를 하면, '아 그 선배님'하면서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드론의 상용화가 시작되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사용된다면 안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현재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드론을 날리면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드론이 상용화가 된다면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비행을 할 것입니다. 누군가 악의를 품고 드론을 해킹해서 추락을 시키거나, 군사용 드론을 해킹해 시민이나 군인을 공격한다면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킹과 드론은 떼어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욱 안전한 드론을 위해 해킹 기술을 배워서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싶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가 있고, 항공무선통신사가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사람은 교내 비행교육원에서 자가용조종사(PPL)을 딸 수 있고, 개인이 공부를 해서 항공교통안전 관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와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드론학과는 아직 2년차고, 구성원 대부분이 남학생이라 첫 졸업생이 나오려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과의 평가는 아웃풋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웃풋을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학교 지원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학교의 단점이라 하면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점이지만 오히려 이 점이 공부하는데 더 좋다 생각합니다. 보통 대학교에 와서 노는 분들도 있지만 대학은 고등학교와 달리 공부하려면 엄청난 공부를



할 수 있고, 놀려면 엄청나게 놀 수 있습니다.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드론학과는 충분한 미래가 있고, 더욱 성장할거라 믿습니다. 드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드론학과를 추천합니다. 대형 고정익 드론을 날리려면 활주로가 필요한데, 저희 학과는 산이면 비행장에서 고정익 드론을 날립니다. 또한, 타 학과와의 복수전공이 자유로워서 원하시는 전공을 추가로 배우기 좋습니다. 비행기 조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학교 비행교육원에서 교육비 납부 후 비행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른 학교와의 차별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들어오실 훌륭한 후배님들께서 학과를 더욱 발전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당대학교 드론학과 장환석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학 분야의 전공 중에서 골랐지만 드론학과라는 이름이 제 흥미를 끌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다르게 융합분야로서 역학적인 움직임 이외에 것들을 더 많이 접할 기회가 생길 것 같았고, 실습적인 부분에서도 지상에서보다 공중에서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이 더 많은 도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드론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 초당대학교 드론학과를 소개해 주세요.

드론학과의 최대 장점은 융합학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드론을 배우는 것이 아닌, 드론을 설계하면서 역학의 이해를 통해 구조를 설계하고, 전자 공학적 지식을 통하여 무인기에 전력 공급을 계산하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드론을 제어하는 것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또한 학교에선 항공학과와 연계하여 항공분야에 대하여 배우고 싶은 만큼 익힐 수 있다는 것이 장점 같습니다.

전공에 도움이 될 만한 교과목은 수학 또는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공학이다 보니 수학이라는 과목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기본적인 삼각함수, 미적분을 모른다면 수업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자체에서 드론제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외국 블로그나 포럼을 통하여 전공과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영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 전후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대학은 노력하는 만큼 따라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지방에 위치한 대학이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노력하려는 열정이 있다면 교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시기 때문에 더욱 더 큰 열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과 동아리를 통하여 전공 지식 외에 취미적인 부분이나 더 깊은 부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과 동아리에서는 취미용 드론을 제작하고 대회를 나가거나 촬영용 드론을 통하여 구도를 잡고, 촬영하여 대회를 나가거나 홍보영상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센서를 이용한 드론을 만드는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론학과라 하면 조종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저희 학과는 드론 제어와, 설계를 배우는 학과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졸업 후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아직까지는 졸업한 선배가 없지만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해서는 대충 예상이 가능합니다. 융합 학과인 만큼 어느 분야를 더 공부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드론 운용관리를 개발하여 드론을 이용한 작업에서 관리를 하거나, 드론 소프트웨어인 비행 컨트롤러 개발, 그리고 드론의 비행효율을 높이기 위한 엔지니어로 나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제어기술을 통하여 석사, 박사를 취득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군에 들어가 무기를 제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은 센서제어와 비행컨트롤러 개발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드론 개발입니다. DJI라는 큰 회사가 드론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술을 가진 한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공부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파고 드는 능력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도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학교에 진학할 학생들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당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정민호 

□ 학과, 전공 선택 이유

어릴 때 비행기를 타면서 조종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매우 멋있었고, 큰 비행기를 조종해 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조종사에 대해 찾아보니 사회적 인식과 미래에 가치가 있을 직업이었다.

□ 대입 준비방법

대학입학은 크게 정시와 수시가 있다. 나는 수시와 정시 둘 다 준비했고, 준비라고 하면 학교 내신시



힘도 결국 수능 시험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차분히 정시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시 준비도 되었다. 공부하다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나중에 조종사가 되어있을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았다.

자료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필요한 것은 없고, 수능점수를 잘 받아야 하므로 수능 위주의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였다. 자기소개서는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있고 한데, 그 형식을 따라하기 보다 나만의 형식으로 거짓없이 진솔하게 썼다. 면접은 학교 별 면접 예상 질문들이 나와 있다. 그 질문들을 기준으로 답변을 준비하여 면접 때 활용하였다. 또, 영어면접도 있으므로 영어로도 준비해 갔다.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영어와 평소 관심이 많았던 항공기에 대한 내용이 면접에 나와서 자신있게 잘 대답한 것이 합격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사실 전공과목에 도움 되는 책이나 내용은 현재 고등학생이라는 입시를 앞둔 학생의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수능준비를 하는 것을 매우 추천하지만, 굳이 추천도서라고 한다면 공부하다가 힘들거나 지칠 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나의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책을 추천한다. 또, 교과목으로는 본인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이 또한 굳이 꼽자면 조종사 과목에 있는 항공기상과 관련된 지구과학을 추천하는 바이다.

우리 학교는 현재 많은 기관과의 MOU 체결과 선배·교관으로의 진출로 이미지가 향상되고 있고, 이를 알고 지원하는 친구들도 많아져서 학교 입시결과 성적 또한 상승하는 추세이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CTL(선배가 후배를 알려줌)을 통해 후배들에게 모르는 부분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고, 항공운항학과의 홍보부장으로서 학과를 홍보하는데 힘쓰고 있다.

요즘 뉴스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행 낭인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초당대학교 항공운항 학과는 나라에서 선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학생 때 연계과정으로 취업이 안 되더라도 교관과정이나 시간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항공사와 연계된 과정을 통해 취업의 길이 많이 열려져 있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당연히 항공사의 부기장이며, 친근했던 선배들이 수백 명이 타는 항공기를 맡아 비행한다는 사실에 부럽게 느껴진다.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항공기 엔진 분야로, 나중에 조종사가 되었을 때 내가 조종하는 항공기의 모든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신체검사(화이트카드), 토익, 토익 스피킹, EPTA, 항공무선 통신사, JET RATING, B737또는 A320 Rating,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 계기비행 자격증,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 다발 자격증 등이 있다.

□ 꼭 하고 싶은 말

파일럿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겹치는 의견이 하나가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든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유에는 힘들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고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직업이지만, 참고 견디다보면 끝에는 누구든 간에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종사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은 입시 준비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다보면 결국 원하는 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공부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좋겠다.



자동차공학

자동차공학 분야는 친환경, 고안전 및 지능형 미래 자동차 기술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동차 구동학, 제동시스템, 차량동역학, 샤시, 차체설계 등의 각종 자동차 설계 및 제조에 관련된 응용공학을 연구하는 분야로, 주요 교육내용은 자동차재료학, 내연기관, 자동차음향 및 진동제어, 자동차설계학, 차량동역학, 자동차환경공학, 파워트레인설계, 대체에너지공학, 자동차구조해석, 지능형자동차 등이 있다.

영남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박동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계공학을 대학교 전공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외에도 관심 분야가 좀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남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에서 기계공학을 배우면서 디자인 분야까지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자동차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알아볼수록 기계공학을 베이스로 하면서 소음진동, 프로그래밍, 산업디자인까지도 연계해서 학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환경이 저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늦게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고등학교 시절과 대입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 있었고 심지어 수능 과목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대학생이고 수험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저의 근처에는 없어서 수험관련 정보를 받아보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시 교육청에서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졸업한 고등학교에서도 관련 정보를 많이 받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지 받은 정보도 많았지만 고3시절 담임 선생님께서 정시 상담부터 대학교에 진학한 다른 친구들에 대한 정보와 분위기 등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시에 대해서는 이리저리 많이 발품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시한 1대1 집중 상담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성적을 분석해서 어떤 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가에 따라서 어떤 학과를 지원할 때의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 영남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우선 신설과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상당합니다. 전공 관련 체험활동이 많습니다. 완성차 공장탐방 각종 대회를 탐방참가 및 견학, 세부적인 요소(엔진, 서스펜션, 3D프린팅을 통한 기계요소 설계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견학 및 특강 등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해외탐방 지원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과 전공수업도 자동차공학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프로그래밍에 배울지라도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자율자동차에 대한 정보까지도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도 자율자동차 동아리를 들어가기 위해 프로그래밍과 기계적 사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 기계과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같은 창의설계입문과목을 듣더라도 기계과는 범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웠다면 저희 자동차기계공학과에서는 레고 마인드스탐을 이용해서 코딩까지도 합니다. 코딩을 통해 색인식을 통한 도로판별, 각종 센서의 정보처리를 통한 장애물 인식 등을 구현해 냅니다. 이 외에도 같은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더 IT적인 요소가 첨가된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졸업 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1기 학생이라 아직 졸업한 선배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과는 자동차공학에 필요한 엔지니어부터 다양한 기계관련 엔지니어 인력이 양성이 주된 목표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저의 모습은 기계공학과 프로그래밍의 조화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대학교를 23살에 입학했습니다. 매년 수험생중 상당수가 n수생입니다. 저의 수험생활을 되돌아보더라도 수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전형일지라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도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영남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박민지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기계공학과에 진학하여 자동차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입준비를 할 때 자동차기계공학과라는 학과가 새로 생겼고, 이 학과에 들어오면 자동차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동차기계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제 성적에 맞는 학교와 전형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부모님의 지인 중 실제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열리는 입시설명회와 엑스코에서 개최한 대학박람회 찾아가서 대입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대학박람회에 개인 상담을 신청하여 제 성적에 맞는 대학교와 전형을 찾고, 박람회에 있는 그 대학을 찾아가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대입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전형은 교과, 종합, 논술, 면접, 적성입니다. 논술과 적성은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년도 자료들을 모두 모아 풀고, 어떤 식으로 풀이를 적어나가야 할지 공부하였습니다.

종합 및 면접은 우선 대학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교 및 학과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마다 여러 소재로 이야기를 쓰고 그 중 가장 괜찮은 것을 모아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면접은 친구들과 가고자하는 학교의 면접질문 리스트를 모아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선적으로 연습하고, 그 외에는 각자 원하는 학교의 면접을 연습하였습니다. 면접장에 실제 들어가면 너무 긴장해서 준비한 만큼 대답을 잘 못할 수 있으니, 갑자기 질문을 받아도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남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저희 학과에서는 기계를 다루는 교과목을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의 기본원리에 관해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 진학하고 자작자동차 동아리에 관심이 생겨 가입하였습니다. 동아리에서 파트별로 직접 설계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습니다.

□ 졸업 후 기대되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국내 차량 생산 회사 및 부품 회사에 진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래밍 분야를 공부하여 it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작자동차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을 실제로 적용시켜보는 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자동차 기계 공학과라고 해서 배우는 것이 자동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용적인 기계공학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에서는 기계와 it적인 요소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심화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장점으로 작용하며, 아직 정확한 진로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과입니다.」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장승보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이하 미자공) 3학년 재학 중인 장승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에 재학 중, 입시를 다시 치르고 우리 학교에 입학한 케이스입니다. 그 전의 학교를 포기하고 미자공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로, 학과 적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입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시를 준비할 때는 자동차와 관련된 전공들에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과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 기존의 자동차 산업에서 미래의 자동차 산업에 더 집중해서 가르치겠다는 학과의 커리큘럼 때문이었습니다. 기계공학, 전자공학을 나눠서 배우지 않고, 두 전공을 모두 다루면서 자동차 산업에 맞추어 적응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막연히 물리를 좋아했던 학생이었지만 처음 대학에 입학한 후,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이동수단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성장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또 이전부터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두 번째 입시에 결국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에 지원했고 운이 좋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나이가 있다 보니(저는 13년도, 14년도 입시 지원자입니다ㅎㅎ), 지금과 같이 학생부(교과/종합) 같은 전형들을 통해 입학하지 않고, 지금은 사라진 미래인재전형(입학사정관제)을 통해 입학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형이 최근의 학생부 종합 전형과 거의 유사하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무게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평준화 일반고를 졸업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준화 일반고교 졸업자 중, 저와 비슷한 성적, 비슷한 느낌을 가진 학생들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러므로 입시를 치를 때, 제가 돋보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전체 내신은 조금 모자라지만 수학과 과학 과목에 강점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전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특기자전형(수학, 과학 심층면접을 통해 학생 선발)과 입학사정관전형이 제게 맞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중,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교내 로봇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운이 좋게도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선생님께서 관련 직장 경험이 있으셨고, 신설동아리여서 알찬 활동들을 기획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그곳에서 활동했는데요. 그 3년간, 휴머노이드 로봇, 마인드 스톱 로봇, 창작로봇 등 여러 종류의 로봇들을 제작했습니다. 대회에 나가 로봇들을 출품하면서 심사위원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많은 대회들에 참가하면서 약간의 수상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소개서에 수상과 관련된 내용은 답을 수 없었기에, 제가 만들었던 로봇들의 특징들을 언급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의 꿈은 경영인인데요, 기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적극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경영인이 되겠다는 꿈을 고등학교 때부터 키워고 있었습니다. 그 꿈과 관련되게끔, 고등학생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은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종류는 초등학생 멘토링, 농촌봉사활동, 취약계층 초등학생 멘토링, 행사지원 봉사 등 일반 고등학생으로서 평소에 접하기에는 익숙지 않은 일들을 봉사활동을 통해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 학생회 부회장, 학급회장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율동아리를 기획해서 약 40시간 동안 학생들끼리 수리논술, 과학논술을 그리고 심층면접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이끌면서 학생들 내부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탁월'하진 않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들을 학업과 병행하면서 3년간의 저를 담아 낸 '나름 특별한'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했는데, 저의 경험상 자기소개서는 투자하는 시간과 결과물이 비례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쓰되, 읽은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끔 하고, 그동안 했던 활동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 써보자는 생각으로 적었습니다. 작성한 자소서에는 교내 진로상담 선생님께 의뢰하여 수정도 받고, 몇 분의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점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면접 준비를 하게 되는데, 지금의 입시와는 관련이 적다고 생각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서류전형을 준비하면서 가장 노력한 점은 저의 진로를 위해서 활동했던 고등학교 3년간의 행사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지를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여 경영인이 될 준비를 마쳤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세세한 부분까지 기록해두고 사진을 찍어두면서 정리를 해 두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자동차공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입학 전에 필수적으로 수학의 모든 과목과 물리1,2 과목을 열심히 공부할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공학은 수학을 도구로 삼아 과학의 세부과목들을 확장해나가는 학문입니다. 그 중, 미래자동차공학과는 기계공학과 전자, 전기공학을 베이스로 하는 만큼 물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C, Python 등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으면 학과 공부

수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 얘기를 했는데, 쉬는 시간에는 모터트렌드, 자동차생활 등 자동차 잡지에서 공학적인 칼럼이나 자동차를 분석해주는 글을 읽으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공학적 지식과 현재의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을 갖추는 것도 미자공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학한 후, 제가 느낀 전공생활의 특징은 고등학교 생활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컸습니다. 입학 전, 미래자동차공학과 라는 이름이 멋있게 느껴지기도 했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우러러 보던 것을 내가 직접 배워나간다는 점이 스스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한 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계공학, 전자, 전기공학, 컴퓨터공학 등등 다양한 공학적 지식이 집약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학과들을 초월한 커리큘럼을 소화해 내야 한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힘들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을 훌륭히 마친 학생들은 그 분야에서 훌륭한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내에서도 장학금을 포함한 많은 측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저희 미래자동차공학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로 자동차회사에만 취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인 데요, 저희 학과 커리큘럼은 기계공학과 전자, 전기공학을 아우르는 방대한 양을 자랑합니다. 두 학과의 전공지식을 배워갈 수 있으므로, 기계공학, 전자, 전기공학과 학생들이 지원하는 기업에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동차 산업 현장과 긴밀히 관련되어있는 프로그램들 (CATIA, CarSim 등등)을 배울 수 있는 점은 기존의 학과들과의 차별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는, 대학원 진학, 취업부터 창업까지 예상할 수 있는 진로들부터 예상할 수 없는 진로들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공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은 학부 수준의 지식에서는 자동차 연구 부문의 전문가가 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자동차 분야에서 나만의 강점을 갖추기 위해서 학부에서의 지식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느껴집니다. 학과 교수님들도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선택이고요. 그래도 대학원 진학률이 타 학과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전공지식을 살려 자동차분야, 전자산업분야, 기계 관련 산업분야로 진출하며, 취업률에 대해 학생들이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창업을 하는 분위기는 형성되어있진 않고, '학과의 커리큘럼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면 대기업에 취직하기엔 충분하다.' 라는 것이 대부분 학생의 생각이며, 이는 실제 결과로도 증명되어있습니다.

미래자동차공학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Trial and Error'를 이겨낼 끈기입니다. 실제로 실습수업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중에 있을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수없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끈기의 과정을 거쳐서 자동차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미래자동차공학으로 진학하여주길 바랍니다!



전기·전자·컴퓨터

전기·전자·컴퓨터 영역은 전기·자기 및 전자에 관한 과학적 현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각종 기기 및 정보의 제어를 연구하고 응용·개발하는 기술 학문 분야이다. 구체적으로 전기, 전자 및 제어계측 공학 영역, 그리고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환을 구현하는 통신 영역,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자료 및 이를 이용한 각종 응용체제를 개발하는 컴퓨터 영역, 정밀 광학기기를 연구하는 광학 영역, 그리고 의학과 공학 분야 간의 학문적 방법론/개념/기술/기기 등에 대한 상호 응용을 연구하는 의공학 영역 등으로 구분된다. 관련 분야로는 전기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광학공학, 의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등이 있다.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자공학 분야는 지식 산업의 핵심 영역인 컴퓨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가전, 로봇틱스, 신호 및 영상 처리 분야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반도체 소자 및 설계, CAD 및 집적회로 설계, 디스플레이공학 컴퓨터 구조 및 설계, 초고주파 회로, 유무선 통신 시스템, 인터넷 및 초고속 컴퓨터 통신망, 신호 및 영상 처리, 멀티미디어 및 컴퓨터 비전, 로봇틱스, 의료 전자공학 등이 있다.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송혜수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시절에 화학과 관련된 학교 활동이 많아서 저절로 학과를 화학에 관련된 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당시에는 화학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1학년 때 화학에 대한 기본을 다지면서 고등학생 때는 흥미가 그리 많지 않았던 물리나 물리 실험에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전자공학으로 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준비한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1) 학과(학교)에 입학을 위해 준비한 전형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2)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꼼꼼하게 숙지하고 면접을 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면접을 준비하면서입니다. 평소에도 말투나 목소리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3)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전형 2차인 면접을 준비하면서 저의 말투나 태도들을 평소에도 많이 고치려고 노력한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설명하는 것에 흥미가 생겼고 실력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4)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대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처음에는 어떤 전형이 있는 지도 몰랐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몰라서 학교에 직접 문의도 해보고 대학교 입학 전형 책들을 모두 모아서 찾아보기도 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서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5)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은 제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면접관의 입장으로 읽어보고 예상 질문들을 뽑아서 답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말투나 목소리에 문제점이 많았기에 혼자서 저의 모습을 녹음하거나 녹화에서 연습해보기도 하고 학교 친구들과도 모의 면접 연습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러 학교의 면접을 보았는데, 분위기는 대부분 비슷하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자료들을 보면서 대기하다가 호명을 하면 면접장에서 대기한 후에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6)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처음에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일단 목표로 하는 학과를 정한 뒤에 최대한 많이 그 학과와 관련된 학교 활동들을 연관시켜서 대학을 입학한 미래에는 어떤 관심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첨삭을 받았습니다.

7)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제가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과학실험들을 하였습니다. 이 과학실험들을 제가 목표로 하는 학과에 맞추어서 연관을 시키는 연습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8)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재학 중인 학교의 평균 학생부 성적에 비해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소개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과와 연관을 시켜서 저를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해주세요.

1)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전자공학과에 기초가 될 만한 교과목은 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공학과에서는 전자에 대한 물

리적인 현상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학계열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책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2)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전자공학과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중점적인 3가지 분야를 뽑자면 전자회로, 신호처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3가지 모두 연관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세부 분야를 선택합니다.

3)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입학 전에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가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들이 조금 더 뚜렷해졌습니다.

4)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고등학생 때 물리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를 입학한 후에 대학 물리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물리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을 알게 되었고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리를 배운다고 했을 때 고등학생 때 원치 않았던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걱정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와서 직접 실험을 하고 몸으로 배우는 것들이 많다보니 이해도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5)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요즘에 가장 몰두하고 있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은 실험에서 직접 자신이 개발하고 싶은 것을 관심있는 소자를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직접 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운 소자들이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직접 개발해 보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저절로 몰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6)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전자공학과는 여학생이 거의 없다.’라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없었지만 요즘 들어서는 여학생들도 전자공학과에 진학을 많이 하고 있어서 다른 자연대나 화학공학과 같은 공대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7)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저희 학교는 전자공학과로 시작을 하였기에 전자와 관련된 학과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자재료 공학과가 있습니다. 전자재료공학과는 반도체를 위주로 반도체 소자, 유전체 및 소자, 메모리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많이 배우는 학과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통신공학과가 있



습니다. 통신공학과는 전자통신(ex. 신호 송신, 수신, 디지털 신호처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배우는 학과입니다. 세 번째로 전자융합공학과가 있습니다. 전자융합공학과는 정보통신 기술 뿐 아니라 방송통신, 국방, 에너지 등 다양한 융복합 기술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입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선배들은 전자의 넓은 분야들 중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분야를 찾고 그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반도체 분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회로나 신호처리 부분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기업 말고 공기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코레일이나 한국 전력과 같은 공기업으로도 진출을 많이 합니다. 더 배우고 싶은 분야를 찾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는 외국기업이나 연구직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고등학교를 다닐 당시에 화학공학과에 대한 생각은 있었어도 전자공학과에 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 자신에게 너무 제한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고 학교 교과목에 너무 치우쳐 있다 보니 전공에 대한 생각도 한 쪽으로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서 하기 보다는 생각을 넓혀서 다양한 전공에 대해 생각해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직접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이창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어릴 적부터 ‘나도 나중에 사람들이 편하게 설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건축물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건축물이란 단순히 땅을 파고,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닌 건축, 환경, 전기, 안전 등 수많은 분야가 만나 탄생하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앞으로 21세기의 건물들은 ‘주’의 개념을 넘어서 의식주 모두와 그 외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IoT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공부하여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하고 싶어서 전자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수시와 정시 그리고 논술까지 모든 전형에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중을 두었고 결국 지금 이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은 종합전형입니다. 사실 다른 이과 학생들에 비해 수학과 과학의 성적이 월등하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내대회 또는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3년 동안에 학급회장, 학생회 활동, 다양한 대회 참여와 수상경력 그리고 많은 봉사시간을 얻었습니다. ‘수학, 과학을 잘하는 학생’ 보다는 ‘성실하고 매사에 열정적인 학생’이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험들을 단순히 나열하여 자기소개서에 저를 표현한다면 면접관으로 하여금 크게 어필을 하지 못했겠지만, 그 안에서 제가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앞으로의 학과생활과 대학생활에 잘 연관을 지어 잘 표현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소개해 주세요.

저희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자공학에 대한 오랜 역사입니다. 전자공학과를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한 학교로서 전자공학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깊고, 광운대 출신의 많은 선배들이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학생들은 학교와 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으며, 다른 학교보다 깊고 열정적으로 학술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고교 교과목은 단연 ‘물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자기부분은 전자공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교생시절 재미있게 읽었고, 학과공부는 물론 전반적인 과학에 흥미를 줄 수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재승 교수의 ‘과학 콘서트’라는 책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나 물체들을 과학적으로 쉽게 풀어낸 책입니다. 한번쯤 읽어 보신다면 과학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고등학생에게 대학진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바로 ‘빠른 선택과 집중’입니다. 3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내가 무슨 과를 갈 것인가?’, ‘어떠한 전형으로 갈 것인가?’ 등 입시에 관한 물음과 이에 대한 결정이 얼마나 빠른지에 따라 입시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선택에 따라서 어느 것에 더욱 더 집중하고 비중을 둘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 요즘에는 더욱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시절에는 대학교의 이름과 과의 이름이 다인 것 같지만, 실제로 대학에 와서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디 학교를 나왔는가?’, ‘전공이 무엇인가?’라는 표면적인 것 보다는



‘전공에 대한 열정’, ‘전공에 대한 전문성’이 앞으로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의 유명함만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부 양준승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하여 저는 고등학교 때 약사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이 좋지 못했고 수능 점수도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대에 가야 취업이 잘된다는 부모님의 의견대로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전자과에 왔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갔다 온 뒤로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 저는 36년째 학교를 지키고 있는 전자회로 동아리의 회장이 되었고, 또 공모전에 나가 상을 타고 저처럼 1학년 때 아무 전공 지식이 없던 친구들에게 제가 직접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아무 관심이 없는 학과에 입학해도 노력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면 언젠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우등생도 아니었고 보통의 성적보다 낮은 성적을 유지하는 그냥 쾌활한 학생이었습니다. 반에 40명이 있다면 그중에 항상 25등을 유지했었지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부모님의 용돈이나 받아 사는 백수가 될 것 같았고 저와 친한 친구들이 성공할 때 저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야 될 것 같았지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부터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머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따라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지요. 또한 친구들도 저를 비웃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과 놀지 않는다고 상당히 서운해 하며 ‘너는 안된다’, ‘네가 공부를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냐’라고 놀렸지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제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3학년이 되었을 때 일부러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화학, 생명과학반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환경을 선택하기 위해서였죠. 그 반은 우리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자를 할 때 분위기도 제일 조용하고 집중을 잘할 수 있는 반이었죠. 그렇게 반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야자 및 주말 자율학습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제 동네 친구들에게 말해 야자를 끝내고 독서실 마감시간인 새벽 2시까지 공부를 더 하자고

했죠. 물론 그건 제가 모르는 걸 질문하기 위함도 있었고 제 공부스타일이 남한테 지기 싫어해서 그 친구를 목표로 공부하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월부터 수능까지 계속 이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어서 못가는 날도 있었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나면 놀 때도 있었 습니다. 하지만 제가 친구들에 비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니 다음 날 부터는 열심히 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아침 7시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될지 몰랐지만 하다 보니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나중에는 제가 친구들을 알려주게 되었 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들이 다 쓰는 수지도 한 번도 쓰지 않고 수능에 모든 걸 쏟아 부은 순간 저는 자신감이 생겼고 저를 놀렸던 모든 친구들 보다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부에서의 생활은 어떠한가요?

우리 학교는 공과 특화 대학으로 구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인 저는 학교에서 전자회로, 회로이론, 전자기학, 반도체공학 등 여러 가지 전자 관련 공학을 배우고 있고 전자과 내부에서도 5가 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전자통신, 제어, 전파,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고 저는 반도체 과목을 주로 수강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반도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요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반도체 공학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공대 특화 대학이다 보니 대기업 및 해외 기업에 취업하시는 선배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선배님들 말로는 요즘은 회사 내에 학벌 및 지연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예 없고 능력으로 평가받는 다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전자과에 대하여 이미지는 다들 밤 새워 설계하고 납땜 하는걸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받은 맞고 받은 틀립니다. 자신이 수강하는 과목에 따라 코딩, 회로 설계, 납땜 등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전자과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의 길이 있고 학생들의 생활 또한 다릅니다. 그러니 목표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맞게 과목을 듣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지요.

제가 요즘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누구나 손쉽게 코딩할 수 있는 아두이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은 보드를 통하여 거의 모든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졸업작품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오픈소스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코딩 분야로 진출할 생각이 있다면 아두이노로 입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학생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생각한 대학생살이를 그려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도와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이 계셨 습니다. 하지만 이제 20살이고 대학교에 왔으니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져야 할 나이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은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진 않지만 응원해주던 친구들과 부모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생각한 일을 실천하세요. 그들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겁니다. 또한 주변에 휘둘리지 마세요. 고등학교와는 다른 사회생활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의도치 않은 술자리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싫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잘못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절당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연연하지 마세요. 대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득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받지 마시고 편하고 좋은사람들과 같이 즐기세요.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부 엄찬호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관심 있었던 것은 컴퓨터나 TV같은 전자제품이었고 중학교 때 부터는 고장 난 컴퓨터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부품을 직접 사고 장착하며 전기, 전자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또래보다 조금 더 컴퓨터 부품을 잘 알았기에 친구들의 컴퓨터 사양을 맞춰 주기도 하고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는 그에 관련한 질문도 곧잘 해주던 저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고등학교 시절, 바쁘게 공부를 하던 외중 가끔 보았던 아이로봇, 바이센터 니얼맨 같은 SF영화들은 과학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기술 발전과 윤리와의 오묘한 상관관계에 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과학과 공학의 차이에 대해 공부를 하고 전기-전자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대입전형 준비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정시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과목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국영수 내신 평균 2등급 정도를 유지하였는데, 수능 시험에서 생각한 만큼의 성적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했던 학교의 다른 학과와 다른 학교의 원했던 학과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평소 정해놓은 학과를 따라 전자공학부를 갈 수 있는 금오공과대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공부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과학탐구 영역이었습니다. 평소 문제 풀이에는 큰 차질이 없었지만, 한 두 문제 차이로 금방금방 성적이 변하는 성향이 짙어서 시험을 치르기 전에 관련 개념들을 완벽히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대입자료는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꽤 많이 준비 해주셨습니다. 평소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던 저는 공부용 책이나 공책을 비롯하여 성적별로 갈 수 있을 만한 학교 책자나 모의고사 성적 분석 등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것을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

□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전자공학부에 오고자 하는 학생은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만큼 수학과 물리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공과대학에 오면서 배우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언어’입니다. 공대에 오면 고등학교 때 배운 기본적인 미분과 적분을 기초로 하여 선형대수학, 상미분방정식, 편미분방정식, 복소해석, 벡터연산, 급수전개 등 수많은 수학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모두 전공과목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고등학교 물리 과정에서 뉴턴의 고전역학은 물론이고 전자기적 내용들이 전자공학부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물리에서 배우는 패러데이 법칙과 같은 전자기 유도 특성, 원자 내 에너지 준위, 파동의 전달 특성 등의 개념을 모르고 대학교 수업을 듣기는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두 과목을 동시에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수식을 이용해 과학적 이론들을 조금 더 정량적이고 계산이 용이하도록 배우게 되는데, 숫자에 어려움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들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수학·과학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 앞서 선조들이 이를 어떻게 고안했고 사용했는지, 배경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결들여지면 수학과학에 더 큰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서양 과학사’ 등의 책을 읽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해보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 졸업 후 진출 분야, 관련 자격증, 기대되는 자신의 모습 등

저희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은 대부분 전공과 비슷한 분야에 취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LG전자, 혹은 한전과 같은 전기 전자 관련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중 더러는 중소기업에도 취직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자공학부는 어디서든지 수요가 넘쳐나는 학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들어가더라도 적당히 괜찮은 급여를 받으며 취직걱정은 하지 않는 학과 중 하나입니다.

전자공학부 4학년이 되면 전자,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보통 전기기사자격증과 전기공사기사를 많이 취득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고등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저는 3년간 대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학과가 맞지 않아 떠나는 학생들을 몇 명씩 보았습니다. 특히 공학계열에 몸 담았지만 수학과 물리가 잘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신이 컴퓨터와 전자공학에 관심이 있고 관련분야로 진출하고 싶지만 수학이나 과학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수학 과학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컴퓨터공학과 같은 대체 경로를 찾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부 조민수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진로를 많이 고민하게 되었는데,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학교에서 하는 행사 중 간단한 로봇을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있다는 점에 흥미를 가지고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전자공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있지만 어렵다고 생각해서 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더 이상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2학년이 끝나고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많이 힘들 것 같다는 말이 저에게는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없던 터라 남들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하면 헤매고 있을게 분명하기에 똑똑한(?) 친구들과 함께 다니며 공부도 같이 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바로바로 물어보고 수업을 마친 후 방과 후 야자시간에 공부하고 독서실도 가면서 남들 보다 조금 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많이 했는데 다들 '수시 준비하는 것 보다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여 수능 위주의 공부를 하면서 진학준비를 했습니다. 또, 제 성격상 너무 집중을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적당히 쉬어가면서 머리에 잡생각을 비워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면 생활패턴에 맞게 컨디션 관리도 하고,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들은 수능기술도 적용해보며 맞는 스타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다 끝내고 채점을 한 후 틀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제가 갈 수 있는 곳도 늘어났습니다. 성공한 사례처럼 엄청난 성적의 향상보다는 노력에 반하지 않는 결과를 얻어 저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니 주위 친구들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수능 며칠 전에 최종 점검을 하고나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중 '네가 공부 안했으면 우리도 안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당시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 금오공과대학교 전자공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전자공학을 배우며 느낀 점이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휴대폰, 컴퓨터, TV 등 생활에 스며든 모든 가전제품들과 과학원리 이 모든 게 전자공학에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생활이 너무 즐겁고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학문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을 들을 때는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하고나서 작동이 되면 그 성취감은 정말 엄청납니다. 내가 직접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었다는 점이 정말 뿌듯합니다. 이처럼 공과대학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듣는 것 보다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학문임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금오공대에 진학을 하고나서 듣는 말이 '너희는 취업 잘 되서 좋겠다.'입니다. 학교에 다닌 지 이제 5년이 되어 가는데 주변 선배들이 취업을 하는 모습에 부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대개 전공을 살려 반도체, 메모리, 통신, 자동차 등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취업을 성공한 선배님들을 보며 롤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기업, 외국계기업, 대기업 등등 목표하는 곳이 다르기에 준비하는 점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자격증을 따서 공무원 준비를 해도 되고, 기업에 맞는 준비를 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 이런 방향으로 진출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목표는 높게 잡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제 작은 목표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만 하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그러니 당당히 맞서보고 다양한 경험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은 많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너무 조급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배우는 학생이고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어계측공학

제어계측공학 분야는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술을 다루는 응용과학 분야로서 각종 기계시스템이나 전자기기 등에서 다양하게 응용되는 정밀한 센서와 전기, 전자, 광신호 등의 정보처리 및 분석기술 개발 및 응용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회로해석론, 신호해석, 자동화시스템설계, 센서공학, 전자기학, 제어공학, 계측공학, 디지털제어공학 등이 있다.

광운대학교 로봇학부 문성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형을 보며 큰 저는 자연스럽게 형을 따라 자동차, 기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무인자동차에 대해 알아보니 로봇적인 요소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걸 알고 로봇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제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준비했던 전형은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점수, 자기소개서, 면접을 보는 수고가 있지만 그만큼 교과우수자 전형에 비해 내신 점수를 적게 봅니다. 내신이 낮았던 저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아리 활동을 다 로봇동아리로 참가하였고, 공대에 서 중요하게 보는 수학과 과학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리 또한 중요하다 생각해서 고등학교에 물리 선생님이 없었지만 따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혼자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물리를 공부할 때는 과연 혼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면서 걱정이 되었지만 차근차근 기초부터 공부하고 중간중간 모의고사를 보며 공부를 하니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로봇동아리 활동한 것과 자기주도적으로 물리 공부를 한 것을 자기소개서에 쓰니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과 기숙사 논술 선생님께 끊임없이 첨삭을 받았습니다.

한 분의 선생님께만 첨삭을 받게 되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3명 이상의 선생님에게 첨삭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한 가지는 미리 자기소개서를 써 보는 겁니다. 대교협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여 3학년 시작하기 전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한번 꼭 써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지원 하는 날이 다 돼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된다면, 마음이 붕 떠서 수능을 준비하는 리듬이 깨져 버리게 되고 수능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어 자기소개서를 대충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이 확보되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자기소개서를 꼭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차에 합격하게 되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저희 학교 면접은 3:1 형식으로 3명의 면접관님과 1명의 학생이 면접을 총 10분정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주로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나요?’입니다. 저는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친구들과 실제 면접처럼 해봤던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아무리 읽어 봐도 실제로 말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 꼭 친구들과 또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외워서 가게 되면 긴장된 상황에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외워간 답변들은 자연스럽게 까먹게 되고 당황하게 되어 면접을 잘 못 보게 됩니다. 답변을 외워 가기 보다는 큼직큼직한 주제를 잡아 답변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수시에 모두 합격하여 면접을 4번 보러 갔는데, 매번 나왔던 질문 중 하나는 “자기소개를 1분 동안 해 보세요”입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답변은 꼭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들어가기 전 학생들은 큰 부담감과 걱정을 갖고 대기하게 되지만, 막상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 면접장 분위기에 놀라게 됩니다. 딱딱하고 적막한 면접장이 아닌 반겨주시는 분위기에서 면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장에 들어가 밝은 미소를 유지하고 눈을 마주치며 답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광운대학교 로봇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될 만한 고교 교과목은 당연히 수학과 물리입니다. 대학에 들어와 1학년 때는 대학수학과 대학물리학 수업을 듣게 되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과 물리를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학과 물리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며 이런 수학공식을 왜 배우고 어디에 쓰는지도 몰랐지만 대학을 들어와 공부를 하게 된다면 다 쓰이는 것이니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학부는 다른 학과들과는 다르게 학부로 되어있습니다. 2학년이 되면 세부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로봇학부의 경우는 지능시스템학과와 정보제어학과로 나뉘게 됩니다. 지능시스템학과의 경우는 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정보제어학과는 주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이렇게 세부전공을 나누게 되는 이유는 로봇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다 같은



로봇학부이기 때문에 배우는 과목은 다 비슷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목표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힘도 나지 않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찾고 그 목표를 향해 공부를 하게 된다면 공부가 더 잘될 것입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목표하신 것을 이루게 되면 지금 이 힘들고 지쳤던 것들이 다 추억이 됩니다. 힘들고 지쳤던 것들이 추억이 되도록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분야는 전산학·컴퓨터공학에서 요구되는 각종 기술을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및 게임개발 산업 등에 적용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컴퓨터 과학,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개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 이산수학, 컴퓨터구조학, 정보관리,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이 있다.

동국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채문주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미디어 아트를 접하게 되었고, 기계와 사람의 소통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어 Making이라는 아두이노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납땜, 조립 등의 과정을 거치며 아두이노를 통해 내 손으로 만든 기계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움직이고 또 여러 센서들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3학년 때 동아리에서 제가 쓴 칼럼을 본 친구들이 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자신이 선택할 학과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정확한 데이터를 담은 프로그램 혹은 콘텐츠를 통해 사람들에게 '정확한 영향력'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아두이노 그리고 코딩에 관련된 책을 써보고, 컴퓨터 언어인 C언어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또한 직접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R언어를 공부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활동들 안에서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동국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1)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종합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형은 면접 없이 생활기록부 정성평가와 자기소개서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2)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생활 자체에 충실했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정해진 바 없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활동을 하며 '나'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즉 제 가치관, 적성, 특기, 진짜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나갔습니다.

3)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과목에 비해 저는 과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성적 또한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는 과학 스터디 그룹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헤매기만 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친구들과 풀면서, 친구들이 문제를 보는 관점 하나, 문제 푸는 방식 하나까지 경청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웠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화학 양적 관계 단원에서 서로 푸는 방식을 논의하고 더 쉬운 알고리즘을 강구하는 동안 어설피기만 했던 과학 문제풀이에 논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혼자일 때보다 느리게 가는 길이었지만, 그랬기에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학습법을 꾸준히 실천하여 과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고, 성적 또한 계속 올라 최종 화학 전교 2등, 생명 전교 8등이라는 값진 결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함께'의 가치를 한 번 더 깨닫고,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했던 활동들을 쭉 보면서 어떤 활동들을 할 때 가장 열정이 넘쳤고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를 파악한 후 그들의 공통점을 찾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1학년 때 독서토론동아리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활동하였고, 수학을 가장 좋아하는 과목으로 꼽았습니다. 2학년 때는 아두이노 동아리 활동을 가장 즐겁게 하였으며, 책 발표회인 북 콘서트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3학년 때는 C언어 동아리에서 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활동들을 나에게 초점을 맞춰 생각하다 보니 저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하고, 수학적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활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미래에 사람들과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를 통해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제 꿈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파악이 쉽게 되었기 때문에 진솔한 자기소개서와 정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쓴 후 한 달간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혼자서만 쓰면 내 자신의 입장에서 내 자신에 대한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해되지 않거나 문맥상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을 메꾸고 글 안에서 나 자신을 더욱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수정 기간은 자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시 전형이 저에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자기소개서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신이 다른 전형, 특히 정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학생이라면 자기소개서보다는 수능시험 공부에 초점을 맞추는 등의 현명한 시간 배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5)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관심이 있고 흥미를 가진 모든 활동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 범위 또한 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론 대회, 발표 대회, 북 콘서트(책 발표회)와 같은 활동도 하였으며, 프로그래밍 활동(아두이노 동아리, C언어 동아리), 수학/과학 경시대회와 같은 앞의 활동과 다른 성격의 활동들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즉 전공적합성이라는 말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활동들을 하며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담은 자기소개서가 제 합격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고등학교의 다른 사람들 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없는 학생이지만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를 알고, 고등학교 생활 안의 여러 활동들을 하며 끈은 가치관을 세우는 과정을 나타내면서 저를 잘 들어낼 수 있었고 제가 앞으로 어떤 대학 생활을 보낼 것인지도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동국대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1)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먼저 공과대학이니만큼 수학이 특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에 수학이 연관이 많이 되어있으므로 표면적 지식만 습득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수학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C언어 또는 파이썬 같은 기초적인 언어를 배우고 오셔도 좋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대학 와서 처음 접하면 학점 따기도 힘들뿐더러, 전공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배우는 양이 어마어마하여 따라가기 벅겁다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깊이 있게 배우고 올 필요는 없으나,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정도로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먼저, 절대 미디어학과라는 생각, 방송과 관련된 학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학교의 멀티미디어공학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즉 프로그래밍을 주로 하는 학과이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컴퓨터공학과와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학과명에 '미디어'라는 말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과인 줄 모르고 전공으로 선택하여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이맘때 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분들은 다가오는 수능 날짜에다 공부에 대한 좌절감이나 대체 어느 학과에 가야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더해져 굉장히 괴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금껏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가장 열정을 쏟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한 손에 쥐어보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렵פות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느낌을 믿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또 내가 무언가를 못한다고 해서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 장예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직장 또한 그 분야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으려 많은 활동을 해보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는 '게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을 개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현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 준비방법을 알려주세요.

1)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농어촌 특별 전형이 지원 가능한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정시보다는 수시를 위주로 입시 준비를 했었고, 저 또한 그런 친구들 중 하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개 대학은 농어촌 전형, 2개 대학은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 2개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농어촌 전형으로 합격한 대학입니다.

2)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제가 서울여대에 입학할 당시에는 '발표면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 면접관님들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풀이 등을 설명하는 방식의

면접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기출문제를 다운 로드해서, 답임 선생님과 그 문제들로 면접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말투, 말의 빠르기, 표정 같은 것들을 선생님께서 보시고 피드백해주셨습니다. 휴대폰으로 면접 연습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그 영상을 본 후에 단점을 고쳐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3)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최대한 많은 활동들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리더십 관련 활동으로는 3년 내내 학급 반장과 봉사활동 동아리의 회장으로, 2,3학년 때에는 기숙사 학년 장까지 맡아서 활동했었습니다. 봉사활동은 개인적으로 한 곳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지역 아동 센터에서 3년 내내 교육 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 서울여자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1)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저는 저희 과가 ‘공대’에 소속된 과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이 별로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수학이 정말 많은 곳에서 쓰인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초를 탄탄히 배우고 온다면 분명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책 한 가지를 추천하기보다, 많은 책을 읽어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창의력이나 사고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책이면 하나 정도는 꼭 읽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2)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작년에는 ‘C++ 프로그래밍’이라는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JAVA 프로그래밍이라 하여 작년에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JAVA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학과이다 보니, 학교에서는 컴퓨터 코딩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코딩 동아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아리인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동아리입니다. 제가 작년에 ‘웹’과 관련된 진로로 나아가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가입한 동아리입니다.



4)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학교 외부에서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 다니고 있다는 말을 하면, 꼭 컴퓨터공학과와 헷갈리시고는 ‘컴퓨터 잘 고치겠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 학과는 컴퓨터공학과와는 다르게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고, 오로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것들만 배웁니다. 공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학이나 물리와 같은 과학 과목에도 보다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 졸업 후 진로

1)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졸업생들은 국내 IT 업체나 일반 기업의 전산 관리직, 금융, 항공,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하지 않고 대학원에 진출하시는 졸업생들 또한 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2)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관련 자격에는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네트워크 관리자, 웹디자인 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찌지?’라는 생각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승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최민성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킹과 보안을 탐구할 수 있는 학과를 찾던 중에 소프트웨어학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게임을 좋아해서 블로그를 통해 우회적으로 게임을 다운받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받은 게임엔 악성코드나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경우가 때때로 있었고, 컴퓨터에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를 고쳐 볼 방법을 찾다가 프로그래밍을 접하였습니다. 중학교 때 “화이트햇 콘테스트”라는 보안 대회에 참가하면서 영화에서 보던 해킹이 실제로는 다른 모습도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접근을 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고, 전공을 선택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보안을 탐구하려면 운영체제처럼 낮은 차원의 시스템 운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학부로 진학하여 알아갈 수 있는 배경지식이 알맞겠다는 추측이 있었고 본 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심 있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보람찼지만,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일이 중요하였습니다. 진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려는 의욕이 컸기에 과학탐구 보고서를 비롯하여 독서토론대회 등 다방면의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배웠던 입론서와 같은 핵심이 되는 기술이나 자료를 USB에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쌓아둔 자료는 이후 유사한 활동에서도 유용하였습니다. 또한 배경지식이 쌓여, 대학에서 토론수업을 진행할 때 준비하기가 수월하였습니다. 틈틈이 비교과 활동과 정리를 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으로는 교내 기숙사 생활을 한 영향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이 때로는 지루하였지만, '나'에게 집중할 시간과 진로를 생각할 시간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거의 매일 잠들기 전에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차근차근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고3 때까지 이렇게 사소한 규칙이 모여서 진로 결정에도 확신이 있었고, 자기소개서에선 얘기하고픈 내용도 많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 흥미로 행동심리학에 관련된 도서를 탐독하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임원활동을 하며 면접관 활동도 하였습니다. 이때는 몰랐지만 막상 면접 준비를 할 때, 면접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가 쉬웠습니다. 면접자의 행동을 읽으면서 확신은 아니지만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을 파악하는 일이 어렵고, 면접자가 적지도 않을 것이기에 인상을 주는 행위가 중요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면접장에서 긴장을 떨칠 수 없었지만 확신 있는 모습으로 답변하면서 인상을 준 덕에 합격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이는 허영에 찬 모습이 아닌, 흥미를 갖고 활동하며 구체적으로 기록해둔 데에서 비롯한 자신감에서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 송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열혈 C프로그래밍”이든 다른 C언어 책이든 가볍게 C언어 프로그래밍의 구조를 체험해보고 온다면 1학년 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 학부에서는 1학년 전공 수업 중, 프로그래밍은 C언어를 배웁니다. 굳이 1년 간 배울 내용을 미리 다 배우고 올 필요는 없겠지만, 초반에 C언어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후배들을 여럿 보면서 대충이라도 알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 “확률과 통계” 과목, “기하와 벡터” 중에서 벡터 부분은 특히 손을 놓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부 전공을 하면서 해당 수학적 지식 기반이 부실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쉽게 느끼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시간을 투자한 데에 비해 이해를 충분히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송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에서는 서버와 같은 낮은 단계의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설계사를 지향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알고리즘과 관련된 수업을 본격적인 전공을 배우는 2학년 때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공과목의 틀을 잡아나가는 1, 2학년 동안에는 선후배 간의 스터디와 멘토링이 학부 내 동아리를 의미하는 소모임들이 하는 주요 활동이기에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데에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015 학년도부터 신설된 학과이다 보니, 선후배 사이에서 큰 격식을 요구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분위기 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T/공대생이라는 이미지가 밤샘코딩이 기본일 거라는 인식이 많지만, 평소엔 수업 끝나자마자 칼하고 가능합니다. 과제가 밀려도 밤샘 일은 적어도 1학년 때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체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면 주어진 기간은 많지만 오래 미루다보니 밤새는 경우는 종종 보았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송실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는 컴퓨터 시스템과 프로그래밍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또한 시스템소프트웨어, 데이터사이언스, 정보보호라는 세부트랙이 있지만 트랙 간 과목 수강의 제한이 없으니 위 분야를 주로 혹은 주/보조로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개인적 경험상론, 전공분야가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다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무엇보다도 활동에 대해 구체적 기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로에 대해 충분한 생각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저 또한 진로를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어도 본인이 만족하는 삶이 그 자체로 의미 있지 않을까요? 본 전공안내서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전산학·컴퓨터공학

전산학·컴퓨터공학 분야는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과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관련 기술을 익히고, 이를 각 분야에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전산 기초, 전산 응용, 하드웨어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컴퓨터통신,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구조, 컴퓨터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그래픽스 등이 있다.

광운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최정인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학에 관심이 많고 기본 자연 수학보다는 수학을 응용한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학이 응용되는 공대를 찾아보던 중 컴퓨터공학과가 수학이 많이 활동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컴퓨터공학과와 관련된 전공체험들을 한 후 적성에 맞다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궁금해요.

1)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학생부종합전형

2)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전공과 관련된 독서를 많이 하였고 전공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부족한 부분과 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낀 점을 자기소개서에 채웠습니다.

3)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고등학교 진로 선생님과 함께 면접 준비를 하였고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4)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장의 분위기는 생각보다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님께서 처음 일상적인 질문으로 긴장을 풀어주시고 그 후 본 면접 질문에 들어가서 모두가 겁준 만큼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번의 면접 중 뒤로 갈수록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면접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5)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생활기록부를 다 외울 정도로 많이 읽어보면서 파악하고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을 골라 자기소개서에 적절히 썼습니다.

6)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이과 학생임에도 과학 성적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 과학 동아리를 하였습니다.

7)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학생들보다는 내신 성적이 좋았고 관련 독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광운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1)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사물인터넷전쟁, 컴퓨터를 움직이는 6가지 핵심원리

2)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c++언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회로이론과 플립플롭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java언어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아직 배우지 못한 컴퓨터 언어와 컴퓨터를 활용한 부분을 배우고 싶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제와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는 고등학생 친구들을 위해 제가 알고 있는 전공 관련 지식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손강민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만들었던 FLASH GAME과 여러 툴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프로그램을 제 창의성과 원하는 방식대로 만든다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고, 조금 더 공부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가 손보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색다른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또한 미래에 촉망받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자동차 자율주행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코딩교육 의무화 등에 따라 장래가 촉망받는 학과여서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준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할 때 가장 제 발목을 잡았던 것은 생활기록부에 컴퓨터 관련 활동이 너무나 미미해서 종합전형에 지원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과 내신만 반영하는 교과전형으로 지원하여 합격했습니다. 만약 제가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 갈 수 있다면 정말 자기 분야와 관련된 활동이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우리 부경대학교가 아닌 타 대학 논술을 준비하였습니다. 논술은 최저등급을 높게 설정하여 관련 활동이 부족하여도 논술성적과 수능 최저등급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논술은 당시 저의 고등학교에서 논술 응시 학생들을 모아 지역 내에서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과 논술은 수학과, 과학과목만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논술고사장에 가서 느낀 점은 시험문제는 열심히 준비하면 크게 어렵지 않지만 최저등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발명부 부장으로 경상대학교 주최 발명대회에서 입상을 하였고, 학교 학생회와 선도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학급반장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기숙사 생활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개인생활이었지만, 모두를 배려하고 또 자립하는 힘을 기르는 기숙사 생활은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매우 큰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 부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컴퓨터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정보와 컴퓨터 과목입니다. 또한 수학은 컴퓨터공학과가 수학교과로 불릴 만큼 선형대수, 이산수학과 알고리즘 등 폭넓은 수학을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영어는 C programming이 주로 영어권 국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걸 영어로 작성하고, 이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추천하는 도서로는 전병선의 '나는 개발자다'와 월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는 c,c++,java,linux,



unix 등 여러가지 운영체제와 프로그래밍 언어를 습득하고 이를 오프라인에도 응용시킬 수 있도록 배웁니다.

입학 전에는 막연하게 '컴퓨터를 다루는 학과'라고 생각했다면, 입학 후에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모두 컴퓨터공학과가 만들고,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의 분야도 컴퓨터공학과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가 컴퓨터공학과는 컴퓨터의 제작과 수리 등을 하는 학과라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전자기기의 제작과 이론은 '전자공학과'가 공부하고, 이 전자기기의 전기에 관한 학문은 '전기공학과'가 그리고, 그 전자기기의 내부적인 기능들은 '컴퓨터공학과'에서 배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쉽게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부터 cos등 코딩의 실력을 측정하는 자격증까지 매우 많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컴퓨터공학은 인문계열의 어문학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특출난 친구가 많거나, 미리 연습 해 오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아예 모르는 상태로 입학하면 따라가기 버거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건 '내가 정말 이 분야가 좋은가?'입니다. 정말로 좋아하고 컴퓨터를 사랑하는 학생들은 그 차이를 금방 좁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많이 전과를 합니다. 취업은 크게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사람이 살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계이고 이를 응용하는 분야는 앞으로가 더욱 창창하기 때문에 공학이면 그 중에서도 컴퓨터공학이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경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정민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정보보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언어와 Java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기본을 쌓고 전문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도 제 꿈과 관련된 활동을 위해 전 학년 통틀어서 처음으로 컴퓨터관련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부장으로서 부원들에게 C언어를 가르쳤고 학교에서 배우는 스크래치와 결합시켜 알고리즘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부원들과 멘토, 멘티 활동으로 기본을 다졌고 각종 대회나 부스 운영에 나가서 끼를 보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보호영재교육원에도 뽑히게 되어 여러 지역에 있는 저와 같은 흥미를 가진 학생들과 정보보호에 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컴퓨터분야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대학진학도 컴퓨터공학과로 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 입학에 위해 준비한 전형은 무엇인가요?

저는 공부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을 좋아해서 남들보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시의 6개 모두 종합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생활기록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보여 지기 위해 억지로 쓰기보다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쓸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다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특히나 열심히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공부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의 짧은 글에 저의 모든 것을 담아야 했기에 몇 달, 며칠을 자기소개서에 힘을 쓰고 매일 매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대학입학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위의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딱히 없던 것 같습니다. 대학진학 시에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잠을 줄여가며 노력하기 때문에 금방 뒤쳐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특정 대학, 학과에 가고 싶은 열정이 있고 진심이 있다면 노력을 위한 힘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잠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침부터 공기를 마시고 경직된 근육을 움직이면 다른 날보다 졸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대입을 위한 자료는 담임 선생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자신 말고도 30명 이상의 학생들을 준비해야 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료를 찾아야만 합니다. 학원이나 다른 곳에서 얻은 정보는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의 노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찾은 자료가 대입에 힘이 됩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는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1차 서류에 붙고 나면 면접을 준비했는데, 계속해서 긴장해야 할 만큼 면접고사장의 분위기는 삭막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학생들과 차별되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의바른 모습도 중요합니다. 과장되고 외우기만 했던 내용보다는 자신의 내용을 자신감 있게 풀어나가는 것이 면접장에서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자기소개서는 꾸밈없이 진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조사하고 그에 맞춰 제가 보여줄 점과 노력할 수 있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했던 활동을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닌 무엇을 느꼈고, 배웠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합격한 이유는 남들과 다른 다양한 활동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 대학교에 갈 수 있을 만큼 성적은 되지 않지만,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되는 활동들입니다. 또한 면접에서도 굳이 준비를 하지 않아도 제가 해왔던 일을 설명하듯이 말하는 여유와 자신감이 바로 합격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컴퓨터공학과에 기초가 되는 항목은 당연히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컴퓨터만 공부했던 친구들은 처음에는 잘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수학이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수학 중에서도 행렬과 확률과 통계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것은 바로 영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쓰면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에 나오는 오류는 영어로 나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전공내용을 검색할 때도 영어로 검색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영어를 많이 배워두면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는 1학년 때 기초적인 수학 지식들을 쌓았습니다. 2학년부터는 전공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컴퓨터 언어는 한번만 배워두면 다른 언어에 적용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미리 배워놓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학과는 주로 앱이나 게임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한 두 개씩의 앱을 개발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컴퓨터를 조립하고 분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컴퓨터공학과에 오면 안됩니다. 공학이라고 해서 기계를 다루는 것을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컴퓨터공학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전기과나 기계과에 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저희 과에 졸업한 선배들은 대부분 게임개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3D그래픽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1인 개발도 가능해서 창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임을 잘하는 프로그래머가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게임을 만드는 것이 컴퓨터공학과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저는 정보보안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공학과는 포괄적인 학과이기에 정보보안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을 진학해서 정보보안 분야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관련 시험은 크게 정보처리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 4년제 대학에서는 졸업직전의 학생만이 자격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은 정보처리기능사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우는지만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전공 고세림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분야에 꽂혀서 열심히 하기보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지만 금방 질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래희망이 자주 바뀌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제가 가고 싶은 학과를 한 가지로 추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방영했던 '유령'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단순히 해커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멋지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저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꼭 사이버 보안 분야가 아니더라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공학과)가 전망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장래희망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나 사회 보다는 수학과 과학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자연계로 진학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과로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3학년 초에 문화콘텐츠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학과는 당시 인문계만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반 배정이 다 끝난 후라 반을 바꿀 수는 없어 혼자 사회탐구를 보고 인문계 과목으로 수능 시험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상 또



장래희망이 바뀌었고, 소프트웨어학부에 진학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공학과)는 다른 공학대학 학과보다는 물리/수학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교차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차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찾던 중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소프트웨어학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저는 주변에 아는 선배들이 많지 않아서 선배들로부터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인터넷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고 제가 어떤 학과를 가고 싶은지 가감없이 말씀을 드려 상담을 수월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인터넷 카페보다는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형과 입학 성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소프트웨어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소프트웨어학부는 프로그래밍과 이에 기초가 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목 중에서는 프로그래밍을 위한 기초과목으로 수학을 짚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과 커리큘럼 중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등 수학 과목이 있고, 이 중 선형대수학은 머신러닝/딥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목입니다.

코딩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비전공자들도 코딩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구글 검색만으로도 질 좋은 강의를 접할 수 있고 이런 자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학생이어서도 충분히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부는 1학년 때 소프트웨어학부로 공통 과목을 배우고, 2학년부턴 컴퓨터전공과 소프트웨어전공으로 나뉩니다. 두 전공으로 나뉘더라도 2-3학년 때는 유사한 과목을 공부합니다. 세부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초 지식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4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많이 달라지는데, 컴퓨터전공은 사이버 보안, 사물 인터넷, 시스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전공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 공학 중 관심 분야를 선택하여 공부합니다.

저희 학부에는 다양한 학회들이 있는데, 저도 그 중 하나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학회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하여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팀을 짜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웹 페이지를 만들곤 하는데, 저도 선배, 동기와 팀을 짜서 어플리케이션을 수업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 제가 관심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고, 수업에서 배웠던 이론을 응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현재 가고 싶은 학과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또는 너무 많아서 하나로 추리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장래희망을 정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그 때 원하는 분야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망 학과를 쉽게 정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 보고 나중에 진정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과거의 내 성적이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원하는 학과가 뚜렷해서 그 학과를 가겠다는 열정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보다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꿈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대학 진학 후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아예 다른 분야로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학과로 진학했지만 컴퓨터 공학 분야로 나아가고 싶어서 저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와서도 쉽게 정할 수 없는 게 꿈이니까, 지금 정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오면 생각보다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미래의 대학생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준비하면 공부를 하는 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문용주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학교가 아닌 타 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아무생각 없이 성적에 맞춰간 학교였기에 초반에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결국에 1학기가 끝나고 휴학을 하였습니다. 휴학기간 동안 저는 나에게 맞는 과가 무엇일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득 스쳐간 생각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관하여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증은 물론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입시를 준비하느라 그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서 원하지 않은 학과를 가게 되었고 재수 중에 제가 정말 무엇을 하면 되는지 고민 중 컴퓨터공학과를 정하였고 현재 까지 전공에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관심 있는지 고민하시고 전공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협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컴퓨터 공학은 C, C++, JAVA, Python, 등 고급언어를 통하여 프로그래머 또는 라즈베리 파이 리눅스를 통한 서버 관리자 보안 관리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의 용어들과 코딩을 작성할 때 99%가 영어로 작성하며 코딩을 할 때 알고리즘을 통해 코딩을 작성하기에 고등학교 시절 영어와 수학을 잘하시는 분이면 남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다르고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컴퓨터 공학에 대한 오해로 컴퓨터를 고치고 부품을 끼는 전공으로 착각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 컴퓨터 공학은 흔히 많이 접하시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제작, 서버 관리자 등 수많은 IT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는 4차 산업에는 모든 물건에 컴퓨터가 들어있기에 취업이 굉장히 잘되는 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입학 후 많은 언어와 서버를 배우면서 졸업 후 취업하고 싶은 길을 정하고 취업과 관련된 언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한 선배들은 주로 개발자로 취직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웹 개발자 또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가장 기반이 되는 언어는 JAVA입니다. 그렇기에 OCJP 자격증과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이 두 가지를 따기 위해 현재 계속 노력중입니다. 컴퓨터 공학은 진출 분야가 너무나도 많기에 전공을 공부하면서 진로를 결정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로에 따라 쓰는 언어가 다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에 실무를 가기 전에 그에 맞는 언어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학교 커리큘럼으로는 실무에 맞는 언어가 아니기에 취직 후 3개월간 진로에 맞는 언어를 공부합니다. 그렇기에 미리미리 공부 해놓으면 남들보다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대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학교생활보다는 대학교의 꽃인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생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추억을 만드는 게 대학생활 때 가장 많이 남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한다고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취업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에 재수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과 전공 공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금을 받으시면 보람찬 학교생활이 될 거라 생각 됩니다. 전공에 고민이 많으신 고등학생 분들이 저희 전공멘토단의 전공소개글을 보고 실패없는 전공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최지성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들과 똑같이 고등학교 3학년의 시절을 겪었던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전기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특성화고 특성상 졸업반이 되면 현장실습에 나가게 됩니다. 저는 졸업 전인 3학년 여름방학부터 배전반을 만드는 흔히 공장이라는 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6개월가량을 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한 후 1년을 다니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3D직종과 유사한 곳에서 어린나이에 계속 일을 하다보니 많이 부족하고 너무 이른 것 같아 대학진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학과를 알아보다보니 내가 다닐 '전기과'라는 곳은 친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적성에 맞지도 않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관심 있게 다루면서 제일 좋아하는, 원하는, 하고 싶은 이 컴퓨터공학과를 찾아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싶고 좋아하고 원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위의 글을 읽으면 아시다시피 저는 재수생입니다. 뒤늦게 입시를 결정하였죠. 하지만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한 저는 수능도 당연히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입학방법은 수시로만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대학마다 다르지만 특성화고의 수시등급은 보통 2학년2학기 까지 성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 용돈을 벌고 씹씹이를 좀 더 크게 갖고 싶어서 방과 후에는 거의 주말, 평일 알바를 했습니다. 그러니 성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벽은 점점 크고 두터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NAV**에 '대학교' 라고 검색하여 뜨는 모든 대학교 중에서 타겟으로 정한 지역의 모든 대학의 전년도 입시결과와 모집요강 등 최소 40여개 이상의 대학홈페이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과와 유사학과만을 보면서 말이죠. 여기서 특성화고(수시)의 일반전형은 일반인문계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특성화고 끼리만 경쟁을 합니다. 특성화고의 커트는 더 힘듭니다. 이로써 저는 일반 학생부전형으로는 벽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소서전형, 면접전형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생각하였고 실행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 써있네요. 위 과정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귀찮을 겁니다. 하지만 귀찮다고 안 해버리면 그것에 간절하고 목 메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협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면 아마 'C언어'를 기초로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잠깐 방과후 과목으로 C언어를 수강했습니다. 처음 학과에 입학할 때, 프로그래밍언어를 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교내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C언어나 코딩관련 과목을 수강하면 처음 접하는 때부터 흥미를 좀 더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4차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시점 주요기술인 IOT(Internet of Things)의 중심축에는 우리 컴퓨터공학과가 존재합니다. C, C++, JAVA, Python 등의 프로그래밍언어를 사용하며 앞으로 세계적으로 그리고 더욱 발전되는 IT기술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있을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중학교 입학도 고등학교 입학도 대학교 입학도 모두 새 학교 새 친구들입니다. 특히 대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에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음주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나이이면서 스스로가 행동을 자유롭게 하고 책임을 져야할 나이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껏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대학교에서라도 한번 펼쳐보는 것이 어떤가요? 대학교 아주 재미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인 하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대학가면 연애 한다' 이런 말 자주 들죠? 될 수 있으면 하세요. 친구들이랑 너무 어울리다 보면 학점에 소홀해 질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 또한 본인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습니다. 학과 선배들과 두루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학생회를 해보세요. 여러 학과에 속속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면 동아리를 해보세요. 굳이 공연 나가서 기타치고 봉사해야하는 동아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캠퍼스를 돌아다니다가 아는 친구와 선배와 후배와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상황도 두근대는 것이 대학생살입니다. 꼭 재미있는 생활되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 분야는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에 기반한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보시스템에 대한 계획·분석·설계·구축에 필요한 체계적인 방법론, 빠르고 안정적인 정보 전송 기술 등의 구현을 위해 기초 기반 학문 및 최신 기술들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정보수집 및 관리기술, 정보분석, 정보교환, 정보보안,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광통신, 광전송, 전파통신, 위성통신 등이 있다.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복수전공: 경영학과) 장웅혁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제가 재학 중인 학과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전자공학과이고 하나는 경영학과입니다. 고등학교 때 선택했던 학과는 전자공학과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과였고 물리에서 전기 공식을 풀 때 느꼈던 흥미와 스마트폰이 발전해 가는 상황에서 전자공학에 흥미를 느끼면서 전자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이 끝이 나고 군대를 갔다 온 뒤 이제 전자공학과와 전공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융·복합 시대였기에 전자공학만의 지식이 아닌 다른 지식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경영학과를 선택하여 현재 복수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학사정관제를 준비했습니다. 전자공학과에 진학 준비를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이에 맞는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 과학영재반에 들어가 과학에 대한 지식을 넓혀 갔고 2학년 때에는 과학 실험 동아리를 만들어 수업 시간에 할 수 없던 실험을 동아리에서 직접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의 필수 항목이었던 리더십을 위해서 학생회 활동을 3년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 광운대학교 전자융합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광운대학교의 장점은 전자공학이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선배들이 전자관련 회사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프트웨어 중심학교로 선정 되어 전자 관련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에서는 ERP라는 분야에서 경영학과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되어있는 분야에서 대한민국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학과나 미디어학과를 생각하는 고등학생에게 추천하는 책은 '마케팅 천재가 된 맥스'라는 책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와 지식을 자연스럽게 쌓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취득가능한 자격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부분 전자공학에서 관련된 자격증은 전기기능사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전기기능사에 대한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 입사를 위해 전기기능사를 취득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전이나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 입사를 위해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다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현재 기대되는 미래의 모습은 대기업 소프트웨어 회사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 최홍재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 앞으로 나아갈 전공에 대해, 대학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흔히 말씀하시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어린 시절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너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영상제작에도 관심이 많았고, 여러 나라의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학해야 하는 학과를 쉽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선생님께서 학기 초에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평생 질리지 않을 것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크게 와 닿지 않았지만 생각할수록 질리지 않는 것이라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이면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산업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ICT산업을 관심이 많았던 저는 전자공학 및 소프트웨어공학을 배워 미래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처음에 희망했던 학과들은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확장시키며 발전하게 된 것이 전자통신공학과, it융합공학 등 좀 더 폭넓은 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여 전자통신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가 명확하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겠지만, 다양하다면 다양한 것을 배우는 학과로 진학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우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저는 다양한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전자통신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재수하여 지금의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수능을 단 한번도 보지 않았던 고3 시절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에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가짐부터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우선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 공부했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공부했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수능이 끝나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은 제가 받을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저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공부하면 수능성적은 저절로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사실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고3 이었습니다. 그 때 누군가 한 명이라도 제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라’, ‘입시는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었다면 달라지지 않을까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나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재수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정시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체력이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피로가 너무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3 시절 매일 학교수업을 제외하고 혼자서 2~3시간 정도 밖에 공부를 안 하던 제가 무작정 하루 약 14시간 정도를 공부하는 것이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설 수 있는 주말이 없었던 것 또한 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한 가장 많이 하자고 생각했지만 몸이 버티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면서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최대를 알아야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자는 시간도 바꿔보고, 하루에 공부시간도 바꿔보고, 휴식시간도 조정해보면서 몸에 무리가 없는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하루에 최소 12시간씩 공부하고 일주일 중 하루인 일요일에는 6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계획하며 생활하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피로감과 피로감을 이겨낼 적당한 휴식이 제가 생각한 전략이었습니다. 체력은 적응하면서 단련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으로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공부하기 싫은 마음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하루들이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목표는 흔히 말하는 명문대, 인서울,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수험생활이 끝났을 때 아무런 후회도 남지 않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충실하지 못하



는 날이 없어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또 다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의 대학생이 될 수 있음은 제 스스로 정한 확고한 목표와, 의심하지 않고 달려온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광운대학교 전자통신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제가 재학 중인 광운대학교는 1930년대부터 전자공학에 중점을 두고 대학교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광운대학교의 전자정보공과대학에는 전자공학, 전자통신공학, 전자융합공학, 전자재료공학과 등 전자공학과 관련된 학과가 많고, 각 학과의 방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전자통신공학과에서는 전자공학 및 통신, 신호처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전자공학과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IT산업과 관련된 지식을 얻어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전자공학, 통신이론, 컴퓨터공학 등 넓은 범위의 전공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자통신공학에서는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하지만 고등학생 때 공부한 수학 그 중에서도 미분과 적분, 그리고 물리와 관련된 지식이 기본이 되어 심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미분과 적분, 물리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전자통신공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 대학수학, 대학물리 과목에서 미적분학과, 물리를 공부하게 되어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전자통신공학과에서는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과인데 미래 산업에 대해 모르게 되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과에 대한 이해와 공부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 이종호 저자의 도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에서 4차 산업의 기술과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은 미래 산업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며 공부하는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전자통신공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폭넓은 방향으로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학, 정보통신분야, 컴퓨터공학 관련 국가 기관에 입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이동통신 사업체에 입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관련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 정보통신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핸드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설계하고 유·무선 통신의 송수신을 위한 정보국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외국에서 정보국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의 빠른 정보통신 기술을 외국에서 구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 이상혁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장교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장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장교로 나와 사회에 뛰어드는 것을 좋게 생각하여 관련 직업을 찾던 중, 학군과 학사 장교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고 동양대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 입학에 대해 준비한 전형은?

정시 전형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정시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문과였던 저는 공과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컴퓨터와 관련되면서 직업군인이 될 수 있는 학과를 찾다가 현재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안 하던 체력측정을 하려다 보니 힘들다고 느꼈고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써가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시사와 관련된 질문을 찾아보는데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마음가짐과 군인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잘 알고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찾아가 질문을 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처음 접하기도 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수시로 거울을 보고 연습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제 면접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은 학교 야간자습시간에 위주로 준비했으며 모의 면접에 참여하여 실전에 대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실제 면접 때 긴장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평소에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많은 학생이 고민하지만 정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노트에 솔직하게 끄적이다보면 많은 이야



기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정리해서 주제에 맞게 쓰면 큰 부담은 없습니다.

□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6.25 전쟁, W (시사책) 이렇게만 읽어서도 좋고, 추천과목은 도덕입니다. 나중에 군대 윤리를 배우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 사람의 됴됨이를 많이 보시기도 하고 군대에서도 인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주로 통신 분야로 임관하시고 그 외에 보병으로 임관하십니다. 제 기억 속엔 리더로서의 자격을 잘 갖추셨고 후배를 잘 아껴주셔서 야전에 가서도 잘하실 거 같습니다. 또한 술선수범하는 행동을 많이 하셔서 보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 저도 따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일반 사회처럼 요즘은 군에서의 사회도 마찬가지로 IT시대에 맞춰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장교로서 시대에 맞추어 공부를 틈틈이 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고, 무엇보다 혹시 모를 재대 후의 일자리를 위해서 꼭 배워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산업기사 자격증, pc 정비사, 네트워크 관리사 등 이러한 자격증들이 필요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장교에 꿈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은 꼭 지원을 하여 합격을 한 뒤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양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 이석진, 이종훈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과 비슷한 적극적이고 리더십 있는 진로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에서 군대에서 잦은 구타와 자살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주위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군대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사학을 체계적으로 배워 사고 없는 군대 체계를 만들어가고 리더십 있는 장교가 되고자 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 했고 이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 저 스스로 보상을 받자는 목표를 세워두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힘든 과정은 크게 없었으며 노력한 결과로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담임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오랜 시간을 두면서 차분히 솔직하게 적으면서 준비하였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랙트, 급식도우미, 또래상담반, 금연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경험과 사교성을 키웠고, 활동한 모든 그룹에서 리더를 맡아 적성과 자질을 알 수 있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적극적인 모습과 리더로서의 다양한 경험,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우리 학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입학 전에는 아무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적응해야할지 고민만 하였지만, 입학 후에 군 장학생에 선발된 후 4년 동안 장학금이 나오는 것을 실감하니 부모님께 등록금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에 대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우리 학과는 굉장히 화목하고 단합이 잘 되는 학과이며 선후배 관계가 매우 좋아 만족합니다. 또한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술선수범하는 학과라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1학년 학생들의 군 장학생 합격을 위해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따기 위해 그 과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대부분 군사학과라고 되게 딱딱한 분위기 속에만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선후배 관계가 좋고 또한 전공 공부도 선배들이 잘 알려주셔서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잘 이해할 수 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다른 학교 군사학과와 동일하게 군사학도 전공하지만 우리 학교는 정보통신 분야도 같이 전공을 하여 좀 더 많은 내용을 배웁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심리를 공부하여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친구들과 선후배와 이야기를 해 보니 상담 분야도 적합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군무원 관련된 분야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장교로 임관하여도 모두가 장기선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가 안될 경우 군무원으로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자IT미디어공학과 윤석규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창의 기계”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친구들과 함께 창의경진대회 문제를 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과학키트를 구매해 원리를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힘들어서 시간이 많이 필요했지만, 막상 키트를 주문하고 조립하며 원리를 파악하다 보니 굉장히 즐거웠어요. 특히 전자기 유도 법칙을 활용한 무선 전구를 다루면서 물리 시간에 배우는 전자기 유도 단원에서 집중을 하면서 들을 수 있었고 어떤 식으로 원리가 키트에 녹아들었는지 파악하게 됐어요. 주로 사용한 키트들이 회로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자부품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전자IT미디어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과기대로 견학을 온 적이 있었어요. 견학활동 중 입학처 선생님께서 입학전형을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때 처음으로 학교생활우수자전형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내신 2~2.5등급이면 지원해볼만 하고 3등급대면 논술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셨어요. 당시 내신 3등급이었던 저는 학교생활우수자에 지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보단 어떻게든 2등급 초반으로 올리자는 생각으로 내신공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일단 수업시간에 최대한 안 즐기위해 서서 수업을 듣기도 했고 수업시간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수학의 경우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어요. 이렇게 내신을 2등급 초중반으로 올리고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교과+종합+수능최저라는 조건이 붙어있어서 준비하기 꽤 까다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소서부터 천천히 준비했어요. 글쓰는 솜씨가 부족해서 학교 글쓰기 강좌를 듣기도 하고 담임선생님께 첨삭을 받기도 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1~2시간정도 자소서를 썼어요. 친구들은 하나 둘 자소서를 완성해 가는데 약간 뒤처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열심히 쓰다 보니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할 자소서가 완성되었고 원서를 마무리했어요. 수능 최저는 이해하기 힘든 책을 계속해서 읽고 독해하다보니 수능국어 비문학을 전부 맞출 수 있었고 수능영어는 절대평가이였기 때문에 쉽게 등급을 따낼 수 있었어요. 결국 2개합 6이라는 최저를 맞추고 합격자 발표만을 기다렸고 추가합격 마지막 날 이불에 누워서 잠자려던 순간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아마 지금까지 달려온 소중한 시간들이 서울과기대에 합격한 이유였던 거 같아요.

□ 전자IT미디어공학과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고교 교과목이나 책은 무엇인가요?

물리2 과목이 전공에 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학교 물리는 물리2 과목을 기본으로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을 다루기 때문에 물리2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수능 때 과학탐구 과목으로 물리2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물리2는 개념이라도 듣고 대학교에 오면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물론 물리1 개념으로도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 있지만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께 여쭙보면 돼요. 추천할 책은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이에요. 국가론은 플라톤과 주위 인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이야기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참고 읽어가다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해하기 힘든 전공 책을 볼 때 독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교양과목에서 교수님이 설명해주는 강의도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또한 수능 국어 비문학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 많은 책이에요.



□ 더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저는 현대 물리학을 배우고 싶어요. 공학의 기틀은 순수과학 즉, 물리 같은 과목인데 그 기틀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공학에서 사용되는 공학적 원리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물리학이 발달함으로써 공학도 같이 발달될 텐데 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물리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꼭 하고 싶은 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남들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생각해보면서 남들과 비교되는 삶이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주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목표를 꼭 이뤄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봤을 때 후회되지 않도록 같이 열심히 해봐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이재윤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보안'의 중요성은 심히 크다고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보안을 철저히 지키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전공을 탐색하던 중, 정보보호학과를 알게 되어 이 분야로 전공 및 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3년간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했습니다.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을 많이 읽었던 것이 합격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후, 그 시간에는 항상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통해 쌓은 지식과 교양은 삶의 전반부에 녹아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들은 면접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책을 읽으시고, 교내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성실히 참여해보세요. 진로 관련 독서나 활동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책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나만의 스토리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잘 풀어내세요. 이렇게 이 학교에 오기 위해 정성껏 준비해왔다는 점을 드러낸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열정이 충분히 전달될 것입니다.

가고 싶은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전공별 세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후 배우게 되는 교과과정과 졸업 후 진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유의해서

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학문을 전공으로 택하고, 고등학생이기에 알지 못했던 대학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해보세요. 이렇게 얻은 정보는 입시 준비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홈페이지 속 아름다운 캠퍼스 전경은 지친 수험생활을 달래주고, 대학생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불타오르게 해줄 것입니다.

□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서울여자대학교에 입학한 후, 크게 감동했던 것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교수님들의 모습은 학생으로서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절로 들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학교의 모습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입학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학과에 진학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보안 분야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창의력과 수리 논리력을 갖고 있다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고교 과정에서 수학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풀이로 접근해보는 습관은 이 핵심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공 관련 도서를 읽음으로써 배경지식 및 전공 개념을 쌓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사회와 미래 사회의 양상을 파악하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한 친구들은 책 'I WAR'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정보보호학과를 졸업한다면 해킹 대응 및 침해사고 분석 분야에서 보안관계 전문가, 악성코드 분석가, 모의 해킹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보시스템 정보보호관리 및 컨설팅 분야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정보보호 분야 공무원, 정보보안 컨설턴트, 정보보호분야 인증심사원으로도 진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시큐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아키텍트가 되어 정보보호 제품 설계 및 개발을 하거나 일반 IT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및 데이터 분석 분야를 택하여 디지털 포렌식, 사이버 경찰청 수사관, DB 보안 전문가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불어 학문 및 연구를 하며 정보보호분야 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수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진로가 존재합니다.

학과 관련 자격증은 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정보보안기사/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CISSP 및 CISA, 개인정보보호자격 CPPG 등이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지난 수험생활 동안 뚜렷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치는 순간도 물론 있었지만, 꿈이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힘겨운 수험생활이겠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꿈을 찾아 목표로 삼는다면 고단한 길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공부인 만큼 더 힘을 내시고, 끝까지 입시 마라톤을 완주하셔서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김정모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컴퓨터를 배우려면 이과를 가야한다구요? 천만에요!”

제가 처음 컴퓨터를 접한 것은 3살 남짓 때입니다. 당시 컴퓨터는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전자오락을 취미로 즐기기 시작했고, 컴퓨터에 익숙해지면서 컴퓨터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대학에서 컴퓨터에 대해 공부를 하고자 했던 저의 꿈은 좌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컴퓨터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된 컴퓨터공학과는 이과 계열 학생들만 진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과 계열 학생이었던 저는 고민에 빠졌지만, 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학과를 수소문하였고, 그 결과 찾은 학과가 바로 한양대학교의 정보시스템학과입니다.

정보시스템학과는 정시 전형에서 ‘상경 계열’로 분류되며, 수능 과목 중 국어, 수학 ‘나’형, 영어, 사회탐구 2과목을 전형 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과 학생에게 적합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시스템학과는 컴퓨터공학 관련 과목 70%, 경영학 관련 과목 30% 정도의 비율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자, 약방의 감초같은 존재!”

오늘날 IT 정보시스템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면 기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등 경영 방식을 최적화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IT기술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제대로 경영 현장에 적용하려면 경영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공학과 경영학 전반에 대하여 두루 학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학

과에 진학하면, 어떤 기업에서 일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전문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프로그램의 기본은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방법!”

새내기들이 1학년 때 공부를 하며 낯설어하는 것은 프로그래밍 그 자체입니다. 프로그래밍은 컴퓨터와의 의사소통입니다.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에 낯선 것처럼,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 프로그래밍에 대해 익숙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로 자연스럽게 그룹이 나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그 원인은 “문제 해결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한 설명에 덧붙이자면, 프로그래밍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하여 컴퓨터와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즉, 주어진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컴퓨터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알고리즘은 수학과 그 맥락이 같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밍에 흥미가 있다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입학 직전에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예를 들어 C언어나 Python)를 배우기보다는 프로그래밍을 관통하는 기본 개념들을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볍지만 알찬 입문서로 Pope님의 저서 “Hello Coding 프로그래밍”을 추천합니다.

“경험과 실력으로 무장한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자!”

학교에서 생활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선배들입니다. 공간을 보낼 좋은 장소는 어디인지, 학교 근처 맛집은 무엇이 있는지, 좋은 강의는 무엇이 있는지, 어려운 과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등 유용한 정보를 가득 갖고 있습니다.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저말고 선배들에게 먼저 연락하라는 것입니다. 후배들의 질문이라면 선배들은 관심과 애정을 담아 경청해줄 것입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정보시스템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직군은 바로 “전산관리직”입니다. 전산관리직의 업무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컴퓨터와 경영 모두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정보시스템학과 졸업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종입니다.

또한 컴퓨터공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래머”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학과 수업을 통하여 기초적인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어느새 실력이 쌓여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컴퓨터공학과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발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명 스타트업, IT중견·대기업에서 개발자로서 일하고 있는 동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 꼭 하고싶은 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나만의 취미를 가지세요”

대학생이 되고 나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전공공부와 학점관리에만 열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점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졸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이 가장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대학생 시절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공 이외에 여러분에게 흥미가 있는 분야가 있다면,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즐기시길 권합니다. 스포츠, 게임, 독서, 여행,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쏟았던 주제들이 여러분을 한층 더 다채롭고 개성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대학 생활은 당신의 가능성을 찾는 시간입니다”

비록 하나의 정해진 학과를 지원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와 달리 전공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분야에 흥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공공부가 적성에 잘 맞는다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유로 너무 크게 실망하거나 방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다전공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전공 이외에 다른 학과의 전공수업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할 때에 제2전공, 부전공 등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공수업 이외에도 교양수업, 그리고 교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동아리, 소모임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재 료

재료 영역은 모든 산업의 근간과 핵심을 이루는 소재를 다루는 학문분야 분야로서, 물질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고 응용하는 학문이다. 성상에 따라 금속재료, 세라믹재료(또는 무기재료), 유기재료분야로 구별되며, 다양한 산업별로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구조재료, 전자재료, 반도체재료, 복합재료 등으로 구분된다. 관련 분야는 금속공학, 반도체공학, 신소재공학, 세라믹공학(무기재료공학), 재료공학 등이 있다.

신소재공학
재료공학

신소재공학

신소재공학 분야는 기간산업 뿐 아니라, IT산업, 우주항공산업, 에너지산업 등 첨단 산업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초 소재를 개발하는 첨단 산업분야로서 기계적 기능재료, 열적 기능재료 화학적·생체적 기능재료, 환경재료, 전자기능재료, 극한재료, 자기적 기능재료 등의 다양한 각종 첨단 과학재료 분야에 대하여 제조, 가공 및 특성분석에 관한 체계적인 학문적 이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고체물리, 물리화학, 재료과학, 열역학, 재료결정학, 조직학, 상변태학, 세라믹소재공학, 반도체공학, 재료분석학 등이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신소재공학과 이가인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과학탐구 토론대회를 나가게 되며 과학에 조금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계셔서 평소에도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우연히 우주선의 궤 소재가 타일로 만들어 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주선을 이루고 있는 표면은 굉장한 물질일 줄 알았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화장실 바닥에 붙이는 타일이 열에 강해 우주선의 궤 표면을 이룬다는 소리를 듣고 흥미가 생겼고, 재료에 대해서 배우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여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저는 정시로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진학 시 당시 충남은 비평준화였습니다. 당시 천안의 학구열이 상당했기 때문에, 온양에서 천안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고, 1학년 때부터 정시준비를 차분히 해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정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3학년 2학기가 되면서 수시에 붙은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것이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긴 시간이다 보니 흔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수능 날이 다가오며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심해져 당일 컨디션이 좋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고, 하루 만에 모든 걸 결정하게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심리적 부담감이 심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심해서였는지 수능에서는 제일 자신 있어 하던 수리과목은 처음 받아보는 등급을 받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고 수능을 다시 볼 엄두도 나지 않아 재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2학년이 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행복시스템설계'에 대한 주제로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멘토링을 받으며 마음에 여유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보니 수능도 인생에 있어 그렇게 큰 시험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며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고, 그렇게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고등학교 당시 과학탐구 토론대회에 참가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우연히 교내대회에 참여를 했는데, 대상을 받아 도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도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업들의 인터뷰도 받게 되고, 선생님과 팀원들과 함께 연구소에 방문하며 신선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들을 토대로 도 대회에서는 은상을 입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활동은 생물동아리였습니다. 생물에 자신이 없어 생물동아리를 가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생물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여러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로인해 소 눈, 돼지 심장 등을 해부해보았고, 초파리도 키워보며 즐거운 생활을 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신소재 공학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고교 교과목은 아무래도 화학 1,2인 것 같습니다. 보통 화학 하면 화학이나 응용화학공학, 화학공학 쪽에서 많이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재료의 기본이 되는 기초 과목은 일반화학인 것 같습니다. 화학에서도 열역학을 중심으로 물질을 파악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잘 해놓는다면 진학 후 수월할 것 같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신소재는 크게 고분자와 금속으로 나뉘게 되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신소재에서는 주로 금속재료를 다루고 응용화학공학부에서 고분자, 섬유 재료를 다루게 됩니다. 저는 금속을 주로 다룹니다.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저희 학교에서는 전공과목의 경우 실습을 같이 진행합니다. 실습을 하며 직접 조직을 관찰하고 기계를 다루며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글로만 배우는 것보다 훨씬 잘 와닿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졸업 전 공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키보드를 원래 조금 칠 줄 알기 때문에 키보드를 선택하여 밴드부에 들어가 팀을 꾸리고 공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으로는 현재 'LG글로벌챌린저'를 준비 중이며, 주제를 선정하여 해외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 기업 컨택 중에 있는데, 현 과정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보통 공대하면 남자들만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과에는 여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학생들만 많아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 학과 선택을 망설인다면, 망설임 없이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신소재는 보통 금속과 세라믹, 고분자로 나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응용화학공학과에서 고분자(섬유)를 다루고 있고, 신소재공학과에서는 주로 금속(철강, 반도체재료) 등을 다룹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주로 반도체 회사에서 많이 근무합니다. 선배들 모두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저희 학과는 보통 금속재료 산업기사를 취득합니다. 산업기사를 딴 뒤에는 기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외에도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처리기사 등이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조영무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신소재공학부라는 학부를 알게 된 것은 변리사라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변리사’란, 발명품의 특허 또는 저작권을 처리하는 직업으로 정보화 시대, 발명, 특허가 인정받는 시대에 특수화 된 직업입니다. 새로운 것을 먼저 보고 제 손으로 직접 특허를 내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신소재공학부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둘 모을 때마다 저와 꼭 맞는 학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소재공학부는 첫 번째로 작은 원자에서부터 분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전기기, 건물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상상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웠고, 각기 성질을 띠는 작은 원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보는 물질들의 성질을 나타낸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안경사이십니다. 자연스럽게 안경과 관련된 신소재들을 접하였고 이것들의 원리에 대하여 더욱 심도있게 알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소재공학부는 변리사 뿐 아니라 여러 진로가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물질은 그에 바탕이 되는 재료가 있고 이러한 재료를 공부하는 신소재공학부는 어느 분야에서든 각광받는 학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어떻게 물질을 연구해 왔는지부터 현재 쓰이고 있는 물질들과 그와 관련된 여러 이론들 나아가 획기적이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까지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저를 신소재공학의 길로 유도하였습니다. 과거에서 미래,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원자에서 건물까지 방대한 규모를 배울 수 있는 신소재공학은 흥미로운 학문이라고 장담합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신소재공학부가 굉장히 유망한 학부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험생 시절의 저는 전문적인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은 인터넷 하나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소재공학부의 교육과정 또는 신소재공학부 합격생들의 후기 등을 읽으면서 신소재공학부 학생으로 학교에 다닐 저를 상상하였습니다.

저는 수시로 입학하였고 무엇보다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또는 대외활동을 틈틈이 하였습니다. 과학 동아리를 만들어 동아리 장으로 활동하며 각종 경험들을 쌓았고 시·도에서 열리는 과학경시대회에 나가서 여러 문제 등을 접하면서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에는 제가 흥미를 갖게 된 배경을 사실대로 서술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흥미를 갖게 되고 지원을 했다는 점에서 면접관님들께 좋은 인상을 남긴 것 같습니다. 면접분위기는 굉장히 밝았습니다. 긴장한 저를 위하여 기다려 주시고 제가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셨습니다. 면접 때 저는 최대한 저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타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긴장했을 때 실제 저와 다른 허구의 저를 설명하면 티가 날 것이라 생각하였고 솔직한 대답과 재치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 졸업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처음 저는 변리사를 꿈꾸었습니다. 여러 개발 물질들과 발명품을 누구보다 먼저 제 눈으로 확인하고 개발자분들을 도와 특허를 내주고 싶었습니다. 입학 후 전공을 공부를 하면서 반도체를 배우게 되었고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R&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Research & Develop의 약자인데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R&D산업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반도체 메모리 사업에 이바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삼성 또는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제조 회사에 취직을 하여 반도체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 개발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어려울 수 있어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여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전자기기의 중요한 부품중 하나를 제 손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오늘 하루도 힘든 몸을 이끌고 학교로, 학원으로 향할 수험생 분들이 저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어려웠던 만큼, 그 분들의 길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쉬운 길은 없는 입시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지표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멘토링, 과외한번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제 앞 길을 제 힘으로만 개척을 해야 했었고 많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제가 힘들었기에 수험생 분들은 그러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기꺼이 알려드릴 것이고 응원이 필요하다면 두 팔 들어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항상 응원합니다.



재료공학

재료공학 분야는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물질의 구조와 조직, 이들 물질의 성질 즉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자기적, 열적 성질을 통섭하여 금속재료, 세라믹재료와 전자재료, 반도체재료 등 신소재 등의 연구 개발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고체물리, 물리화학, 재료열역학, 재료과학, 금속 재료학, 세라믹소재공학, 반도체공학, 전자재료공학, 재료결정학, 조직학, 상변태학, 재료분석학 등이 있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재료화학공학과 황지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재학 중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화학'이었습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화학책을 꺼내서 공부를 할 만큼 화학을 좋아했습니다. 실험실에서 화학실험을 하는 날이 행복했고, 무색인 두 물질을 섞어 붉은 빛이 도는 실험을 한다던지, 두통이 있을 때 흔히 먹는 약인 '아스피린'을 직접 만든다던지 하는 경험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화학공부에 들이는 시간에 비해 성적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과 관련된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 잘하는 것 보다는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화학과 관련된 학과에 지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화학을 좋아하면 보통 생각하는 학과인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를 두고 고민하였는데, 두 학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응용'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화학과에 비해 화학공학과는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화학을 공부하는 학과였습니다. 물리와 수학을 조금 더 많이 공부해야한다는 점이 조금 어렵겠다고 생각했지만, 단순한 랩 실험이 아니라 당장 공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scale-up을 하는 화학공학과의 성격이 저와 더 어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화학공학과의 취업률이 높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많은 화학공학과를 두고 재료화학공학과를 택한 이유는 재료공학과와 화학공학도가 합해진 학과이기 때문입니다. 재료공학과는 신소재공학과와 같은 성격의 학과로 반도체, 철강을 주로 공부하는 학과인데, 반도체가 재밌을 것 같기도 했고 입학 후에 직접 전공 수업을 들어보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화학공학 전공이 저와 맞지 않을 경우 재료공학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수시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모두 준비했습니다. 수시 전형을 위해서 내신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내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학교 수업시간에는 절대 졸거나 자지 않았습니다. 너무 졸릴 때는 교실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스탠딩 책상을 이용해 수업을 들었습니다. 매일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날 배운 과목을 1교시부터 순서대로 복습하였고, 질문이 생기면 바로바로 선생님들께 질문하였습니다. 내신 복습이 끝나면 모의고사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야간자율 학습이 3~4시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신 복습은 한 시간 안에 끝내고 나머지 시간을 모의고사 준비에 투자하며 최저학력기준과 수사에서 모두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였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준비는 학생부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생부를 열심히 관리하였습니다. 과학, 화학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고, 그 책들을 모두 학생부에 올렸습니다. 대입을 위해 허구성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고3 면접 직전에 1학년 때부터 읽었던 책들을 대강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한 부분은 동아리입니다. 학교에서 다들 하는 동아리는 화학동아리에 들어갔고, 자율적으로 하는 생명과학동아리에서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고2때는 화학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수업시간에 이론만 배우고 직접 실험해보지 못하는 실험을 직접 계획하고 친구들과 함께 실험해보며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고3때는 과학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 과학적 이슈를 가지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상식을 채우는 것은 물론 과학적 이슈들에 대해 보다 깊은 고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많이 한 탓인지 면접 때 교수님께서 실험 하나를 짚으시며 실험과정과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책 읽는 것을 좋아하여 독서토론 동아리에 가입해 매주 지정된 책을 읽고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의 생각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은 과학관련 봉사를 찾았지만 주변에서 찾을 수 없어서 학교주변에 있는 아동복지센터에 3년 동안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봉사가 아니라 꾸준한 봉사를 하였기 때문에 대학입학에 좋은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전공 기초 과목은 일반화학1, 일반화학2, 일반물리학1, 일반물리학2, 미분적분학입니다. 하지만 이 과목을 모두 수강 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기초필수 과목이라고 하여 이 과목들을 필수로 배우게 됩니다. 추천도서는 화학과 관련된 도서를 읽는 것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가능한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학대



학 학생들이 대체로 글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많이 써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대학과제를 할 때 책을 많이 읽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화학과의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학과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화학과 보다는 응용을 많이 하는 학과입니다. 화학과 친구들은 간단히 말하면 4년 동안 화학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화학에도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류(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를 다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화학공학과는 유기화학만 배웁니다. 추가로 물리화학, 유체역학, 반응공학 등 좀 더 물리에 가깝고 응용하는 학문을 배웁니다.

졸업 후를 보면 화학과는 대체로 대학원에 가는 추세이고, 화학공학과는 대학원에도 가지만 취업을 많이 합니다. 취업의 분야는 반도체, 석유, 제약, 화학회사 등 분야가 정말 넓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최근에 졸업한 선배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근당 등의 대기업에 많이 취업하였습니다. 의외라고 생각 할 수 있는 제약회사에 많은 취업률을 보이는데 약대에서 제약회사에 많이 갈 것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화학공학과에서 제약회사에 높은 취업률을 보입니다.



화공·고분자·에너지

화공·고분자·에너지 영역은 화학, 물리, 수학, 생물학 등 기본학문의 원리에 공학적인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화학공정의 영역과 고분자 합성 및 재료의 영역, 에너지 발생 및 관리의 영역, 생명의 본질 규명 영역, 섬유의 제조와 응용 영역 등으로 구분된다. 관련 분야로는 화학공학, 에너지공학, 고분자공학, 생명공학, 섬유공학 등이 있다.

화학공학
생명공학

화학공학

화학공학 분야는 화학공정을 통해 정유 및 석유화학공업을 비롯하여 섬유, 고무, 정밀화학제품, 유지, 세제, 펄프, 화약 등 산업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화학공업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등 중요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목표로 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공업화학, 열역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화학공정설계 등이 있다.

금오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김혜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학교 시절 우연히 화학 도서 독후감 대회에서 입상하였고, 다른 과목에 비해 실험에 호기심과 흥미가 있어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탐구영역에서 화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호기심을 바탕으로 공부하여 과학경시대회에서 4등을 하게 되어 화학에 대한 자신감까지 생기게 되어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 물리나 생명과학보다 화학 관련 학과를 찾아 금오공과대학교 화학소재융합학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고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응용화학과, 소재디자인공학과 중에서 화학공학과와 응용화학과를 고민하게 되었고, 화학공학과가 응용화학과보다 더 높은 수준의 화학을 배운다고 생각하여 화학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여러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전형을 준비하였습니다. 수시 교과와 종합을 위해 많은 교내활동과 대외활동을 하였으며, 좋은 성적을 유지하여 높은 내신 점수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종합전형에서 필요한 자소서는 담임 선생님, 국어 선생님, 화학 선생님 두 분께 찾아가 피드백을 받고, 희망대학에 합격하신 선배님을 찾아서 학교에 대한 정보, 면접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알게 되고 자소서도 피드백을 받으며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금오공과대학교 수시전형 중 적성고사 전형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출제 범위는 국어, 영어, 수학 영역입니다. 금오공과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으신 수험생은 적성고사는 수능준비와 비슷하지만



난이도는 조금 낮다고 생각되므로 여러 전형을 고민해보고 적성고사 전형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화학 VS 화학공학

많은 학생들이 화학공학은 화학에 기초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전공수업을 들어보면 화학공학과는 물리와 수학 과목에 화학을 약간 첨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화학과를 갈까 화학공학과를 갈까 고민하던 중 취업을 보고 화학공학과를 왔다가 물리와 수학의 높에 빠져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입을 앞선 친구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화학과와 화학공학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화학 관련 수업을 듣는 것이지만, 화학과가 단순히 화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화학공학은 화학과에 경제성을 더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화학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 반응을 알아내며, 화학공학과는 그 반응을 더 효율적으로 알아내는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분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등 여러 화학 관련학과가 있는데요. 화학공학과 학문 중에서 고분자와 신소재 방면으로 더 자세히 배우는 학과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화학공학과와 관련자격증이나 시험을 살펴보면 먼저 관련자격증을 살펴보면 위험물 산업기사, 가스 기사,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다양한 관련 자격증이 있으며 취업에 필요한 시험으로는 토익, 토플, 오픽 등 어학관련 시험이 있습니다.

금오공과대학교 화학공학전공 남가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화학공학과에 관심이 생긴 건 에너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학과 진학을 희망하던 중 아직 신재생에너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대체하기엔 많은 장벽들이 있다는 것과 '만약 내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하기 싫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내 마음이 미래에도 그럴지는 모르는 일이잖아.'라는 생각이 들면서 학과 선택을 더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과 비슷한 고민을 했을 친오빠와의 대화 끝에 결정을 내린 학과가 화학공학과였습니다. 만약 화학공학을 공부하다가 신재생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확고해지면 그 분야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등 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 학과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대입을 준비할 때만 해도 제 주변의 친구들은 학과보다는 학교를 목표로 잡고 수험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과야말로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를 진학하고 보니 이 학과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었고, 전과나 편입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전공에 대한 고민을 고등 학교 때 하지 않고 성적에 맞추고 취업이 잘될 것 같은 학과에 지원하다보니 대학에 진학한 후 전공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재수 또는 반수를 결심하기까지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재 전공멘토단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도 제 친구들과 같은 후회를 후배 들은 조금이나마 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꼭 화학공학과가 아니더라도 관심있는 여러 전공에 대해 상담받고 전공선택의 폭을 늘려서 대학생활을 즐기면 좋겠습니다.

□ 금오공과대학교 화학공학전공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전공에 기초가 되는 물리와 화학, 수학은 필수적입니다.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우지 않아서 힘들어 하는 동기들을 보았습니다. 화학공학과뿐만 아니라 물리는 공과학생들이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이니만큼 공학계열을 생각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꼭 물리를 수능에서 선택과목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따로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천도서로는 과학콘서트책들이 괜찮게 나온 편인 것 같아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공정에 대한 지식들입니다. 화학공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화학제품을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어떤 온도와 압력에서 어떤 반응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은 열역학, 유체역학, 반응공학, 열 및 물질전달 등 공정에 대한 내용을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

입학 전에는 전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리, 화학, 수학을 중점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전공에서 어떤 걸 다루고 내가 졸업을 한 후 어떤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장실습이나 졸업한 선배들과의 꾸준한 만남을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주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진출하고 싶은 분야도 세부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활동은 저희 학과 학술동아리활동입니다. 작년에 직접 만든 동아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회장이 혼자하기에는 벅차다고 생각하여 함께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떻게 학우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지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교수님들과 협의하는 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공에 대해 전공강연을 나가면 대부분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걸 알게 된 뒤로 관련 강연을 가면 항상 차이를 아는지에 대해 질문부터 하는 편입니다. 화학과는 기초화학에 중점을 둔다면 화학공학과는 응용화학에 더불어 경제성이 중요시되는 학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화학과와 화학공학과를 혼동해서 원하는 학과를 가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공강연과 전공멘토단을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 후 선배들의 진출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느 분야라고 꼭 집어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반도체, 화학원료회사, 섬유, 디스플레이, 분리막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아닌 직무로 나누게 되면 연구개발, 생산관리, 화공플랜트, 품질관리가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으로는 화공기사가 가장 대표적이고 추가적으로 화학분석기사, 가스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하나 더 취득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격증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자격증은 없지만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여러 졸업생들이 좋은 직장을 얻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아대학교 화학공학과 최명선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화장품연구원이 되고 싶다는 진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노기술을 활용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화학공학과로 진학하여 유기화학과 나노화학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공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이라는 과목에 흥미를 많이 느끼기도 하였고 물질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기에 화학공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특성상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내신 또한 관리해야한다는 것이 벅찼던 것 같습니다. 화학공학과에 입학하고 싶었기 때문에 화학공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직접 화학동아리를 창설하거나 과학탐구대회에 나가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학생임을 보이기 위해 학생회활동이나 학급 간부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내신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두 가지 모두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플래너 사용을 통해 시간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루동안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몇 시까지 마무리한다고 설정해놓으면 그 시간 안에 공부를 하거나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추진력도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현재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지쳐있는 상태였는데 막상 면접실에 들어갈 때는 엄청 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님과 교수님께서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질문은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느낀 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일단 생활기록부를 펼쳐두고 자기소개서에서 살리고 싶은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자기소개서에 녹일 활동을 정하였고, 정한 활동들은 왜 하였으며 무엇을 얻었는지 위주로 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좋게만 보이고 싶어서 과장시키거나 꾸며내서 글을 썼는데 제가 직접 한 일이 아니다보니 글이 점점 산으로 가는 것을 느껴서 최대한 솔직하고 생생하게 적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첨삭은 교내 선생님 한 분께 여러 차례 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자기소개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과학을 좋아했고 공대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제가 배우지 않는 물리과목에 대한 책을 읽으며 스스로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과목에 치우쳐 독서를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과 관련된 독서를 통해 다방면의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화장품연구원이라는 꿈이 있었기에 이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일반고였던 저희 학교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동아리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화장품연구 동아리를 창설하여 마음 맞는 친구들을 모집하면서 리더십도 키울 수 있었고 제 꿈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3년 내내 학생회를 하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홍보부였는데 학생을 대표하여 축제나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질서 유지나 의견을 듣는데 힘쓰며 사회성도 기르고 성취감도 많이 얻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학공학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던 시기에 과학탐구대회에 나가 너무 재밌게 실험을 계획하고 보고서를 쓰는 것을 보며 과학에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던 기회였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화학공학과에서는 수학과 화학, 물리 과목들이 기초가 됩니다. 추천도서로는 [치약에서 나노까지 대한민구 화학 산업 이야기]입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1학년이기 때문에 기초수학 및 기초과목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응공학과 단위조작, 열역학, 나노공학에 대하여 배울 것입니다. 현재 저희 학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공학인증프로그램입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입학 전에는 화장품연구원이라는 직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막상 화학공학과에 입학하여 진출분야를 알아보고 공부해나가면서 화장품연구원이 안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하면서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학과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위해 평생지도교수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주기적으로 면담을 가지면 학과생활 중 힘든 거나 궁금한 점들에 대하여 대화하며 학과에 잘 적응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같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지금 제 역량강화를 위해 교내 전공 설명단 활동에 가장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직 1학년이라서 학과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공 설명단을 하면서 제가 속해있는 학과가 어떤 특성이 있고 진출분야는 무엇이며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보다 세부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나가며 어떤 식으로 진로를 설정할 지 생각하게 됩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공대에 속하기 때문에 진출 분야가 공장과 같이 현장 위주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고 남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학공학과 경우, 공대 중에서도 여학생이 많이 진학하고 있고 현재 저희 학교의 경우, 성비가 1:1정도입니다.

화학공학과는 공장 설계나 생산 및 품질 관리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나, 제가 꿈꾸는 것과 같이

대학원에 진학하여 연구원이 되는 분들도 많고 기업에 들어가 기술 마케팅 분야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는 만큼 진출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화학공학과와 화학과는 화학을 배우는 학과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학과는 엄연히 다른 학과입니다.

〈주요 특징〉

- 화학과 : 자연계열학과로 순수 학문을 다루는 학과이며, 화학적 원리를 탐구, 분석, 실험한다.
- 화학공학과 : 공학계열학과로 순수 학문을 다루는 화학과는 달리, 화학을 응용하여 우리 삶에 이용하는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다.

〈교육과정〉

- 화학과 : 일반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등 순수 화학을 다루는 학문을 배운다.
- 화학공학과 : 화공양론, 유기화학(화학과보다 훨씬 간단한 수준), 열역학, 반응공학, 생명공학 등 화학과는 달리, 커리큘럼에서 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진출 분야〉

- 화학과 : 화장품회사, 제약회사(신약개발), 반도체회사, 식품첨가물 개발, 디스플레이 연구, 신소재 연구 등
- 화학공학과 : 기계공학기술자, 대기환경 기술자, 비누 및 화장품화학공학 기술자, 위험관리원, 의약품화학공학 기술자, 조향사 등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석유화학 및 정유 업체, 정밀 화학업체,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산업체, 식음료업체, 섬유업체, 신소재 관련 업체, 제약 및 생명 과학 관련 업체 연구소, 화학 관련 기업체 연구소, 화학 관련 대학 부설연구소, 정부의 화공 관련 부서, 석유공사 및 화학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진출합니다. 저는 화학공학과는 응용분야가 많기 때문에 졸업하게 되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 다양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저는 나노공학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싶은 화장품 연구가 나노기



술을 활용한 코스메슈티컬이기 때문에 나노크기에서의 조작을 통한 신소재의 합성 및 나노크기의 입자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화공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가스기사, 화학분석기사, 공업화학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기사, 대기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산업안전기사, 열관리기사, 생물공학기사, 소방안전기사, 품질관리기사 등의 자격증 시험이 존재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화학공학과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고등학생 시절 학과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에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학과를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이 학과에 대하여 소개해주면서 진학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송실대학교 융합특성화자유전공학부(화학공학과) 이준혁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화학공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화학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과학전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를 나가게 될지 의논함과 동시에 화학에 대한 주제를 찾으려 하며 부터였습니다. 화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화학1, 화학2로 기초를 쌓으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기초를 심화 지식까지 끌어 올리고 그 분야로 진출하면 재밌을 것 같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 송실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송실대학교 화학공학과는 먼저 교수님들이 굉장히 인자하시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 점을 정확하게 아시기에 최대한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특히 office hour라는 제도를 통해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시지 않고 오피스에서 계실 때 언제든지 가서 진로상담, 그 과목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으로 학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 학기에 한번씩 학과 교수님들과 진로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로에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1학년 2학기부터 화공입문이라는 과목을 나가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과목은 2학년 1학기에 배웁니다. 1학년 때부터 빠르게 전공 과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

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숭실대학교에 굉장히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중입니다.

□ 졸업 후, 진출분야는 어떤가요?

화학공학과에서 졸업 후 진출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정 제어, 신소재, 연구원, 대학원, 약사 등 굉장히 폭넓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대표적으로 화공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화공입문과 화공양론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신약 개발 또는 공정 제어 분야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숭실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와서 좋은 교수님들과 학우님들과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응용화학공학과 장서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음식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바르면 안 되는지와 같은 것들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화장품의 뒷면을 상세하게 보는 습관이 생겼고 고등학교 시절 화학시간에 잠깐씩 얘기해 주시는 화학 구조식은 저에게 다른 과목들 보다 쉽고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저처럼 자신이 평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 관심 있는 것과 연관시켜 전공을 선택하면 더 재밌는 전공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의 모의고사 성적을 더불어 내신 총합 점수는 뛰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신을 분석한 결과, 1학년부터 2학년 초반까지의 성적은 낮았지만 2학년 후반부터는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강점으로 잡아 수시로 초점을 맞추었고, 성적 반영 비율이 낮은 면접전형을 노렸습니다. 저는 자신의 성적분포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성적을 분석하여 성적에 맞는 전형을 찾아 준비하면 목표한 대학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수시로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1차는 성적으로 5배수를 뽑고, 2차는 면접, 3차는 수능최저등급으로 뽑는 전형이었습니다. 1차에 뽑는 인원에 5배수를 통과시키는 전형이라 면접이 매우 중요한 전형이었습니다. 면접에 100% 집중하기엔 수능최저등급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도박이라고 생각



하여 수능준비에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면접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면접 준비는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 3명과 그룹을 이루어 하였습니다. 면접관들이 볼 각자의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를 서로에게 준 다음 질문 10개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각자 받은 질문들을 생각해보며 하루를 정해놓고 실제 면접 상황처럼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는 것부터, 면접관들에게 인상을 심어주려고 연습한 첫 인사, 대답 도중 취하는 행동까지 서로의 면접관이 되어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이 방법이 면접에 느끼는 긴장감을 미리 느끼게 해 주었고 돌발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노하우가 생기게 했습니다. 친구들과 조언을 나누면서 첫 인사가 많은 면접자 중 인상 깊게 만드는 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에 관련된 무언가를 나와 연관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00고등학교의 활력소, ATP! 장00입니다.”라고 소개하였고 자연스럽게 면접관께서 ATP가 무엇인지, 어떻게 연관시킬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시면서 한층 밝아진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면접 전에 자신을 나타내는 말을 자신 있게 말하면 더욱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면접을 준비하면서 상식이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내 과학토론동아리에 들어가 과학적 상식과 지식들을 쌓아갔습니다. 이런 지식들은 전공공부를 하는데 기초가 되었고 교양 과목을 공부하는 데 까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입시를 준비하면서 상식을 쌓을 시간이 부족하다면 관심 있는 분야의 토론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 학교의 경우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로 입학인원을 뽑고, 1학년 겨울방학 때 응용화학공학과와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로 전공을 선택합니다. 전공 선택은 한 전공에 적정인원이 넘어갈 시에는 성적순으로 잘라 전공을 배정합니다. 저의 전공은 응용화학공학입니다. 보통 다른 학교는 화학과, 화학공학과 이 두과가 따로 존재하지만 우리 학교의 응용화학공학은 화학과와 화학공학과가 공존해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화학을 다시 한 번 깊어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일반화학1’ 과목을 배웁니다. 보통 수능의 과학탐구영역을 선택할 때 자신이 가고 싶은 과와 연관되어있는 과목을 선택해야하나 고민이 많은데 저는 자신이 가고 싶은 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들을 다시 한 번 1학년 1학기 때 짚고 넘어가지만, 고등학교 때 기초를 쌓아온 사람과 대학교 때 처음으로 기초를 쌓은 사람은 전공공부를 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한층 어려운 전공공부를 하게 됩니다. 화학과목만 6개를 공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새롭게 접하는 화학과목들이 많아 내가 원하던 화학인지 당황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분야의 6개의 화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전공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요새 말하는 대2병이 주변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자신의 전공에 대해 꾸준히 생각하고 어떤 분야가 나에게

맞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면 쉽게 극복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경우 IPP 제도라고 해서 현장실습을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학기동안 현장실습을 나가 실무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 한층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기대되는 모습은?

화학공학분야로 진출할 때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공기사와 위험물 산업 기사입니다. 산업기사는 2학년을 마친 후부터 취득할 수 있고 기사자격증은 3학년을 마친 후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통 2개를 모두 취득하면 좋아 보이지만 두 자격증의 성격이 달라 자신이 목표 하는 회사가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을 볼 때 '우리 회사는 이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데 왜 취득하였냐?'라는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분야를 잘 정하여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지 잘 알아보고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다양합니다. 학업에 뜻이 있어 대학원으로 진출하는 선배, 석유 화학, 제약회사 등 여러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많이 진출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뒤 취직할 수 있는 분야와 학부를 졸업한 뒤 취직할 수 있는 분야가 생각보다 많이 달라 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는 충분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입학한 뒤 선배들께 많은 조언을 구하고 이야기 하면 직접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화공신소재공학과 문정미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대학의 종류만 알았지 학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학하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장래희망을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장래희망도 딱히 없는 터라 무엇을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 대학 진학할 때 생활기록부 장래희망 칸에 하나로 통일해서 그 과에 진학하면 종합전형에서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민하던 찰나에 가족 중 신소재공학과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이 신소재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신소재공학과를 찾아보았습니다. 검색을 하면 할수록 흥미를 느끼게 되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장래희망에 신소재연구원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생활을 하면서 과학에 관련된 실험과 각 대학에서 하는 대학탐방과 WISET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신소재연구원이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고 지금의 화공신소재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학년 때 생활기록부 관리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혼자 방황하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과 세부사항을 써주시는데 ‘이번 성적 3등급까지만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의 성적은 3등급이 되지 않아 작성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학년 말에 생활기록부 확인을 했는데 저만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제야 다들 생활기록부에 ‘교과 세부사항이 많이 적혀야 좋다. 생활기록부 장수가 많이 나와야 좋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1학년 생활기록부는 다시 고칠 수도 없고 그렇게 2학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성적이 되지 않더라도 써서 선생님께 제 것도 써달라고 찾아갔고 어느 정도 교과 세부사항을 채워나갔습니다. 세부사항 말고도 교과목에 해당하는 책을 여러 권 읽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대학입시에 대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고 정보를 얻을 곳도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이야기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 대학입학전형 관련 책자를 주시며 여기에 많은 대학의 정보가 있으니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과 알고 있는 대학을 찾아가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확인했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지원한 전형이 대부분 종합전형이어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별로 학과별로 면접 질문을 예상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모르기에 처음엔 막막했었습니다. 인터넷에 자료 하나라도 있을까 하고 검색해봤는데 수만휘라는 네이버 공식 카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페는 대학과 과를 검색하면 면접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작년, 재작년 실제 면접 봤던 분들이 올린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면접 질문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가서 떨기 마련입니다.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교탁에 의자 하나 가져다 놓고 친구들끼리 한 명씩 나아가며 실제 상황처럼 면접을 했습니다. 고쳐야 될 점을 지적해주며 서로의 것을 읽어가면서 도와줬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공통문항을 처음 접했을 때 이 많은 글자 수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썼는지 수만휘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다 적고 친구와 서로 바꿔가며 첨삭해주었습니다. 제가 직접 선생님께 찾아가 도와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반에서

많은 학생이 요청하기 때문에 첨삭 시간도 짧고 저를 못 봐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선생님을 찾아뵙고 자기소개서를 첨삭해달라고 찾아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마다하지 않고 정말 잘 봐주셨고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제일 기억에 남은 활동은 WISET 미리 가는 연구실(신소재 분야)를 접한 것입니다. WISET는 한국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입니다. 신소재 분야를 접할 수 있다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활동은 직접 대학교(충남대학교)에 찾아가 신소재 분야 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강의를 들으며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소재공학과에서 쓰는 연구 장비를 직접 보고 실험도 해 보았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인 저에게 제가 원하는 과에 대해 먼저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교수님들과 진로상담도 하게 되어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고등학교 때 물리가 어렵더라도 한 번쯤은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물리가 어렵고 성적을 받기 힘들다는 말에 물리를 선택하지 않아 한 번도 물리라는 과목을 접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화공신소재공학과이니 물리가 많이 필요할까? 화학만 많이 다루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달리 저희 과는 물리를 정말 많이 다룹니다. 교양필수, 심지어 전공필수도 물리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화학도 듣기 때문에 기본지식을 탄탄히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저희 학과 이름이 화공신소재인 만큼 화학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 두 가지의 학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공필수가 분야별로 하나씩 학기마다 있고 나머지는 선택으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1학년 때는 대부분 일반화학, 물리 다루고 2학년부터는 고분자, 화학반응 등의 전공을 배우게 됩니다. 두 학문이 서로 연계되는 만큼 둘 중에 고민이 있거나 둘 다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와도 좋습니다. 저도 신소재공학을 배울 생각으로 들어왔으나 화학공학과목을 듣게 되면서 더 다양한 분야에 접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관련된 자격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관련된 자격증은 화공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 많은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가 화공신소재인 만큼 화학공학과와 신소재공학과 두 분야에 해당하는 곳에 폭 넓게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연구소, 화장품, 반도체, 환경 등 여러 분야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의생명공학과 김유리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의 첫 번째 장래희망은 '의사'였습니다. 어릴 적에 아플 때 마다 갔던 병원의 원장 선생님은 여성 분이셨습니다. 동네에 다른 병원 의사선생님들은 모두 남성분이었는데 독보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저의 병을 낫게 해주는 선생님을 보며 멋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아토피'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드나드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아토피를 앓는 것이 너무 싫어서 아토피가 무엇인지, 아토피의 원인과 같은 책을 많이 찾아보면서 '의사'라는 장래희망은 저에게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 말고도 여러 꿈들이 저를 지나갔지만, '의사'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현재 의생명공학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생체 내 여러 작용들을 공부하여 질병에 관하여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의대를 선택하지 않고 의생명공학과를 선택했을까요? 의사는 환자들을 상대하고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을 상대하기 보다는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학과를 선택할 때 의사의 역할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생명체(인체 포함)를 연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학과를 선택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이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입시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공부, 특히 영어공부였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적어도 영어공부를 5년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해왔지만 볼 때 마다 모르겠는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영어에 흥미를 붙이고 싶어서 미국 드라마도 보고 영국 드라마도 봤지만, 볼 때 뿐 학업과는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영어연극대회'에 무작정 지원했습니다. 영어 지문을 한 줄도 외우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영어 대사를 외웠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어 대사는 말하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제 영어 공부를 도와준다고 하니 신이 나서 즐겁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항상 즐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울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외웠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영어에 흥미뿐만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성적도 점점 상승했습니다.

교과전형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와 면접도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고, 그 고민들과 해결방안이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남의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의 연장선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있는 그대로 쓰지 않으면 면접 또한 가면을 쓴 채 진행해야 합니다. 면접을 진행하다보면 진심만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의생명공학과는 면접 분위기는 보다 편한 분위기였습니다. 2:1의 면접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과 아이컨택을 하면서 수월하게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람과는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잠시 동안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학교에 꼭 다녀야 하고, 이 학과는 나에게 절실하다는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고, 한 대학입시 커뮤니티에서 면접 후기를 보고 인상 깊었던 문구가 떠오르네요. '나의 면접을 봐주는 사람(교수님)은 면접을 볼 때와 이 학교에 입학할 해야 나의 교수님이지,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과 같다.' 그만큼 면접에서 긴장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 강조했듯이 나의 절실함과 진실성만 있다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어렵지 않습니다.

□ 의생명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의생명공학과 전공에 가장 필요한 고등학교 교과목은 생명과학2와 화학1입니다. 주로 생명과학을 배우지만, 화학의 기초가 잘 되어있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생명과학2 과목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생명과학2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생명과학2 공부만 해왔습니다. 단지 그 공부가 즐거워서 했지만, 이 과목이 대학교 수업을 배울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기들을 보면 생명과학2를 공부했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수업을 받아들이는 속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했던 사람은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지만, 하지 않았던 사람은 수업 중에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의생명공학과는 과거의 바이오학부인 생명과학과와 생명공학과가 합쳐져 개설된 학과로 생명과학과 생명공학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기초와 응용을 골고루 배울 수 있는 학과입니다. 생명과학이 기초를 다진다고 하면, 생명공학이 실제 적용되는 그리고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들 까지 배우게 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학과에 상관없이 대학교에 오는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성적에 맞춰가는 학교, 학과이지만, 대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처럼 누가 시키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계획에 의해 생활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조금 못했지만, 대학교 생활과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흥미와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원래 좋아하고 잘하던 것이면 더욱 더 깊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에 관한 이야기만 해서 공부만 하는 것 같지만, 공부 말고도 대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습니다. 춤을 좋아한다면 여가시간에 춤을 춰도 좋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면, 노래를 불러도 됩니다. 중, 고등학교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학교 수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학원 대신에 자신의 여가를 즐기면 되겠지요. 그만 큼 대학교에 간다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진짜 나를 찾아간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

산업·안전 영역은 제품의 개발, 생산, 공급, 서비스 등 제품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응용하여, 품질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인간 친화적 산업 환경을 도모하는 산업공학 영역과, 이러한 산업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학적 접근을 통한 예방 및 대응기술을 연구하는 안전공학영역으로 대별된다. 관련 분야로는 산업공학, 안전공학, 방재공학 등이 있다.

산업공학

산업공학 분야는 시스템의 체계적인 분석·설계 및 조화로운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공학기술과 경영기법을 융합하여 전 산업 및 공공조직의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향상, 작업 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포괄적인 학문이다. 즉, 산업공학은 공학과 경영을 접목한 학문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계에 과학적 이론과 계량적 기법을 적용하여 생산성 제고와 기업 경영 합리화 및 기업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학문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시스템분석, 생산/물류 경영, 품질/데이터 경영, 인간공학, 정보시스템 및 경영 공학 등이 있다.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부 권희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 문과에서 이과로 계열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원할 때도 완전한 이공계열보단 문과 특성도 포함된 학과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산업공학과를 알게 되었고 금오공과대학교의 산업공학부는 학부제라 산업경영과 디자인공학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공학부의 특성상 여러 분야를 넓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과라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기에 산업공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 학교 내에서 진로와 관련된 체험이 있다면 적성을 찾기 위해서 대부분의 체험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속에서 적성을 조금씩 알아가고 진로 선택의 폭을 조금씩 줄여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선배들의 자료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와 학과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리고 노력해야 하고, 3년 동안의 활동을 분석해서 가장 알맞은 전형을 선택하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적이 낮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믿고 준비한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추천하는 활동은 자율 동아리입니다. 장점은 유사한 진로에 관심있는 친구들과끼리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를 쓸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확률과 통계과목은 꼭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공학과 특성상 통계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꼭 기초를 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도서로는 경영학 콘서트라는 책과 그러다 갑자기 발명가가 나타났더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산업공학과 전공과목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기에 추천합니다.

산업공학부에는 전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산업경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디자인공학이입니다. 산업경영과 경영의 차이점이 있다면 산업경영은 품질관리와 제조과정에 중점을 두는 수업입니다. 사실상 경영과 비슷한 계열이긴 하지만 중점을 두는 기준이 다릅니다. 또 디자인공학과 산업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디자인공학은 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이고, 산업디자인은 디자인공학과 달리 디자인을 기반으로 공학적 지식을 활용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자신감을 잃지 말고 확신이 있다면 소신껏 대학에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가지 말고 잘하고 흥미가 있는 학과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부 김병욱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공업계열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공고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희망하는 다른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장에서 1년간 종사했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일을 하고 싶었기에 공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과를 조사하다 작년에 대학에 진학한 친구가 산업공학부를 추천하여 금오공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힘들더라도 미래의 좀 더 나은 재 자신을 위한다고 생각했고 착실하게 공부를 했다. 그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고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다양한 포털사이트와 학교 홈페이지를 검색했고, 대입전문 교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대학 자소서, 취업 자소서 둘 다 써보았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한 번에 써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들여 계속해서 내용을 채워야 하고 세세하게 쓰는 것이 아닌 글자 수 제한에 맞춰 한줄 한줄에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자동차 정비 기능사, 선반 밀링 기능사 등 6개 정도 되는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덕분에 자기소개서나 나에 대해서 소개할 때 글을 써내려가기가 쉬웠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업계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신 성적을 잘 관리했고 취득했던 많은 자격증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공대 진학에는 수학과 영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과목이 부족하다면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많은 책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영어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산업공학부에서 기초적인 것을 배우고 있는데, 주로 수학과 화학, 글쓰기 등을 배웁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축구를 좋아해서 입학한 후 곧바로 학과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여 선배와 동기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동아리 부인 오토매니아에서 차에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산업공학부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확 잡히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디자인과



경영으로 나뉘게 되어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고를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내신성적에 맞춰서 오거나 자신의 의견이 아닌 타인의 말을 들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분야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고 메리트가 없거나 저물어가는 분야는 좋아하더라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빠르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어서 맞는 분야를 찾았고, 배우고 싶었기에 대학에 진학했고, 이곳에서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 눈치를 보지 말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실천하여 자기 자신을 멋지게 만들겠다는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부 김홍균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산업공학과에서 여러 가지 공학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간공학에 대해서 더욱 잘 알게 되면서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몰랐었는데 그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생각한 것만큼 큰 긴장감 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면접을 볼 때 생각을 정확하게 면접관에게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수학, 물리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산업공학과는 품질경영과 일부의 산업디자인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저는 인간공학을 공부하여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으로 물건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자작 자동차동아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큰 대회에 나갈 예정이어서 현재 이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산업공학과와 경영학과를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학과는 일반적인 경영보다는 품질과 생산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성준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산업공학이란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안전공학'이었습니다. '안전공학'이란 학문은 산업에서 만연한 위험과 재난 등을 예방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공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공학이 아닌 산업공학을 지원한 이유는 배움의 다양성이었습니다. 산업공학은 안전공학 뿐 만이 아니라, 기술경영, 정보시스템, 금융공학, 빅데이터, 경영통계, 유통물류 시스템, 인간공학 등 산업에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의 양상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산업공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은 항상 고정적이지 않고 다양하고 많은 학문을 접하고 싶은 것이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처음 산업공학과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면서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저의 생기부에는 컴퓨터나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아닌, 농사활동과 관련된 활동이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우스갯소리로 “너는 농대로 가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하셨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달리해 텃밭을 가꾸면서 했던 일들 속에서 산업공학과와의 연관성을 찾아냈고,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용했던 POS시스템에 대해 서술해 학과와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느꼈던 일상에서의 행동들 또한 지원학과와 연관된 활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생활기록부를 보며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했던



프로젝트는 생활기록부에 단 한 줄로 적혀있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줄이 되어버린 3개월을 저는 자기소개서에 담아내기 위해서 실험했던 자료들과 사진들을 참고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실험을 왜 했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무엇이고,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하면서 완성도 높은 자기소개서를 써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산업공학에서 전공에 기초가 되는 학문은 단연코 수학입니다. 사회에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통계화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량률을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그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통계능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합하는 SI분야로 진출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코딩능력의 중요성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정보 교과목을 중요시 여기는 풍조는 아니지만, 열심히 배워 놓는다면 대학에서 C언어, JAVA, 파이썬을 학습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천도서로는 대한산업공학회에서 출판한 ‘스마트 세상을 여는 산업공학’과 ‘경영학 콘서트’입니다. 첫 번째로 언급한 책은 산업공학에는 어떤 분야들이 있고 어떤 분야를 다루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산업공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한 번쯤 보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진행할 때 전공지식을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 콘서트’는 경영학을 지망하는 친구들도 많이 챙겨보는 책이지만, 산업공학과와의 연관성이 깊고 책에 나오는 사례 또한 산업공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줍니다. 그렇기에 산업공학과를 희망한다면 두 가지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아직 학교에 입학한지 한 달이 조금 넘었기에 기초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산업시스템공학의 이해’라는 전공필수과목과 MSC(공학인증)에 필요한 ‘일반물리학 및 실험’, ‘미적분학’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SW교육입니다. SW교육중점학교인 만큼 그에 대한 투자도 많습니다. 또한 SW연계전공을 진행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저는 위험관리와 인간공학에 대해 깊게 배우고 싶습니다. 처음 안전공학에 관심을 가지고 산업공학과에 진학한 만큼 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여러 재난에 무방

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인간공학, 위험관리를 좀 더 배우면서 산재없는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김동욱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불과 중고등학교 짧은 시간동안 나만의 꿈과 진로를 명확히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진로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가 문과도 아니고, 이과도 아닌 애매한 중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에 대한 문제가 저에게 있어서는 더욱 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과 중에서도 물리 2반을 선택했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와 사회를 좋아했고, 무엇보다 글 쓰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일만 집중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과 탐색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저는 '산업공학'이라는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의 '산업공학과'를 들어오기 위한 노력

저는 무엇보다 교내활동과 대외활동 등 다양한 학문과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과이지만 저는 교내외 각종 글쓰기 대회와 각종 토론대회 그리고 과학탐구대회와 과학경시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 참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기숙사교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는 등의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한 분야와 과목만 공부하기보다는 다양한 과목들과 교내 활동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참여했고, 각종 진로상담과 대회 등 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한 이유는 바로 산업공학이 '다양성을 융합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등 전문성이 필요한 학과들과 다르게 산업공학은 폭넓게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산업공학'을 지망하는 많은 학생이 도대체 '산업공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스펙을 쌓아야하는지 궁금해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생각보다 '산업공학'에 대한 부족한 자료들과 정보들 때문에 저는 큰 틀을 갖고 산업공학의 핵심역량인 문과와 이과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러한 결과가 '산업공학과'를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에서 배우는 과목들

산업공학은 다양한 학문들을 배워야합니다. 비록, 전문성을 떨어지지만 다양한 학문들을 적절하게 융합시키고 조율하여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른 학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크게 서울과기대의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는 세 가지 트랙으로 산업공학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IT', '순수 산업공학',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컴퓨터언어를 토대로 JAVA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산업공학의 전통적인 요소인 '생산관리', '품질관리', '공업통계학'과 같은 기본 산업공학의 바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빅 데이터와 Python' 그리고 'R'과 같은 통계 프로그램과 다양한 통계지식들을 주로 배웁니다. 제가 생각하는 산업공학의 핵심학문은 바로 '통계'입니다. 모든 과목들에 대한 연결들이 '통계'와 연관이 되어있고, 이를 토대로 더욱 더 심화된 이론들을 배우게 됩니다.

□ '산업공학도'로서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는 산업공학도의 필수역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합, 상상력, 문·이과 성향, 소통능력, 통계지식, 컴퓨터' 등의 키워드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학문들을 두루 배워서 융합하는 능력과 상상력을 토대로 각종 문제점을 깊게 파악하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각종 자료정리와 분석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발표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대이지만 문과적 성향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산업공학도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서울과기대 산업정보시스템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많은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공학 모든 학문의 기초인 '통계지식'이 필수적이며, 각종 자료들을 엑셀, 파워, 워드를 통해서 작성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제가 대학 진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학과'였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산업공학'이 저와 잘 맞는 학과라고 생각을 했고,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된 그 시절 저에게 있어 진로를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나'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성향과 적성에 맞는 학과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다보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열정 있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의학계열

의학계열은 인체에 관한 연구, 인간의 건강을 위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이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관한 기초 및 응용과학을 다룬다.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기본 보건의를 수행하는 의사, 의학교육자, 의학연구자 및 간호사, 의료기사, 의료기기 제작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그와 관련된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 조제 능력을 갖춘 전문 의료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의료 향상 및 인류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학계열은 의료 등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 의료



의 표

한의학

한의학 분야는 한의학적 전문 지식과 태도, 기술 등을 학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한의사를 양성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다양한 질환 및 진료영역에 해당하는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약리학, 방제학, 경혈학, 침구의학, 사상체질의학, 상한론, 재활의학, 내과학, 신경정신과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피부외과학, 안이비인후과학, 예방의학, 추나학, 법의학, 응급의학, 진단검사의학, 의료법규 등이 있다.

원광대학교 한의학과 최지원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한의대에 진학하고자 마음먹은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니다. 드라마 ‘대장금’을 보다가 주인공이 약재의 냄새를 맡고 다루는 장면을 보고 매우 흥미롭게 느껴져 한의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나요?

수시전형인 학생부 교과와 종합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을 위해서는 학교 내신을 열심히 챙겼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에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의 공부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습보다는 복습을 위주로 하였고 여러 문제집을 풀기보다 한 두권의 문제집을 5번 이상 반복하여 풀어 성적을 올렸습니다.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열리는 대회에 대부분 참가하였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소논문 쓰기 대회, 학습플래너 대회 등 많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소논문 쓰는 법을 배웠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설문조사와 문헌연구 등을 통해 하나의 논문을 완성해냈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저의 진로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고 봉사활동도 진로와 관련된 것을 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매우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계속 하면서도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다른 무언가를 하기보다 더욱 더 많이 공부하면서 그 불안감을 낮추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학창시절의 마지막에는 학업스트레스를 크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 것입니다. 합격하기 위해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도 몇 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거의 매주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했고, 문제집 한 권을 적어도 5번, 많으면 8번 볼 정도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노력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이과생들이 배우는 생물과 화학이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생물과 화학을 중점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과목 중 전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세계사와 윤리입니다. 한의대에서 의학사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세계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학이 변하고 발전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데 세계사가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역학이라는 과목도 배우는데 이것은 윤리의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사단이나 칠정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윤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도서는 '면역혁명'입니다. 재미있게 읽은 책 중 하나인 면역혁명은 한의학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아 쉽게 읽을 수 있고 내용의 흐름이 한의학과 통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본초학과 원전학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본초학은 한약을 만들 때 필요한 본초들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평소에 자주 들어본 대추나 감초와 같은 것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본초들도 많은데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학은 황제내경이나 전총록과 같은 옛 한의학 서적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한국의 옛 의학과 의학자들의 치료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항상 잘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다면 좋겠습니다. 꿈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노력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드릴테니 저의 멘토링을 통해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좌우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 계열



인문·사회 교육 영역은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각종 유·초등, 사회, 특수교육 등의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체를 연구하여 학교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문·사회교육 담당 교원을 양성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관련 분야로는 교육학, 중등언어교육, 중등사회과교육, 유아교육, 초등교육, 특수교육 등이 있다.

자연과학교육 영역은 중등자연과학교육 분야와 간호·보건 교육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중등자연과학교육 분야는 자연과학의 각 분야에서 중등교육과 관련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시켜 학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교원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간호·보건교육분야는 질병의 예방, 질병으로부터 회복,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돕기 위한 간호·보건 영역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체를 연구하고 교수하여 학생 건강 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간호·보건 담당 교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등공학교육 분야는 현대의 정보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설, 기계, 전기, 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분야 관련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내실 있는 중등공업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둔 분야이다.

중등예체능교육 영역은 인간의 예술문화, 건강생활 등 우리 사회의 문화 창달과 그 향상을 위하여 실천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중등학교 미술·음악·체육 등 과목의 교사를 양성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관련 분야로는 중등 예술·체육교육이 있다.

유아교육

동양대학교(영주) 유아교육과 윤혜주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 저는 심리상담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학생들의 행동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종종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곤 했는데, 바로 어릴 때 또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가정시간에 유아기가 사람의 인격과 정서, 행동양상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그 시기 때 만들어진 사람의 성격과 정서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사람의 사회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행동발달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애초에 어떻게 하면 인격과 정서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도덕적이고 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유아기 교육을 책임지는 유치원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 수시 면접 준비 할 때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면접분위기는 어땠나요?

대부분의 희망학교에 면접을 포함하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면접을 보았는데 첫 면접 때는 정말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상과 다른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해서 질문과 맞지 않는 답변을 말하고 면접을 망친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은 합격과 불합격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눈물을 보이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면접은 없습니다. 면접은 진지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대부분의 면접관님들은 분위기를 풀어주시고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첫 면접을 그렇게 끝낸 후, 오기가 생겨 다음 면접 전까지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리스트와 답변을 모두 적어두고 내용을 외우고 여러 번 읽어보며 면접관계서 들으셨을 때 잘 들어오지 않을 내용을 없애고 간결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곤 자세히 재차 읽으며 듣기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어휘들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 전공 관련분야의 소식을 다루면 그 소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제가 면접관이라는 생각으로 적은 답변을 읽으며 추가로 들어올 것 같은 질문도 생각하고 정리했습니다. 그 후 다른 희망학교 면접에서는 모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소개와 지원계기, 입학 후 계획, 자신이 생각하는 직업상, 전공 관련 시사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간결, 명료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유아교육과와 관련되는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고교 교과목은 기술가정입니다. 인간의 성장과 정서발달, 성격 형성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 이것은 유아교육 전공내용의 기초가 됩니다. 유아교육과 진학 전에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도서는 '딥스' 입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 '딥스'가 놀이치료를 통해 자아를 찾는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유아교육과 입학한 학생들도 필수적으로 많이 찾아 읽는 책으로 입학 전 미리 읽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일단 유아교육에 대해, 유아교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유아교육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것은 입학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알게 되고나니 유아교사라는 직업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아들과의 상호작용, 교구제작, 수업시연, 유아관찰 및 분석의 능력을 갈고닦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 교구 제작방법, 각 연령에 맞는 상호작용 등을 배우는 등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공지식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길에서 어린 유아들을 볼 때마다 몇 세인지, 그 나이에 맞는 발달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관련 자격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졸업하신 선배들은 대부분 직장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임용고시 합격 시) 등에 취직하여 담임교사를 맡습니다. 유아교사는 유아들의 교육(수업)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크고 작은 행사들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바라는 점이 다양합니다. 수업을 할 때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도 준비해야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상품화되어 있지만 자신이 준비한 수업에 알맞은 교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수업 교재교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 학생이라면 졸업 이전에 관련 자격증을 따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로는 풍선아트 자격증, 칼라믹스 자격증(클레이 아트) 등이 있습니다.

동양대학교(영주) 유아교육과 홍지예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의 꿈은 초등학교 때부터 쪽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저희 집은 유치원 앞에서 작은 문방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문방구에 오는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졌고 나중에 커서 이러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치원교사라는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아교육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동양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유능한 유치원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안녕하세요'라는 봉사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처음엔 단지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하는 기쁨과 뿌듯함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생활 처음으로 3학년 때 동아리회장이라는 직책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동아리를 통해 저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내성적인 성격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도 낼 수 있게 되었고 활발한 성격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벽화 그리기'라는 봉사활동은 제일 뜻깊었던 활동입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 벽화를 그려야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활동인지라 회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더욱 발휘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계기를 만드는 일은 언젠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저의 꿈은 임용고시를 합격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임용고시는 필수적으로 한국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저와 같은 꿈을 가진 학생에게는 한국사 과목을 추천합니다. 지금 한국사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한국사 공부를 다시 시작할 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단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해 주고 싶은 도서는 '기적의 유치원'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유치원 운영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고 넓은 의미에서 유치원을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교육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도서인 것 같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졸업한 선배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 있는 직장어린이집과 숲 유치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선배들은 국공립 유치원에 취직하였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항상 다양하고 많은 교재·교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예쁘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많은 교구들이 있지만 이러한 교구뿐만 아니라 교사가 직접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교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로는 풍선아트 자격증, 칼라믹스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김하람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서 유아교육과를 선택했습니다. 지리교육과에 관심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임용 TO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보고 유아교육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유아교육과에 입학 후 교육봉사를 하며 아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맞는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 제가 말을 하면 그대로 듣고 따라주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주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봉사를 해본 후 유아교육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입학에 위해 준비한 전형은 농어촌 종합전형입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농어촌 전형 지원이 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어서 농어촌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순천향대학교에서 농어촌 고교 대상으로 하는 중국문화체험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가 1순위였고, 그렇기 때문에 고3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왔습니다. 면접이 약한 편이라 수시원서 대부분을 교과전형으로 썼지만 중국문화체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꼭 말하고 싶어서 종합전형에 지원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순천향대학교 사범계열은 교과전형, 정시 상관없이 교직인·적성 면접을 필수로 봅니다. 교직인·적성 면접은 약 10분정도로 이루어지고, 2대 1면접입니다. 전형별로 면접을 보는 날짜와 문제가 다릅니다. 교직 인성 한 문제, 교직 적성 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선택하여 한 경험 중 유아교육과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2017학년도 농어촌 종합전형 교직인

성문제)와 같은 문제가 나오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자소서와 면접에 중심을 두고 입시준비를 하였습니다. 면접이 많이 약했던 터라 주변 사람들과 면접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교직인·적성 면접이 2017학년도에 시작해서 정보가 많이 없어서 다른 학교의 교직인·적성 예상 문제를 보며 답을 쓰고 엄마와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면접 당시의 상황은 한분은 무서웠고, 한분은 긴장을 풀어주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꼬리질문이 계속되었고 계속 당황해서 면접이 끝나자마자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도 기억이 잘 안날 정도였습니다. 이 때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되고, 답은 정해져있지 않으니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자소서와 면접, 타 학교의 수능 최저까지 맞추려고 하다 보니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힘이 빠지고 점점 지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교 홍보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 학교에 내가 다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자신의 1순위 대학의 홍보영상을 보며 내년엔 이 대학에 다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고3 수험생활을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전공에 기초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고교 교과목은 사회입니다. 교육학의 과목 중 고등학교 사회문화나 윤리과목과 연관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전공과 관련해서는 두루두루 모든 과목을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도서는 딥스입니다. 저도 대학입시를 위해 재미없게 읽기 시작했지만 재미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지금 와보니 정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소심한 아이가 놀이치료를 통해 아이가 활발하게 바뀌고,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유아교육학과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니, 꼭 한번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학과에 대한 기대감은 숫자로 표현하면 100이고, 지금 만족감은 50이라고 할 정도로 낮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의대로 유명하고, 인문계열은 잘 챙겨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서 전형도 의대전형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의대를 많이 챙겨주고, 장학제도도 많지만 유아교육과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성적장학금만 있을 정도로 많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1순위였던 만큼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의 장점을 말해보자면 해외봉사 프로그램과 취·창업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방학 때마다 해외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일부 금액이 학교에서 지원됩니다.

전공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전문대, 4년제 상관없이 유아교육과만 나오면 임용고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나오면 임용고시를 볼 수 없습니다. 4년제 유아교육과만이 임용고시를 볼 수 있고, 졸업 후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2급이 발급됩니다.



□ 졸업 후 기대되는 모습은?

저는 졸업 후 임용고시를 합격하여 병설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상상해온 저의 모습입니다. 유치원 임용이 생각보다 어려워 한번에 붙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한번만으로 끝낼 수 있게 학과 임용고시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졸업 후 거의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을 원하지만 그뿐 아니라 교수, 동화 작가, 영유아 관련 상담 연구소, 교구 개발자 등 생각보다 많은 진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창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김은희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유치원 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졌고 대학을 결정하고 학과를 결정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한국사가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전공과목과 관련하여 윤리와 사상은 여러 명의 사상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될 도서로는 “딥스”를 추천합니다. 딥스는 부모의 선부른 기대에 가로막혀 자신을 숨겨야만 했던 아이를 온몸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놀이치료'의 과정을 실화를 통해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책입니다.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과는 달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치료하면 그 부모의 정신 건강도 치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점이 흥미롭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유치원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들과 유아들의 발달특성, 실제 유치원 현장에서 하는 수업(시연)을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수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자기 수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의인성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과 수업 및 교육환경을 통해 수업역량과 인성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입학 전에는 막연하게 유아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입학 후인 지금은 유아교사에게 필요

한 역량을 알게 되고, 유아교사가 가져야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면서 점점 유아교사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교수님들도 열정적이시고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 하시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정이 많으셔서 학과와 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현장에서도 창신대 유교는 다른 학교랑 다르다 잘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셔서 학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만족감도 높은 편입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컴퓨터 자격증입니다. 대학교에 와서 과제로 리포트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유아교육과는 수업을 할 때 교구(실물 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구를 만들 때 ppt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pt를 배우고 싶습니다.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행정업무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엑셀도 배우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생활을 하면서 동화 구연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합격 후,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가야할까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자신에게 맞는 과를 생각해보고 그 과가 있는 학교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학교를 보지 말고 학과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가든 자신에게 맞고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한다면 취업은 당연히 잘될 것이라 생각해요. 선택은 항상 신중하게 잘 선택 했으면 해요!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아를 좋아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엄마와 같이 아이들을 잘 품을 수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해요. 그냥 유아가 좋아서 오기 보다는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본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해요.



창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원희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유아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어른들이 계실 때나 안 계실 때 항상 동생들을 책임지고 놀아주거나 챙겨오는 모습을 보던 가족들이 지원을 하라는 권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생들을 돌볼 때 어른들의 도움이 없어도 해결할 수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동생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을 더 공부하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유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유아교육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학과에서 시연과 공부와 교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헌혈, 타 학과의 행사 등)와 학과에서도 다양한 행사(선후배간의 추억 쌓는 행사 등)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학과에 대한 애착감과 친숙함이 느껴져 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이 좋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몰두하고 있는 활동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유아’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이번 연구는 수업을 하면 유아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창의력이 높아지고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주제는 아직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인 현장에 적용되지 않은 “유아 steam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려고보니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초등교육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심화전공: 윤리교육과) 강지영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공정무역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역을 통해 가난을 해결하고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아름다운커피의 비전에 공감하여 성인이 되면 직접 공정무역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했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사회학과에 진학한 후 아름다운커피 재단에서 인정하는 공정무역 시민대사로 선정되어 시민센터나 학교 등에서 공정무역 강연을 진행하는 기회를 다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던 제 자신이었지만, 공정무역을 통해 학생들과 호흡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속가능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제가 세상에 태어나 해내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루의 수업 전체를 이끌어가며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초등교사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어 공주교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부 전공으로 윤리교육과를 선택하여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기억은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평소에 일기를 써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활동을 시작한 이유, 준비하는 과정, 결과, 그 후의 소감까지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활동을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 쓴다면 어떻게 활용할지, 2번에 쓴다면 어떻게 활용할 지 간단하게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열렸던 모든 교내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필요한 활동과 필요하지 않은 활동의 구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별 거 아닌 의미 없는 활동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나중에



는 큰 깨달음이나 계기가 되어 스토리텔링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활동이 나의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재고 따질 시간에 한 가지 활동이라도 더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남들 쉬는 시간에 남들 노는 시간에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이면 시간은 충분합니다. 저는 모든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었다는 도전정신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성실함을 드러낼 수 있었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계산해서 활동하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모든 교과목을 다루어야 하는 교육대학교의 특성상 특별히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고교 교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부한 대답으로 들리겠지만 모든 과목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예체능 과목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다른 수업들에 비해 예체능 과목은 단기간의 노력이나 공부로 성적을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예체능 과목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육대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 정형권의 “거꾸로 교실 거꾸로 공부(출판사 더 메이커)”와 미즈타니 오사무의 “애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출판사 에이지21)”를 추천합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직업의식에 대해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책들입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① 고등학교처럼 짜인 시간표가 있다?

교육대학교 재학생은 한 학기에 한 두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을 학교에서 짜여진 시간표대로 듣게 됩니다. 심지어 선택과목마저 선택의 폭이 완전히 넓은 것은 아니며,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교육대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심화전공으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큰 상관없이 비슷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다니는 동안 전공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② 학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초등임용고시에 학점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장학금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교육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학점의 높고 낮음으로 인해 크게 이익을 보는 일도, 불이익을 겪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대학에 다니는 보통의 대학생들에 비해 성적 스트레스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수업에 소홀히 한다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게 되지요?

③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다른 종합대학과 달리 교대 재학생들은 휴학하는 사람도 적고 교환학생

을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며, 중간에 군대를 가는 남학생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처음 입학한 이후 8학기 내내 30명 정도의 동기들과 내내 붙어서 생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좁은 학교 내에서 소문도 쉽게 퍼지고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풀려질 가능성도 꽤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졸업 후에도 직장 동료로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지요. 따라서 말 조심, 행동 조심은 필수입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학교로 졸업생에게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하며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 합격하면 9호봉(1학기에 1호봉)의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평교사의 길 외에 대학원에 진학해 관리자로의 승진, 교수, 연구원, 장학사 등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심화전공: 컴퓨터교육) 이은규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에게 관심과 용기를 주신 은사님을 보며 저 또한 학생에게 애정을 가지고 잘 관찰하며 고민을 들어주는 마음 따뜻한 초등교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교대는 내신 점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부족한 내신을 채우기 위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주교대는 1학년 내신 반영비율이 40%였기 때문에 내신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에 다양한 활동을 기재하기 위해 학교에서 임원활동도 2년 정도 하고 동아리 부장 역할도 하며 리더십을 기르고 교육봉사를 하며 실제 학생들과 만나 공부를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그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내신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여러 교내활동을 하며 추억을 쌓았고 그런 활동을 통해 내신관리의 압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은 방과후 심화반 수업을 통해 채워나갔습니다. 심화반 수업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풀고 선생님들과 함께 정리하다보니 성적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화반 활동으로 선생님들과 만날



기회도 많아져 선생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직접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료를 확인하였고 대입포털을 통해 검색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직접 가고싶은 학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을 갔을 때 맨 처음 면접은 엄청 떨렸지만 몇 번 면접을 보다보니 조금씩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습을 열심히 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에도 의도를 찾아 부드럽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고등학교 3학년 초부터 자기소개서의 틀을 잡고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를 마감 전까지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할지 감이 오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생활 중 자신이 가고 싶은 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찾거나 느낀 것이 많은 활동들을 위주로 자기소개서에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쓴 이후에는 담임 선생님께 첨삭을 받고 다른 교과 선생님에게도 첨삭을 받으며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첨삭을 받더라도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소신만큼 자기소개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교직관련 도서를 읽고 교육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봉사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고등학교 3학년 초까지 하며 초등교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생활기록부와 면접을 통해 보여드렸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초등교사는 학생들에게 전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때문에 특정 교과를 정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요과목이 중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예체능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유의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도서는 먼저 교육관련 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에 읽은 책을 예로 들면 하늘을 나는 교실(에리히 캐스트너),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하이타니 겐지로), 살아있는 다문화교육 이야기(손소연, 이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초등교사는 한 분야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관련 책 이외에도 소설, 윤리도서, 과학도서, 수학도서들도 읽어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공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1학년 때에는 교육과목도 듣지만 전체적인 학문의 교양을 쌓습니다. 2학년 이후부터는 교육을 조금 더 심도있게 ○○과교육론이라는 과목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심화과목에 대한 수업도 들으며 공부를 하게 됩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입학 전에는 대입을 위해 과목을 공부했다면 입학 후인 지금은 미래의 초등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가 배운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공부합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대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주시에 있는 공주교대는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가장 오고 싶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족하고 이곳은 자연과 친화적이고 깨끗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대도시에서 온 친구들은 주변 인프라 때문에 약간은 힘들어 합니다. 그래도 미래의 초등교사가 될 학생들은 공주교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초등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수업시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학년 때는 수업을 듣기만 했지만 2학년부터는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교수님과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교대에서 도대체 어느 과목까지 배우나 질문을 하시는데 뜨개질, 단소, 한국화, 태권도 등 진짜



모든 과목 다 배웁니다. 오해가 있다면 교대생들은 수학을 배우면 초등학교 6학년 수학까지만 배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도 교양과목을 통해 대수학 배우고 문제풀이 합니다. 그 외의 과목들도 비슷하게 합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고등 교사를 양성하는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등과는 다릅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초등교육과는 특정 교과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교과를 공부합니다. 비슷한 점은 학문을 배워 교육과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한 선배 대부분은 현재 전국에서 초등교사로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학사, 교감, 교장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단지 취업걱정을 줄인다는 이유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적성에 맞는 친구들이 초등교육과에 진학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습 후 적성에 맞지 않거나 수업을 들은 뒤에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며 대학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대 입학 뒤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학과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면 좋겠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심화전공: 교육학과) 이해련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초등교육학과는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학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꿈틀이 지역아동센터'와 교내 교육봉사동아리 'Moirā'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양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아서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아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주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제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하면서 제게 달려와 안길 때 마다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의 보람에 대해 생각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3월에 시작한 교육봉사활동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꾸준히 하였습니다. 제게 초등학교 교사라는 꿈을 키워주었기에 더욱 더 각별한 봉사활동이었고, 매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분량이 있었기에 더욱 노력했던 활동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사와 수학을 가르쳐 주었고, 토요일마다 지역 초등학교에서 한국사 토요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꾸준히 시간을 낸다는 것은 참 힘들기도 했지만 무척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교육봉사는 준비 없이 진행할 수 없는 봉사이기에 사전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기간에 교육봉사활동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시험기간은 미리 공지가 되어 있고 충분히 시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수업 자료를 만들어 놓아 시간부족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 봉사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고,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봉사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가 얻게 된 것은, 아이들의 신뢰입니다. 봉사활동을 스펙으로만 생각하는 봉사자들이 많고,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도 봉사자들의 마음가짐을 눈치 채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제 시간을 투자하니, 아이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졌고 저 역시 수업을 할 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입과 관련하여서 얻게 된 것은,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아이들과 저만의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은 자소서 작성할 때, 그리고 면접을 준비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자연스럽게 얻게 된 것이어서 더욱 더 뜻깊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교육대학교는 전국에 11개 밖에 없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라는 목적을 지니고 지어진 학교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와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의 초등교육과를 포함하면 1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모집요강 등의 입학정보를 비교해 보며 찾아보았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면접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면접관의 역할을 맡아주셨으며, 2:1 면접을 두 번 정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도와주신 면접으로만은 부족한 것 같아서, 학교 친구들에게 면접 연습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친구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는 형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읽는 것, 대답하는 것까지 녹화하여 표정과 행동을 교정하였습니다.

실제로 공주교육대학교에서 면접을 보았을 때는 2:1면접을 보았는데, 한 분은 매우 엄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반해 다른 한분은 계속해서 제게 웃어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연습할 때 계속 면접관 한 분만을 쳐다본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면접관 두 분을 계속해서 쳐다보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면접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시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논리가 부족하게 말했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달라는 피드백이 나와서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이 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논리를 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공주교육대학교 고교성적우수자 전형은 자기소개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교육대학교들도 지원하였기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때는 교육봉사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위하여 교육봉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꾸준히 교육봉사를 하였던 것이 꽤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에 최초 합격했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와 청주교육대학교는 고교성적우수자 전형, 즉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수시 지원하였으며, 진주교육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시 지원하였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제가 추천하는 도서는 루소의 '에밀'입니다. 에밀을 통해 교육이란 어떤 존재이고, 교육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초등학교교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동아리는 교육봉사동아리를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만들었고, 동아리 회장으로 동아리 운영을 위해 충실히 임했습니다. 봉사활동처를 찾아서 여러 지역아동센터와 접촉하였으나 실패를 하였고, 마침내 한 초등학교와 연락이 닿아 토요일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방과후학교에서는 영어와 한국사를 가르쳤고, 저는 한국사부장을 맡아서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꾸준히 관리 했던 내신 성적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에서 교육봉사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아리를 만든 이후, 봉사활동처를 찾고 봉사활동을 위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방과후담당선생님들과 면담했었는데, 이 경험을 자소서에서 녹여낸 것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교육대학교는 초등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며, 초등교사는 초등학생이 배우는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전 교과를 열심히 공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주요과목 외의 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 등의 과목들도 내신 성적에 반영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실제 교육대학교에 진학하면 주요한 교과로 다루어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도서는 루소의 '에밀', 헤르바르트의 '일반교육학'과 같은 교육학 도서입니다. 이러한 도서를 읽는 것은 초등교육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자소서 작성 시에 초등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줄 수 있기에 더욱 유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입학 전에는 학교를 학생의 입장으로 다녔다면, 지금은 학교를 선생님의 입장으로 다니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업을 받는 것과 직접 수업을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학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초등교육학과에 입학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 중입니다. 교육대학교 내에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 폐쇄적이라고 생각했던 제 기존의 교육대학교의 이미지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수업실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으나 끊임없이 발표와 수업실연 등으로 연습을 거치면서 점차 그 부담감이 해소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겁고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신 분들이 교육대학교에 진학하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초등교육학과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것임으로 기초적인 소양만으로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단순히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수준의 언어를 활용할 수 있고, 같은 배경지식을 가진 경우에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 무척이나 쉽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 활용을 하고, 다른 배경지식을 가지는 경우에는 가르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급언어기술을 가진 사람이 쉬운 언어로 언어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하며, 배경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만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누군가에 이해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파생되는 질문을 계속해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상당량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각각의 재능을 타고납니다. 아이들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하고 학습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하며, 천재성을 타고 난 아이에게는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는 단순히 초등학교에 나왔다고 해서, 혹은 단순히 아이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두가 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부전공: 컴퓨터교육) 김세영



□ 고등학교 재학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자기소개서/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교내 교육동아리 활동과 교외 봉사활동입니다. 1학년 때 수학동아리에 가입했지만,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었기에 새로운 교육 동아리를 만들어 부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중 제게 큰 영향을 준 활동은 '게시판 프로젝트'입니다. 급식소 앞 방치된 게시판과 그 주변을 바꾸는 프로젝트였는데, 행정실, 인테리어 회사와 연계하여 직접 게시판을 디자인 및 설치했고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공간,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수개월간 진행된 프로젝트를 부장으로서 총괄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환경을 바꾸며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방치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그 문제를 동아리 부원들과 협동하여 해결했다는 점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교외 봉사활동은 제가 선생님이 되어 초등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미술, 만들기, 체육, 과학 반으로 나누어 매달 수업계획안을 작성하고 수업 후에는 평가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체육대회, 런닝맨 놀이를 하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실제 현장에서 선생님처럼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그때 제가 느낀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풀어내었습니다.

□ 자기소개서/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시기는 3학년 1월입니다. 내신관리, 수능준비를 비롯해 할 것이 정말 많은 고3에게 몇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용 전개가 어색한가?', '문장 구조가 어색한가?' 등의 고민과 함께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고 있을 때 시간이 정말 막연히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병행하기 위해 독서실이나 집 책상 앞에 자기소개서를 출력해 붙였고 쉬는 시간마다 읽어보며 어색한 부분을 세심하게 고쳐나갔습니다. 명하니 몇 시간동안 앉아서 고민하는 것보다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더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틈틈이 생각하고 수정하고, 정리하다보면 나중엔 깔끔하고

좋은 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시기는 여름방학쯤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제 생활기록부를 바라보았고 ‘설마 이걸 물어볼까?’ 싶을 만큼 정~말 세세하게 모든 활동들에서 질문을 뽑아냈습니다.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같은 경우 기본 질문으로는 “○○활동에서는 무엇을 느꼈나요?”, “어떤 역할을 했나요?”,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등이었고, 세부능력특기사항이나 독서활동의 경우 과목이나 책 속 깊은 내용까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다 느낄 만큼 준비하는 편이라 처음엔 기계처럼 대답을 외웠었는데 이 방법은 외운 문장을 그대로 대답하지 못할 때 머리가 아예지고 당황을 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접이 다가올수록 ‘면접은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연습했습니다.

실제 수시면접 한 달 전에는 담임 선생님과 수시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면접관 역할을 하여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교실을 빌려 실제 면접장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고, 각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보고 질문했습니다. 그 후엔 서로 피드백해주며 발음이나 목소리, 눈빛과 자세까지 세세하게 고쳐나갔습니다. 개인면접을 준비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익숙한 질문, 낯선 질문만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새롭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로 다양한 사람들과 연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준비했던 친구들과 저는 처음엔 새로운 질문에 당황하고 대답하지 못했지만 점점 순발력이 느는 걸 느꼈습니다.

집단 면접은 교육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진주교육대학교에서는 종이, 펜, 질문지를 제공하고 숙고시간을 가진 뒤 발표하는 형식으로 집단면접을 진행하는데 똑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에서 제공한 안내영상을 참고하여 책상 위치와 시간을 맞추어 연습했습니다. 친구들과 1~2년 사이에 이슈였던 교육적 문제, 시사 문제들을 모아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주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이슈들로 4~5차례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집단면접을 여러 번 연습하고 면접을 해본 결과,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내 의견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것, 발표지에 간결하고 정확하게 적는 것,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궁금한 것을 예의 있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집단면접은 서로 싸우고 헐뜯어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니 경청하는 자세!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만한 고교 교과목은 생활과 윤리 또는 윤리와 사상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양과목으로 교육심리학, 교육의 역사와 철학 과목을 수강하는데 고교시절 배웠던 두 과목 속에 다양한 학자들과 서양교육, 한국교육의 역사와 사상, 실용주의 교육철학, 포스트모더니즘 등등 고교시절 배웠던 내용을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교육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코딩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코딩 교육에 대해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컴퓨터교육과를 선택했습니다. 컴퓨터교육 관련 전공 수업은 2학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1학년인 지금은 교양수업을 위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1학년들은 선배들과 초등학생들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컴퓨터 관련 놀이를 준비합니다. 어린이날에 컴퓨터교육과만의 특색을 살려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코딩을 이용한 ddr, 보드게임 등 다양한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코딩교육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졸업 후 기대되는 모습은?

교육대학교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니 졸업한 선배들은 초등학교 교사의 길로 나아갑니다. 졸업하신 선배들의 SNS를 통해 아이들과 쉬는 시간에 사진 어플로 놀아주는 모습, 수업중인 모습 등을 보는데요. 4년 후 저는 어떤 모습의 초등교사 일지 정말 기대가 되고 떨립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되도록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하는데, 아마 교사가 되었을 때엔 좋은 카메라로 아이들의 순간순간을 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교육대학교를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만큼 높은 성적대가 아니어서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수많은 시간동안 마음을 졸이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게 성적이 다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초등교사가 되고자하는 마음이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그 열정이 전달된다면 모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부전공: 사회과교육) 노기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때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나 뿌듯함에 시작했던 교사라는 꿈이지만 신기하게도 우울하고 화가 날 때도 아이들을 보면 그저 기분이 좋아졌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초등교사로서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 수험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나요?

고등학생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공부하면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였습니다. 솔직히 수험생이라

면 하루 종일 종이만 바라보며 단 한 가지의 목표만을 위해 공부하다보면 분명 많이 지치고 외로우며 때로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3년 내내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고, 교내외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듣는 주위의 걱정들에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선배들이 써 놓은 합격 수기집이나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수험생에게는 외롭고 힘든 수험생활 중에 자신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용기와 응원이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거나 선배들이 남겨놓은 응원의 메시지나 합격 수기집을 읽으며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면접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그동안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 왔는지에 대해 먼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이 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 순간마다 간절했던 학교생활을 되돌아보며 생활기록부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이후, ‘만약 내가 면접관이라면’이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생활들을 끈질기게 비판하고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절한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 비판과 의문점에 대한 답을 해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게 부족한 점이 보였고, 그래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자기소개서의 완성에는 ‘오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신기하게도 보면 볼수록 고치고 싶은 내용들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들을 끊임없이 수정하다보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간략하게 핵심만 자기소개서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씩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너무 많은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 자기소개서에 걱정이 많이 되어서 더 많은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의 검토를 겪을수록 제 자기소개서에 저의 생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고, 여러 선생님들이 추구하는 생각들만 복잡하게 뒤섞여 읽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은 각각 추구하는 방향과 생각이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 선생님께 자기소개서 조언을 구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의 간절한 생각들이 자기소개서에 묻어나기 힘듭니다. 꼭! 자신과 잘 맞을 것 같은 선생님 한 분께 정중히 부탁해서 같이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우리 학교의 변화와 함께, 제 자신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꼈던 학생회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학내문제해결위를 만들어 학생들의 불편한 점들을 모아 학교 교직원들에게 온수기 설치를 요구했고, 마찬가지로 교칙개정위를 만들어 서명운동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칙 개정의 뜻을 학부모회와 교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온수기 설치와 교칙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학생회장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혼자서 교장실에 찾아가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교장선생님의 부정적인 대답이 그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느꼈던 ‘함께’의 의미는 교대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순간도 매 순간 느끼고, 또 배우고 있는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하는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비교사로서의 준비는 물론 하나의 반을 책임지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와 공동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 보면 좋겠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미술이나 음악과 같은 예체능 계열에 보다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등교사는 전 과목을 모두 다루는 직업이기에, 특정 교과목에 한정되고 치우쳐서는 곤란합니다. 실제로 교육대학교에서는 그림을 그리거나 창의적인 만들기를 하는 활동, 감상하거나 비평하는 활동 등의 수업이 굉장히 많고 피아노나 국악 등 다양한 악기와 음악을 다루는 수업이 많습니다. 교육대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꼭 예체능 계열의 과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등교육의 전공에 기초와 도움이 되는 책은 특정 어느 한 ‘과목’과 ‘분야’를 배우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교사는 정말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다룰 줄 알아야 하며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가치를 마주하며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생각 깊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들도 신경 쓰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치고 힘든 것이 정말 당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해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의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것은 그만큼 아직 목표를 세우고 더 공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고, 너무 피곤해서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지나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간절함을 다시 떠올리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부전공: 미술교육) 문혜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길 꿈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수업하시는 모습을 동경하여 초등교사의 꿈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내가 동경했던 선생님의 걸모습이 아닌 ‘초등교사’의 사회적 역할이나 영향력 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교사란,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첫 사회적 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이자, 아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을 마주하는 사람이기에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사라는 직업은 더욱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등교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차고 의미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기를 다짐했고, 이를 위해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저는 고교시절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초등교사의 꿈을 키워왔었고,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러한 활동내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생각하였고, 고등학교 기간 동안 이 전형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내신 성적, 독서, 봉사, 동아리 등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는 수시의 경우 면접의 비중이 커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공부와 함께 면접 준비를 병행했어야 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각 대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보내주던 수시모집 입학전형 자료집을 통해 입학전형의 종류와 반영 비율, 면접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했고, 각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서 다양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측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입시와 관련된 정보들을 직접 듣고,



자료집을 받아보기도 했었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제가 목표로 했던 진주교육대학교의 면접의 경우 개별 면접뿐만 아니라 집단 토의면접도 있었는데, 집단 토의면접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 지도 잘 몰라서 준비하기 더욱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교대를 준비하던 같은 학교 친구들과 함께 기출문제로 집단 토의면접 연습도 여러 번 해 보았고, 학교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 면접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며 준비했었습니다. 실제로 면접 현장에서는 대학생 분들이 긴장을 풀어주시기도 하고 면접관 분들께서도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활동들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골라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며 작성했습니다. 처음 쓴 자기소개서와 마지막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비교했을 때, 같은 내용이 없을 정도로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소개서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바꿔 읽어보며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방법으로 자기소개서를 수정해 나가며 완성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고등학교 시절에 교육봉사활동과 교육동아리 활동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봉사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영어수업을 한 후, 매일 어떤 것을 가르치고 배웠는지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동아리에서 교육관련 영화 또는 책을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기, 교육적 이슈를 주제로 토론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저는 현재 교육관련 강의를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과목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철학과 같은 전공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사 등의 교양과목의 경우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 가치관, 교육관 등이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학자들이 모두 윤리책에 소개되었던 학자들이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도서는 ‘카르페디엠’을 외쳤던 키팅선생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책입니다. 학교와 학습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준 책이기도 하고,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이 알려주듯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일깨워준 책이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꼭 한 번은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경우 보통 4학년 때 임용고사를 치른 후, 면접까지 합격하게 되면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교직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동심리나 미술치료 분야를 더 심화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말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동심리와 같은 분야의 지식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교대 진학을 준비하는 많은 친구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들을 단지 입시를 위한 스펙쌓기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생활 중에 하는 모든 활동들은 훗날 여러분이 교사가 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즐기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보면 분명 지치고 힘든 순간이 있을텐데 그럴 땐 잠시 쉬어가요. 재충전의 시간이 있어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꿈을 함께 응원할게요!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부전공: 실과교육) 서혁규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주위 친구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내용을 설명해주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웠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수학학습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학생들이 소극적이고 어둡고 짜증도 많았지만, 나와 함께 공부를 하고 놀면서 점차 긍정적이고 활발하게 바뀌어 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을 통해 저는 초등교육학과를 선택했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입학을 준비할 때 공부한 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공부를 잘하는 친구에게 가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그 친구의 방법을 열심히 배웠으며, 특히 담당과목 선생님을 매 시간 찾아가서 완전히 이해 될 때까지 물어보는 등 매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공부방법(미드를 보며 영어학습, 취미인 독서)을 터득해 효과적인 학습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1학년 때에 비해 2, 3학년 때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희망하는 학교인 진주교육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하루에 한번 이상 방문하며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했습니다. 실제 학교 행사인 오픈캠퍼스나 대학설명회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욱더 정확한 자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면접은 예상 질문을 만들어 답변을 준비한 후 교육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모의면접을 매일 반복해서 연습했으며, 학교 선생님들께 지도를 받았습니다. 또 대학진학박람회에 참여하여 교육대학 모의면접을 신청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면접 실제 분위기는 저의 예상과 너무나 다르게 매우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우선 생활기록부 검토를 10번 넘게 하며 번호에 맞는 소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가지고 그 당시 느꼈던 생생한 경험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써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보완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작성하니 조금은 마음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 모의서류전형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를 피드백해주는 행사기간이 있었는데 참여하여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동아리는 경제동아리와 토론동아리, 봉사동아리, 교육시사문제분석동아리에 참여하면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주교육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3년 내내 성실하게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초등교육과에서의 생활이 궁금해요.

전공 공부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시기 교육철학, 교육심리 전공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면 한번쯤 에밀을 읽어보며 교직관을 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초등교육학과이다 보니 국어, 수학, 영어, 미술, 음악, 체육(무용, 수영, 뉴스포츠)과 같이 전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입학 전과 후 달라진 점은 입학 전에는 아무래도 과연 내가 이 학교에 입학 할 수 있을까? 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나의 여가 활동을 할 시간이 거의 없었지만 입학 후 지금은 매우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여가활동(탁구 배우기, 독서,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활동은 멘토링 활동입니다. 고등학교에 이어 계속 아동센터에 방문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할 정도로 제가 열심히 몰두하고 있는 일입니다.

□ 졸업 후 기대되는 모습은?

졸업한 선배들은 거의 현직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고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심리학입니다. 왜냐하

면 심리학을 배워두면 나중에 현장에서 학생들과 또는 학부모님과 상담을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임용고시를 치기 위해서는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3급 이상)을 응시해서 자격증을 따야하며 그 이외에 응급처세술 및 심폐소생술 수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해 초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저 역시 대학교 4년을 무사히 마친 후 임용고시를 통과한 뒤 현장에 나가 초등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매일을 보내고 싶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고등학교 시절 대학에 대한 불안감과 막연함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이룬 미래를 매일 상상하면서 그와 연관된 여러 활동을 고교시절에 열심히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다 보면 분명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것 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모두 파이팅!!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부전공: 과학교육) 이다예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이름 다예는, 많을 多 재주 藝, 많은 재주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라는 뜻에서 부모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부모님의 소망처럼 많은 재주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고등학교 시절, 저의 목표이자 꿈이었습니다. 명확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던 중학교 때 두 동생의 전 과목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가르치는 것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멘토링'을 하며 멘티와 함께 공부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익혀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가능한 시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꿈을 위해 노력해나가는 과정은 지금 생각해도 그 모든 순간순간이 눈부시고 아름다웠습니다. 무슨 활동에 특별히 치중하여 활동했다기보다는 제가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 모든 활동들이 저의 노력의 결과물들이었고 '고등학교 3년을 열심히



히 살았다.’라는 증표였습니다. 대학입학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힘들었던 점은 제가 하고 싶은 활동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한가지에만 집중해서 해도 모자란 시간이지만 ‘활동’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생겨난 욕심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활동’과 동시에 ‘성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저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서 해야 했습니다. 시간 단위별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 중간의 자투리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투리 시간 활용 체크표, 복습체크표 등 꼼꼼하게 공부한 내용을 체크하고 틈틈이 공부하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년간 만들어진 습관은 대학생이 된 지금에서도 시간을 효과적이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자료는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각종 입시설명회나 ebs 수시 설명회 등 다양한 설명회들이 개최된다면 기꺼이 그곳에 가서 듣고 왔습니다. 이는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는 신선한 ‘자극’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심이 있던 학교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교대면접에서 시사를 길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사공부는 길게 시간을 따로 내서 하지 않았습니다. 등하교시 버스 또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음악을 듣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슈를 볼 수 있는 jtbc 방송국의 “앵커브리핑”과 “팩트체크” 영상을 3-4분 정도 쟁겨보며 시사점 정도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카드뉴스”를 시사공부에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카드뉴스란, 그림과 짧은 글을 이용하여, 카드 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한 뉴스를 말합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공부에 집중이 잘 안될 때에 이런 카드 뉴스를 10분에 3-4개정도를 쟁겨보며 간단한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앵커브리핑과 팩트 체크, 카드뉴스의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시사 정리 노트는 교대 심층면접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육과 관련시킬 수 있는 시사점들은 그 주의 주말에 따로 모아두어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모아둔 주제를 바탕으로 학교에 교대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며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 도서는?

시간이 지나도, 언제 읽어도, 몇 번을 읽어도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게 던진다면, 저는 자신 있게 그 사람에게 ‘딥스’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딥스’가 저에게 주는 의미는 큰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완성 단계이고 미숙하기만 한 저의 교육철학, 그리고 교직원이지만 나만의 교직원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책을 뽑으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딥스’일 것입니다. 교사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자신이 변화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따뜻한 응원의 박수와 시선을 보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임이 ‘딥스’라는 책을 통해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꽤나 단순한 이야기패턴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딥스와 함께했던 놀이치료의 과정과 그 이야기를 임상 심리학자의 제 3자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성적으로 또 어느 쪽에서 보면 약간은 감성적으로 풀어내며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책입니다. 딥스라는 개인이 자신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하면서, 독자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강렬했던 책이었습니다. 3년 전 제 마음에 잔잔한 위로를 주었던 것처럼 교육대학교 학생으로 ‘예비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위치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저에 삶에 잔잔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해외 교육 연수 프로그램과 교육봉사 프로그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란, 다른 나라에 방문하여 그 나라의 교육 현장에 대해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만의 특별한 문화나 교육 제도, 교실의 모습, 차이점 등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 상반기에는 일본 단기문화 연수, 하반기에는 네팔 교육봉사를 준비하며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런 해외 교육연수 프로그램, 교육봉사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되어있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부전공: 사회과교육) 이다은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주변 선생님을 보며 초등교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도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를 물을 때 차근차근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이 좋았고, 이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몰랐던 문제가 이해가 됐다는 듯이 ‘아~’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면 교사의 길에 더욱 확신이 들곤 하였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어린 학생들일수록 교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 더욱 매력을



느껴 초등교사로 꿈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는 초등교사에 대한 갈망에,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걱정이 많지만 꼼꼼한 성격 때문에 수능보다는 수시에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교대에 진학하기 위해 3년간 좋은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대에 진학하기엔 힘든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2학년, 3학년 동안 내신관리를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내신 성적이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마지막 학기에는 모든 내신 등급을 1등급씩 향상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는 내신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모든 과목을 가르쳐야하는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자신문 동아리 외에도 학생 자치법정 동아리, 영어 토론 동아리, 학생회 주관 활동 도우미, 각종 행사 도우미 등 교직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학생자치법정 활동을 통해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변호사 역할로 참여하면서 대중들 앞에서 떨지 않고 조리 있게 말하는 법과 팀원들을 통솔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해결하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는 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열정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좋은 결과들은 다른 친구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나만의 특색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자신감과 긍정적인 사고, 열정이 면접에 고스란히 드러났고, 조금 낮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최초합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 초등교육과에서의 생활이 궁금해요.

초등교육학과의 특성 상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에 대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1,2학년 때는 주로 과목의 지식적 측면과 실기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3,4학년 때는 해당 교과를 가르치는 교수법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입학 전에는 ‘초등학생들에게 미술을, 음악을 어떻게 가르칠 지에 대해 배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입학 후에 직접 콩나물을 그리고 단소를 붙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게 가장 즐거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해보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에 학과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만족감은 매우 큼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초적인 내용만 배운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는 앞서 말했다시피 1,2학년 때 배우는 실기 위주의 수업일 뿐이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하는 수업과 교직에 나갔을 때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끊임없는 발표수업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실습을 하면서, 동기유발부터 정리까지 학생들의 활발한 배움이 일어나는 40분의 수업을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밤을 새기도 합니다.

초등교육학과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이 전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과목 편식없이 모든 과목에 열과 성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도서는 자신의 교육관과 교직관을 뚜렷하게 세울 수 있는 책을 찾아 교직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이라면 모두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죽은 시인의 사회’, ‘헬렌켈러’ 등과 같이 거창한 교사의 이미지보다 학생들과 생활하며 느낀 점을 쓴 에세이 형식의 책을 선호했고, 그 속에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교사’라는 교직관을 정립하였습니다.

□ 졸업 후 기대되는 모습은?

목적이 분명한 학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 임용고시를 통해 정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저 또한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 교육에 대한 더 심도 깊은 공부를 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 초등교사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원래 목표가 아니라 성적에 맞춰 초등교육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미래에 만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를 향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이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 마디가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함께 노력할 많은 학생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부전공: 컴퓨터교육) 이지희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적에 호기심이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소심한 학생이었습니다. RCY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신청서를 잃어버려서 선생님을 찾아가 한 장 더 달라는 말도 못하고 혼자 일주일동안 끔끔거렸을 정도로 소심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참여 의사를 물어보시면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덕에 여러 대회에 참가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제가 연극에 관심이 있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혼자 숨어있지 않고 많은 것을 해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



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저도 이 선생님처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교대를 준비하면서 저는 집단면접에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개인 면접이나 자소서에 비해 좀 더 생소하고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고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면접 학원을 등록 했습니다. 학원을 가면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학원을 갔더니 그저 발성이나 자세, 예의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배웠습니다. 또한 가끔씩 문제를 뽑아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집단면접의 특성상 여러 명이 필요한데 혼자 학원 가다보니 집단면접을 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발표하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 발성도 평가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제 생각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토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 3번 정도 학원을 나간 후에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우리학교나 근처학교에 같이 교대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스터디처럼 모여서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서 집단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진주교대 입학안내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출력해 친구들과 함께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토론이 끝나면 서로에게 이번 발표에서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에 대해 피드백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본인의 모습을 직접 보면서 고쳐나갈 부분을 체크했습니다. 제가 했던 영상을 보면서 발표지가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과 발표를 시작할 때 첫 문장을 간단하게 말하지 못하는 점과 더 많은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점 등의 3가지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발표지를 더 간단하고 눈에 잘 들어오게 만드는 법을 고민해보고 발표를 나가기 전 숙고시간에 첫 문장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까지 정리해서 연습종이에 적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관련된 책이나 지식채널e 같은 것으로 공부하면서 주제의 근거를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집단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집단면접은 괜히 비싼 돈 들여가면서 면접학원을 가지 말고 학교 친구들이나 주변 학교 친구들과 모여서 많이 연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초등교육과에서의 대학생활은 어떤가요?

주교대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사는 아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는데, 교사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눈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사는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주교대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처음 입학 후 한 달 동안 새내기를 대상으로 ‘허슬’이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같은 학과 친구들끼리 총학생회 출범식 때 춤을 추는 행사입니다. 교대라는 곳이 내신이나 학생부, 자소서, 면접, 수능 성적 등 챙겨야 할 것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교대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는 이렇게 한 달 여 기간동안 친구와 선배들과 춤추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텐데, 대학 입학 후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일반대 못지않게 운동 분과, 문화 분과, 공연분과 등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연극동아리와 요리 동아리, 봉사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봉사, 교환 학생 등 해외에 나가서 현지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은 전 과목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책도 다양한 분야의 책을 두루 읽되,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책이 면접 준비뿐만 아니라 초등교사를 목표로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초등교사가 꿈이었고 고등학교 시절에 교육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일반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었는데 학교생활을 병행하면서 반수를 해서 다시 입학했을 정도로 누구보다도 진주교대에 입학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교대를 준비할 때 학생부, 자소서, 면접, 내신 등 너무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준비하면서도 막연하고 불안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도 주변에 선배들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끝까지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부전공: 사회과교육) 정예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덕분에 초등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반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항상 바라봐주셨습니다. 아침시간마다 항상 책을 읽어주시며 도서관 활동을 자주 하셨는데 그때부터 책을 좋아하게 되었고 책 읽는 습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에게 제가 받았던 사랑과 긍정적인 영향을 두 배로 나누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초등교육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초등교육 관련 서적도 더 많이 접하게 되면서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정말 좋아해서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미 초등교사라는 꿈이 명확했기 때문에 관련된 활동을 다방면으로 참여하려



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서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율동아리활동을 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 교육제도를 조사해서 한국과 비교도 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육봉사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입니다. 마을도서관에서 한 명의 중학생 공부를 도와주는 멘토링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멘티의 학업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멘티를 향한 관심과 칭찬이 멘티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뿌듯한 마음이 커졌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초등교육학과는 초등교육에 필요한 전 교과를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목을 충실히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학년 때부터 예체능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예비 초등교사로써 필요한 기초를 지금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음악, 미술, 체육 과목도 열심히 공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전문 서적은 아니지만 ‘꿈의 학교 론 클라크 아카데미’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론 클라크라는 미국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 예비교사, 교사, 학부모님들이 함께 만들어 가야할 101가지 지침을 적어놓은 책인데 좋은 교사란 어떤 덕목을 가져야하는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교육대학교 특성상 임용고시를 합격하면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배들이 임용고시를 통해 초등교사가 되어 교육현장으로 진출하지만 대학원에 진학하여 초등교육과 관련된 심화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졸업하신 선배님이 첫 담임을 맡고 학급을 꾸민 모습을 SNS에 올린 모습을 보고 학생들을 만나는 설렘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등임용고시와 더불어 필요한 자격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3급 이상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입니다. 기간이 5년 이내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충분히 공부하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초등교사라는 꿈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초등학생들에 대한 애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초등교사라는 꿈을 갖는 것도 좋지만 작은 관심으로 시작해서 점점 애정이 생기고 진정한 초등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는 것 역시 참교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학과에 관심이 생겼다면 관련 서적도 많이 읽어보시고 현장에 나가있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담은 책을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보고 느낀 내용이 담겨있는 책을 읽다보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원하던 학교에 오기 위해서 수시, 정시 모두에 최선을 다했고 처음 수험생활은 결과가 좋진 못했지만 첫 번째 경험을 통해 두 번째 수험생활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고 새내기로서 생활하는 하루하루를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역시 수험생활을 치열하고 열심히 보냈기 때문에 대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을 하고 학교 활동도 더욱 열심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을 2번이나 겪은 만큼 수험생 여러분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되고 싶기 때문에 대학, 전공고민 뿐만 아니라 수험생활의 고민 또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유용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험생활 무사히 완주하셔서 교육대학교를 희망하신다면 꼭 후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부전공: 사회과교육) 차소원

□ 진주교육대학교를 지원했던 이유

저는 고등학교 생활 중 1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생들의 과제물을 봐주고 수업시간에 보조를 하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 학업적인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기도 하고 놀이를 통해 정서적으로 소통하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진주교육대학교의 하계 모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진주교대만의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껴 꼭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 내에서 만난 선배에게 현실적인 조언 듣고 제 꿈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볼 수 있었습니다.

□ 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했던 나의 이야기

저는 진주교육대학교에 수시전형 중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동아리, 교내 대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기록부를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쩌면 같은 대학의 학생부 전형으로 경쟁하는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비롯한 자기소개서 등의 입시 자료 내용이 비슷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현역과 재수에 진주교대에 수시 전형으로 지원했지만 두 번 모두 불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교육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고, 교내 대회에 참여하여 상을 받고, 수학 영재 학급에서의 활동, 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입시에 도움 되는 활동을 찾아서 열심히 참여하고 수행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의 저는 '너 정도로 학교생활 열심히 했으면 충분히 교대에 붙을



수 있을 거다.’라는 주위의 기대를 들으면서 입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에게 대학 불합격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불합격의 이유는 남들과 비슷한 생활기록부의 내용과 더불어 저만의 특성을 입시 준비 자료와 면접에서 녹여내지 못했음이라고 스스로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저는 재수를 하게 되었고, 재수에도 진주교대에 수시 지원을 했지만 이번에는 1차에서부터 불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수 후, 21살에 타 대학 일반사회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학교의 특성상, 주위에 초등교육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활동과 공부를 보고 제 꿈을 다시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해 여름방학에 대학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하는 학습과 관련해서 선생님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봉사활동이 계기가 되어 마지막으로 수시로 진주교육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의 이런 많은 생각과 고민을 이해하고 계신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교사추천서를 부탁드렸습니다. 이처럼 저는 21살에 다시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차 합격 후, 면접에서 저는 제 진심과 열정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저의 간절함이 잘 표현 되었는지 마침내 진주교육대학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현역시절 면접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연습하고, 또 집에서 혼자 연습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 지원했을 때의 면접은 학원이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2년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교 발표나 사소하게는 아르바이트에서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을 말하는 힘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억지로 틀에 맞춰진 면접 방식과 준비 보다는 평소 학교생활에서 발표를 자신 있게 하면서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것과, 작게는 내가 가진 생각을 머릿속에서 썩히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대화하면서 표출하는 기회가 많다면 면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학교 자랑 및 우리 학교만이 가진 특징

우리 학교를 입학한 동기들에게 왜 다른 대학이 아닌 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했냐고 물어보면 하나 같이 학교의 첫인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면접 때 본 상냥한 교수님들과 친절한 면접도우미들을 비롯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교 자체의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에 대해 다들 공감합니다.

다른 교육대학과 달리 우리 학교는 시간표를 직접 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본가를 두고 있는 학생이나 통학하는 학생들이 공강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 내 동아리가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운동이나 공연이 있다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운동 동아리에는 축구, 티볼,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수영, 태권도 등이 있고 공연도 밴드, 댄스 등이 있고 이 외에도 교육 동아리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좋아했는데, 직접 배워보고 싶어서 여자축구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운동 동아리 같은 경우, 전국 교대가 모여 대회를 열기도 합니다.

□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고등학교 내내 저를 지켜보신 선생님께서 저에게 “너는 학교생활을 큰 일 없이 무난하게, 모범적으로 임했어.”라는 말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즉,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친구들과 생활하는 데에 큰 고민이 없었고, 가정환경에서도 역경이나 힘든 점이 없이 평탄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냈던 저이기에 처음 대입 실패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범생이었던 저에게 큰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부모님은 저보다 더 고민하시고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힘겨운 시기를 주위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로 이겨내고, 처음으로 겪은 이러한 큰 역경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꼭 가고 싶었던 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해서 누구보다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저보다 가정환경이 더 어려워서 공부할 수 없거나, 학업이나 교우관계에 더 많은 고민이 있는 등의 역경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는, 입시에 실패하여 다시 재도전하기 위해 공부하는 N수생도 제가 겪었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서 역경 속에서 지치지 않고 내가 가진 주관을 믿고 더 노력하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할 때 언제든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특수교육

가톨릭대학교 (직업)특수교육과 박민아 

□ 특수교육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재학 중인 학과를 밝히면 다들 사명감 없이는 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썩 대단한 동기로 이 학과를 처음부터 열렬히 희망하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방향을 거쳤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희망하던 분야의 꿈이 가정 형편상 좌절되면서, 저는 동시에 가족, 친구 등 다른 방면에서까지 슬럼프를 겪었어요.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저는 제 옆에 남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뭐라도 지탱하며 살기 위해 제 꿈을 찾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처럼 꿈이 없는 친구들의 옆에서 힘이 되어주며 그들의 삶을 빛내주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교육의 길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이 국어라서 국어교육과를 준비했지만,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높은 임용 경쟁률과 좋지만은 않은 비전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특수교육과를 보게 되었고 앞으로 발전하는 시대에서도 충분한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데다가 임용 경쟁률도 타 메이저 과목에 비해 낮고, 큰 보람을 얻을 수 있는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국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처음 입학했을 때는 고민도 많이 하고, 내 적성에 맞는지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차 이 전공과목의 지식들이 좋아지고 소중해지며 너무 특별해졌답니다. 그렇게 점차 저는 이 학과에 녹아들게 되었고, 큰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과는 조금 특별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만큼, 그 아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하고 아이들의 행동을 받아줄 수 있는 인내심과 체력이 중요하며, 정말 큰 열정과 흥미,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관련 전공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하고, 많은 준비도 거쳐야 해요! 그러나 입학 이후에 누구보다 큰 자긍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학과이기도 하답니다! :)

□ 대학입학 준비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보람있던 점에 대해 말해주세요.

저는 공부를 즐기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좋아하는 여러 활동들을 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전형임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다소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를 창립하기도 하고 여러 도서와 정기적 교육봉사활동, 수많은 수상경력과 활동 경험을 쌓으면서 준비해나갔죠!

그러나 분명히 슬럼프는 있었어요. 저는 평준화지역이라 중학교 때부터 입학하기를 원했던 고등학교로 배정받지 못하고 지역 내에서 당시 평판이 좋지 못했던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또 가정 형편상 사교육을 받지 못했고, 지방이라 제가 원하는 다양한 활동의 참여 기회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도 제 상황을 가장 잘 활용한다면 그게 바로 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외부 활동과 학교 체계는 부족했지만 학교 내 동아리 창설이나 원하는 활동 기획 및 실행이 가능했고, 자투리 시간을 사용하기 어려워 주어진 시간에 집중할 수 있었고, 사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뒤처지지 않으려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이렇게 노력하는 친구들끼리 푹푹 뭉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었어요. 점차 저희 학교도 평판이 좋아져갔고, 졸업할 때 즈음에는 저희 학교에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뿌듯한 졸업을 했었죠.

물론, 아직까지 아쉬운 점도 많아요. 그렇게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대학생 언니오빠들이 진행하는 대입상담이나 온라인 자료에서도 충분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고 지방이라서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할걸, 혹은 더 예쁜 시절을 보낼 걸 이라는 후회가 항상 남는 게 학창시절이라는 시간 같아요.

□ 특수교육과의 교육과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가 있다면?

사실, 사범계열에서도 많지만은 않은 학과가 특수교육과예요. 조금 특별한 과정이기도 하구요. 그 중에서도 저희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는 전공심화과정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업교육트랙을 운영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연계지도에 대한 내용을 배울 수 있고 직업교육 및 재활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담당할 수 있게 되며, 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자격시험을 본다면 한국직업재활학회에서 수여하는 직업재활사 2급 자격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별도로 전공 관련 여러 학회에서 실시하는 연수와 자격시험을 거쳐 언어치료사, 행동치료사,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의 자격 역시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 특수교육은 크게 유치원, 초등, 중등의 학교 급별로 교사의 자격이 부여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중등 과정만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수교육과는 다양한 방면에서 적용할만한 교과목을 찾을 수 있어요! 우선 가장 연계성이 높다고 한다면 사회교과목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인은 어떤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복지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평범한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떤 사회적, 윤리적 노력을 할 수 있는가 등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또 국어 교과목이라면 수화나 구어 등을 주제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영어라면 청각장애인에게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겠죠! 학문적으로 특수교육과 100% 연계되기 보다, 다양한 과목에 특수교육적 관점을 적용해서 고민해 볼 수 있을거예요!

권장 도서로는 헬렌켈러(헬렌켈러), 에디슨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톰 하트만), 아이들은 손톱처럼 자란다(유재연), 함께 보면 보여요(조남현), 자폐아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유현경), 조금 느려도 괜찮아(아이빛), 바람을 닮은 아이(오카 슈조), 형진이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배현순) 등 장애나 교육과 관련된 여러 도서들이 있습니다!

□ 졸업 후 기대되는 모습은?

대부분의 아니 모든 재학생이 특수교사로 진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학생들은 대부분 전공을 살려 일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 통합학급, 특수학교 등에서 중등특수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교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사범대학의 학과인 만큼, 다소 진로가 확정적인 면이 있답니다 :)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은 마련되어있어요! 직업재활사 자격을 취득하여 장애인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상담사, 직업평가사, 직업훈련교사, 재활전문가로서 종사할 수도 있어요. 또 교직원수업전공을 통해 타 과목의 일반교사로 진출할 수도 있으며 학문에 뜻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특수교육분야를 더욱 연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반 기업체 인사, 교육 분야 등으로 진출하는 등 본인의 적성이나 흥미, 계획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어요!

극동대학교 초등특수교육학과 배서정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 특수교사라는 직업을 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그때는 특수교사에 대해 몰랐습니다. 이후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중·고등학교 때 특수학급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친구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특수교사였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교사가 아니라 특수교사를 선택한 이유는 특수교사는 전문가라는 생각과 봉사자라는 생각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봉사를 좋아 하는 저에게 이 직업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낯을 가리는 일반 아동들과는 달리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허물없이 지내는 장애아동이 저의 성격과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작은 일이라도 보람을 느끼고 싶었으며 아이들의 인생에 밑그림을 그리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 특수교사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면접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격상 낯을 많이 가리고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면접 1~2주 전부터 연습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교육계열의 학과를 꿈꾸고 있는 친구와 함께 교실에서 모의 면접을 준비하고 서로 부적절한 습관 등을 지적해주며 고쳐나갔습니다. 면접을 보는 다양한 학생들을 위해 면접 후기가 있는 카페를 찾아 면접에서 어떤 질문들을 주로 했으며 분위기 등은 어떠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주변의 같은 특수교사를 꿈꾸는 친구가 없어서 혼자서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같은 분야가 아니라 비슷한 분야를 꿈꾸고 있는 친구와 모의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의 부담감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로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여 현재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기본적으로 물어 볼 것 같은 질문들은 제가 알아서 써보고 고치고 해보았습니다. 또 제가 쓴 것을 친구와 함께 보며 어느 곳을 좀 더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어떤 식의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지 전년도 예상문제를 보면서 답안을 생각하여 적어보았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쓴 것을 읽고 외우며 최대한 버벅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운 것이 티가 나지 않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면접장은 지금 재학 중인 학교와 또 다른 학교 이렇게 두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학교는 다대다 면접,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학교는 다대일 면접이기에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두 학교 모두 수시 도우미들이 대기 시간 동안 홍보 영상을 틀어주거나 질문에 답을 해주거나 전공과 관련된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 들어가기 전 긴장완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본교의 면접 때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았습니다. 학과의 특성상 학업 성취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기에 교수님들은 인자하신 분위기를 모두 풍기고 계셨고 또한 저의 긴장감도 풀어주도록 말씀하셔서 말하는 것이 어려운 저는 보다 편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먼저 추천 도서로는 제가 좋아하는 특수교사 겸 작가로 활동하는 토리 헤이든이 쓴 예쁜아이, 한 아이가 있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책을 냈기 때문에 더 실감이 났고 재미있었고 저에게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봉사 동아리를 했었는데,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수세미를 직접 손으로 떠서 사람이 가장 붐비는 곳에서 가판대를 만들어 팔고 수익의 전원을 기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토론 동아리도 했습니다. 교사가 되어 좀 더 조리 있게 말을 전달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초등특수교육학과라는 특성상 초등 교육과정의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데, 과학을 싫어하는 저는 과목을 편식하지 않기 위해서 과학 실험 동아리를 들어 실험 위주의 수업을 하며 과학을 좀 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이 학과에 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준비를 한 만큼 나왔던 자신감이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교사가 되어야겠다는 간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 특수교사가 되어서 새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들에게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길잡이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은 더 많이 어떤 과목은 소홀히 해도 된다고 말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특수교육을 배울 땐 전 과목 모두를 배우게 됩니다. 이럴 땐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목 모두가 배경지식이 됩니다. 과정안을 작성할 때면 풍부한 어휘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나마 전공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교과목은 아무래도 윤리와 사상인 것 같습니다. 교육학과에 재학하게 되면 교육 철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목에서는 윤리와 사상에 나온 철학자들이 고대, 중세, 근대, 또 동양의 교육 철학자들로 정리 되어 나오기 때문에 전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수교육학과를 재학하기 전에 읽었으면 하는 책은 위에서 말했듯 토리 헤이든이 쓴 책이나 장애를 넘어선 11인의 꿈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 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무조건 불쌍하다고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타까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충분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입학을 하면 전체적인 개론을 배웁니다. 교육학개론을 통해 교육의 전체적인 부분을 숙지할 수 있고, 특수교육학개론을 통해서 전체적인 장애 영역을 훑어보고 각 장애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이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공부합니다. 교육 철학에서는 고대부터 근대까지의 교육 철학자에 대해서 배우며 또한, 교육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에 대해 배웁니다. 1학년 때는 전문적인 지식 이해를 위한 기초를 배우기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2학년 때는 장애의 진단 기준, 종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중재방법 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초등학교 전 과목을 배우며, 지도안을 보고 분석합니다. 3학년 때는 2학년 때에 이어서 장애학생 교육과 초등 과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배운 장애영역들의 장애수준과, 아동의 지적, 언어, 등의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는 진단평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며 실제로 진단 평가 도구를 사용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아동에 실습을 해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직접 세안, 약안 등을 짜고 40분 수업을 줄여서 보여주는 마이크로 티칭, 그리고 직접 40분의 수업을 시연합니다. 실습을 앞 둔 3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시연 대회를 열어 수업 시연을 마이크로 티칭으로 보여주며 먼저 실습을 다녀 온 선배님과 교수님들께 피드백과 조언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 때는 1,2,3학년 때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습을 나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특수학교로 나가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초등특수교육학과에 입학하기 전에는 단순히 아동들을 만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냥 부풀려 있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학하고 나서 느낀 점은 공부할 것이 많고 갖추어야 할 전문성과 많은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특수교사로서 모든 장애 영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진단평가를 하여 아동의 현행 수준에 대해 파악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익히 알고, 공통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지도안 작성법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어 앞이 막막합니다. 하지만 1학년 때부터 들었던 전공 수업을 통해 차근차근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으며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몰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튜터링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튜터링은 학생들 스스로 모임을 만들고 하고 싶은 공부를 정해 매주 모여 주간 보고서를 쓰고 기말 보고서를 쓴 후 발표를 하여 많은 성취를 보여준 팀에게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2학년 선배님들에게 배우며 수업시간에 몰랐던 부분, 시험에 대해서 더 배우면서 많이 발전하고 성적도 많이 늘었습니다.

또 2학년 때는 동기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다. 실제로 두 배 정도 성적이 향상된 동기도 있었습니다. 1학년 때는 튜터, 2학년 때는 튜터로 활동하며 동기와 후배를 가르치면서 저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도움을 많이 받은 프로그램이기에 3학년 때도 동기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임용고사 대비를 위해 교육과정을 단권화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물리치료 혹은 작업치료를 조금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장애아동들은 교육과 치료, 약물 치료 등을 병행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전문성을 조금 더 갖추고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면 부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제가 생각하는 초등 특수 교사란, 앞으로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갈 아이들에게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조력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교사의 신념을 가지고 교사가 되어 교단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학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김주희 

□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나 동기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6년간 교육봉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작은 도움이 수혜자에게 큰 힘이 된다는 믿음으로 봉사동아리 히아신스를 창립하여 국어 기초부진 초등학생 1:1 학습지도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돌이켜 보면, 교육봉사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선택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저는 학습 해결책을 제공하는 수업설계를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면서, 학생 각각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 학습에 효과적임을 배웠고, 교육자와 학생의 상호작용과 소통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봉사로 이어진 교육에 대한 고민은 교육학과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 교과교육과가 아니라 교육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저는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역사교육과 등 특정 교과 교육학과로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교과 지식에만 매몰되지 않고, 교육학에 대한 전반적 안목을 길러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교육자가 되길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교육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은 내재해 있는 교육의 원리와 가치를 탐구하게 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하기 때문에, 학교 구조, 교육 체제 등 교육이 일어나는 큰 틀이나 구조를 보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교육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교사가 되고 싶은데 교육학과에 가도 되나요?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복수전공'이나 '교직이수'를 통해 해당 과목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 사범대학에 해당 과목이 설치되어 있다면 '복수전공'을, 해당 학교 사범대학이 아니라 인문사회대학 등 다른 단과대에 해당 과목이 설치되어 있다면, 교직이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교직이수'를 하면 됩니다. 저는 '교직이수'보다 '복수전공'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교직이수'는 해당 과 학생과 경쟁하여 소수만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해당 대학 사범대학에 해당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복수전공'은 경쟁이 다소 약하고, 교원임용시험을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수업이 체계적이고, 관련성이 높습니다.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은 23개 학과로 한국교원대학교와 같이 전국 최대 학과가 있으며, 매년 교원임용시험에서 전국 최다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육학과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해당 대학 사범대학에 해당 과목이 설치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저는 수시 종합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1) 자기소개서

내신이 2.5로 다소 불안하다고 생각해 자기소개서는 3월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에 소홀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6월부터 시작하여 단기간에 끝내기를 추천합니다.

TIP 1. 형광펜으로 항목별로 소재를 분류하자!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생기부를 전부 뽑아서 쓸 만한 소재를 형광펜을 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형광펜을 친 소재를 자기소개서 문항별로 분류하면, 가장 학과에 대한 관심과 학업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는 소재를 골라 써야 합니다.

TIP 2. 대학 홈페이지의 전공 소개서를 참고하자! ★

1번 항목은 고등학교 3년내내 국어교과 심화반 수업에서 '연결고리 학습법'을 통한 스스로 찾아 생각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과 고사성어 한시 동아리 화룡점정에서 한자를 바탕으로 고전문학을 공부함으로써 융합학습을 강조했습니다. 교육학은 심리학, 철학, 공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번 항목에는 신문부 기자부장으로 신입생 기자 교육을 기획, 운영한 것과, 교육봉사 동아리 히아신스, 국제반석포럼을 썼습니다. 2번 항목은 반드시 '교육'과 최대한 관련되게, 기승전결 '교육'으로 써야 합니다. 심사자의 눈길을 끌만한 자신만의 독특하거나 특별한 활동이 있으면 좋습니다. 3번 항목은 전교학생회 부회장 활동을 썼습니다. 4번 항목은 꿈,끼 탐색 주간 교육학과 특강, MT 교육공학과 대학 홈페이지에서 찾은 전공 소개서와 학과 홈페이지의 학과 소개와 사진첩을 참고하여 썼습니다. 4번 항목은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공 소개서나 학과 홈페이지의 학과 소개, 교육과정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IP 3. 자기소개서 컨셉(concept)을 잡자!

TIP 4. 학교, 학과의 인재상, 핵심역량을 이해하자!

저는 자기소개서 컨셉(concept)을 '교육공학적 실천'으로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교육자'로 잡았습니다. 2,4번 항목에서 '효과적 교수매체 및 방법' 등으로 '교육공학적 실천'을 강조했

습니다.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는 ‘교육으로 따뜻한 세상을 구현하는 인재’가 인재상이어서, 교육 발전에 헌신하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교육자를 강조했습니다.

2) 면접

커뮤니티에서 1:1인지, 1:3인지 등의 전반적 면접 상황이나 구성, 압박면접 등의 면접 분위기나 대기실 상황을 확인했고, 면접, 기출에 대한 지원자나 합격자의 답안을 참고했습니다.

TIP 1. 해당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참고하자! ★

면접을 준비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대학별로 면접질문 기출문제가 나와있습니다. 면접형태, 면접위원수, 면접평가 항목, 면접평가 자료 등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참고해야 한다. 기출을 짝 뽑아서 스스로 답을 달아봅시다.

TIP 2. 모의면접을 최대한 많이 하자!

모르는 사람일수록 좋다. 익숙하거나 친한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아는 어른께 부탁드려야 합니다. 실제 면접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만큼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뛵니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나올 가능성이 큼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모의면접을 최대한 많이 하고, 동영상으로 자세나 표정, 말투를 찍어서 보면 좋다.

TIP 3. 자기소개, 지원동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준비하자! ★

자기소개, 지원동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달달 외워갔는데, 실제로 면접할 때 외워간 모든 말을 다 써먹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면접관이 시키지 않더라도 손을 들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라고 묻고 합격하고 싶다고 어필하고 오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합격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대해 몰랐던 비~밀 ★

1. 교과교육과도 반드시 교육학과 수업 일부를 듣는다.

교과교육과 학생도 반드시 교육학과 수업 일부를 ‘교직 과목’으로 들어야 합니다. 교육학과 학생은 ‘전공기초’나 ‘전공필수’로 배우고, 교과교육과 학생은 ‘교직’으로 배웁니다. 교과교육과 학생이 교육학과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는 것은 오해입니다.

2. 교육학과와 교육공학과는 배우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

교육학과와 교육공학과는 공통적으로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학과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것이 교육인지 근본적인 문제와 이론을 중심으로 배우지만, 교육공학과는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프로그램이나 교구를 제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져 있습니다. 교육학과는 이론을 심층적으로 배우지만, 교육공학과는 교수매체, e-learning 등을 추가적으로 배웁니다. 교육학과와 교육공학과가 같은 학과인지 알고 자기소개서도 바꾸지 않고 마구잡이로 지원하면 안됩니다.

3. 교육학과는 교과교육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결이 낮다.

교육학과는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결이 조금 낮습니다. 해당 과목에 지원하기에 다소 부족한 성적이라면, 교육학과에 지원하여 복수전공이나 교직이수를 통해 교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고 도움이 되는 고교 교과목, 추천도서, 추천다큐가 있나요?

사회문화는 기능론, 갈등론이 중심인 교육사회학을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과 윤리는 플라톤, 프래그마티즘 등을 배우는 교육철학을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추천 도서는 교육학개론(김정환), 교육심리학(임규혁),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권대봉)입니다. 추천 다큐는 KBS 4부작,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SBS 4부작 '바람의 학교', KBS1 3부작 '세상을 바꾸는 생각, 후마니타스'가 있습니다.

□ 졸업 후 진로는 무엇인가요?

주로 교사, 연구원,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진출합니다. 최근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여 평생교육사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교사, 장학사, 대학교수가 있고, 교육학 연구원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국책 연구소나 대학의 교육 관련 연구소 연구원이 있고, 기업 교육, 교육행정가로 진출합니다.

동아대학교 교육학과 하은비



□ 학과, 전공 선택 이유

1) #꿈 #고민 #학과 선택의 결정적 이유

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당연히 심리학과 지망을 했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중등학교 시절에 꾸준히 해온 멘토 활동과 고등학교 때 시사토론부에서 했던 다양한 주제의 토론으로, 교육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열의를 깨닫게 되어 고민 끝에 교육학과로 진학하였습니다. 특히 교육분야에서도 교육상담이나 교육심리분야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야를 접목해 배워볼 수 있다는 것이 제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교육학과 진학을 결정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준비방법

1) #자기소개서 #쓰는 #꿀팁

총 7단계를 거쳐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데요. 1.질문의도 파악하기 2.글감 찾기 3.글감 추려내기 4.글쓰기 5.수정, 보완하기 6.글자 수 맞추기 7.맞춤법 검사 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의도 파악하기인데요. 저희 동아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 문항에서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에 대해 묻고 있어요. 이 문항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혹시 성적이 떨어지거나 유독 어려웠던 과목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했는지를 솔직하게 기술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2번 문항에서는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문항은 어떻게 학교생활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해온 많은 교내활동, 학교만의 특색활동 등을 솔직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3번 문항은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에 대해 묻고 있어요. 이 문항은 인성적인 부분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성적인 면모가 드러날 수 있는 한 가지 내지 몇 가지의 활동을 기술하면 됩니다. 여기서 세 문항의 공통적으로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세 문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쉽게 하는 실수가 바로 이 배우고 느낀 점을 빠트리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쓰면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적느라 바빠서 배우고 느낀 점을 하나도 안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께 첨삭 받으면서 지적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첨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분들께 받으면 각자 글쓰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거나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말의 논점이 흐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글감 찾기입니다. 글감은 반드시 생활기록부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생활기록부는 여러분이 그 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에서 각 문항에 쓸 내용들을 찾아서 형광펜을 긋거나 포스트잇을 붙여서 표시하고 찾은 글감을 각 문항마다 마인드맵의 형식으로 정리했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글감을 추려낼 때 편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글감 추려내기입니다.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어떤 소재로 글을 쓸지 대충 정하셨다면, 이제 문제는 그 글감을 추려내는 거예요. 마음만 같으면 모든 이야기를 다 쓰고 싶겠지만 우리에게 '글자 수'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 글자 수 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적으려다보면 글에 정작 중요한 배우고 느낀점이 빠지기 십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글감 중에서도 자신만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글감을 몇 가지만 골라내야 합니다. 저는 처음 자기소개서를 쓸 때, 괜히 한 활동이 너무 없는 것 같고, 너무 흔한 것 같아서 하지도 않은 활동을 꾸며내서라도 적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은 학교의 커리큘럼만 잘 따랐어도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고, 문제는 그 글감이 흔하냐 아니냐 보다 그 글감을 어떻게 자신만의 이야기로 녹여내느냐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글감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글감을 고르고 나면 본격적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정말 어렵죠.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저는 1번 문항을 시작하는 데에만 꼬박 3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상한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정말 입시위주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따로 논술이나 글쓰기를 배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글을 한 번 만에 잘 쓰겠어요. 글은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쓰고 나면 그걸 수십 번 수정, 보완해서 완성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의식의 흐름대로 써 내려 가다보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담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정, 보완 단계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과정인데요. 이 때 두괄식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괄식 표현으로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전하거나, 소재목 붙임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리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꼭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만 좋은 자기소개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글을 쓰다가 잘 정리가 안 되고 전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적어야할지 모를 때에는 이 방법들을 한 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글자 수 맞추기입니다. 한글에 있는 문서정보 기능을 사용해서 글자 수를 확인해서 글을 쓰면 되는데요. 글자 수가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만큼 글이 잘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맞춤법 검사입니다. 국립 국어원 맞춤법 검사기 등을 사용해서 맞춤법검사를 할 수 있어요. 틀린 부분이나 띄어쓰기 더 나은 표현 등을 표시해주니까요, 잘 참고해서 깔끔하게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2) #고등학교에 재학 당시 #의미를 뒀던 #활동

[내 인생 : Do Dream 전, 후]

시사토론부(두드림)에 들어간 것이 제 인생의 첫 전환점입니다. 동아리에 들기 전에는 시사나 정치 같은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 하나가 관심을 가진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고 무언가를 바꾸고 싶지도 않았습시다. 그 당시의 저는 고인 물이었습니다. 그러다 토론을 통해 많은 시사 문제를 접하면서 나만의 견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매체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활동을 하게 된 후로는 비판적인 태도로 내용을 살피고 스스로 필터링 하는 힘이 생겼습니다. 또, 한 주제에 대하여 찬반을 두고 겨룰 때 본디 저의 입장은 찬성이지만 토론을 할 때에는 찬반을 무작위로 정하였기 때문에 반대 측의 입장을 대변해야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넓고 유동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토론을 하면서 비로소 고인 물이 흐르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토론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토론할 주제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꽤 이슈였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있었고 들어는 봤지만,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의 모습에서 시사토론부에서 활동하기 전의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제가 교육 문제로 넘어가곤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와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교육이나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열을 올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던 토론이 만사에 무관심했던 저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열정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사토론부에서의 활동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준 것이 해동고와의 토론입니다.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의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민주주의 분야를 배웠으니 크게 조사할 게 없지 않겠냐고 안일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과 현실에 적용한 민주주의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조사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시민의식의 부족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확 타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냄비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지 생각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만 비로소 민주적인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제게 ‘나는 민주적인 사람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들보다 잘 아는 것처럼 말하고 최근 일어난 여러 사건을 보며 열을 올리며 토론했지만, 그것들을 스스로 나서서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힘’,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1) #전공에 기초가 되는 #도움이 되는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 #추천도서

교육학이라고 하면 이공계열학과들이나 영어영문학과 등처럼 딱 하면 떠오르는 교과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학 안에서도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등의 세분화된 학문들을 접하기 때문에, 기존 사회 탐구 과목들을 공부하며 기본을 다져놓는다면 새로운 학문을 접할 때의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추천도서라고 한다면 작년 제가 들었던 ‘한국사회와 교육’ 강의에서 교재로도 사용했던 ‘학교란 무엇인가’ 1, 2권을 추천 드립니다. 교육학과의 1학년 교육과정에는 심도 있는 이론적인 내용보다 ‘교육학’에 대한 의미와 사회에 스며들어있는 교육의 실질적 적용사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말씀드린 책에는 그러한 교육의 부분들이 잘 나타나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쉽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 #차이점

일반적으로 교육학과 학생이라고 하면 무슨 과목? 이라는 질문이 따라오지만 교육학과는 과목(국어, 수학, 사회 등)의 해당교과 교사가 되기 위한 학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학과에서는 교육현상과



관련된 문제를 학문적으로 탐구하는데 교육과와 달리 교육학 '학'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과
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 들어온 학생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통해서 원하는
교과의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대학원에 교육행정, 교육심리
및상담, 유아교육, 다문화교육과 일반대학원에 교육철학, 교육사회복지, 교육심리, 교육방법, 교육상
담, 교육행정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학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3)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활동 #프로그램

처음 대학에 들어와 보낸 첫 해를 요약해보라고 한다면 '고온',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
다. 막 20살 성인이 되어서 1년을 보내며 어른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누구도 내게 공부하라
강요하지 않고 출석도, 시간표도, 과제도 자유롭습니다. 누구도 하나의 길을 보여주며 이리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길을 스스로 개척해나가야 하고, 자유에 대한 책임 역시 져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이란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곳이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해 준 것은 '고
온'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튜터팀의 이름인데, 이 팀에서 해왔던 중, 고등학교 친구들을
위한 진로 특강, 전공 설명회, 다우링크, 멘토링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저의 생각을 깨게 해주었습니
다. 입시에 매달리며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의 꿈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기 보다 이름 붙이기 좋은 직업명일 뿐이었고 주위에서
선택하라고 하니 어쩔잖게 내놓았던 차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유로운 대학에 오자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고민들이 솟구쳤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개척하기에 앞서 방향을 잡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학기는 막연하게 자유와 새로운 것들에 적응하며 보냈고, 2학기는 끊이지 않는 고민
들과 그로인한 우울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나와 함께 했던 고민들을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압니다. 지금의 고민들로 더 나은 '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1) #교육학과 #졸업 후 #진로 #관련 자격증

교육은 사람들 사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기에 교육학과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종은 전공 및 부전공에 의해 [학교의 교사, 기업의 교육부,
인사기획부, 공공기관의 교육연수원, 지역사회 시설교육기관인 학원, 언론기관의 교육문화부, 법무
부 교정관, 사회복지회관의 교육담당관, 가정 학습지 지도교사] 등 실제 동아대 교육학과 졸업생들이
많은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큰 분야로 교육 전문가, 교육기관 경영자, 교육상담 전문가, 평생교
육사가 있으며 **교육전문가**에는 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 석박사급 교육전문가를 비롯해, 각 시도교육청
의 장학사 등 교육의 근원에 대한 기본적 고민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교육기관 경영자**는 각 단계별

교육의 기회, 마케팅, 실행, 평가 등을 운영합니다. 학교경영자, 유아교육기관 설립 운영자, 대안학교 설립 운영자,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학원 등 사교육기관 경영자 등이 있습니다. 또 교육학과 학생들의 학과 교육과정에는 평생교육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포함 돼 있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용이합니다.



중등언어교육

원광대학교 영어교육과 유효림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었으며,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되곤 했었습니다. 저도 물론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까지, 나아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금까지도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왔습니다. 학창시절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하여 막연한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좋아하는 영어를 학생들의 눈높이의 맞춰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써 지도하시는 선생님을 보고 저는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와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고자, 학교를 사랑하고 학우들을 사랑하는 학생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학교라는 현장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다가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꿈을 실현시키고자 영어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선생님께서 어린 날의 제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향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저는 학창시절, 특히 고등학교를 다니던 때에 거의 모든 선생님들을 귀찮게 했어요. 영어교사를 꿈꾸었던 저는 영어선생님들은 물론이고 타 과목 선생님들까지 졸졸 따라다니며 질문하고 대화하기를 반복했죠. 처음 진로를 정하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 그 당시 ‘교사(선생님)’는(은) 제 주변에 참 많이 계셨더라고요. 사소하게는 영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걸 알 때까지, 제가 친구들에게 설명해줄 수 있을 때까지 여쭙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등등 심지어는 수업하실 때 느낌과 대학생할까지... 저는 그 때 학생이자 선생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교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자연스럽게 수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업시간 중

선생님들과 소통하며 교수(教授)법도 관찰하고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차 교단에 서게 되었을 때 갖게 될 교육관 및 철학, 사용할 교수법들을 조금씩 생각해보았어요. 이런 일상에 녹아든 과정들이 면접 준비나 자소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울러 교육관련 논술이나 교내대회에 참가할 때도 많은 도움을 얻었고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실제 면접 질문 중에 ‘존경하는 교사’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사’라고 답했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영어는 고등학생에게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하는 교과목에 불과하겠지만, 크게 바라본다면 영어도 역시나 ‘언어’입니다. 우선은 언어 전반에 대한 관심을 기를 수 있도록 문법적이고 언어학적인 도서들은 잠시 미뤄두고, 영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거나, 실생활에서 쓰이는 일상표현들을 담은 도서들을 먼저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영어에 관심을 쌓고, 높아진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전공서적들- 음성학, 통사론 등-을 훑어보곤 했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이자,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어 중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용어 영어를 전문적으로 배운다면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이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해당학과에 입학하신다면, 제가 장담하건데 미치도록 재밌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학자’가 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교육과는 ‘영어를 잘 하는 학생들만 가는 곳이야’하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쉽사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은 고등학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영어실력을 갖춘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도 환영한다는 말이죠. 단, 영어 혹은 언어를 싫어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어느 한 가지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좋아하다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잘 하게 된다는 말에 공감하시나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어느 순간은 아니겠죠? 꾸준히 노력하면 그 때 순간들이 쌓여서 행위로 드러나고 그 행위가 곧 학업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영어를 좋아하고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기억하세요! 학과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가 아닌, ‘얼마나 열심히 잘할 수 있는지’입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월	화	수	목	금
9		실과교육론 실301	과학과교육론 과304	교육사회학 입315	
10					수업이론
11		아동발달과교육 입315 20위	체육실기 체육관	미술과교육론 미술관306	영어과교육론 입313
12					
1					
2		부설초교육봉사	영어실습 학502	수업이론 학415	사회과교육론 입608
3					
4	생물의 세계 과201				
5					
6					

옆에 있는 것은 바로 제 시간표입니다. 저는 현재 2학년이기에 각 교과목의 교육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심화전공이 교육학이기에 수업이론과 아동발달과 교육이라는 교육학과목을 추가로 수업을 듣습니다. 체육실기라는 과목은 체조-육상-축구-수영-탈춤-무용 총 6가지의 체육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저희 학과는 체조, 육상, 축구를 1학기에 배우고, 수영, 탈춤, 무용은 2학기에 배웁니다.

17학번 기준으로 교육봉사는 40시간, 사회봉사는 30시간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졸업요건 중 하나입니다. 18학번부터는 교육봉사 7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졸업한 선배들은 대부분 각 지역의 초등학교선생님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일부 선배님들께서는 졸업 이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또,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단순히 초등학교교사라는 직업을 위해서 교육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험 성적대로 교육대학교에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간혹, 정말로 시험성적대로 입학하여 자신의 적성과 맞아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은 무척이나 운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적성과 소질과는 전혀 무관하게 성적에만 맞춰서 교육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불행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르치게 될 학생들도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데 부모님이 원하셔서, 수능 성적에 맞춰서, 혹은 다른 대학 다른 과에 입학했을 때 취업이 힘들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교육대학교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자로서의 뜻이 있는 학생들이 교육대학교에 많이 지원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안찬혁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같이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친구를 가르쳐주곤 했거든요. 그러다가 도와준 친구가 성적이 많이 올라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때 알았죠. 누군가를 가르쳐줄 수 있다는 기쁨과 내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성장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보람을 느낀 거예요. 그 후로 막연히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국어교육과에 입학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추천하고 싶은 도서는 바로 Parker J. Palmer 의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학생, 학습과 교직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교사들을 위한 책입니다. 커뮤니티 속에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과 가르침의 진정한 정신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다루고 있는 도서입니다. 혹시 교육관련 진로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면, 이 도서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국어교육과 입학 후, 1학년 때에는 보통 국문학, 국어학과 국어교육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국어교사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고전, 현대문학과 국어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며 또한 본격적인 국어를 배우기 전,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배우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전공 과목이 체계화되고 심화됩니다. 예를 들자면, 국어학은 음운론, 의미론 등으로 점점 체계화되며 국문학은 소설, 시 등으로 분화됩니다. 그리고 국어교사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국어교육론부터 국어과 지도법 등 다양한 과목들로 커리큘럼이 점점 분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어교육과와 국어국문학과를 혼동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모어인 국어를 소재로 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국어국문학과는 말 그대로 국어학과 국문학이 목적이 되는 학과라면, 국어교육과에서는 국어학과 국문학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국어교육과를 졸업하면, 꼭 국어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국어교육과에서도 꽤나 다양한 진로의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 중,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창 유행인 K-POP과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런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사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국어교육과에서 공부하다보니 한글의 문법과 문학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대학원 진학이나 국립국어원, 한국고전문학연구소 등에 취직하여 문법과 문학을 깊게 탐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사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 중에서는 기업의 인사팀에서 일을 하시며 학교에 특강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직원을 선발할 때 혹은 직원을 교육할 때 교육관련 학과 졸업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간 많은 선생님들의 교육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 주위만 하더라도 선생님들로 인해 크게 바뀐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교육’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영향력이 큰 것이지요.

교육관련 진로를 꿈꾸신 여러분, 혹시 어떠한 이유로 교육관련 진로를 꿈꾸셨나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서 혹은 단순한 직업적인 안정성 때문에 교육관련 진로를 설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순한 안정성 때문에 교육관련 진로를 설정하셨다면 다시 한 번 자신이 교육자로서 정말 잘 해낼 수 있는지, 자신이 교육을 업으로 삼아도 되는지에 대해 꼭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등사회과교육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주예영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역사 선생님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또 따랐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역사가 너무 재밌었고 저도 선생님처럼 학생들에게 역사를 재밌고 쉽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역사교육과를 목표로 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교원대 입시를 준비하였습니다. 대학입학과 관련해 고등학생 때 힘들었던 점은 당연히 내신관리와 수능 최저 공부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초반에는 시간관리가 잘 안돼서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며 공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완성해 놓은 게 너무 없어서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후회없는 고3생활을 보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만족스러운 내신을 얻을 수 있었고 수능 최저 또한 맞출 수 있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 교원대는 제시문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교원대에서 제공하는 제시문 3개년 기출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또한 교사 인적성 면접 부분도 준비를 하고자 해서 임용고시 면접 책을 읽으며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접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면접 대기장은 긴장되고 떨렸지만 면접 자체는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잘 웃어주시고 제 말을 경청해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저는 전적으로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돈을 내고 첨삭을 받았다는 주변 친구들의 말을 듣고 굉장히 불안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돈을 내고 첨삭을 받은 친구들의 자소서보다 옆에서 저를 꼭 지켜보시고 또 저를 잘 아는 담임 선생님의 첨삭을 받은 제 자소서가 훨씬 더 알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선 역사교육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역사와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역사관련 공식동아리를 하였고, 학교에서 주관하는 역사기행 또는 역사 대회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교육 측면에



서는 교사가 꿈인 친구들과 함께 모의수업동아리(자율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모의수업 외에도 교육 관련 논문을 읽거나 책을 읽는 등 교육적인 측면 또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대학 입학 후 느낀 점은 역사과가 상당히 빠세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1학년 때부터 교사라는 이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느낍니다. 저는 1순위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현재 제 학업에 만족해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과에서 3박 4일동안 전라남도도 답사를 갔습니다. 1학년부터 4학년, 그리고 교수님까지 함께하기에 힘들었지만 재밌고 또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등학생 때 시간이 된다면 깊이있는 역사책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명의 전환’, ‘다시 찾는 우리역사’등 현재 한국사 전공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추천하신 책인데, 이 책을 고등학생 때 읽어 본다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를 목표로 한다는 건 아마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마 졸업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 선생님일 것이거나 교육 또는 역사 관련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역사교사가 되기 위한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 한자자격증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아마 많이 불안하고 또 걱정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내신이 좋게 나오는 것도 또 수능 점수가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집중해서 하세요! 그리고 불안과 걱정은 내가 공부를 안했거나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예요. 내가 갖고 있는 불안과 걱정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싹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세요! 당연히 힘들고 울고 싶고 괴로울 때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이러한 슬픔은 내 극적인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 항상 좋은 생각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파이팅하세요!!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김영재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당시 다른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쉽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에 많은 흥미가 있었습니다. 저의 설명으로 인해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의 관심 영역 중 하나는 사회와 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법 동아리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법의 다양한 영향들에 대해 관심도 많았고 또 그 내용들이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적성과 흥미를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는 학과가 바로 일반사회교육과였고, 여기서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 관심을 학생들에게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 학과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저의 경우엔 정시로 입학했습니다. 모교가 비평준화 일반고였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기가 너무 어려워 도저히 수시 학생부로는 입학할 수 없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던 것 같습니다. 내신 경쟁이 어렵다고 해서 내신을 포기하고 수능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수험생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개념 중 하나가 바로 내신과 수능은 양자택일의 대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내신을 챙긴다고 수능을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을 챙긴다고 내신을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신이 곧 수능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을 만들어주고, 수능은 다시 내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고력을 만듭니다. 그러니 정시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내신을 놓는 안타까운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약간은 고리타분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는 목적도 고등학교 때 놀지 못했던 것을 보상받기 위해 놀러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고등학교 때엔 배울 수 없던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회교육과를 갔을 때, 다른 학생들보다 사회적인 관심과 지식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많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뉴스든 신문이든 틈틈이 챙겨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등학생으로서 마냥 교양만 쌓을 순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신과 수능 공부를 해야 했고 그러기엔 뉴스와 신문을 읽으며 교양을 쌓을 시간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꾸 후순위로 밀리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쉬는 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만큼은 영어 단어보다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특별하다면 특별히 노력한



것이고 수험생으로서 균형을 맞추기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은 특정한 도서를 읽거나 특강을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전공 관련 면접이 아니라 교직 인적성과 관련된 내용의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과 소신, 교사상을 잘 정립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한국교원대의 경우 면접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 분위기는 다른 학과 혹은 학교처럼 딱딱하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학생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면접을 진행합니다. 긴장이 된다면 긴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잠깐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 동아리는 법 동아리에서 활동했었고, 총학생회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법 동아리에서는 모의재판 대회라든지 법 경시대회와 같은 활동들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법과 친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어려워하는 동아리에 스스로를 내던져보는 것도 그 분야의 역경을 딛고 친숙해지기에 정말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장의 경우, 남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작게는 학생회 회의나 전교 회의부터 크게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활동들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들은 나중에 더 많은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전공에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하면 자연스럽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소양들을 익혀 오면 좋지만 고등학교 시스템 상 쌓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선행학습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해보이지만,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의 토대를 닦고자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바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입니다. 흔히 '지대 넓얇'이라고 부르죠. 이 책은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정경사문과 같은 실질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한 권은 철학, 예술, 종교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많이 다룹니다. 저희 학과 전공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만 읽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일반사회교육과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기도 한데요, 저희 학과가 기본적으로 일반사회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보니 많은 학생들이 사회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문화인류학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공부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그와 같은 교과내용학을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루지만, 전공의 초점은 교과내용학이 아니라 교과교육학입니다. 즉, 그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고등학교 과정에 녹여낼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따라서 전공의 중점분야는 일반사회 내용에 대해서도 있지만 그 복잡하고 다양하고 난해한 내용들을 어떻게 추려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인지하고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전공은 참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른 전공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사가 되기 위해 사범대에 진학한 후에 교사가 자신의 적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참 나아갈 진로가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저희 학과의 경우에는 진로 다양성이 비교적 큰 편에 속합니다. 사회 교사가 되기 위해서 저희 전공을 진학하였다 하더라도, 교사가 적성에 맞지 않다면 헌법이나 경제학, 행정학 등이 주류를 이루는 행정고시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고 교육행정 직렬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제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물론 주요 진출 분야는 사회 교사이지만, 그 외에 행정고시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사회에 나가계시는 선배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일반사회교육과에 진학함에 있어 많이 고려하는 것들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은 아마도 꼭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내가 사회를 좋아하나? 두 번째, 내가 아이들을 좋아하나? 이 두 가지 역시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회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막상 내용이 좋고 아이들이 좋아도, 내가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 어려운 사회를 굳이 가르쳐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회 교사로서의 정체성은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과임을 인지하고 그 필요성을 실현시키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얼마든지 사회 교사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적지 않겠지만 그만큼 의미있고 가치로운 일임을 아시고 그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국어교육과 김지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처음부터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 지원하진 않았습니다. 경영 경제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하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해서 15학번으로 1년 수학했습니다. 원래는 체계적인 경영 및 경제 공부로 금융권에 취직해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 초등 경제 교육봉사를 시작으로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배운 것을 타인과 나누고 함께 소통하며 오히려 제가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사회과목을 매개로 학생들과 소통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반사회교육과에 지원했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고등학교 때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에 맞춰서 학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고교시절 입시 스트레스 해소의 장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왔을 때 다른 친구들 보다 조금 더 열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진로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더 준비된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교 시절에는 입시 위주의 주요과목을 주로 공부해서 제가 좋아하는 경제 및 사회과목에 많이 비중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틈틈이 제가 좋아하는 사회과목을 공부해 보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가며 공부한 결과 한국경제 및 매일경제 신문사 개최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고교 시절 경제 경영 동아리활동에 큰 의미를 두고 활동하며, 잘 가르치는 사회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 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부원들과 함께 경제학원론과 BARRONS을 읽으면서 경제학공부를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경제공부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 경제 그래프를 두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 학습지에 첨부하여 나눠주었고, 저의 문서 작성능력을 활용하여 그래프의 이동 과정을 순차적으로 표현한 PPT를 만들어서 이해를 도왔습니다. 2학년 초 거시경제 공부를 시작할 땐, 부장과 함께 한국은행 강사님을 초청해 거시 2회 특강을 들으며 공부 방향을 잡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능력을 가진 저는 1학년 말부터 서기로 선출되어 홍보활동을 담당했습니다. 전국고등학교경제연합(UHEC)에 가입할 때는 저희 동아리 특징을 파워포인트로 표현한 서류를 제출하여 우리학교가 다른 명문고 및 특목고를 제치고 최종 합격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신입 부원을 모집할 때는 캠퍼스로 동아리 홍보영상을 찍어 프리미어로 편집해 신입부원들의 큰 호응

을 얻기도 했습니다. 동아리문집 발간 시 편집도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이 일들이 대부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서 부모님의 걱정을 사기도 했지만 보람은 컸습니다.

한편 저는 경제지식을 현실에 적용해보는 훈련도 했었는데 청소년 경제기자단 활동을 할 때는 ‘볼라벤의 강한편치’와 ‘agri+flation?’과 같은 기사를 작성해보며 경제현상을 자연현상과 연결시켜 보았고, 축제 때는 부원들과 함께 중국의 그림자 금융, 미국-양적완화와 출구전략 등 세계경제에 관한 분석기사를 대화 형태로 작성하여 부스에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학습을 토대로 TESAT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NPV법과 IRR법 등 회계학을 비롯한 경영 쪽 공부를 보완하여 열심히 준비한 결과 1급을 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과 팀을 짰는데, 우리 ‘성공경제’ 팀은 전체 2등, 고교 부문 1등을 해서 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노력 끝에 TEEN-TEST에서는 우수상과 장학금을 받았고, 교내 경제경시대회에서도 2위를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일반사회교육과는 사회과학과 교육을 폭넓게 배웁니다. 배운 여러 사회과학 학문을 통합하고 교육과 연관해 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또, 배운 것들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대학생 뎀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일반사회교육과에 지원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먼저 사회과학들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괴짜 사회학>,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21세기 자본론>은 대학교에 오기 전에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는 기초 사회과학을 고루 넓게 배울 수 있습니다.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법학, 심리학 그리고 교육학을 다 배울 수 있는 전공은 일반사회교육과가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대학교에서의 자유전공학부는 법학부의 대를 잇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초 사회과학들에 모두 관심이 있고, 배운 지식을 ‘교육’을 통해 나누고 싶다면 우리학교 우리 과가 딱입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우리학교는 교원양성을 목표로 한 한국 최대 규모의 교육종합대학입니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이 교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으로 우리 학교는 그 두 대학이 전신을 이룹니다. 교수진들 또한, 이에 걸맞게 한국 교육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집필 등에 우리 학교의 영향력이 큼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가장 가까운 곳이기에 목표한 진로를 위해 나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학과는 임용초수합격률만 30~40%에 달합니다. 다른 진로보다 교사를 뚜렷한 목표로 삼고 있다면, 같은 목표로 동기들과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용이합니다. 학교도 임용을 준비하는 데에 최적화 되어있는데, 4학년 때는 임용을 위해 ‘임고 특강’이 많이 열립니다. 실제로 이를 잘 활용해 합격하는 데에 도움을 받은 선배들도 많습니다.

우리 학교는 등록금이 저렴한 장점도 있지만, 더 큰 장점은 1학년과 2학년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원 아래 모두가 2년간 기숙사 생활비와 식비를 면제받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식비와 교통비가 용돈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서 다른 쓰고 싶은 곳에 많이 못 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기숙사에서 살기에 3분이면 강의실에 도착할 수 있어서 수면도 충분히 취할 수 있고, 학식도 무료로 나와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통학을 하는 대학의 경우, 같은 학과 동기라도 만나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대학생이 되어 인간관계에 깊이가 없다, 맞는 사람이 없다는 등의 고민을 하며 중·고등학교 친구를 그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숙사에서 ‘질리도록?’ 서로를 보고 함께 하는 시간이 가족보다 많습니다. 이 덕분에 정말 가족같고 소중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를 대학 때도 사귄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는 정말 ‘널널’합니다. 정말 편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대학도 다녀보고 주변 친구도 보고 다른 학과 학생도 보았는데, 늘 과제와 시험에 허덕입니다. 우리 학과는 타 과생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과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 학생들은 다른 과를 복수 전공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저 역시 전공공부 외에 국어교육과를 복수전공하면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의 부담이 덜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취미 및 여가 생활을 즐기고 동기들끼리 여행도 많이 다닙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졸업한 선배님들은 주로 중등임용시험에 통과하시고 각 지역의 교사를 하고 계십니다. 또, 교육공무원 장학사 그리고 교수까지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선배님들께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의 졸업 후 좋은 점에 대해 여쭙보니, ‘파견’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파견은 교사임용 후에 더 공부를 하고 싶을 경우에 대학원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을 받아주는 곳은 애초에 서울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입니다. 월급과 연구비를 받고 대학원에 와서 하고 싶은 공부를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큰 메리트입니다. 다른 사범대 출신은 대학원에 가려면 밤에 자신의 돈을 들여서 가는데, 우리학교 선배님들은 교사를 하면서 여유롭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전국의 모든 대학을 통틀어, 유아-초등-중등교육과의 복수전공이 가능한 곳은 한국교원대학교 밖에 없습니다. 이 점 또한 자신의 진로가 중간에 걸쳐 있다면 매우 큰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또 정말 일반사회교육과의 학교생활은 정말 전국단위로 봤을 때 가장 널널하고 행복합니다. 다른 학교를 다녀본 제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편입이나 반수를 해서 우리학교 우리 과에 온 사람들 모두가 이 학교 이과에 와서 너무 행복하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취업을 하지 않아 학점 경쟁도 없고, 경쟁하는 분위기보다는 서로 행복을 추구하는 분위기이기에, 여유롭고 재미있는 최고의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는 정말 천국입니다...><



중등자연과학교육

공주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김승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사범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EBS에서 방영한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교육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입니다. 이우학교와 같은 대안학교나 외국의 대학교들의 수업을 보면서 “교육”에 관심이 생겼고, “좋은 교육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며 나도 누군가의 학창시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사범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수학을 좋아했고 내 손으로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았기에 컴퓨터라는 전공에 흥미가 생겼고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판단되어 컴퓨터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희 컴퓨터교육과는 사범대에 속해있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모두 면접을 실시합니다. 저는 정시 면접을 보러 1월에 처음 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자는 생각으로 갔지만, 교수님들 앞에 서니 떨리더라고요. 정시 면접 준비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 면접 기출문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된 족보가 따로 없어서 네이버 카페 등에서 찾은 질문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들을 말로 하기 전에, 손으로 조금씩 제 생각을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알맞은 대답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스스로 마음가짐과 교육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던 것 같아요.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시에서 면접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이고 그 외에는 수능 성적을 보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높이 받았던 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접의 비율도 무시하지 못했던 게 면접 결과로

순위가 충분히 변동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시로 지원할 친구들은 최대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고 면접에서도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온다면 다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저희 학과는 컴퓨터와 교육, 두 가지의 과목을 전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보컴퓨터 과목에서 더 깊고 세분화된 지식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과목 말고도 평소에 수학과목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컴퓨터언어의 기초가 되는 이진법이나 기타 알고리즘을 공부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추천 도서로는 청소년들이 코딩에 쉽게 입문할 수 있는 <코딩클럽>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입학 전에는 아무래도 컴퓨터와 코딩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다보니 앞으로 어떤 것을 배워나갈지 막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기 초에 기본이 되는 C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컴퓨터교육과가 전국에 많이 없고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이 없어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컴퓨터교육과의 이미지는 차분하면서도 때로는 잘 뭉칠 수 있는 학과예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보니 그룹을 지어 스터디를 많이 하고 학과 행사에서도 종종 모여 소수의 인원이지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활도 중시하는 과이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잘 맞는 과인 것 같아요!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컴퓨터를 전공하는 과들은 코딩으로 밤샘작업을 한다?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되면 과제로 나오는 코딩의 양이 상당하고 문장을 만드는 것부터 스스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하는 스터디가 꼭 필요하죠. 코딩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하므로 문제가 어렵고 안 풀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밤샘 과제를 해야 할 때도 있지만, 함께 머리를 굴려나간다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고 즐겁게 과제를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항상 밤샘 걱정은 없다는 거~!!!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사범대 계열에서는 이과에 속하지만 컴퓨터는 공대 계열이다 보니 컴퓨터공학과와 비교하자면 일단 교육을 배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 일 것 같아요. 저희는 컴퓨터에 대한 전공지식은 물론이고 그러한 지식들을 어떻게 전달하고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하지만 컴퓨터공학과와 비교했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전공인 컴퓨터 수업의 양은 훨씬 적고, 선택의 폭도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과는 복수전공과 심화전공 둘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있는데요, 저는 심화전공을 선택하여 많은 수의 컴퓨터 전공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사범대는 교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배들이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의 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진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게임회사나 기타 IT기업에 프로그래머 개발자로도 많이 취직하시고, 연구원으로 진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일단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인 엑셀과 오피스를 다루는 시험부터 컴퓨터 활용능력시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토샵이나 기타 디자인 시험뿐만 아니라 정보기사 시험들도 있죠. 자격증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고 싶고 많이 알고 싶다면,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싶다면 도전해보면 좋겠죠?

또한 졸업예정자부터 볼 수 있는 임용고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사를 꿈꾸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임용고시는 크게 전공시험과 교육학시험으로 나뉘고, 2차 시험에서는 수업 시연도 하게 되니, 학교를 다니며 차차 준비하면 되겠죠?

□ 꼭 하고 싶은 말

합격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고민할 때,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과가 아닌 진정으로 하고 싶은 공부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 많이 생각한 뒤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3 현역시절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원하지 않는 학과와 학교를 선택하고 난 뒤, 후회가 되어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택한 컴퓨터교육과는 진정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공부를 할 수 있어 굉장히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말에 따르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천천히 되짚어 보시고, 후회 없는 학과를 선택하시고 또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전주대학교 수학교육과 홍지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며 문과를 지원했고 문과 관련 학과에 지원하고 싶었지만, 진로를 결정하고 상담하면서 평소 수학을 좋아했고 문제풀이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수학교육과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문제나 내용에 대해 그들의 수준에 맞춰 잘 가르쳐줄 수 있었고, 친구들 또한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저에게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를 안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에게도 처음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등을 알려주면서 이런 점이 저의 적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면 저의 적성에 맞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대학준비를 위해 정시를 기본으로 준비를 하고, 다양한 선택을 위해 여러 사이트를 대조해 지원가능 학교, 학과를 비교하여 수시가능여부를 조사한 후,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당시 선생님께서 권해주셔서 학교 같은 친구들과 함께 논술전형도 준비했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원하던 학과, 진로가 저에게 맞는 적성인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수학교육과에 합격한 이후에는 문과인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수학교육과가 기본적으로 이과수학을 바탕으로 모든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합격한 이후에는 인터넷강의를 통해 미적분2, 기하와 벡터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 공부했었고, 친구들을 통해 문제집이나 개념정리를 해 놓은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수업을 따라가기에 이과인 친구들보다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찾았나요?

처음 학과와 학교를 조사하면서 어떤 홈페이지가 있는지 몰랐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했을 때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원하는 경우에 뽑아서 제가 더 많이 고민해 보면서 학교,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더 많은 내용을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같은 학급 친구들과끼리 준비하면서 쓴 것을 서로 보면서 어떻게 쓸지 이야기도 나누고, 당시 학생들의 진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던 담임 선생님이라 학생들이 원하면 첨삭을 해주시기도 했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도 자주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던 당시에 본 학교에서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어선생님들께서 자기소개서를 읽고, 어떤 식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자기소개를 나뉠 수월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고등학교 재학 당시에는 진로 관련 활동도 많이 찾아보았지만 흥미나 관심 위주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1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으로 영어동아리에 들어가 영어책들도 읽어보고, 2학년 때는 경찰 동아리에 들어가 다양한 관련 활동을 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고등학교 때에는 수학 관련 도서를 많이 읽지 않고,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 추천해주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법’과 ‘수학사강의’라는 제목의 책이 기억에 남는데, 둘 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흥미를 가지게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은 수학교육과에 들어와 공부하는 학생들과 수학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고, ‘수학사강의’는 수학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기본적인 내용과 분야들의 역사도 알게 되어 흥미를 가지게 해줍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해석학, 미적분학, 집합론, 정수론, 선형대수, 현대대수, 기하학, 위상수학 등 전공과목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특히 앞서 말한 해석학과 미적분학을 많이 중요시합니다. 이를 더 잘 공부하기 위해 과에서 사제특강이나 선후배특강에 참여하고 있고, 동기와 스터디를 하거나 선후배와 멘토멘티를 진행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무엇인가요?

문과수학, 이과수학이 아닌 수학 그 자체의 이야기, 내용을 공부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문제를 풀고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스스로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수학교육과라는 학과 자체가 문과를 나온 학생에게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교수님, 선배, 동기들이 모르는 문제에 대해 잘 알려주다 보니 공부를 하는 것이 수월하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다시피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이 명제가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고민하고 증명하다 보니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다양한 스터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료학습모임과 코넬 노트가 있습니다. 동료학습모임은 학교에서 선후배나 동기들이 스터디를 형성해 자체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 코넬 노트는 쉽게 말해 노트정리인데 스스로 노트를 정리함으로써 복습을 하도록 도와 공부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두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학과이름이 '수학' 교육과다 보니 수학문제를 잘 풀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에서 문제를 푸는 것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고 이를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더 공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수학교육과와 유사한 학과로 '수학과'를 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학을 전공으로 두고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운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수학교육과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학에 대해서만 배우고,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은 교양으로 직접 선택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학을 배우며 교사로서의 꿈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학과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리, 금융과 같은 과목들도 배웁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크게는 교사가 되는 선배들이 많은데, 그 안에서도 수학전공을 살려서 교사가 된 선배도 있고, 복수전공을 해서 다른 과목으로 교사가 된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배들이나 연구원이 된 선배들,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이 된 선배들이 있고, IT분야, 금융분야 등에서도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본 선배는 한 분 밖에 없지만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대해 만족해하고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심리학과나 중등특수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심리학과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수학교육학과 뿐만 아니라 심리학과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중등특수교육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중 하나인 '특수교육학개론'을 배우면서 이 분야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싶고, 이를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봐야 하고, 국립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립이 아닌 사립중·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각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희 학과는 편입생이나 복수전공자, 전과자에 대해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없으니, 이후에 타과로 입학하고 난 후에도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모두들 친하게 지냅니다. 또한 문·이과에 대한 차별 역시 없으니, 문과라도 수학에 흥미가 있고 더 공부하고 싶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이 오셔도 됩니다. 물론 입학 전에 이과 수학을 한 번 정도 훑어보고 오면 더 좋습니다.

한양대학교 수학교육과 이현동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학교육과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사라는 직업에 느낀 매력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날 때면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누군가에게 평생 동안 기억될 사람이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보편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학업이나 입시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좋은 선생님이 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교사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학교 현장이나 학원, 과외, 그리고 여러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치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큰 감동을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교사를 꿈꾸게 한 이유입니다. 그중 수학

이라는 과목을 택하게 된 이유는 우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수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직접 수학교사가 되어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문과로 고등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수학교사라는 꿈을 뒤늦게 가지게 된 후로부터 입시를 준비하다보니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정시밖에 없었고, 오직 수능만 바라보고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 공부하지 않았던 이과수학과 과학을 공부하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이과 수학이나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아무 개념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참고서나 문제집을 구비해서 읽어도 한 줄 한 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EBS 인터넷강의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무료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해 주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EBS에 계시기 때문에 개념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병행하며 하루에 1~2강 많으면 4~5강씩 학습했고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몰랐던 개념, 틀렸던 문제를 다음에 또 만났을 때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헛갈리는 개념이나 몰랐던 문제는 따로 체크해 두고,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복습했습니다. 4시간 뒤, 하루 뒤, 3일 뒤, 일주일 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복습을 하다보면 절대로 잊혀 지지 않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학 공부할 때는 항상 풀이과정을 되새김질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 개념은 왜 적용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공식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며 모든 풀이과정 사이사이에 이유를 만들었고 더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사고를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스케줄을 항상 수능 시험에 맞추어 나의 생체리듬을 최적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데 모여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점수만큼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할만한 수능성적을 얻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과목이 약하고 어느 과목에서 상대적으로 강한지를 잘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공부시간을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분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



목 별로 내가 목표했던 성적에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공부량인데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꾸준히 매일매일 순 공부시간 11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부법,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본인이 혼자 공부할 때 모든 지식이 내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내심 없이는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저희 수학교육과의 전공은 크게 전공수학, 수학교육학, 교육학 3가지로 나뉘는데, 그 중 전공수학은 당연하게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목들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적분1, 미적분2인데, 일단 기본적인 미적분의 개념과 여러 가지 함수들을 대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이 다들 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수학과목에서 행렬이라는 소재를 공부하지 않고 있는데 이 행렬이라는 소재가 생각보다 대학수학 공부하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행렬벡터이야기라는 교우사의 책을 읽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수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우선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교육과보다 수학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인 수학, 순수수학만을 배우는 반면 수학과는 순수수학을 바탕으로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응용수학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운 응용수학을 바탕으로 다방면에 취업을 하는 것이 수학과입니다. 그러나 수학교육과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인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학과에서도 교직이수를 거쳐 이러한 자격증을 얻을 수 있지만, 선배들의 정보공유나 자료, 그리고 합격노하우, 학과 커리큘럼을 따져봤을 땐 교사가 되고 싶다면 수학교육과를 가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당연하게도 교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복수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직 시험(변리사, 보험계리사 등)에 응시하여 다른 길을 가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중등공학교육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 김범수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사가 되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기술을 배워 보겠다는 생각보다 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방학마다 초등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힘들었던 점이라 하면 내신 관리를 하게 될 때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골고루 준비했어야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3때가 되면서 학교에서 쫓던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도 꽤 힘들었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내신공부는 마인드맵을 그려보며 지식들을 모아 하나의 이미지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생기게 되면 다른 상황이나 지식들에 적용해 새로운 정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쫓던 시간의 자유를 이용해 실제 수능시간에 맞춰 시험공부를 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내가 몇 시에는 이 문제를 풀고 있을 것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등 수능시험에서의 긴장감 감소와 시간관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선행학습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전의 해에 어떤 문제를 냈는지 확인하며 면접을 준비했으며, 교육관련 학생들을 모아 면접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토론하기도 하였습니다. 면접당시 분위기는 굉장히 떨렸습니다. 그래도 나도 떨리는 만큼 모두 떨린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멘탈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주로 기본적인 질문위주로 나가니까 준비했던대로



침착하게 말하면 됩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자기소개서는 많이 써봤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쓰면 확실히 실력이 늙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에피소드를 정하고, 그 여러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하듯이 이어가면 좋습니다. 선생님께 부탁드려도 선생님께서는 맞춤법 등의 기초적인 실수만 도와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에피소드를 찾아야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남은 재학기간동안 동아리를 조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주로 독서토론을 했습니다. 독서라는 범위에서 여러 지식들을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의 독서를 탐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생활기록부의 큰 자산이 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기하와벡터, 물리를 추천합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현재 토목기술, 컴퓨터기술, 에너지기술을 전공과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술을 배우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두루두루 배운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 기술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교원대학교라는 자부심과 하고 싶었던 교육 관련 과라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과 장유선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술교육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기술교육과가 전국에 4곳밖에 없어서 특이성에 끌렸으며 과거 내가 되고 싶었던 선생님의 과목이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노력한 것은 성적입니다. 스펙도 중요하지만 성적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성적을 일순위로 생각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술교육과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교사상에 맞춰 폭넓고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소서 또한 제 특색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였습니다. 저만의 교사상, 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어려웠으며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나게 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면접을 보시는 교수님께 제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위한 교사상 정립을 위해서 일기와 마인드맵을 사용하였습니다. 일기를 쓰거나 마인드맵을 통하여 제가 원하는 것, 되고 싶은 것,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등을 써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하였고 그 뒤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하면서 서로 연관지어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면접은 생활기록부를 자세하게 다 읽어보고 스스로 예상질문을 짜고 답변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면접스터디를 결성하여 서로 질문을 해주고 답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촬영하여 스스로 부족한 점을 깨닫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면접스터디 후에 스터디 멤버들끼리 피드백을 해주면서 서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공과 관련된 그 해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슈에 대한 내 생각도 정리하여 5분 내외로 발표해보았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예상한 질문이 나왔지만 시간적인 압박과 긴장감 때문에 많이 떨었던 것 같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주로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동아리 기장을 맡아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교육봉사활동을 하였고 영유아에게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스스로도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공과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작년에 졸업한 선배님들은 19명 중 17명이 임용 초시에 합격했습니다. 저희 과 특성 상 임용이 매우 잘 되기 때문에 다들 한 번에 중등기술교사가 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학교생활, 학교행사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그 당시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모두 자신에게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행사나 활동에 참여했을 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쓰는 것이 힘들다면 포스트잇이나 공책에 날짜와 행사명을 적고 자신이 거기서 느끼고 배운 것을 일기처럼 자연스럽게 써서 모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면접을 준비할 때 그것을 보면서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체능계열

예체능계열은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활동인 예술과 건강한 신체와 운동능력의 육성을 목표로 하는 활동인 체육 등을 포함한다. 하루가 다르게 첨단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예술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예술인과 개인 건강의 유지와 증진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을 통한 만족감이나 집단 활동으로 인해 밝은 사회적 적응력을 키워나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건전한 체육인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무용·체육
- 연극·영화
- 미술





무용·체육

무용·체육 영역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미적 형상을 창조하여 신체의 율동에 나타난 리듬, 변화, 형상적 모방 등으로 다양하게 미적으로 표현하는 무용영역과 건전한 신체와 온전한 운동능력을 통해 국민의 체력, 건강의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체육영역으로 구분된다.

체육

체육 분야는 건전한 신체와 효과적인 운동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스포츠의 대중화, 경기력 향상 및 스포츠과학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체육활동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체육사, 체육철학, 스포츠사회학,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산업경영학, 사회체육학, 여가레크레이션학, 체육정책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체육측정평가, 특수체육학, 운동영양학, 발육발달학 등이 있다.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오찬근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소 체육에 관심이 많아 체대에 진학하기를 원했고 실기고사 준비를 통해 극동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관심이 많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유아체육, 퍼스널 트레이닝, 레저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실기 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다른 일반과와는 차별화가 되어있어서 운동을 남들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미친 듯이...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그저 꼭 체대를 가야겠다는 목표 하나만으로 토 나올 때 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 진학을 해서 여러 체육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가군, 나군 모두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마지막 극동대학교 마저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실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통했나 봅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학교 내에서 개최한 극동컵 축구 대항전과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시험 준비에 가장 몰두하고 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스키, 라이프가드, 프로팀 스태프 등 여러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그 선배들은 정말 모든 학과 생활이든 학업이든 다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스포츠 마사지 및 재활을 배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목받는 체육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라이프가드, 응급처치 자격증 등이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유민식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제 성적으로 학교를 쓸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극동대학교 사회체육 학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학교와 학과는 취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시 실기를 보러갔는데 교수님 및 실기 도우미였던 선배들을 보고나서 결정 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선배들이 아직 입학하지도 않은 수험생들에게 당당하고 포부있는 모습을 보여 줬고 그것에 반하게 되어 어떻게 해서든 합격해서 입학하고 싶었습니다. 저런 선배들처럼 꼭 합격해서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멋있고 당당한 체육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굳건히 해서 합격하게 되었고 신입생다운 모습을 선배들이나 교수님께 보여드리면서 학생회 임원을 맡아 재미있고 자신있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밀거름이 되어 지금은 학과의 대표인 학회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때는 체육학과의 분위기가 심하고 군대같이 생활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와 반대로 편하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제 모습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체육활동으로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체육학과를 지원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그 꿈을 향해 계속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정시를 통해서 입시체육을 준비했습니다. 입시체육을 하면서 포기할 생각도 많이 했고 차라리 전문대에 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2년이라는 시간에 공부도 하고 운동까지 해야 했고 운동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를 악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체력운동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체력운동은 1주일동안 계속 운동장을 뛰고 서킷트레이닝과 같은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며 윗몸일으키기를 몇 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시간과 그 강도를 버텼는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입시체육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을 버티고 끈뭇하게 참으면 그만큼 얻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 육체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는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쉽게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대학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며 남학생 경우 군대에 가서는 더욱더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당연히 체육학과이기 때문에 체육관련 교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감, 단합력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인의 자긍심, 스포츠 심리학 등을 추천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많은 사람이 체대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체대 졸업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전에는 이 말을 듣고 제 자신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원하는 분야가 체육이든 다른 직업이든 좋아하고 진정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한 단계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 취업률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며 선택한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원하고 좋아하고, 더불어 최선을 다한다면 만족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가 혹은 학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며, 그 안에서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언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얻기 위해 싸울 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스포츠과학과 김혜빈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농구선수로 생활을 해왔고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대학으로 입학하기 위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학과(학교)에 입학을 위해 준비한 전형은?

수시와 정시 둘 다 준비하였고 수시로는 실기점수가 큰 실기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였고 정시도 실기 비중이 큰 쪽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운동과 공부가 둘 다 힘들었지만 대입공부가 가장 힘들었던 거 같아요. 운동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았고 실력이 되고 성적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계이기도 합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그때 당시 같은 나이포래보다 많이 뒤쳐졌지만 아침부터 새벽까지 기본기를 다지기위해 인터넷 강의를 듣고 학원을 다니면서 성적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 뒤에 수능이 끝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체대입시 학원에 한 시간 일찍 나가서 복습하고 한 시간 늦게 집에 가는 걸 반복했고 일주일에 하루 휴식하는 날에도 오후에 나가서 못하는 부분을 매일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학생들보다는 성적은 조금 낮았지만 지원했던 대학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실제 분위기는 어땠나요?

실기장 분위기는 전부 무뚝뚝하고 상상하던 그대로의 장소였습니다. 필요한 말 이외에는 하지 않았고 가끔 자상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실수를 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 똑같은 실기를 보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으면 거의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합격한 이유는 절실함과 끊임없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는 절실함에 매일같이 노력하고 연습했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체육수업에 참여를 잘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추천할 책으로는 스포츠윤리에 관련된 책이나 체육관련 학과를 소개하고 있는 잡지나 책도 도움이 됩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체육과이니까’, ‘예체능이니까’, ‘공부 못하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입학하는 학생이 많은데 큰 착각이라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체육과이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의학과 역학 생리학을 배워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스포츠마사지와 테이핑, 코어트레이닝, 상담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그 분야가 지금 배우고 싶은 분야인데 조금 더 일찍 생각했다면 그 부분을 더욱 신경 쓰고 준비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늦더라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전문 1,2급이 있고 생활1,2급, 건강운동관리사, 유소년, 장애인, 노인 지도자 자격증 중에 반드시 하나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포츠관련 자격증 5개 이상 또는 졸업논문 및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김동현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학생까지 육상선수로서 학교생활을 하며 육상선수의 꿈을 키워나갔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상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고, 일반학생으로서 대입을 준비해야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대입을 위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며 어떤 학과로 진학할 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운동선수의



꿈은 포기하였지만 체육에 대한 열정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운동선수가 아닌, 전문가로서 배워나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체육학과를 전공하고자 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운동선수로서의 체육 전공은 하지 못하더라도 체육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저의 꿈으로 품었기 때문입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진학을 위하여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잠재능력우수자)을 준비하였습니다. 다른 대학과 달리 동아대학교 체육학과는 수시로 뽑을 때 실기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기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려움은 없었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등급 관리, 면접 준비를 하며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진학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동아대학교 체육학과는 수시 지원 등급이 다른 대학의 체육학과에 비하여 매우 높습니다. 그리하여 내신 등급을 잘 받기 위해 내신 공부에 목숨을 걸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모든 내용을 체육과 관련된 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체육교과우수상을 계속 받아가며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면접 준비는 친구들 또는 선생님들과 생활기록부를 교과서 삼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을 하며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동아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면 여러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아대학교는 사범대학교가 아니지만, 성적이 10%이내에 해당되면 교직이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기에 교직이수를 받는 경우 임용고시 시험을 통과하여 체육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스포츠 심리 상담가, 스포츠 트레이너, 스포츠 마케터,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이외에 체육학과와 타 학과를 복수 전공하여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대학이름이 아닌, 학과를 보고 대학 준비를 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신은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대학 이름만 보고 자신과 맞지 않는 학과를 진학하였다가는 공부의 흥미를 잃고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과라는 방안도 있긴 하지만, 후회를 할 바엔 애초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학과에 진학을 하여 그 분야 최고의 전문인이 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김태빈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동을 하면서 몸이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도중에 상대나 우리팀이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게 되면 악수나 포옹을 하며 수고했다며 웃으면서 인사하는 스포츠 정신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수영, 야구,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 다양한 운동에 도전했습니다. 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다는 철인 3종 경기에도 출전하며 부족한 종목에 열심히 노력했더니 어느덧 발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에 빠져들어 제 특기를 살린 스포츠를 전공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에 대한 열정과 경쟁심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체육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입을 준비하면서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요?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운동만 하다 보니 자기소개서는 간단하게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000자가 넘는 글자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보고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를 전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강의를 들으며 자기소개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배우며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때부터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에 앞서 생활기록부를 보며 마인드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인드맵을 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가장 힘들었던 활동 등을 생각하며 배웠던 대로 브레인스토밍 발상법을 활용하여 가볍게 틀을 구성해보았습니다. 구성한 틀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계속 써보았습니다. 1,000자를 다 채울 때도 있고 채우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주제로 매일 1,000자를 써보며 가장 자신있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제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제 하나를 찾게 되었고 글을 쓴 후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드백을 받을 때 한 선생님의 피드백만 받지 않고 여러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보게 된다면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였고 가장 가고 싶었던 동아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동아대학교 체육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우리학교의 체육학과 경우, 체육교육에 관한 지적능력의 확충과 심화 그리고 교수기술 터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보다 심도있게 확충시켜 일선에 도움이 되는 지도자 육성을 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운동만 하고 싶은 사람이 지원하게 된다면 이론 공부를 할 때 원하는 전공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체육학과는 주로 체육 교과 교육론, 체육사와 철학, 운동영양학, 운동생리학에 대한 이론 공부를 합니다.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교양도서는 『운동과 건강』, 『스포츠트레이닝』, 『매혹과 열광: 어느 인문학자의 스포츠 예찬』을 추천합니다.

□ 졸업 후,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체육학과를 졸업하면 운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직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체육교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PT),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유아체육지도자, 레크리에이션강사, 임상운동사, 재활운동사, 스포츠마사지마 등의 직업은 물론 스포츠센터 경영, 스포츠팀, 선수트레이너(AT), 군장교, 경찰 및 소방 공무원, 대기업, 중소기업으로도 취업합니다. 또한, 국영기업, 공사 등 관공서뿐 아니라, 스포츠 관련 언론계에서도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경기지도자 2급 자격증,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임상운동사 자격증, 농구, 축구 등 심판자격증, 수상인명구조원자격증, 스킨스쿠버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체육, 스포츠를 전공으로 꿈꾸는 많은 중고등학생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의 꿈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하고 누구보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경쟁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서장훈 선수처럼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운동만 한다고 다른 것들을 포기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체육학과 파이팅!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여동혁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 재학 중인 여동혁이라고 합니다. 많은 중고등학생이 저희 학교의 스포츠과학과에 궁금해 하여 그런 물음에 힘이 되고자 몇 가지 실속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학과 및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운동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운동을 통해서 만나고 사귀고 운동을 통해 사귀 친구들은 모두 좋은 친구들 밖에 없어서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매일 하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직업으로 삼고 싶다'였습니다. 운동, 스포츠를 직업으로 삼기 위해 저는 스포츠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학교 스포츠과학과를 보며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 준비 방법과 이것만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스포츠과학과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포츠과학과를 가기 위해선 실기 준비가 필요했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시작할 때 체육대학입시학원에 등록하여 실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체육대학에는 수시 전형이 많지 않기에 수시를 준비하는 인원은 소수이고 대부분이 정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에 비중을 두며 다른 사람들과 달리 긴 준비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체능 대입 준비는 다른 일반적인 공부를 하는 친구들보다 길었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조금하다 못해 실패하고 실패하니 다시 하기 두렵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동기들과 친구들은 나를 추월해 가며 실력을 쌓을 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회의감과 압박감은 늘 찾아옵니다. 그 압박감이 통과의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문 뒤엔 파라다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독심 있게, 하지만 패기 있게. 패기와 독심으로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은 현실이 되어 성취감이라는 선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마음속으로 3번. 패기 있게. 독심 있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스포츠과학과는 도대체 뭘 공부하는 곳인가요?

저희 학교에서는 전인적인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학과의 목표입니다. 스포츠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스포츠역학, 스포츠마케팅, 스포츠심리, 스포츠생리학 등 여러 학문을 배움으로써 우수한 스포츠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도 전공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시고 대외적으로도 명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교내에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해외에서 학회에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 활동을 통해 학습한 것을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고교 생활에서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상당 용어들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이 학과 공부를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체육대학에 대한 분위기를 궁금해 하십니다. 옛날 체육 대학은 군기가 강하고 무서운 선배들에게 이끌리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후배와 선배, 서로 예의를 갖추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의 군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졸업 후에는 어떠한 직업들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사회는 스포츠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이며 그에 따른 시장은 무궁무진합니다. 스포츠에 대한 직업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 때 스포츠과학과 학생들은 남들보다 더 쉽게 스포츠를 활용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학문들을 통해 스포츠마케터, 스포츠과학연구원, 스포츠 에이전트, 재활치료사,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사, 체육교사 등 다양한 직업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창업 또는 스타트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학교의 많은 졸업생은 농구국제심판, 공기업, 스포츠마케터, 스포츠구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를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포츠에 대한 관련 자격증은 실무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먼저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생활스포츠가 사회적으로 인기 있는 만큼 이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는 2급과 1급으로 나뉘며 2급을 우선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인과 유아체육으로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뉘질 수 있습니다. 스포츠경영관리사는 지도사와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스포츠경영관리사는 경영과 연관이 있으며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실무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자격증입니다. 스포츠마케팅에 관심이 있다면 이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증을 한 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 입니다.

□ 마지막으로 나는?

대학이 끝이다. 대학만 가면.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대학에 오는 순간? 인생이 심심해 집니다. 처음에는 놀고 다 좋지만, 본인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할 때 그 친구들은 심심하고 공허해 합니다. 대학은 끝이 아닌 것을 꼭 알았으면 합니다. 대학은 여러분의 꿈을 진정으로 실현시킬 때 필요한 발판입니다. 그 발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밟고 뛰어올라 원하는 것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스포츠과학과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전주대학교 운동처방학과 유준희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팔에 화상을 입어서 어려서부터 재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또한 재활과 관련된 과를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운동처방학과가 아닌 물리치료학과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알아보면서 운동처방학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제 성격과 더 맞는 재활 관련 학과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 운동처방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을 때 운동이라는 글자가 붙어서 몸이 좋아야 교수님들이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능 끝나고부터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수능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살이 많이 썩 있었고 살을 빼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운동이 끝나고 나니 배에 복근이 보이고 몸에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 면접 또한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면접을 보러 가니 몸은 보지도 않고 정말 살벌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에 겁먹지 않고 당당히 크게 제 소신을 말하고 학과에 대해 공부했던 것들을 말하고 나니 정시 때 1:8에 경쟁률이었지만 붙게 되었습니다. 관련 학과와 자격증에 대해 공부하고 학과 홈페이지에서 커리큘럼 등을 살펴보고 면접을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저희 교수님이 첫인상이 많이 살벌하므로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전주대학교 운동처방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저희 학과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한 학과이므로 전라북도에 체육계는 저희 학과와 협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전, 운동대회 등에 문제없이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처방에 관심이 있고 의무트레이너에 관심이 있으면 저희 학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 졸업 후 기대되는 모습은?

제가 신입생 때에는 흔히 생각 하는 군기가 약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대학 생활에 태클을 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3학년이 돼서 드는 생각은 그런 군기 잡는 선배들이 있어서 선배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1학년 때 점심밥은 제 돈을 내고 밥을 먹지 않을 정도로 선배들이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또한 졸업하시고도 일자리 정보나 자격증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이미 도전했던 병원, 체육회, 태릉선수촌, 센터, 구단 등에 장단점을 들어보니 저는 의무트레이너가



되어 필드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저희 과는 교수님만큼이나 선배들에게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굳거나 예절 등을 몸에 배일 정도로 생활하다 보니 학군단 후보생을 하면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과에 들어온다면 공부도 중요하지만 선배들과 친해지고 동기들과 친해지는 것을 매우 추천합니다.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스포츠과학부(스포츠문화전공) 홍윤재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던 체육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체육교육과 진학을 목표로 고교생활을 하던 중 진로특강을 통해 체육엔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체육교사 뿐만 아니라 스포츠연구원 등 다양한 꿈이 생겨 체육에 대한 폭넓은 학문을 배우기 위해 관련 학과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을 배우면서 교직이수를 통한 체육교사의 길 또한 열려있는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의 스포츠과학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캠퍼스 시설도 좋고 1인 1전공제도 등 커리큘럼도 우수한 것 같아 선생님과의 상담 끝에 지원하였고, 합격하여 진학하였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입학을 위해 준비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입학 을 위해 1학년 때부터 내신관리와 리더십, 전공 관련 활동(교내 공모전, 동아리, 독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고교시절 시간 관리를 잘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들이고 플래너를 이용하여 일정이나 내신관리를 하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들이는 게 처음엔 무척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하는 제 모습을 보며 견디다 보니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며 필요했던 자료들은 학교 선생님과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부족한 정보들은 졸업생 선배와 해당 학교 재학생에게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며 총학생회장과 학생회(2년), 학급회장(1, 2학년), 동아리 부장, 학년 주장을 하였습니다. 독서 활동은 체육과 관련된 도서(스포츠과학, 체육교육 등)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 배우는 과목과 관련된 도서(법과정치, 사회문화 등), 인문학 관련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했습니다. 봉사활동은 재능기부봉사(체육 - 축구, 농구), 헌혈, 교내봉사(교문지도, 급식도우미, 체육관 청소, 자율학습실 청소 등), 체육단체 관련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활동은 배드민턴 2년, 야구 1년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스포츠과학부에 합격한 이유는 3년 동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였고, 학교 인재상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스포츠과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은 교내 혹은 주변 학교에서 진행되는 ‘체육거점학교’입니다. 토요일 오전에 체육거점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로 찾아가 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수업 혹은 체험을 할 수 있고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 관련 학과에 진학을 위한 추천도서는 국가대표 심리학(김병현), 긍정의 멘탈 트레이닝(김범준, 천성민), 스포츠 사이언스(TV조선 스포츠부, 이정찬), 스포츠 마케팅 쏘개기(이승용)이라는 도서를 추천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체육과 관련된 학문(교육학, 마케팅, 산업, 심리, 생리학, 해부학 등)에 대해 배우고, 실기과목(수영, 체조, 육상 등) 또한 배우는 중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1인 1실기 특기종목 제도가 있어 6가지 종목(축구, 농구, 골프, 테니스, 태권도, 뉴스포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졸업 때까지 배웁니다. 입학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은 입학 전에는 체육교사라는 하나의 꿈만 가지고 입학을 하였지만 학교를 다니며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현재는 체육교사라는 꿈 외에 희망하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학교에 대한 만족감은 매우 높습니다. 군기도 없고, 배우는 과목들도 모두 만족스럽고 시설 또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수영장, 지하철 등 교내 시설들이 더욱 발전할 예정이라 기대 또한 높습니다.

요즘 멘토링 프로그램에 가장 몰두하고 있습니다. 체육재능기부봉사, 후배멘토링, 학과 멘토링 등 다양한 멘토링을 통해 저의 경험을 나누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입니다. 학과명이 스포츠과학부라 스포츠과학과 관련된 수업들만 있는 줄 아시지만, 마케팅, 교육학, 영양학 등 스포츠와 관련된 학문도 배우고 교양 과목을 통해 학과에 상관없이 많은 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졸업 후 기대되는 모습은?

졸업 후 대학원진학, 체육교사, 스포츠강사, 스포츠마케터,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뿐 아니라 창업을 통해 자영업을 하는 선배도 많습니다.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마케팅이나 교육학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 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목들이고, 제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자격증에는 스포츠지도자 자격증과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있고, 사단법인 자격증으로는 스포츠마사지, 스포츠테이핑, 심판, 지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이 있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연극·영화

연극·영화 영역은 극중 인물로 분장하여 관객 앞에서 몸짓과 대사를 연행하는 연극과 연속 촬영한 영상을 스크린 등의 매체에 투사해 상영하는 영화 등을 포함한다. 이 분야는 연기, 연출, 음향, 조명, 특수효과, 극본 등 다양한 예술적 기술적 결합을 통해 실현되며, 관련 분야로는 연극, 영화, 방송연예 등이 있다.

연극
영화

연극

연극 분야는 희곡을 바탕으로 연출자의 지도에 따라 분장, 음향, 조명 등의 장치 효과를 빌어 연기자가 특정 장소에서 몸짓과 대사로 연기를 하여 작품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분야이다. 문학, 음악, 미술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한 습득을 기초로 하여, 연기, 희곡, 무대미술, 무대기술, 무대연출 등에 대하여 연구하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연극연기, 뮤지컬연기, 무대기술, 호흡과 발성, 연극개론, 희곡이론, 공연제작실습 등이 있다.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남주희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연극연출이라는 분야가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지 않는 분야이기에 정보가 많지 않았던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진중권의 미학오디세이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노트를 만들었고, 공연을 보고 스스로 감상문을 적으며 공연에 대한 제 느낌과 생각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내가 연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극연출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연출가의 기술_케이티 미첼> 책을 추천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좋고 다양한 극장의 공연들을 관람하길 추천합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전공에 기초가 되는 교과목은 문학입니다. 물론 연극과 영화를 전공하기 위해선 당연히 나머지 분야에도 충실해야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극과 영화는 인문학적 종합예술로 볼 수 있는데 나를 알고 사람을 알고 나아가 사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창작'입니다. 수업의 방향성이 대부분 창작에 방향성에 두고



있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수업이 많습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연극영화학과라고 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학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창작수업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것들은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 새롭게 표현해 낼 수 있어야 하기에 어느 학과보다도 더 넓은 지식과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연극영화학과이지만 연극과 영화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지만 자신의 진로가 공연예술인 연극인지, 영상예술인 영화인지 구분해 진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연극부만의 특별한 점

연극과 뮤지컬을 직접 만드는 실습 수업에서 타 학과와 콜라보를 이뤄 공연을 만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 의류학과와 함께 공연의상 제작을 하고 작곡과가 뮤지컬넘버를 만들고 실내건축디자인학과가 무대디자인에 참여하는 등 타 학과와의 교류가 많은 편입니다.

□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나요?

연극계통은 배우, 연출가 뿐 아니라 스텝 분야인 조명디자이너, 음악감독, 무대감독 등 스텝분야의 전공을 살려 진로를 정할 수도 있고 교직이수를 통해 선생님이나 교수가 되는 진로도 있습니다. 영화계통은 영화감독, 배급사, 방송사 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화

영화 분야는 기획단계인 프리 프로덕션, 제작단계인 프로덕션, 완성단계인 포스트 프로덕션, 배급유통 및 상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영화작업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의 이론과 제반 테크놀로지를 습득하고, 영화예술의 철학과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영화제작, 영화영상미학, 영화분석, 촬영, 조명, 음향, 극작, 편집, 특수효과, 영화연기, 영화사, 영화정책, 영화산업 등이 있다.

전주대학교 영화방송학과 명세은

□ 학과 선택 이유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영상을 자동적으로 자주 접하게 되었다. 재미로만 보던 TV프로그램들이 한 사람에게 많은 감정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껴 학습적으로 흥미가 생겼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동아리를 만들어 UCC와 단편영화 제작을 하면서 더욱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와 방송을 모두 배울 수 있는 학과로 결정했다.

□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예체능학과이기 때문에 수시 종합전형에서는 실기 + 면접인 곳이 많았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나만의 색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되고 싶은 감독, 만들고 싶은 영화를 생각했고 빈틈없고 확실한 이유를 찾으려 많은 생각을 했다. 또한 왜 이 꿈을 꾸게 되었는지 조금은 창의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꿈이라 진부한 이야기가 되었고 거짓을 말할 수 없어 힘들었다.

□ 힘든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 노력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은?

모든 면접에 대비했을 때 빈틈없이 확실한 이유를 말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감독이 아니라 왜 좋아하는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주제들을 연습했다. 또한 이쪽 진로를 생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에피소드를 추가했다. 두루뭉술했던 이야기들을 얼마나 어렸을 때였는지 누구에 의해 꿈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정말로 그랬던 것처럼 상상하고 외웠다. 그 노력으로 면접에서 조금 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생각될 수 있었고,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많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

□ 면접 준비 방법

면접은 대부분 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다대일의 면접형식이 대부분이었고, 사방에서 질문세례가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또한 출신 학교를 언급하면 안 되는 곳이 많았다. 실기 중에는 단편 영화를 보고 기법들과 내용을 서술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UFO'라는 사이트에서 단편영화를 닥치는 대로 많이 봤다. 기법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촬영기법이나 샷사이즈 등을 적어놓은 이론노트를 만들어서 틈틈히 확인하고 암기했다. 노트를 만드는 자체가 공부였다. 그리고 짧은 부분의 시나리오를 보고 분석하여 면접을 통해 말하는 방식도 있었는데, 시나리오 분석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 시나리오는 워낙 쓰는 사람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실제 면접을 볼 때 마지막 질문의 샷사이즈는 어떤 것이 좋을지 라는 질문이 있었다.

□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

자기소개서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부터 준비를 했다. 틈틈히 담임 선생님, 국어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았고, 학교에 따라 마지막 질문이 달랐기 때문에 해당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양식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했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활동한 것은?

영상 동아리가 없어서 'MCM' 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단편영화를 제작했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영상을 찍는 동아리였기 때문에 공모전이 있으면 모두 참가했다. 수상한 작품은 '우리지역 역사 속 인물 다큐 - 양한묵'이었다. 또한 방송부에 들어가서 아침마다 라디오를 진행했다. 매일 밤 큐시트를 쓰고 30분 일찍 등교해서 직접 아나운서를 하면서 방송을 진행했다. 또한 심심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꿈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교과서에 나오는 고전소설이나 도서관에서 빌린 장편소설들이 많은 소재를 가져다 줬다. 대학에 진학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 했던 동아리 활동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의 기본인 것 같다. 조별활동과 스스로 창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

역사와 국어(문학, 비문학)가 많이 도움이 되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고 에피소드와 글이 제일 많은 교과목들이 나중에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다.

□ 주로 배우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실기위주의 수업들을 배우고 있다. 영상제작기초, 방송제작워크샵, 촬영초중급, 편집초중급, 음향초중급. 실기 외에도 문화예술교육개론, 영화사, 영상문법 등 이론적인 학문도 2학년 이내로 모두 배울 수 있다. 학교에선 방송보다는 영화중심으로 배우며, 파트별로 촬영, 음향, 편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학교(학과)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감, 만족감은 어떠한가요?

영화에 대한 커리큘럼은 비중이 크지만 그에 비해 방송에 대한 커리큘럼은 다양하지 않다. 수업도 적은 편이다. 하지만 모든 실기수업은 만족하고 있다.

□ 요즘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무엇인가요?

요즘은 방송제작워크샵 수업에서 7분 내외의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이다. 촬영 구성안을 짜고 직접 섭외하면서 다큐를 제작하고 있다.

□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우선 영화과라고 하면 직업군에서 무조건 '감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출 외에도 편집, 조명, 촬영, 제작 등 많은 분야가 있고 모두 연출과 같은 비중이며, 고생이 따른다.

□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영화나 방송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신문방송학과, 연극영화과, 영화영상학과 등 비슷한 이름의 학과에 대해 궁금해 한다. 우선 신문방송은 조금 더 학문적이고 연극영화과는 카메라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이 진학한다. 하지만 영화방송학과는 이론과 실기를 모두 배우지만 철저히 카메라 뒤의 스태프들에 비중이 맞춰져있다.



□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졸업한 선배들은 보통 방송사, 영화현장으로 투입된다. 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현장에서 시작해 메인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한다. 주로 상업영화 촬영현장에서 독립영화 감독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된다.

□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더 배우고 싶은 분야는 촬영과 편집이다. 사실 아직 전공을 정하지 못했다. 연출과 편집 중에서도 고민이 되는데 연출은 모든 분야를 알고 있어야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모든 실기전공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편집도 비슷한 이유이다. 편집을 하려면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야하고 편집점이 튀지않게 카메라의 샷사이즈와 조명 값까지 다 알고 있어야한다.

□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프리미어 자격증과 파이널컷 자격증이 있고, 미술부에서 필요한 자격증은 일러스트, 포토샵 자격증이 있다. 또한 운전면허가 있다면 어디서든 도움이 될 수 있고, 제작부로 적합하다.



미 술

미술 영역은 회화, 조소, 공예, 디자인 등의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생활공간을 보다 윤택하게 2, 3차원 공간에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을 위한 이론과 전시 기획 등을 연구하는 영역이다. 관련 분야로는 공예, 디자인, 순수미술, 응용미술, 미술학 등이 있다.

디자인

디자인 분야는 인간생활의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디자인 전반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기초디자인, 조형실습, 문자디자인, 패턴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브랜드디자인, 편집디자인, 디자인마케팅, 색채학 등이 있다.

강남대학교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전공 서준원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예전부터 미술을 배웠었고 하게 되면서 미대에 입학하게 되었다.

□ 준비방법

1)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수시(실기)

2) 대학입학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힘들었던 것은?

수시(실기)를 준비하기 위해 미술입시를 하게 되었지만 하면서 힘들어도 즐겁고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했다.

3)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활동한 것은? 미술 동아리 활동

4)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미술 실기는 잘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운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의 상황마다 분위기나 본인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다.



□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1) 배우는 것은?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포토샵, 일러스트

2) 입학 전과 후, 달라진 모습은?

스스로 시간관리를 더 잘할 수 있고 분주해진 나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 가장 몰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은? 우리 학교 홍보대사인 늘품의 활동이다.

4) 전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면?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을 들었을 때 비주얼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공예를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니버설디자인,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배운다.

공주대학교 조형디자인학부 세라믹디자인학과 김지희



안녕하세요! 대학생 전공멘토단으로 활동하게 된 김지희입니다. 글로나마 짧게 제 전공과 그에 따른 장단점, 생활 방식, 진로 등에 대해서 전해보려고 해요.

제가 진학 중인 공주대학교는 '조형디자인학부'라는 이름 아래, 공예와 디자인을 전부 습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어요. 더 세부적으로는 세라믹(Ceramic), 주얼리(Jewelry), 퍼니처(Furniture) 이 세 가지 학과로 나뉘어져 학생들이 직접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세라믹디자인 즉, 도예를 선택해 배우고 있어요.

세 전공 중에서도 도자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단 한가지였습니다. 흙이라는 소재가 주는 익숙함 때문이었어요. 단지 디자인 전공 뿐 아니라, 공예의 기술력까지 익힐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학과를 선택하게 해준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공예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공부와 그림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두 가지를 병행하려다보니, 힘도 두 배로 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도 찾지 못해서 건강도 많이 나빠졌었어요. 누구나 다 겪는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문제에 정면 돌파하기 위해 다양한 공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친구들보다 학업에 치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학교에서부터 학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필요한 영단어를 암기하거나 요약정리 노트를 훑기도 했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어 그날의 학습 계획을 서로 점검하기도 하면서 대입을 준비했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선생님께서 해주신 조언을 전부 메모하고 일기 쓰듯 정리해 항상 앞치

마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부분은 눈에 띄는 색으로 표시를 해두어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연습 때마다 상기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조바심이 들 땐, 나를 잘 이해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 가장 큰 힘을 얻었던 것은 단연 미술수업과 그 수업을 이끄시는 미술선생님이셨습니다. 다양한 소재로 독창적인 작품 활동을 하며 유연한 사고를 기를 수 있었어요. 제가 지쳐할 때마다 좋은 책 구절과 함께 위로를 건네주신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입시를 버텨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때 읽었던 '오주석의 미 특강'이란 책은 꼭 추천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진부할 것 같지만 생동감 넘치는 묘사와 그림들로 그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만들고 있는 '금동대향로'를 모티프로 한 디퓨저 또한 이 책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에요. 고등학교 때 전혀 내 미래 진로와 관련이 없을 것 같다고 느끼는 분야도 언젠간 큰 행운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매사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전 요즘 문화재를 모티프로 한 생활용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키우는 고양이를 주제로 무드등을 만들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들을 흙이라는 소재로 표현해내는 작업에 큰 성취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부여받는데, 그 분야에도 관심이 생겨 한국장학재단의 대학생 교육 기부 사업을 통해 소외 계층 아이들의 미술 수업도 진행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예술을 접목해 보다 많은 사람이 예술을 학문이 아닌 하나의 놀이처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조만간 동물원 내의 인식 개선과 동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또한 구상하여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단순히 도예작업 뿐 아니라, 예술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제 전공 학과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도예를 전공하면 옹기 장인이 되는 거냐는 허무한 질문을 하곤 하는데, 저의 소개가 그런 편견을 깨주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후 세라믹디자인전공의 진출분야는 말 그대로 무궁무진해요. 개인 작업을 원하는 사람은 공방을 차리거나 작가 활동을 하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국립 미술관 내의 학예예술사, 큐레이터로 진로를 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시 기획 관련 회사로 취업,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로 활동하기도 해요.

어떤 과목에 관심을 갖고 학교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본인만의 확신과 굳은 신념이에요. 목적이 무엇이든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지향점에 최대한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끝없이 발돋움 하다보면 언젠가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 공예학과 진학을 꿈꾸는 모든 예비 미대생의 꿈이 이루어지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굳게, 굳게. 제가 항상 되뇌는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하던 굳게, 그리고 굳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남혜린



□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적부터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처음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느낀 것은 '광고천재 이태백'이라는 드라마를 보았을 때입니다. 그때 나의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의 디자인으로 세상을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이라는 시각 미디어가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진 채 예술 고등학교로 진학해 꿈을 더욱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꿈을 가지고 더욱 확장시키고자 현재의 산업디자인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 대학입학을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하였기 때문에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크게 세 가지로 조언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습'입니다. 저 또한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많은 연습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실제 면접 전에 저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고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면접을 연습하는 '모의면접'과 '예상 질문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대답'입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할 때 간혹 많은 친구들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너무 긴장해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동문서답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잘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접에서의 모든 질문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를 여러 번 읽어보고 작은 것이라도 잘 숙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두괄식으로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괄식으로 말하면 말하고자하는 것을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 면접관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면접관에게 잠시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면 대부분 흔쾌히 허락해줍니다. 그 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말'입니다. 간혹 마지막 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마지막 말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또한 면접을 준비할 때 항상 마지막 말을 준비했고, 면접에서도 마지막 말만큼은 자신감 있게 모두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첫인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접에서의 마지막 말이 마지막으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말로, 면접관에게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님이 마지막 말을 시키시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정중히 말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꼭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등학교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비교과 활동 즉, 동아리와 독서활동을 주로 활동하였습니다. 동아리의 경우 기존 동아리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었던 일러스트를 함께 그리고자 그리고 입시미술에서 벗어난 그림을 그리고자 매년 친구들과 함께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원하는 미술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를 관람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잘하는 실무능력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전공 지식을 쌓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중요시하지 않았던 자투리시간을 활용하여 독서활동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다독상과 독서 포트폴리오 최우수상을 비롯한 독서 관련 상을 다수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주력했기 때문에 저는 실무경험뿐만 아니라 전공지식까지 쌓을 수 있었습니다.

□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저는 아무래도 산업디자인학과, 예체능학과다보니 미술사관련 교과목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도서로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제가 읽을 도서 중 '이유 있는 디자인'과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illustration'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유 있는 디자인'을 통해 브랜딩 디자인의 과정과 디자이너의 책임과 자질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illustration'은 디자인관련추천도서로 늘 오를 만큼 유명한 책으로, 디자이너 입문자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나가기 좋은 도서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꼭 하고 싶은 말

디자이너를 꿈꾸고 있는 모든 학생 여러분!. 입시미술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때문에 지금 꾸고 있는 아름다운 꿈을 저버리지 마세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길은 있기 마련이니깐요. 지금도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꿈으로 삼지 마시고, 이를 넘어서 어떠한 디자인이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떠한 디자이너가 되어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을 꿈꾸는 사람이 되세요.

2018 전공멘토단의 전공 Story

부 록

2019학년도 신설학과(부) 현황



2019학년도 신설학과(부) 현황

지역	대학명	2019학년도
서울	삼육대	글로벌한국학과, IT융합공학과
	서경대	공연예술학부 연출전공, 실용음악학과 싱어송라이터 전공
	중앙대	소프트웨어대학, 예술공학대학
	한국외대	KFL 학부
부산	동아대	공예과
	신라대	항공학부(항공운항학전공, 항공서비스학전공, 항공정비학전공)
광주	남부대	한국어학과, e게임스포츠학과
	조선대	프리로스쿨학과
대전	대전대	빅데이터사이언스전공
	우송대	미래기술학부,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한밭대	IT시스템공학과, 융합건설시스템학과, 융합디자인학과
경기	가천대	신소재공학과
	용인대	(주간)스피드스케이팅(전공신설)
강원	가톨릭관동대	치위생학과
	강원대(춘천)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공학계열)
	강원대(삼척)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공학계열)
	상지대	부동산학과, 관광학부 관광개발학전공
	한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융합대학(빅데이터, 콘텐츠IT, 스마트IoT) - 미디어스쿨(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 데이터과학 융합스쿨(데이터테크, 입상의학통계, 디지털금융정보) - 나노융합스쿨(반도체, 디스플레이) - 미래융합스쿨(4차산업혁명, 디지털인문예술, 동북아지역, 융합관광경영, 의약신소재, 융합신소재공학)



지역	대학명	2019학년도
충북	극동대	일본문화관광컨텐츠학과
		군사학과
	서원대	소방행정학과
	세명대	기업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부
	유원대	영재보육학과
	청주대	항공학부(항공서비스학전공, 무인항공기학전공)
충남	백석대	관광학부 글로벌호텔비즈니스
전북	우석대	물리치료학과
	원광대	반려동물산업학과
	호원대	K-POP학과
전남	목포대	해양수산자원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세한대	항공ICT융합학과
	순천대	단과대학(미래융합인재대학) 사회서비스상담학과
경북	경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김천대	공연예술학과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융합학과
	안동대	생명공학부[생명과학전공/생명백신공학전공(신설)] 창의융합학부(신설)(인문사회계열/이공계열)
	위덕대	한국어학부
경남	가야대	병원경영학과
	경남과기대	데이터융합학부(데이터사이언스전공, 스포츠매니지먼트전공)
	경남대	바이오융합학부(식품개발학전공, 생명공학전공, 화장품과학전공), 식품영양학과
제주	제주대	의예과

2018년도 전공멘토단의 전공Story

인 쇄 2018년 11월

발 행 2018년 11월

발 행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 대입상담센터

주 소 085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A동 23층
TEL. 02-6919-3858
FAX. 02-6919-3869

인 쇄 처 형제아트(주) TEL. 02-2268-1216

